개 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역사편

자료제공 (가나다순)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국립경주박물관
국립대구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불교중앙박물관
영남문화재연구원
해인사성보박물관
NAVER
일본 쇼소인
권덕영
이영호

일러두기

1. 본 개요서는 신라의 태동에서 고려에 복속된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2. 연구총서의 내용을 정리 · 보완하여 역사편과 문화편으로 구분, 서술하였다.
3. 전문성을 갖춘 일반 교양서의 수준으로 정리하였다.
4. 집필자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집필자 중에서 선정하였다.
5. 원고는 집필, 편집 후 실무진의 교열과 감수를 거쳤다.
6. 외국어 번역판은 국문 원고를 토대로 번역하였고, 외국인 전문가의 감수를 거쳤다.
7. 사진자료는 연구총서 및 자료집의 것을 사용하였다.
8. 외국어 표기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정리하였고, 고유명사의 영문표기는 로마자표기법을 따랐다.

경상북도

발 간 사

천년왕국 신라는 한민족 최초의 통일대업을 완수하고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특유의 개방성과 진취성으로 실크로드를 오가며 문물을 교류한 세계국가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라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집대성한 역사서가 없어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 왔습니다. 이것이 신라의 터전인 경상북도가 편찬사업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손으로 민족의 뿌리찾기 사업을 펼친다는 역사적 소명도 함께 했습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는 가장 큰 규모의 신라사 편찬사업이라 여겨집니다. 신라의 모태가 되었던 사로국의 출현에서부터 고대국가체제로의 발전, 한민족을 아우른 삼국통일의 완성, 고려로 이어진 신라의 전체 역사를 시대적 흐름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 신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이해를 높였습니다.

천년에 이르는 신라의 역사를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한 연구총서를 집필하고 발간한다는 것은 정말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신라가 만들어낸 역사와 문화는 그 정도의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가치가 충분한 민족의 자산이며 우리 문화의 원류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은 2011년 '신라사 어떻게 쓸 것인가' 학술대회 개최를 시점으로 완성되기까지 장장 5년간의 대장정이었습니다. 국내의 신라사 전문가 136명이 힘을 모은 역작으로 총 30권, 1만 2천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이는 오로지 편찬위원, 편집위원, 집필진의 지혜와 열정의 산물입니다.

무엇보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은 단순한 과거의 정리가 아닙니다. 그를 통해 위대한 민족사의 한 부분을 정리하고 민족 자존을 되찾고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편찬의 성과는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역사교육의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세계와 교류했던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봅니다. 천년의 역사 속에 아로새겨진 수많은 이야기, 신화와 전설, 문화유산은 우리에게는 문화콘텐츠의 바탕이 되어 문화 관광산업의 마르지 않는 원천이 될 것입니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르네상스가 암울한 중세를 종식시켰고, 산업혁명이 근대사회를 형성하였다면 21세기에 접어든 지금의 세계는 문화혁명의 시기입니다. 또 스마트라는 이름으로 물질문명의 발전이 극을 달리는 시대입니다. 이 첨단 기술혁명의 시대에 '우리'라 부를 수 있는 정체성이야말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정신적 가치가 되리라 믿습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해왔지만 변치않는 역사의 가치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징검다리가 되어 미래의 우리 삶을 규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일 것입니다. 이미 신라는 오래전 사라진 나라이지만 우리는 그 역사와 문화를 통해 현재를 살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를 찾는 것은 우리의 정신과 혼을 찾는 일입니다.

더욱이 경상북도는 도청을 안동·예천으로 이전하고 새로운 경북시대의 힘찬 출발을 온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러한 새 출발의 시기에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완성은 그 의미가 크게 다가옵니다. 새로운 천년을 여는 경북의 여정에 정신적·문화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의 편찬이 또 다른 시작의 서막이기를 바라며, 국민의 역사의식 함양에 길이 남을 대중 역사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민족사에 길이 남을 사서를 만든다는 사명감으로 혼신의 열정을 다해주신 집필진 및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6년 12월

경상북도지사

편 찬 사

신라 천년의 역사 가운데 처음 700년 이상은 삼한 열국列國 중의 한 나라인 사로국斯盧國으로 출발, 일전一轉하여 왕국으로 비약한 뒤 선진 고구려·백제와 더불어 정립鼎立의 형세를 이룬 기간이었습니다. 이렇기에 삼국통일 이전의 장구長久한 한국고대사는 어떤 한 나라를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로지 삼한 및 삼국 전체의 유기적인 틀 속에서 파악할 때만 비로소 그 진정한 이해를 담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반세기半世紀 동안 한국고대사의 여러 부문에서 눈부신 연구상의 진전을 보았으므로, 그 풍성한 성과를 편의상 각 나라 별로 총정리·집대성하는 노력이 줄곧 시도되어 왔습니다.

한국사 연구에서 정치적 목적을 앞세우는 북한 당국이 일찍부터 고구려를 삼국의 정통으로 간주하고, 백제와 신라를 그 부용附庸국가로 폄하하는 입장에서 고구려사 연구에 온갖 힘을 쏟아 온 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간 우리 쪽에서도 가야사와 백제사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는 야심찬 시도가 없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 말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에 가야사정책연구위원회를 임시로 두어 가야문화권 개발과 정비를 위한 학술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대 초까지 수년 간 김해지역의 가야 사적史蹟정비와 더불어 가야사와 가야고고학의 연구 성과를 종합·정리하는 사업이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를 추진기관으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또 10여 년 전에는 충청남도의 예산지원 아래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주관으로 3년 간에 걸쳐 연구총서 15권을 비롯하여 각종 문헌·고고학자료를 수록한 『백제문화사대계大系』 25권을 발간하여 학계에 비익裨益한 바 매우 컸습니다.

이같은 추세와 동향에 비춰볼 때 경상북도가 2011년 12월 경북문화재연구원을 책임기관으로 하여 본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사업에 착수한 것은 좁게 보면 경북 전통문화의 뿌리가 되지만, 넓게 보면 우리 민족사의 근간根幹이 되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를 현단계에서 총정리함으로써 그 빛나는 전통을 재정립再定立하려는 뜻깊은 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신라사에 대한 연구는 한국고대사 연구의 견인차 구실을 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고대사 연구 자료의 쌍벽雙璧인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대개 신라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고, 그 보조사료인 비문碑文 등 금석문金石文자료도 신라가 압도적으로 풍부하며 또한 신라사회의 내부 정황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목간木簡만 하더라도 백제에 못지 않게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현재 우리들은 삼국 중 신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셈입니다. 신라는 성장 과정에서 정치·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의 영향을 받은 바가 많았습니다. 이는 역逆으로 생각한다면 신라의 문물이나 사회제도를 갖고서 자료가 없어 잘 알기 어려운 고구려·백제의 그것을 유추類推해 볼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한국고대사학계에서는 신라에 대한 지식을 토대로 고구려·백제·가야 세 나라 역사 이해의 기초를 잡아가는 추세라고 하겠습니다.

본 편찬위원회는 신라의 역사와 문화를 다룬 연구총서 22권과 자료집 8권, 그 밖에 전체 개요概要 2권의 한국어판과 그에 대한 3종의 외국어판을 펴냄에 있어 그것이 한낱 향토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을 촉발시켜 애향심愛鄕心을 고취하는 차원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도 한국고대사를 복원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이랄까 사명감에서 편찬에 임했습니다. 다만 140인 가까운 전문 연구자의 협력을 얻어 270편의 글을 모은 대부서大部書를 엮는 거창한 사업인 만큼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온갖 난관에 부딛쳤으며, 이 때문에 경북도청 이전移轉사업과 연계되어 있던 본 총서의 출간이 예정보다 2년 정도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 끝까지 인내忍耐해 준 경상북도 당국의 넓은 양해諒解에 감사하며 특히 역대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로서 편찬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한 이주석·주낙영·김현기·김장주 님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또 편찬위원회의 전적인 위임을 받아 5년 가까운 기간 동안 제반 편찬실무를 훌륭하게 집행한 편집위원회의 노중국·주보돈·이희준 교수와 경북문화재연구원의 이동철 선생의 헌신적인 노고에 편찬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6년 12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위원장 이 기 동

개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역사편

목 차

들어가면서

시기 구분

신라는 경주분지에 위치하였던 사로국斯盧國을 모태로 해서 성립한 고대국가이다. 사로국이 성장해 가던 중 비슷한 성격의 여러 정치세력들을 예속시켜 규모가 차츰 커짐으로써 드디어 구체적 모습을 드러낸 것이 신라였다. 그런 의미에서 사로가 오직 경주분지만을 가리킨다면 신라는 그를 구심점으로 해서 넓은 영역을 포괄하는 뜻을 지닌 국명이라 하겠다. 신라가 출현한 뒤 점차 지배체제를 갖추게 되자 원래의 사로 경역은 이제 그 왕도로서 자리 잡았다. 사로와 신라란 용어가 때로는 혼용되기도 하지만 내포된 의미에서는 엄연하게 차이가 났다. 신라가 큰 범주라면 사로는 그 속의 한 부분이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신라의 역사라고 하면 공간적으로는 사로국이 영역을 확장해 몸체를 크게 불려가는 과정이 되며, 시간적으로는 그 모태인 사로국이 형성되는 시점부터 멸망할 때까지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다.

문헌기록에 따르면 신라의 건국은 서기전 57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사로국을 포함한 시점이 되겠다. 이 기년은 기록의 성격상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지만 편의상 그를 기준으로 삼아 말한다면 신라가 멸망하는 시점이 935년이므로 신라의 역사는 줄잡아 천년에 이르는 셈이 된다. 그래서 흔히 신라 천년의 역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사로국을 모태로 한 신라는 수많은 굴곡을 거치면서 발전해 갔다. 그를 하나의 시간적 틀 속으로 집어넣게 되면 그 역사의 전개 양상을 체계적으로 그려내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큰 변동을 보이는 특정한 몇몇 변곡점變曲點들을 기준으로 시기를 잘게 나누어서 이해해 보려는 시도를 한다. 그럴 때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이 신라에 의해 삼국 통합이 이루어진 때이다.

삼국 통합은 이미 신라 당대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 왔다. 당대인들이 그 무렵을 커다란 변동기로 보았음을 의미한다. 이로 말미암아 이 시점에 대해서 『삼국사기』에서는 상대上代(서기전 57-서기 654)로부터 중대中代(654-780)로의 전환기, 『삼국유사』에서는 중고中古(514-654)로부터 하고下古(654-935)로의 전환기라 설정하고 있다. 한편, 근대역사학에서도 삼국 통합 이후에 대해 통일신

라란 용어를 창안해 사용함으로써 그 이전의 삼국시대 신라와 뚜렷이 구분하고 있다. 이로 보면 일단 신라의 역사는 통일기의 출발점인 654년을 기준 시점으로 해서 전후하는 두 시기로 나누어 이해함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이는 신라사의 전개 과정에서 삼국 통일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크게 인식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한국사 전체 속에서 신라 통일에 내재된 의미와 의의에 대한 이해가 한결같지는 않으며, 논자에 따라 입장이 다양하다.

그런데 두 시기 각각은 다시 몇 개의 작은 시기로 나누어 이해해볼 여지가 있다. 통일신라는 『삼국사기』에 따르면 다시 전반부의 중대와 후반부의 하대下代(780-935)로 나뉜다. 각각의 정치와 사회가 크게 변모한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한편 그 이전의 신라를 『삼국유사』에서는 상고上古(서기전 57-서기 514)와 중고의 두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이 또한 그 두 시기 사이에는 구분해야 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다. 상고는 설정된 기간 자체가 매우 길 뿐만 아니라 내부를 들여다보면 다시 세분해서 이해해야 할 정도로 크게 변화를 겪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래서 상고는 17대 나물왕(356-402)이 즉위한 356년을 분기점으로 해서 전기와 후기로 세분할 수가 있다. 이때는 곧 사로국 단계를 벗어나 신라가 출현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상과 같이 보면 신라 천년의 역사는 일단 크게는 두 시기, 이를 다시 세분하면 5개의 작은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는 잠시 문헌기록을 받아들여 서기전 57년을 사로국의 출발점으로 잡았지만 거기에 앞서 그 기반이 갖추어져 가는 일정 기간을 함께 고려해 또 다른 1개의 기간을 추가한다면 전체 6개의 소시기로 설정 가능하다. 이들 각각의 시기에는 나름의 정치적·사회문화적 함의가 내재해 있으므로 신라의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낼 수 있을 터이다. 본론에서 그런 시기 구분을 기준으로 해서 편篇과 장章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복원 자료와 접근 방식

신라 역사를 복원하는 데에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기본 사서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여느 나라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신라사의 초창기 모습도 모호하기 그지없다. 그 실상을 알려주는 문헌 기록이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내용은 신화나 설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그것이 뒷날에 이르러 정리된 까닭으로 후대적 요소가 적지 않게 가미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남아 전하는 기록 그대로를 역사적 사실로 믿고 따르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신라 초기의 역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앞서 설정한 상고기 가운데 각별히 전기를 가리킨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라가 아닌 사로국의 역사인 셈이다. 일반적으로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 가운데에서 그 시기를 주된 대상으로 삼은 기록들만을 유독 '초기기록'이라고 명명하여 특별하게 다루고 있다. 그 이유는 기록의 사실성 여하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긍정론, 부정론, 수정론으로 크게 엇갈려 있다. 일반적으로는 수정론의 입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그것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일률적이지 않음이 드러난다. 대체로 초기기록이 보여주는 기년紀年, 왕명王名, 기사記事를 각각 분리해서 이해한다. 수정론자들은 왕명이나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조작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각 기사에 대해서는 특히 뒷날의 일이 소급 부회된 것으로 본다. 이 기사들을 기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으면서도 실제로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는 크게 입장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삼국사기』의 초기기록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당대로부터 그리 멀지않은 3세기 말에 정리된 『삼국지三國志』 위서魏書 동이전東夷傳의 삼한三韓조가 보여주는 내용과는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동일한 시기를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두 사서의 내용을 대비하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이를테면 전자에서는 이미 신라를 하나의 왕조국가가 성립한 상태로 그려 놓았다면 후자는 그 모태인 사로국이 진한연맹체의 일원으

로서만 설정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는 어느 한 쪽이 잘못 기술되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둘째, 지금까지 발굴 작업을 통해 확보된 고고 자료를 근거로 초기기록을 점검하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이다. 초기기록에 보이듯 서기전 1세기부터 경주분지가 줄곧 신라라는 넓은 영역을 가진 정치체의 중심지였다고 단정할 만한 고고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셋째, 금석문과 같은 자료를 초기기록과 대비하면 6세기 이후의 일들이 수백 년 정도 소급 기술된 사실이 적지 않게 확인된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관등제官等制나 6부제部制와 같은 사례를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다. 넷째, 초기기록에는 상식적 수준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불합리한 사실이 적지 않게 보인다는 점이다. 가령 부자父子나 형제, 혹은 조손祖孫 등의 혈연관계에서 연령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 합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항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상과 같은 몇몇 이유로 초기기록을 신라사 복원의 대상으로 삼으려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철저한 사료비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자칫 극심한 역사 왜곡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다루어야 마땅하다. 그러므로 고고 자료나 금석문 자료에 비중을 두고 접근하면서 그를 극히 한정적으로 다루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다.

초기기록의 주된 대상인 상고의 전기는 엄밀히 말하면 신라사라기보다는 사로국의 역사로 이해함이 적절하다. 신라사의 입장에서 사로국을 다루는 데에는 크게 전기론前期論과 전사론前史論이라는 서로 다른 두 입장이 나뉘어 있다. 전사론은 사실상 사로국의 역사를 신라사의 일부이기는 하나 그 모태로서 다루는 입장이다. 따라서 신라 본사本史와는 대등하지가 않다. 반면 전기론은 사로국 단계를 신라의 역사 속에 정식으로 넣어 취급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전기론은 승자 혹은 중앙 중심의 결과론적 이해이므로 문제가 된다. 사로국이 신라의 모태이기는 하였어도 그 자체가 바로 신라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로국은 어디까지나 진한辰韓 연맹체의 12개 구성 세력 가운데 하나였을 따름이다. 전기론의 입장에 선다면 자칫 여러 다양한 요소를 사상捨象하기 쉬워져 초기사의 내용을 매우 빈약하게 만들 위험성이 뒤따른다. 따라서 가능하면 전사론적 시각에서 초기의 역사를 다루는 것이 올바르다. 오직 사로국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정치세력과 문화가 신라를 구성하는 요소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리적 환경

자연은 인간이 삶을 영위해 가는 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언제나 그에 순응하면서도 동시에 적절히 도전하고 활용함으로써 한계를 극복하고 마침내 문명을 일구어내었다. 그런 과정을 밟아가면서 능력을 키운 인간은 스스로를 개조시키기도 하였다.

자연을 이루는 여러 다양한 요소 가운데 인간의 삶에 가장 크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단연 지리·지형을 손꼽을 수 있다. 인간은 지리적 환경을 적절히 이용해 주거지를 결정하고 정착해 농경생활을 영위하면서 취락을 이루고 생산력을 향상해 갔다. 그를 토대로 계급이 분화하고 정치세력이 출현해 마침내 국가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정치체가 형성, 발전해 가는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리적 요소는 반드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주요 대상이다. 다만, 똑같은 여건이라도 그것을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띨 수가 있다. 그러므로 지리·지형은 인간생활에 작용하는 절대적, 결정적 요소는 아니며 어떤 인간과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상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신라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친 불리를 극복하고 마침내 삼국 통합에 성공한 사실이 그런 사정을 뚜렷이 입증해 준다.

한반도는 산악이 압도적으로 많은 지형을 특징으로 한다. 동쪽이 높고 서쪽이 대체로 낮은 이른바 동고서저형東高西低形의 지세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은 동쪽에서 발원해 서쪽으로 흘러들어 간다. 북쪽의 개마고원에서 시작한 높은 산맥은 동해연안 쪽으로 치우쳐 그와 나란하게 남쪽으로 쭉 내달리면서 몇몇 지점에서 서쪽으로 뻗는 지맥支脈들을 만들어내었다. 그러다

가 강원도의 남단에 이르러 그 주맥主脈은 서남쪽으로 방향을 크게 틀어 반원을 그리면서 남해안에 가 닿는다. 한반도의 기본 줄기를 이루는 그런 척량脊梁을 흔히 백두대간이라 일컫는다. 백두대간의 한 지맥은 강원도 남부에서 점점 낮아지면서 그대로 계속 부산 방면을 향해 달려 남해안에 닿는다.

신라의 주된 공간적 영역이라 할 영남권은 반원의 안쪽에 자리하고 있다. 동쪽과 남쪽은 바다이며, 북쪽과 서쪽은 백두대간으로 가로막혀 있다. 영남은 그 바깥과는 단절되어 마치 하나의 별개 공간처럼 떨어져 있는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한반도 전체로 볼 때 그런 점이 주요한 지리적 특징의 하나로 손꼽힌다. 강원도와의 경계에서 발원한 낙동강은 영남의 중앙부를 관통하면서 곳곳의 산지에서 생성된 여러 지류를 합류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마침내 남동쪽의 김해지역에서 남해로 흘러든다.

완만하며 유로流路가 긴 낙동강은 비교적 유량이 많아 쉽게 범람하였으므로 곳곳에다가 충적평야를 만들어 농사가 가능하게 하였다. 낙동강 본류와 그 지류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인근의 곡간谷間에는 부근에 만들어진 충적평야를 근거로 해서 비교적 많은 사람이 거주하였다. 이 지류들의 상류 곳곳에는 낮은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독립성이 강한 전체 70여개의 분지가 형성되었다. 그 각각의 분지는 사람이 살기 시작한 이후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고을로서 기능하였다. 처음 취락이 형성되던 초기에는 낙동강 본류와 그 지류들이 만나는 지역의 부근에 가장 많은 사람이 거주하였다. 이는 낙동강이 그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교류하고 교섭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해 삶에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낙동강을 영남의 젖줄이라고 일컫는 것도 지나친 표현만은 아니라 하겠다. 신라국가의 발전 과정에서 낙동강이 차지하는 의미가 작지 않았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영남권은 크게 동서로 나뉜다. 원래 큰 강은 그 용도 여하에 따라 기능에서 크게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인간과 물류의 이동이 가능한 교통로로서 주로 활용된다면 강은 아무리 크더라도 상호 소통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오래도록 낙동강은 그런 기능을 담당하였다. 그럴 때 특정한 지역이 여러 모로 매우 유리할 수가 있다. 이를테면 낙동강 어귀에 있는 김해를 기

그림 1 한반도 지형도

반으로 삼은 정치세력이 초기국가의 형성기 및 변한弁韓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유력하였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거기에 문제가 생겨나 소통이 단절된다면 서로를 가르는 경계선이나 국경선으로 기능하게 마련이다. 광개토왕의 병력이 400년 남정南征한 뒤부터 가야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하였다. 이처럼 영남권에서는 낙동강이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초기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로국은 경주분지라는 좁은 공간을 발판으로 해 신라로 발전해 나갔다. 경주분지의 환경적 여건은 사로국이 다른 정치세력을 제압하고 신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였다. 경주분지는 내륙 방면에서 육로를 통해 바다로 나아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상의 주요 결절지結節地에 위치한다. 한편 동해연안에 가까워 바다로부터 내륙으로 들어가는 데 거쳐야 하는 관문지關門地로서 기능할 만한 곳이다. 말하자면 경주분지는 내륙과 해안을 모두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다. 신라는 경주분지를 중심부로 하면서 영남권을 기본 공간으로 삼아 발전하였다. 영남의 지리적 환경은 거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신라사의 특징과 한국사에서의 의의

신라는 성장 발전해가는 데서 지리적 특수성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북방의 정세가 남쪽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지적된다. 그로부터 생겨난 유이민이 끊임없이 남하함으로써 남쪽 사회 전반에 걸쳐 파장을 몰고 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들의 규모가 작았을 때에는 선주한 주민과 문화 속으로 쉽게 흡수되었지만 많았을 때에는 크게 영향을 미쳐 변동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북방에서 선진문화와 정치를 충분히 경험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와 같은 주민 이동의 파장이 대체로 마무리되는 것은 313~4년에 고구려에 의해 낙랑군과 대방군이 소멸되면서부터였다.

그림 2 경주를 중심으로 한 교통도(『여지도』 경주부)

영남권은 서북방 및 만주 일대에서 발생한 유이민과 문화가 한강을 거치거나 동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해 최종적으로 정착하게 되는 마치 주머니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다양한 갈래의 주민과 문화가 결합되는 무대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라를 구성한 주민이 한족韓族이라고 통칭되지만 그러나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았다. 물론 지배층으로 참여한 주류들이 한족임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조선, 예, 맥, 말갈, 한漢, 왜倭 등도 다소간의 정도와 시차는 있지만 단속적으로 합류해 신라의 주민과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였다. 그들 각각이 보유한 선진의 다양한 문물도 신라의 국가 형성 과정에서 융합되어졌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신라의 주민과 문화는 대륙과 해양으로부터 들어온 여러 계통의 그것이 오래도록 한데 어우러져 형성되었다는 점을 주요 특징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라인과 신라 문화를 보수성이 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골품제라는 특수한 신분제가 지니고 있는 배타성과 폐쇄성을 근거로 해서 내려진 결론이다.

그래서 그런 진단은 골품제에 내재된 특정한 요소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포장한 느낌이 없지 않다. 흔히 골품제를 인도 카스트제의 엄격성에 비추어서 이해하여 왔다. 그런 인식을 신라문화 전반에 걸쳐 강조함으로써 마치 신라문화의 본질이 시종일관 보수성, 폐쇄성을 지녔던 것처럼 규정한 것이다. 골품제를 그처럼 경직되게 이해하는 자세도 문제려니와 신라문화의 실제적 모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오랜 선입견에 바탕해 내린 결론이므로 타당하지가 않다.

물론 초기에는 신라가 지리적 불리함에 따른 문화적 후발주자였던 탓에 그렇게 비쳐졌을지도 모르지만 내부 체제가 일단 어느 정도 갖추어진 이후 선발주자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개방성, 진취성을 강하게 내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다. 현실에 안주하기만 하는 자세로서는 치열하게 전개되어 가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은 4~5세기에 조영된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에서 다양한 고구려계 문물을 비롯해 로만그라스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물품까지 출토되는 데서 뚜렷이 확인되는 사실이다. 또 불교 수용의 사례에서처럼 비록 공인되는 시점은 뒤늦었지만 일단 공인되자마자 그것이 봇물 터지듯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어 인근의 선진국을 압도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 그런 적극성과 개방성이 결여되었다면 신라가 삼국을 통합하는 최종의 승자가 될 수도 없었으려니와 통합된 국가를 250년 동안 유지해 가기도 곤란한 일이었을 터이다. 따라서 신라문화의 성격을 일방적으로 보수적이라 단정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매우 진취적이었다고 평가해야 마땅하다. 그런 점은 신라가 취한 대외 정책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사실 신라가 삼국통합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유능한 인재와 함께 그들이 발휘한 역량을 손꼽을 수 있다. 특히 각 시기의 지배층들은 대단한 외교적 능력을 갖고 있었다. 약자가 강자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강한 힘을 빌리고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신라는 통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삼국 가운데 가장 약자의 처지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압박해오는 백제나 고구려를 장기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때로는 고구려를, 때로는 백제를 적절히 이용함으로써 눈앞의 적대세력에 대항하였고 마침내 양자를 동시에 적으로 돌린 뒤에는 중국 세력을 일정 수준에서 활용함으로써 온갖 위기를 넘겨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다. 이는 지도층들이 오랜 기간 쌓은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국제정세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결단을 내림으로써 성취해낸 결과였다. 그런 의미에서 신라의 통일은 단순히 전쟁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교 중심의 제반정책이 성공한 결과라 풀이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입장에서 신라사를 되돌아볼 때 깊이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신라는 상당한 굴곡을 겪으면서 드디어 분립된 상태를 지양하고 온갖 정치세력을 하나로 묶어내는 데 성공하였다. 이로써 하나의 민족, 하나의 민족문화가 성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후 한국사의 전개 과정에서 다시 분열과 통합의 과정을 되풀이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하나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 시발점이 바로 삼국의 통합이었다. 그런 점에서 신라에 의한 통일은 신라사에서뿐만 아니라 한국사 전체에서도 하나의 획을 긋는 일대사건이었다고 평가하여도 무방할 듯하다.

제 I 편

신라의 성립과 발전

제 1 장

사로국의 형성

1 성립 전야

신화의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역사의 첫머리가 신화와 설화의 형식을 빌려 출발하는 데에는 거의 예외가 없다. 신라에서 창세創世신화는 현재의 기록상 보이지 않지만 건국과 관련해서 세 갈래의 신화·설화가 전해진다. 이 신화나 설화들 그 자체가 물론 역사적 사실일 수 없겠고, 또 전승의 과정에서 후대적 요소가 스며들어 오염이 적지 않게 진행되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자체가 완전히 후대의 창작이 아니라면 그 속에는 일정한 역사성과 함께 신라인들의 사유세계가 담겨져 있으므로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따라서 신라가 건국되어 가는 모습을 그려내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역사상을 추출하는 작업이 긴요하다.

현전하는 몇몇 사서에 의하면 신라는 박혁거세朴赫居世를 건국의 시조로 삼고 있었다. 그가 출현하기에 앞서 경주분지에는 스스로를 조선朝鮮 계통이라고 표방한 이른바 6촌村 집단이 이미 자리잡고 있었다. 이 6촌의 촌장들이 어느 날 알천閼川 주변에 모여 회의를 열었을 때 멀리 남산 자락의 나정蘿井 방면에서 이상한 기운이 뻗쳐 있어 그곳을 찾았다. 흰색의 말이 나정 곁에서 무릎

을 꿇고 절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늘로 올라가고 큰 자주색의 알만 남았다. 그 알을 잘라보니 어린아이가 나와 데려다 길렀다. 장성해서 마침내 즉위하였는데 그때가 서기전 57년이었다고 한다.

박혁거세의 등장과 관련한 내용 중에서 어느 부분이 역사적 진실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는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그 기년도 기록된 그대로일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오래전 사람들이 모여 살던 경주분지 바깥의 어느 다른 세계로부터 우수한 선진문물을 보유하고 들어온 새 집단이 지배세력으로 부상해간 내용을 그와 같은 형식을 빌려 상징적으로 드러내었다고 이해된다. 혁거세의 탄생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출현이라기보다는 그를 대표로 한 박씨족단의 경주분지 진출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겠다. 박씨란 성은 뒷날에 소급해 붙여졌지만 그 집단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문헌기록상 박혁거세의 등장과 함께 신라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 후예들이 줄곧 왕위를 이어간 것으로 설정되어 있지는 않다. 석탈해昔脫解란 인물이 다시 새로운 지배자로서 등장한 것이다.

석탈해는 혁거세와는 달리 그 출신이 막연한 하늘이 아닌 매우 구체성을 띤 점에서 특징을 보인다. 그의 출자가 다파나국多婆那國, 용성국龍城國, 완하국琓夏國 등으로서 내용을 달리하는 몇몇 기록이 전해진다. 원래 탈해는 그런 나라의 국왕을 아버지로 해서 큰 알의 형태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 일이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겨 알을 보물과 함께 궤짝에 넣어 배에 실어 보내었다. 떠돌던 배가 먼저 김해의 금관국金官國에 도착하였지만 그곳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겨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다시 신라 영역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석탈해는 박혁거세가 재위한지 39년째 되던 무렵 동해안의 아진포阿珍浦에 도착한 배 안에 실려 있던 궤짝으로부터 나왔다. 마침 바닷가에서 일하던 늙은 할멈이 배를 발견하고 당겨서 궤짝을 열었을 때 각종 보물들과 함께 아이가 있어 데려다 길렀다. 그는 크면서 학문과 지리에 통달하였고 마침내 경주분지 안으로 들어가 왜倭 출신으로서 혁거세를 보좌하던 호공瓠公이 살고 있었던 월성月城을 꾀로써 빼앗았다. 그 뒤 혁거세의 아들인 남해왕南解王의 딸과 혼인해 대보大輔로 임명되었다가 3대 유리왕儒理王의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고 한다.

석탈해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상당한 경험을 쌓은 뒤에 경주분지로 진출한 셈이 되는데 스스로 야장冶匠이라 칭한 것으로 보아 발달한 철기문화를 보유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다만, 그들은 수적으로 적었던 까닭에 경주분지로 진입한 뒤에도 한동안 실력을 쌓은 뒤에 유력자로 부상한 것으로 그려져 있다.

석탈해가 즉위한 지 9년째 되던 해에 월성 바로 인근의 시림始林이란 숲속으로부터 새벽에 닭울음소리가 들렸다. 대보였던 호공을 보내어 알아보게 하였더니 금색의 작은 궤짝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흰색의 닭이 울고 있었다고 한다. 궤짝을 열어보니 그로부터 어린아이가 나왔다. 탈해는 그 아이의 용모가 워낙 준수해서 하늘이 후사를 내린 것으로 여겨 거두어 길렀다고 한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 매우 총명하고 지략을 드러내어 알지閼智라 이름을 지어주고 금색 궤짝에서 나왔으므로 김씨를 성으로 삼았다. 이때부터 시림을 계림鷄林이라 고치고 국호로 부르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알지는 뒷날 신라의 왕위를 이어간 김씨족단의 시조로 설정된 인물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알지가 김씨의 시조였음에도 대보로 임명되었을 뿐 왕위에는 오르지 못하였다. 그로부터 6대가 지난 뒤 미추味鄒가 김씨로서는 처음 왕위에 올랐다.

이처럼 문헌상에서는 신라가 국가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나가는 과정에서 세 집단이 출현해 결합한 사실을 설화의 형식으로 전해주고 있다. 이는 그들 각각이 선후하면서 경주분지에 들어갔고 그 문화적 기반과 계통이 달랐음을 시사하는 사실이다.

4세기에 접어들어 김씨가 박씨와 석씨를 제치고서 최후로 단독의 세습체제를 굳혀 갔다. 그래서 신라는 사실상 김씨의 왕조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알지만은 왕위에도 오르지 못하였으며, 신라의 건국 시조도 아니었다. 단지 김씨족단의 혈통상 시조로만 설정되어 있을 따름이다. 김씨족단의 세습체제가 확립된 이후 어느 시점에 알지를 충분히 국조國祖로 만들 기회가 있었을 법한데 그러지를 않았다. 이는 뒷날 신라 역사가 편찬되면서도 그 세계世系나 왕명에 대해 의도적 조작이나 윤색을 거의 가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왕위가 혈연을 전혀 달리하는 집단으로 옮겨갔음에도 국명이 바뀌었다거나 왕조

교체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이는 일반적 사례에 비추어 매우 특이한 사례에 속한다. 그것은 세 성씨 족단이 최고지배자가 된 당시의 국가 성격이 뒷날의 그것과는 확연하게 달랐음을 뜻하는 사실로서 당시는 신라가 아닌 사로국이었음을 의미한다.

읍락의 형성

그처럼 건국신화나 설화 속에는 국가 성립의 원초적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만 그것이 출현하기까지의 과정이나 실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를 근거로 해서 신라의 초기국가가 형성되어 간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상당한 수의 주민이 경주분지에 정착하고 계급 분화를 토대로 점차 정치 세력화해서 마침내 초기국가인 사로국을 건국시키기에 이르는 실상은 부득이 고고 자료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을 수가 없다.

경주분지에 사람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시점을 뚜렷하게 가늠하기란 힘들다. 구석기인들이 살았던 구체적 흔적은 아직 발견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영남지역에서는 최근까지 수십 군데의 구석기 유적지가 확인되었다. 특히 가까운 동해연안이나 포항 및 울산, 밀양 등지에서는 발견 사례가 있으므로 경주분지에도 구석기인들이 살았을 가능성은 충분히 상정된다. 다만, 그 구석기인들은 주로 수렵과 채집 등을 생업 기반으로 삼고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생활을 영위하였으므로 특정한 곳에 오래 정착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이 경주분지에 살았더라도 사로국의 형성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겠다.

무리를 이룬 이동생활을 청산하고 일정한 지역에 정주하기 시작한 것은 일반적으로 신석기 단계에 이르러서의 일로 인식되고 있다. 한곳에 오래 머물며 정착생활을 하도록 만든 것은 농업이었다.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는 농경생활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무리지어 이동하는 생활을 접고서 일정 지역에 뿌리를 내려갔다. 그래서 나무나 돌만이 아니라 토기와 같이 흙으로 빚은 깨어지기 쉬운 생활용품도 제작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주생활은 곧 취락이 형성될 기반을 갖추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특정 지역을 거점으로 제반 생산과 소비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함으로써 이른바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것이 혈연에 기반한 원시공동체였음은 물론이다.

한반도에서 신석기시대는 대략 서기전 8천년 무렵 시작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토기의 모양 및 문양이나 재질, 제작 기법 등을 기준으로 신석기시대는 몇 단계의 발전 과정을 거친 것으로 설정한다. 이른 시기에는 대체로 바닷가나 강가 등 이동이 쉽고 수렵 어로가 가능한 지역에 주거지가 조성된 사실로 미루어 농업이 주된 생업이 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당시에는 토기라도 갖고 다니기 쉬운 작은 규모로 제작된 점이 그런 실상을 반영한다. 다만, 그 뒤 어느 시점부터 농경을 알기 시작하였고 이후 그것이 점진적 과정을 밟아 생업활동에서 차츰 우위를 차지해 간 것으로 보인다. 농경이 우세해졌다는 것은 특정 지역에 본격적으로 정주한 삶을 영위하였음을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신석기 단계의 유적지는 거의 전국에 걸쳐 확인되고 있다. 이는 그 이전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지역이 사람 사는 공간으로 바뀌어졌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자연적 인구 증가와 확산에 의한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바깥으로부터 끊임없이 주민이 유입된 영향도 일정하게 작용을 하였으리라 여겨진다.

영남권에서 발견된 신석기 유적지의 사례도 적지가 않다. 분포권 전반을 살피면 바닷가나 강가 등만이 아니라 물길을 따라 점차 내륙 깊숙한 데까지 확산, 거주해 가는 양상이 확인된다. 물론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행되었을 터이다. 청도 오진리의 바위그늘유적에서는 서기전 8천년으로 추정되는 신석기 유적지가 확인되었거니와 이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신석기인들이 내륙 깊숙이까지 진출하기도 하였음을 명백히 보여 주는 사례이다.

경주분지 일대에는 남천南川변의 교동校洞에서 신석기시대의 작은 토기편이 수습되고 바로 인근에서는 집자리 흔적도 확인되었다. 동해안의 양북면 대본리에서도 신석기 집자리 유적이 발견되었다. 당시에는 아직 취락의 규모가 작아 10호 정도를 크게 넘지 않았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경주분지 일대에서도 신석기인들이 거주하였음은 분명하지만 현재까지의 출토 추이로 미루어 주민

의 수가 그리 많지 않고 개별 집단의 규모도 별로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뒤이어 들어온 청동기 주민들과의 연결 관계도 명확하지가 않다. 신석기인들이 단속적으로 경주분지에 들어왔으리라 생각되지만 그들이 사로국의 형성과 직접 관련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경주분지 일대에서 그 전과는 다르게 인구가 현저히 증가해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은 서기전 8-7세기 무렵 시작하는 초기 청동기 단계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무문토기를 주요 특징으로 하는 이들의 집자리 유적이 황성동, 용강동, 충효동 등지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은 분포 양상으로 보건대 규모는 작지만 취락을 이루었음이 확실하다. 앞선 신석기 단계의 유적이 경주분지에서 별로 뚜렷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초기 청동기의 주민 거주는 커다란 변화를 보이는 셈이다. 이들이 신석기인과 직접 연결되는 흔적이 없다면 경주분지로 뒤늦게 진입해 와서 정착하기 시작하였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이들의 입지는 강변의 약간 낮은 지대로부터 완만한 구릉의 사면과 가파른 산록지대에 걸쳐 매우 다양하였다. 아직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지만 그들의 거주 정황으로 미루어 경주분지 내의 각 하천 주변과 곡간에서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의 무덤 유구로서 석관묘가 일부 발견된 바 있다.

초기 청동기의 후기 단계에 이르러서는 숫자가 한층 늘어나기 시작해 마을 유적이 뚜렷해지고 확대된 모습을 보인다. 이 단계에 농업 기술력의 향상으로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계급이 더욱 분화된 사실을 반영한다. 새로운 농경지가 개발됨으로써 거주 가능한 공간도 점점 넓어져 갔다. 각각의 공동체가 특정한 지점을 중심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 공동체들이 인근의 공동체와 서로 접촉하고 교류하면서 그 규모는 한층 커져갈 기반이 갖추어졌다. 그런 구체적 모습은 이 단계의 개인 무덤인 지석묘支石墓의 분포를 통해 유추해낼 수가 있다.

경주분지에서 지석묘는 산곡 여기저기에 널리 분포하나 밀집의 정도는 그리 높지 못한 편이다. 대부분 2-3기씩이며, 10여기 이상 되는 곳도 몇 군데 확인된다. 아마도 10기 이상이 밀집된 곳을 중심으로 주변과 연결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는 구조를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특정한 중심 취락이 주변

그림 1 경주 부근 지석묘 분포 현황

의 몇몇 취락과 접촉을 통해 연결하는 상설적 구조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이를 뒷날 본격적으로 형성되어간 읍락邑落의 초기적 모습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초기국가의 기초 단위를 이루는 읍락이 처음 형성되어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시점은 지석묘 단계의 일로 보인다.

다만, 이때의 읍락은 수적으로 매우 적었을 뿐만 아니라 내부 결집력도 그리 강하지 못한 대단히 초기적인 모습이었다. 지석묘의 부장품이 매우 빈약한 사실로 미루어 농업생산력이 그리 높지 못하였으며 아직 계급 분화의 정도나 문화적 수준도 지극히 낮았다.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는 초기국가의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소개한 사로국 출현의 기반인 6촌으로 상징된 집단의 모습이 곧 지석묘의 단계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한 초기적 읍락으로 추정된다.

2 사로국의 형성과 구조

사로국의 성립

서기전 3세기 무렵부터 영남지방 전역에는 기존의 지석묘를 통해 확인되는 것과는 현저히 다른 문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지석묘와는 계통을 전혀 달리하는 목관묘木棺墓가 조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를 시발로 해서 이후 문화상의 변동이 잇달아 일어났다.

묘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장된 유물도 질량質量 면에서 크게 달라진 면모를 보였다. 지석묘 단계에서의 청동기는 빈약하기 짝이 없으며, 여전히 석기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뒤이어진 목관묘 단계에서는 청동기의 부장 양상에서 확연하게 달라졌다. 처음에는 다뉴경多紐鏡이나 견갑형肩甲形동기 등 의례용의 이형異形동기 정도만이 매납埋納되었으나 이는 머지않아 커다란 변동이 일어날 것임을 예고해 주는 신호탄이었다. 청동기의 변화는 일단 그를 구입할 만큼 내부적 욕구가 커졌음을 뜻한다. 지배세력의 정치력과 경제력이 향상되고 그 권위가 한층 높아져 그에 걸맞게 외피를 씌울 필요성이 고양되었음을 말하는 사실이다. 이때의 토기는 점토대토기粘土帶土器로서 그 이전과는 계통을 달리하며 목

관묘도 뚜렷한 군집현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런 변화는 아직 영남 전역이 아니라 대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 한정해 진행되었다. 경주에서는 입실리入室里에서 그런 양상이 확인된다. 이 의기용 청동기들은 대체로 호서·호남 지역에 보이는 것과 비슷해 그로부터 영향을 받거나 주민 이동에 의한 결과로 풀이할 수 있다. 그 파장에서 비롯한 충격파는 기존 사회를 아직 전면적으로 바꿀 정도는 되지 못하였다. 다만, 그것이 토착사회를 일정하게 자극하였을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처럼 이 무렵 주민 이동에 의해 영남권 전역에 일정한 변동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서기전 3세기 초반 고조선 준왕準王의 몰락이란 사태와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 준왕은 통일 왕국인 한漢의 제후국인 연燕의 지배 아래에 있다가 정치사회적 혼란이 일어난 틈을 타고서 그곳을 탈출해 망명해온 조선계 유

그림 2 전 경주 죽동리 출토 청동기(이양선 수집품)

민 위만衛滿의 급습으로 몰락하였다. 준왕의 몰락으로 발생한 적지 않은 유이민은 남쪽으로 이주하였다. 그 주류는 호서 방면으로 이동하였으나 영남권에도 그 일부가 진입함으로써 일정한 여파를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영남지역에서는 서기전 2세기 후반에서 1세기 초 또 다른 문화변동이 이어졌다. 이번 문화변동은 그 전에 비해 규모는 훨씬 컸고 그 내용이 한층 다양해졌다. 세형동검細形銅劍, 동모銅鉾, 간두령竿頭鈴 등 발달한 청동기와 함께 이제 철제의 단검短劍, 철모鐵矛 등의 철기가 무덤에 부장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처음에는 단순한 주민 접촉을 통해 입수되었을 터이나 얼마 뒤 일시에 대거 유입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어서는 자체 제작이 이루어졌으며, 무덤도 그 직전과는 차이가 나는 새로운 형식의 목관묘가 조영되었다.

이런 제반 문화변동은 이후에도 단속적으로 이어졌다. 경주분지에서는 황성동, 조양동, 죽동리, 덕천리 등의 문화유적을 대표적 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대구에서는 월성동과 팔달동 등에서 그런 양상이 확인된다. 이 목관묘들은 청동기보다는 철기문화를 주요 기반으로 하였음이 그 전과는 뚜렷이 달라진 면모이다. 이와 같은 변동이 특정한 지역에만 한정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영남권 전역에 걸쳐서 거의 동시적이거나 짧은 기간 내에 벌어진 일이었으므로 그 파급이 급속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획기劃期를 그을 만큼 단기간에 이루어진 일이었다면 이는 기존 문화와의 단절 현상을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그 자체는 내부의 점진적 진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바깥으로부터 주민이 대량 이동한 데에 따른 결과라고 풀이함이 적절하다.

당시 목관묘들은 곳곳에서 군群을 이루면서 조성되었다. 이들은 특정 집단의 공동묘지이므로 그 부근에는 취락이 형성되었음이 확실하다. 같은 묘역의 목관묘들이라도 유력 우세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사이에는 규모와 부장품의 질량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다만, 유력 우세한 목관묘의 수량은 극히 한정되었고, 그것이 같은 지역에서 지속되지 않음을 특징으로 한다. 이는 유력 우세한 목관묘를 조성한 세력이 같은 집단 내에서 따로 성립되지 않았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내부적으로 계급분화가 크게 진전되기는 하였어도 그것이 아직 동일한 혈연 집단 내부에서 계승성을 가진 상태가 아니었음을 방증한다.

경주분지의 경우 여러 묘역에서 무덤의 크기나 부장 유물의 상태 및 내용 구성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비슷한 정형성을 보임이 특징이다. 이는 물질문화뿐만 아니라 장례의식이나 절차 등 장의문화葬儀文化를 일정 정도 공유하였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물론 장의문화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쳤을 터이다. 이처럼 문화 전반에 걸친 정형성은 그 집단들 각각이 평소 전혀 별개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접촉하고 교류해서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들 사이에는 지속성을 지닌 하나의 큰 연계망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발달한 청동기와 철기문화를 보유한 주민의 유입으로 경주분지 여기저기에는 새로운 역동적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였다. 비슷한 규모와 성격의 읍락이 형성되었다. 이미 지석묘 말기 단계에서 계급 분화를 발판으로 형성되던 초기적 읍락이 이제 한층 구체적 모습을 띠게 되거나 혹은 그와 전혀 별개의 새로운 읍락도 만들어졌다. 그들 사이에는 아직 압도적인 유력 우세한 집단이라 단정할 만한 대상은 보이지 않는다. 서로 엇비슷한 규모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수준이었다. 이들 내부에는 다시 ‘읍’을 나타내는 중심부도 있고 ‘락’을 의미하는 주변부도 있었을 터이다. 이들을 합해서 읍락이라 부르고 있다. 이러한 읍락들이 경주분지에서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으니 목관묘의 군집 양상은 그를 잘 보여 준다.

이상과 같은 현상이 경주분지 중앙부를 중심으로 해서 각 방면으로 나아가는 교통로상 전반에 걸쳐 나타났다. 문화를 공유하는 현상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난 사실은 그것이 점차적 단계를 밟은 것이 아니라 급속하게 진행되었음을 뜻한다. 그런데 그것을 추동하였을 만한 특정 중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으며 따라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현상으로 풀이함이 적절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체 진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 가해진 어떤 압력에 의한 것으로 보아 마땅하다. 말하자면 바깥으로부터 경주분지로 대량의 주민 이동이 작용한 결과가 아닐까 싶다.

이처럼 서기전 2세기 말에서 1세기 초에 걸쳐 경주분지는 물론 영남권 일대에서 커다란 문화변동이 일어났다면 그를 불러일으켰을 만한 대상으로는 서

기전 108년 한漢에 의해 이루어진 위만조선의 멸망이란 일대사건이 떠오른다. 위만조선은 붕괴되기 이전부터 내부 분열로 말기적 증상을 드러내면서 주민이탈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붕괴되면서 그것이 한층 가속화되었다. 이 유이민들이 대거 남쪽의 한강 방면으로 이동하고 연쇄작용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한강유역 일대에는 여러 정치체의 결속으로 이루어진 진국辰國이란 연맹체가 자리하고 있었다. 진국 쪽으로 유이민이 단속적으로 몰려들면서 연맹체의 기반은 밑바탕부터 뒤흔들려 마침내 해체의 길을 걸어갔다. 그들과 함께 위만조선으로부터 내려온 유이민 상당수가 남쪽으로 이주하면서 영남권의 기존 토착사회에 큰 변동을 유발시킨 것이다. 그런 사태에 대응해 각 지역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다. 그 형태를 크게 몇 개의 유형으로 분류해 상정할 수 있다.

첫째, 이미 성장 일로에 있던 지역의 토착세력이 유이민과 그들이 보유한 선진문물을 주도적으로 받아들여 읍락의 모습을 제대로 갖춘 경우이다. 아마 바깥에서 유입된 유이민의 수가 매우 적었을 때에는 토착사회가 변화를 주도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럴 경우 토착사회의 재편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근본 변화가 급작스럽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둘째, 유이민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훨씬 유력우세한 문화를 보유해 이들이 기존 토착세력을 쉽게 압도하였을 경우이다. 선진문화를 보유한 유이민이 주도해 기존 토착사회를 밑바탕부터 급속하게 재편해 가는 양상을 띠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이민과 토착세력의 힘이 거의 비등해서 적절한 선상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그들은 상호 결속을 도모하고 강화해감으로써 기존 질서는 서서히 변화되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어느 지역이 어떤 형태로 진행된 것인지의 실태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영남권이라도 외래문화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선진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전자가 대체로 유이민 주도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경주분지에 나타난 문화변동 양상은 그런 실상을 잘 보여 준다. 그것은 고고 자료상으로도 그러하지만 문헌상으로도 입증되는 사실이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박혁거세의 등장과 사로국의 건국은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주분지 각지에서는 유이민들의 주도 아래 새로운 읍락이 많이 성립하였다. 그들 가운데 크고 작은 편차는 있었지만 기존 토착사회도 크게 재편되는 길을 걸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 정황 아래 자구책으로서 서로 단결해 협조하고, 정치적·경제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을 법하다. 그처럼 읍락 상호 간의 협조관계를 매개로 이루어진 연결망連結網이 점점 일정한 범위에서 하나로 정리되었다. 처음에는 그들을 잇는 연결고리가 미약하고 느슨하였을 터이지만 지속적 접촉을 통해 차츰 강화되는 길을 걸어갔다. 그런 과정에서 초기국가가 성립하였으니 이때 경주분지를 거점으로 한 것이 바로 사로국이었다.

사로국의 구조

이렇게 출현한 초기국가를 지난날 흔히 부족국가, 성읍국가 등으로 불러왔다. 그러나 그 기반을 이루는 공통분모가 모두 기록상에 등장하는 읍락이란 점을 고려해서 읍락국가라 부르자는 견해가 제기되었다. 읍락이 초기국가의 구조를 설명해내는 데에 가장 유용하므로 여기서도 읍락국가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하나의 읍락국가는 대개 여러 개의 읍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물론 모든 읍락의 규모가 동일한 것도 아니려니와 그들로 이루어진 읍락국가의 규모나 범위도 각기 차이가 났다. 읍락 각각은 경역 범위와 인구 구성이 달랐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고 넓은 경역을 가진 읍락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읍락도 있었다. 대체로 지리적 위치와 문화적 형편이 그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터이다.

한편, 읍락국가의 구성도 일률적이지는 않았다. 하나의 읍락으로 이루어진 읍락국가가 있는가 하면 6-7개 이상의 다수로 이루어진 읍락국가도 있었다. 아무래도 다수의 읍락으로 구성된 읍락국가가 상대적으로 인구도 많고 공간적 범위도 넓어 자연히 경제력도 우세하였을 터이다. 대체로 교통상의 요충지나 혹은 농경에 유리한 넓은 배후지를 가진 지역일 경우에는 큰 규모의 읍락국가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교통상의 요충지인 경주분지에서 모습을 드러낸 사로국은 여로 모로 보아 영남지역의 가장 큰 규모 읍락국가 가운데 하나였다.

읍락의 규모나 내부 구성은 지역에 따라 당연히 차이가 났을 뿐만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음은 물론이다. 철제 농공구의 본격적 사용으로 생산력이 더욱 향상되고 인구도 급속히 불어나면서 읍락 내부의 계급분화가 진전되었다. 그에 따라 읍락은 한층 더 정치성을 띠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읍락 내부도 저절로 자체 진화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다. 그에 어울리게 읍락국가의 구조나 성격도 바뀌었다.

읍락국가가 처음 출현하였을 때 각 읍락은 상당히 강한 독자성을 지니고 있었다. 국가마다 각기 편차는 있었겠지만 읍락 간의 정치력, 경제력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그리 크지는 않았다. 같은 권역에서는 거의 비슷한 상태와 수준에서 출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발굴된 목관묘의 존재 양상은 그를 뚜렷이 증명해 준다. 그렇지만 그 자체는 머지않아 우위를 장악하기 위해 상호 치열하게 경쟁할 것임을 예고해 주는 일이기도 하였다.

선진문화의 끊임없는 유입과 생산력의 향상에 따른 변동으로 읍락 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유력 우세한 읍락이 출현하고 그것이 차츰 고착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런 유력한 읍락을 중심으로 읍락국가의 내부 결속력은 한층 강화되어졌다. 그럴 때에 중심적 기능을 담당한 읍락을 각별히 국읍國邑이라고 불렀다. 이처럼 하나의 읍락국가는 정치적 구심으로서 기능한 국읍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개의 읍락이 연결되는 조직을 가진 구조였다. 읍락 간의 우열관계는 한결 뚜렷해졌다.

그렇지만 국읍이 언제나 고정불변한 것은 아니었다. 읍락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가던 가운데 퇴락하거나 새로이 부상하는 등 읍락국가의 내부 구성은 상당한 부침을 겪었다. 그에 따라 구심의 역할이 다른 읍락으로 옮겨지는 등 국읍의 변동도 뒤따랐다. 그런 점은 사로국에서 사용된 왕호 속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다.

사로국에서는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특별히 이사금尼師今이라 불렀다. 그 직전까지는 정치적 지배자가 정치체의 성격에 따라 거서간居西干, 차차웅次次雄으로 불리다가 마침내 이사금으로 정착되었던 것이다. 이사금의 '이사'는 이빨을 지칭하며, '금'은 수장을 뜻하는 '간干'과 같으므로 이사금 자체는 이가 많은 연장자로서의 수장을 뜻하는 용어이다. 이빨의 수가 많다는 것은 곧 오랜 경험을 통해 지혜가 많다는 것으로서 존장자尊長者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사금은 정치적 절대권자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력 우세한 지배자를 가리킨다. 이는 여러 읍락의 결속으로 이루어진 사로국에 걸맞은 왕호였다. 박, 석, 김씨가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계승하였다는 신라 초기의 상태는 바로 그런 족단에서 이사금이 배출되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뒷날 여러 족단으로 표현되기는 하였지만 그들 각각은 실제적으로는 읍락이었을 따름이다.

그 삼성 족단이 사로국을 구성한 여러 읍락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력 우세하였다. 그 읍락들의 수장이 이사금의 지위에 올랐다는 것은 곧 그가 소속한 읍락이 국읍으로 기능하게 되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국읍의 기능이 그와 같은 족단이 소속한 읍락으로 옮겨간 것이었다. 그렇게 보면 이사금은 정치적 수장이기는 하였어도 쉽게 교체되는 성질의 것이었다. 이는 사로국 단계의 국가적 성격이 어떠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는 사실이다. 아직 두드러진 읍락이 중심이 되어 강한 정치력을 발휘하는 단계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읍락국가는 읍락들의 연맹이었다고 풀이할 수도 있다.

읍락국가는 각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배타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국명을 사용하였다. 국읍 세력이 교체되면서 국명이 바뀌었을 경우도 예상된다. 이를테면 염사국廉斯國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염사국은 1세기 초에 확인되는 국명이지만 3세기 중반 이전에는 그 모습을 완전히 감추었다. 이로 보면 『삼국지』에 보이는 국명은 3세기 중엽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국명이나 존재 양태가 반드시 서기전 2세기나 1세기에도 그대로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점은 사로국도 마찬가지였다. 읍락국가들은 성립 이후 많은 부침을 겪었으므로 국명이나 구조에서 상당한 변화가 뒤따랐을 터이다. 그런 사정을 일정 정도 보여주는 것이 진한辰韓이란 연맹체의 출현이었다.

3 진한과 사로국의 향방

진한 속의 사로국

서기전 1세기 중반 무렵 주머니호와 조합우각형파수부호 등을 대표로 하는 새로운 토기가 영남권에서 나타났다. 그 재질을 근거로 해서 그들을 흔히 와질토기瓦質土器라 통칭하고 있다. 와질토기는 앞서의 점토대토기보다는 한층 선별된 고운 태토를 사용하여 어느 정도 폐쇄된 가마에서 구워낸 토기로서 그와는 계통도 달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생의 중심지는 뚜렷하지 않지만 그것이 영남권 전역으로 서서히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것은 곧 각 읍락국가들 사이에 일종의 관계망이 구축되어 갔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와질토기의 확산은 일정한 권역에서 문화 전반을 공유하는 현상이 진행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이는 읍락국가를 뛰어넘는 한층 더 넓은 범위에서 연계망連繫網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읍락국가 사이에 이루어진 연계망은 곧 일종의 연맹체의 성립을 말한다. 그것이 곧 진한과 변한의 성립이다.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읍락은 독자성을 일정 정도 유보하면서 읍락국가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와 같이 한층 큰 정치체인 읍락국가의 형태로 결속하는 것

그림 3　경주 조양동38호분 출토 와질토기

이 읍락 자신들의 생존과도 곧바로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읍락국가는 주변 읍락을 포섭함으로써 외형을 키워가다가 일정 정도의 수준에서 일단 더 이상의 확장을 멈추었다. 당시 내부에 축적된 에너지가 더 나아가기에는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자연 지리적 상황이나 그 바깥에 형성된 정치세력이 장애로 작용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각각의 읍락국가는 주변에서 접촉 가능한 범위에 들어온 읍락국가를 상대로 인정하고서 그들과의 연결망을 구축하였다. 그처럼 각지에 분산된 읍락국가들도 고립된 상태를 마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는 서로 공조하고 협조하는 편이 여러 모로 유리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바깥으로부터 가해지는 정치적 압박에 대항한다거나 자체 내부의 잉여생산물 교역을 통해 교환한다거나 때로는 원거리 교섭을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기본 경비를 절감하고 위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었을 터이다. 따라서 느슨한 형태로나마 연맹체를 이루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였다. 성립 당초에는 그들의 내부 결속관계가 매우 느슨하였을 터이지만 그 필요성이 절실해지면서 결속력을 차츰 강화해 가는 길을 걸었다. 초기에는 주로 경제적 성격을 띠었지만 점차 정치적 성격이 강화되어 간 것이었다.

이와 같은 진한이란 연맹체가 형성된 시점이나 과정은 뚜렷하지가 않다. 다만, 1세기 초 이전에는 진한이 성립해 있었음은 확실한 사실이다. 그것은 『삼국지』 동이전 한조에 보이는 염사치사화廉斯鑡史話에서 확인된다.

염사치는 원래 특정 인명이 아니라 염사국의 수장을 지칭하는 용어이나 염사치는 그와 동시에 진한의 우거수右渠帥란 직명을 갖고 있기도 하였다. 그는 어떤 연유로 말미암아 자신의 읍락을 탈출해 낙랑군으로 나아갔다. 도중에서 만난 호래戶來란 인물로부터 자신들은 한인漢人으로서 동료 1500여명과 함께 벌목하러 왔다가 진한에 사로잡혀 3년 동안 노예노동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염사치는 이를 낙랑군에다 알려 주었다. 그는 낙랑군의 향도가 되어 진한으로 되돌아와 이미 사망한 한인 5백명에 대한 대가로서 진한인 1만5천 명과 변한포弁韓布 1만5천 필로 변상하도록 했다는 것이 줄거리이다.

이 사화는 전한前漢의 뒤를 이어 그 외척인 왕망王莽에 의해 건국된 신新의 지황地皇 연간(20~22)간에 발생한 일이다. 여기에 진한과 함께 변한이 보이므로 이미 1세기 초 이전에 삼한이 성립되어 있었음은 확실하다. 우거수의 존재로서 좌거수를 설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한이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추었음을 유추할 수가 있다. 진한의 구성 세력 가운데 하나인 염사국이 그를 이탈해 간 것은 당시 연맹체의 결속 상태가 그리 강고한 것도 아니려니와 소속 여하가 강제성을 띤 것도 아니었음을 반영한다. 출입이 그만큼 자유롭고 선택 여부는 개별 읍락국가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다. 진한 연맹체에 속한 읍락국가가 원래 6개였다가 12개로 늘어났다는 기록은 그를 방증하여 주는 사실이다.

이처럼 진한 연맹체는 1세기 초를 하한으로 해서 존재하였으므로 그 성립은 늦추어 잡아도 서기전 1세기까지는 소급 가능하다. 그를 구성한 읍락국가가 성립하던 때와 비슷하게 진행되었거나 그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점에 연맹체가 결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진한이란 연맹체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진辰이 진국이란 정치체와 관련된다면 이를 주도한 집단도 이미 연맹체 결성의 경험이 있었고, 따라서 그 주민의 이동으로 읍락국가가 성립됨과 거의 동시에 연맹체를 이루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듯 싶다.

진한 연맹체는 초기에는 출입이 자유로울 정도로 매우 느슨한 형태로 운영되었지만 그래도 그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맡은 맹주는 존재하였다. 당시 진한의 구성세력이 어떠하였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가장 유력한 읍락국가가 맹주였을 것으로 보인다. 진한 초기의 맹주가 구체적으로 어떤 세력이었는지 잘 알 수는 없다. 지리적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던 사로국이었을 공산은 크다. 다만, 당시의 국명이 뒷날의 사로국 그대로였던지는 단정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따금씩 내부의 주도 세력 교체가 이루어진 만큼 3세기 단계의 국명이 서기전 1세기까지 소급된다고 확실하게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한의 변동과 사로국

서기전 1세기에 성립한 여러 읍락국가를 구성 세력으로 해서 정식 출범한 진한 연맹체는 결속력이 그리 강고한 편은 못되었다. 그래서 바깥으로부터 단속적으로 가해지는 온갖 압박을 받아 출범 당시의 원상을 그대로 이어가기는 어려웠다. 극심한 이합집산의 과정을 계속해서 거쳤다. 염사치의 사례처럼 기존 읍락국가도 신흥세력의 부상에 따른 내부 세력의 교체 등으로 상당한 부침을 거듭하였다. 게다가 바깥으로부터 새로운 주민이 이동해 오고 선진 문물이 유입되면서 일어난 파장 또한 만만하지가 않았다. 3세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변동을 겪었다. 그러면서 읍락과 읍락국가의 내부 변동은 물론 맹주권의 이동도 당연히 뒤따랐다. 따라서 진한사회를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수준에 놓고 보기는 힘든 일이다.

그런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2세기에 접어들면서 큰 변동이 일어난 점이다. 당시 후한 왕조는 몰락의 길로 치달았고 따라서 저절로 낙랑군현에 대한 통제력까지 잃어가던 상황이었다. 본국이 혼란에 빠져들자 낙랑군현에서도 이완 현상이 벌어지면서 많은 주민이 본거지를 이탈하였다. 그들은 남쪽의 삼한사회로 유입해 들어갔다. 그들 속에 진한이 대상으로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한군현의 쇠퇴는 거꾸로 한족사회가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실제로 『삼국지』 동이전 한조에서는 이 무렵 한예韓濊가 강성해져 낙랑군현을 위협하던 실상을 전해주고 있다. 삼한사회가 낙랑군현에 위협이 될 정도로 급성장한 일차적 배경으로는 철기문화의 발달에 따른 생산력의 증대를 손꼽을 수 있다. 바로 이 무렵 기존의 목관묘 대신 목곽묘木槨墓가 주류적 묘제로 부상한 현상은 그런 정황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사례이다.

목관묘와는 달리 목곽묘에서는 부장 공간 자체가 아주 크게 늘어나고 아울러 그 외형도 월등하게 커졌다. 게다가 거기에는 기왕과는 다르게 상당한 수량의 철제 농공구나 무기가 부장되었다. 형태가 바뀐 판상철부 같은 규격화된 철소재도 다량으로 매납되었다. 철제품은 질량 면에서 그 전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그리고 수정·옥 제품을 비롯한 각종 개인의 위세를 나타내는 장신구들도 크게 달라진 면모를 보였다. 유력 우세한 목곽묘들도 기존 묘역에서 분리되어 특정한 곳에 함께 조영되는 집중화 현상을 뚜렷이 보였다.

이런 양상은 생산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늘어난 재부財富가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어 갔음을 반영한다. 그리고 정치력·경제력이 특정한 집단 내에서 어느 정도 승계되어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다. 그런 양상이 읍락국가마다 동일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지역에 따라 편차를 보였지만 유력 우세한 읍락의 경우 집중의 정도는 더욱 현저해졌다. 이제는 읍락 내의 특정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읍락 중에서도 특정 읍락에 편중되는 현상이 진행되었다. 그 가운데 사로국 내부에서 일어난 변화를 가장 현저한 사례로 들 수 있다. 사로국에서는 조양동, 덕천리 등지에서 상당한 규모의 목곽묘가 조성되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목곽묘가 출현하면서 진한의 구성세력만이 아니라 소속 읍락국가 내부에도 상당한 변동이 뒤따랐다. 사로국에서는 박씨족단에서 석씨족단으로의 세력 교체가 바로 이 무렵에 진행되었다. 석씨족단은 발달한 철기문화를 보유하고서 사로국에 진입하였거니와 그를 배경으로 차츰 주도세력으로 부상하고 마침내 이사금까지 배출하게 된 것이다. 이는 박씨로부터 석씨족단으로 국읍이 옮겨갔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석씨족단이 목곽묘 문화를 보유하고서 경주분

지에 진입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에 의해 사로국의 철기문화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그것이 목곽묘 문화로 나타난 것만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철기문화의 발전은 석씨족단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 무렵 사로국은 진한 연맹체의 맹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굳혀갔으리라 여겨진다.

후한이 쇠퇴하자 요동 방면에 자리한 공손씨公孫氏가 독자세력을 구축하였다. 공손씨는 낙랑군현에 대한 지배권을 손에 넣은 뒤 더 이상의 주민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3세기 초 황해도 일대에 대방군帶方郡을 설치하여 대응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후한을 이은 조위曹魏가 동방정책을 추진해 요동을 장악하고 낙랑군과 대방군을 접수해서 통제력을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조위는 삼한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지배세력에게 읍군邑君, 읍장邑長의 칭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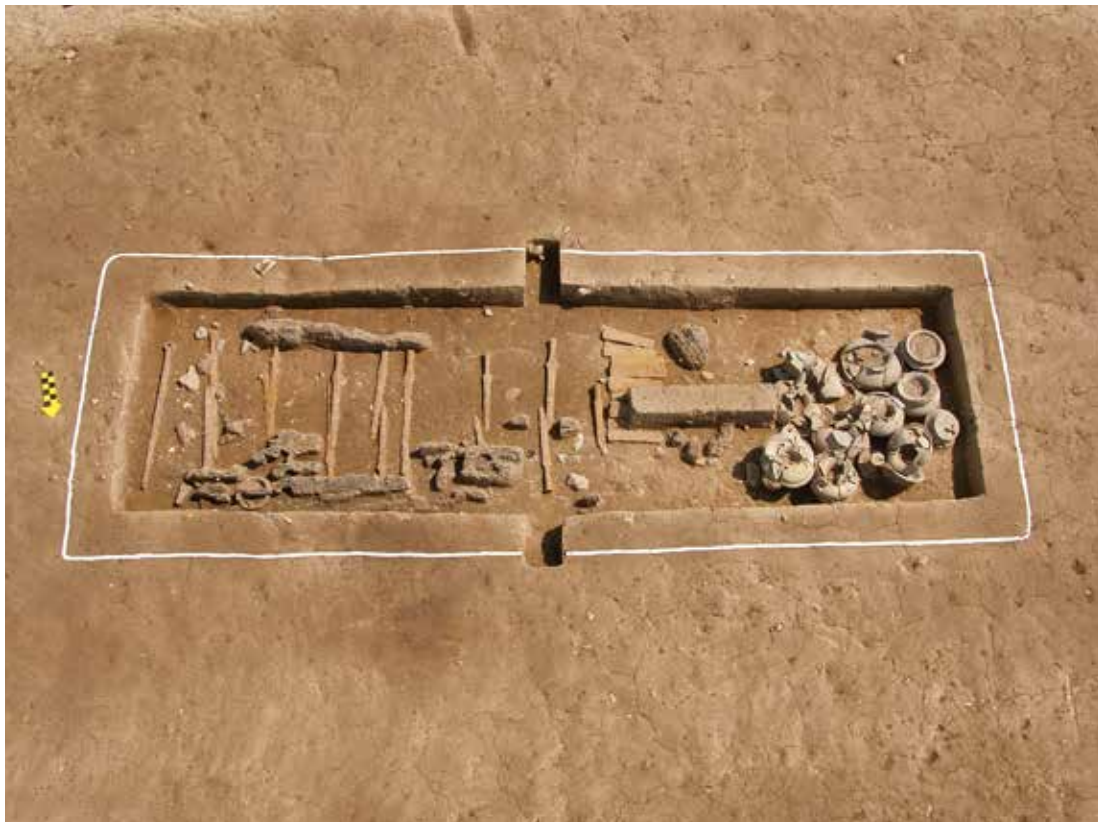
그림 4 경주 덕천리 19호 목곽묘

함께 그를 보증하는 인수의책印綬衣幘을 지급해서 재편하려 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대방군이 관장하던 진한 12국 가운데 8개국을 따로 떼어내 낙랑군의 관할 아래 넣으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것은 진한 사회의 분열과 약화를 도모한 것으로서 즉각 반발을 낳았다. 토착 한족사회에서는 246년 군현을 대상으로 선공을 함으로써 도발하였다. 전쟁을 일으킨 주체나 그 결말을 둘러싸고 논란이 많지만 삼한사회 전반이 군현과 직접 맞서서 싸울 정도로 발전하였음을 보여 준다.

삼한사회에서는 그런 발전의 여세를 몰아 이제는 중국 본토와 직접 통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270년대부터 290년대에 이르는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마한과 진한이 십수 차례 중국 본토와 통교하였다. 마한과 진한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에 소속한 몇몇 읍락국가들이 주도한 것이었다. 참가한 읍락국가의 수는 일정하지가 않았다. 적었을 때에는 3~5국에 불과한 때도 있었지만 많았을 때에는 삼십여 국에 이르기도 하였다. 이는 마한과 진한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체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스스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느슨한 형태의 조직체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맹주 중심의 유력 우세한 읍락국가가 그를 주도하였을 터이다. 이는 결국 위험 부담 때문이었겠지만 적극적으로 동참해 성공하였을 경우에 가져다 준 효과는 작지 않았을 터이다. 중국 본토에까지 나아갈 정도로 선진문물에 대한 내적 욕구가 그만큼 커져 있었던 것이다. 이는 삼한사회 자체 내부에서 어떤 변동의 움직임이 크게 배태되고 있었음을 상징하고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291년 서진西晉의 내부에서 발생한 팔왕八王의 난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교섭이 중단됨으로써 진한을 비롯한 삼한사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아가고 있었다. 이처럼 새로운 국면으로의 전환은 진한을 이끌던 유력 우세한 세력인 사로국에게는 오히려 절호의 기회였다.

제 2 장

신라의 성립과 발전

1 신라의 성립

사로에서 신라로의 전환

3세기 말 진한이 중국 본토로 나아가 시도한 통교는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몇 차례 진행되다가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중단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 본토와 경쟁적으로 교섭하던 이웃의 마한도 마찬가지였다. 이는 교섭 중단이 진한이 안고 있던 내부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 교류 대상이었던 중국의 진晉 내부에서 일어난 정치적 사태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곧이어 4세기 초에는 선비와 흉노를 비롯한 유목민들인 소위 5호胡가 북쪽 초원지대로부터 중원中原의 농업지대로 남하해 자리 잡으면서 그 일대는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었다. 그래서 진한은 더 이상 중국 본토와 통교를 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 무렵 만주 일대에서 한창 발전 중이던 고구려도 갑자기 남쪽 대동강 유역으로 눈을 돌려 오래도록 중국의 한반도 방면 전진기지로 기능해온 낙랑군(313)과 대방군(314)을 잇달아 멸망시켰다. 고구려가 낙랑과 대방 일대를 손에 넣은 사건은 남쪽의 삼한사회에까지 커다란 충격파를 던졌다. 정치적 긴장이 급속히 높아진 진한에는 북쪽에서 내려온 유이민이 대거 진입하면서 정

치사회적 재편이 벌어졌다. 이런 긴박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는 통합 운동이 일어났다. 진한에서 진행된 읍락국가 간의 결속과 통합의 운동은 당시 맹주였던 사로국이 주축을 이루었지만 그와 경쟁할 만한 유력한 세력도 거기에 뛰어들어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그 결과 사로국이 최종의 승자가 되었다.

이후 진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하였다. 사로국은 원래 진한 연맹체의 맹주이기는 하였어도 어디까지나 그 구성세력의 일원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 사이는 수직적이 아닌 수평적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로 말미암아 대외 교섭을 추진할 때에도 사로가 아니라 오로지 진한이란 연맹체의 명칭이 공식적으로 내걸렸을 따름이다. 진한 소속 여러 정치세력은 각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이는 국명을 보유한 독립국이지만 단독으로 대외 교섭을 추진할 권한을 갖지 못하였다. 그들은 규모의 대소, 강약의 차이는 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대등한 관계였다.

그런데 사로국 주축의 통합운동이 마무리된 뒤에는 그 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진한 소속 정치 세력 거의 대부분은 사로국을 정점으로 한 지배질서 아래에 재편되었다. 이제 사로는 단순히 진한 구성 세력의 일원이 아니라 지배집단이 되었다. 기존 정치세력은 모두 독자성을 잃고 따로 국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써 진한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영영 사라졌다. 신라라는 새로운 왕조가 탄생해 그를 대체하였다.

사로국 중심으로 진행된 진한의 통합운동이 마무리된 시점은 흔히 나물왕奈勿王(356~402)대로 여겨지고 있다. 신라라는 국호가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나물왕대였음은 그를 보여준다. 나물왕대는 사실상 신라의 출발기였다고 할 수가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은 신라라는 국호뿐만 아니라 최고 지배자의 호칭이 바뀐 사실을 비롯한 몇몇 두드러진 현상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통합운동이 완료되었을 즈음 진한의 구성 세력 가운데 신라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이탈해 간 경우도 있었다. 가령 진한 12개의 구성국 가운데 하나였던 창녕昌寧에 자리한 불사국不斯國은 4세기 중엽 비자발比自炑이란 국명으로서 이제 신라가 아닌 가야 세력의 일원으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한편, 부산의 동래에 있던 독로국瀆盧國의 경우는 본래 진한과 치열하게 경쟁하던 이웃 변한 소속이었다. 그러다가 변한이 가야로 전환해 갈 즈음 독로국은 그를 벗어나서 신라로 편입되는 길을 걸었다. 이는 진한에서 신라로의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합집산의 과정을 거쳤음을 뜻한다. 그로 말미암아 사로로부터 발전한 신라의 내부 구조나 조직도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 그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로는 먼저 최고 지배자의 칭호를 마립간麻立干이라 부르기 시작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사로국의 최고 지배자는 원래 이사금尼師今이라 불리었다. 이사금은 잇금, 이빨을 가리키는데 '임금'이란 단어의 어원이었다. 나이가 많아지면 경험과 경륜을 통해 지혜롭게 된다고 여겨 흔히 나이든 사람을 존장자로 우대하였다. 이빨을 나타내는 이사금은 바로 존장자란 뜻이다. 그래서 이사금은 최고지배자 칭호이기는 하였어도 강한 정치력을 행사하는 권력자는 아니었다. 그렇지만 마립간은 그와 달랐다.

마립간은 마립麻立과 간干이란 두 단어가 하나로 결합한 합성어이다. 간은 고구려나 부여의 가加처럼 족장이나 수장을 가리키는 호칭이다. 마립은 흔히 '으뜸', '우두머리'를 뜻하는 마루 '종宗', 혹은 머리 '두頭'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마립간은 '으뜸 수장', '우두머리 족장'으로서 '간 중의 간', '왕 중의 왕'이란 의미이다. 그 아래에 다수의 간을 거느린 까닭에 그렇게 불리었다. 이때의 간에는 왕경만이 아니라 지방의 유력자까지도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마립간은 이제 왕경과 지방을 포괄한 신라에 아주 어울리는 칭호였던 셈이다. 신라의 성립과 동시에 수장 칭호가 그처럼 바뀐 사실이 그를 입증한다.

마립간이란 왕호 외에도 당시의 변화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몇몇 뚜렷한 사례가 있다. 그 가운데 특히 무덤의 외형과 내부가 크게 변한 점이 주목된다. 4세기 중엽 무렵부터 경주분지 일대에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묘제가 쓰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내부 구조를 토대로 흔히 적석목곽분積石木槨墳이라 불린다.

적석목곽분은 그 이전처럼 목곽을 만들되 묘 구덩이와 목곽 사이, 그리고 위에다 사람 머리 만한 냇돌을 일정 두께로 얹고 다시 그 위에 흙으로 덮어서 봉분을 만든 특이한 구조이다. 적석목곽분의 기원을 둘러싸고서는 북방기원

그림 1 경주 쪽샘지구 41호 적석목곽분 내부

설, 자체발생설, 이원계통 결합설 등으로 나뉘어 크게 논란되고 있어 아직 정설은 없다. 무덤의 겉모습이 크게 보이도록 봉분을 가능한 한 매우 높이 쌓아 올렸다. 이런 거대한 외형을 지닌 무덤을 흔히 고총고분高塚古墳이라 일컫는다. 고총고분이 영남지역에서는 대체로 4세기 중엽 무렵 출현하는데, 지역에 따라서 내부 구조는 차이가 난다. 경주분지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거의 대부분 수혈식석실이라 불리는 구조를 하고 있다. 적석목곽분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면 대체로 신라의 왕경 일대에서만 한정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신라 건국의 핵심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조영한 것이라 해석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고총고분과 견주어 그 규모가 훨씬 크고 밀집된 현상을 보이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중앙에 정치력과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반영한다. 왕경과 지방이 정치적 상하관계에 놓여 있었음을 여실히 입증해 주는 사례이다.

마립간시대의 출범 자체가 현실의 정치력에 걸맞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마립간은 스스로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무덤은 물론 궁궐이나 가옥 및 궁성과 신전 등을 웅장하게 지었다. 자신의 복장도 현실의 위상에 어울리게 치장하였다. 일상생활 양식도 크게 달라졌다. 지배자의 사후死後 영조된 무덤의 외형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출토되는 부장품도 그런 사정을 추정할 만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당시 사람들은 삶과 죽음이 전혀 별개로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고 여겼기 때문에 살아 있을 때의 생활 그대로를 유지하도록 많은 물품을 껴묻었다. 화려한 부장품은 마립간을 비롯한 지배자들이 현실에서의 삶을 얼마나 호화스럽게 영위하였는지를 뚜렷이 증명해 준다.

신라의 발전과 전진과의 통교

이상 소개한 몇몇 사항은 신라 국호의 사용과 거의 동시에 나타난 현상이다. 그와 관련해 또 하나 주목해볼 점은 신라라는 국명으로 처음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민 사건이다. 기왕에 사용된 진한이라는 이름은 내부적으로는 물론

대외 교섭에서도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 이는 진한의 자리에 신라가 대신하였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실이다. 신라는 4세기 후반 두 차례나 북중국의 강자로 급부상한 전진前秦과 통교하였다.

전진과의 제1차 통교는 377년에 이루어졌다. 이때 나물왕이 전진에다 사신을 보내었는데, 고구려의 안내를 받아서였다. 비록 독자적 힘으로 전진에 나아간 것은 아니지만 신라란 이름을 동아시아 국제무대에 처음 올렸다는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는 컸다. 바야흐로 외교의 시대가 다가올 것임을 예고해주었기 때문이다. 신라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 때문에 전진까지 가려면 부득이 고구려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앞서 신라가 이미 고구려와 교류하고 긴밀한 우호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신라가 두 번째로 전진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그로부터 5년 뒤인 382년의 일이다. 이때도 역시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였다. 당시 신라 사신의 이름은 위두衛頭였다. 그가 전진왕 부견符堅과 나눈 대화가 기록으로 남아 전해진다. 매우 단편적이기는 하나 당시 신라 내부의 동향과 정세를 이해할 만한 주요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각별히 주목해 볼 만하다. 편의상 대화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부견 : "그대의 말에 해동의 일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
>
> 위두 : "중국에서 시대가 변혁하면 명호名號가 고쳐지고 바뀌듯이 해동이라고 지금이 어찌 옛날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속에는 신라가 바로 직전 어떤 큰 변동을 겪었음을 암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특히 명호가 바뀌어졌다고 한 표현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가 선명하지 않으나 내용상 지배자의 새 칭호인 마립간을 지칭하는 것 같다. 그에 앞서 전진과 통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그 사이 고쳐진 새 명호란 국호보다는 마립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적절하다. 이때 신라 국왕의 이름을 루한樓寒이라 불렀다는데 흔히 마립간을 줄여서 그처럼 표기한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그렇다면 마립간을 처음 사용한 시점은 377년에서 382년 사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위두의 이야기로써 짐작하면 신라는 시대의 변혁을 대략 마무리한 최종 정리로서 마립간이란 새 왕호를 사용한 셈이 된다.

마립간은 곧 이사금을 사용하던 시기에 비해 한층 강력한 정치적 지배자의 출현을 뜻한다. 이후 왕위 계승은 몇몇의 한정된 혈연집단이 돌아가면서 승계하지 않고 특정한 집단이 세습하였다. 뒷날 성씨가 출현하면서 소급 적용되기는 하였지만 바로 김씨였다.

신라의 성립을 주도한 세력은 김씨족단이었다. 김씨는 사로국을 구성한 여러 세력 가운데 가장 뒤늦게 경주분지에 진입한 집단이었다. 따라서 처음에는 세력이 매우 미약하였지만 차츰 기반을 쌓아 마침내 정치적 패자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들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씨로서 처음 왕위에 오른 미추왕味鄒王이나 그의 아버지 구도仇道와 같은 인물들의 탁월한 개인적 역량이나 군사적 성공이 작용하였다. 한편, 그들이 군사적 활약을 통해 확보한 지역에서 산출된 금은金銀이라는 새로운 재화도 아울러 한몫을 하였다.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철鐵이 주요 재화로서 기능하였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철광이나 뛰어난 제철, 제련 기술을 보유한 집단이 그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아 정치적 패권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박씨가, 그에 이어 석씨족단이 이사금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도 바로 이 철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터이다.

그러나 철을 다루는 고도의 기술 수준은 일정 단계에서 일반화되자 더 이상 특별한 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이제 그보다 한결 나은 재화가 필요하였으니 바로 금은이었다. 김씨족단은 희소성을 지닌 금은의 산지를 독자적으로 확보해 채광하고 세공하는 기술을 보유하였다. 그런 사정은 김씨가 뒷날 금이란 글자를 성씨로 내세웠던 점, 적석목곽분의 부장품으로서 금제품의 용량이 엄청난 점, 이후 오래도록 신라가 금이 많이 나는 나라로 널리 알려진 점 등에서 쉽게 유추된다. 김씨족단이 금은을 다루는 능력과 기술을 언제 어떻게 습득하게 되었는지, 산지産地가 어디였는지는 아직 뚜렷이 밝혀진 상태는 아니다. 다만, 낙랑과 대방이 몰락한 뒤 거기에서 이탈한 주민 가운데 포함된 기술

자 집단을 그들이 먼저 장악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낙동강 중상류 일대의 김천金泉과 의성義城 등의 원래 지명이 금과 관련되고 있어 유력한 신라 금산지의 후보로 지목되었다. 이 지역들은 모두 나물왕의 할아버지 구도가 군사적 활동을 통해 장악한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들은 이후 김씨족단의 주요한 경제적 배경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씨족단은 이처럼 금은을 경제적 기반으로 해서 군사적 선진기술을 입수하고 마침내 정치적 패자가 될 수 있었다. 그들의 선진기술은 대부분 고구려로부터 입수한 것이었다. 당시 신라의 주변 지역에서는 가장 선진이며 강력한 세력이었던 고구려와 적극 교섭·교류하려고 나선 집단이 바로 김씨족단이었다. 김씨족단의 성장과 발전을 가늠하는 데서 고구려의 영향을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제관계의 변화와 고구려에의 예속

신라가 출현할 즈음의 동아시아 세계는 한마디로 격동기였다. 중국에서는 북방 유목민족인 오호五胡세력이 중원지역으로 진출하면서 통일왕조 진晋이 무너지고 그 중심 세력은 남쪽으로 옮겨가 동진東晋이란 이름의 새로운 나라를 세웠다. 북방에서는 오호 세력이 번갈아 가면서 새 왕조를 창건하였다가 단명으로 끝나는 등 끝없는 난맥상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를 흔히 오호십육국시대라고 일컫는다.

한편 이 시기에 한반도도 격동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고구려가 남쪽으로 압박을 가해 낙랑과 대방을 소멸시키자 그 여파가 즉시 한강 유역과 그 이남에까지 미쳤다. 그 영향으로 마한에서 정치적 통합운동이 벌어져 백제가 출현하고 마침내 369년에는 마한 전체를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진한과 경쟁하던 변한도 통합을 추진하였으나 끝내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실패하고 가야라는 이름으로 분립된 상태를 그대로 이어갔다.

이처럼 4세기에 접어들어 한반도에서 새로운 지배질서가 갖추어지면서 각국은 자국에 유리하도록 외교전을 활발히 펼쳤다. 이제 점점 외교가 중시되는 시대로 바뀌어 갔다. 당시 상대적 약체였던 신라는 당분간 추세를 관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백제가 먼저 낙동강 유역까지 진출해 가야 세력에 영향력을 뻗혔다. 백제는 바다 건너 왜까지 동맹세력으로 끌어들여 신라를 포위해 압박하였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신라와도 우호관계를 맺으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를 발판으로 고구려와 한바탕 자웅을 겨루려는 심산이었다.

그렇지만 신라는 백제 측의 기대와는 달리 고구려 쪽으로 점점 기울어졌다. 신라로서는 백제보다는 고구려를 선택하는 편이 자신에게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다. 신라는 고구려와의 본격적 교섭을 통해 그를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다. 고구려로서도 한창 성장 중이던 백제를 철저히 견제하기 위해 신라와 손잡고자 하였다. 고구려는 신라의 유력 세력 가운데서도 각별히 신흥의 김씨족단과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고구려는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무기, 무구, 마구 등 선진문물은 물론 전략·전술 등에 이르기까지 지원하였다. 그 반대급부로서 금은과 같은 재원을 받았다. 두 세력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신라는 고구려의 안내로 전진에 얼굴을 내밀 수 있었다. 한편 백제는 남중국의 동진과 꾸준히 통교하고 그로부터 선진문물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신라는 내친 김에 고구려에 한층 더 밀착해 갔다. 391년 광개토왕이 즉위하자 나물왕은 실성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냄으로써 우호관계를 더욱 굳히려 하였다. 나물왕에게 실성은 동서이면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다. 실성을 볼모로 보낸 것은 국내적으로는 그의 세력 기반을 약화시키는 이중의 효과를 노린 의도에서였다. 고구려는 나물왕이 직접 찾아와 몸소 신속臣屬 관계를 표명해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나물왕은 일단 그런 요구를 완곡히 거절하였다. 아마 국내의 정치 상황을 고려해 최소한의 자존심과 자주성을 지켜내려 한 소산으로 보인다.

나물왕은 대내외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북방의 강자 고구려를 최대한 이용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고구려의 문화가 터진 봇물처럼 신라에 밀려들었다. 4~5세기 신라문화의 양상 전반을 점검하면 그런 점은 뚜

렷이 확인된다. 특히 400년 광개토왕의 병력이 가야와 왜의 공격을 받아 위기에 처한 신라를 성공적으로 구원해 주면서 한층 두드러진 양상을 보였다.

바로 그 무렵 광개토왕은 백제에 대한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의 할아버지 고국원왕故國原王(331~371)이 백제의 급습으로 살해되었기 때문이다. 「광개토왕비」에 보이듯 고구려는 백제를 언제나 백잔百殘이란 멸칭으로 부르면서 줄곧 칼날을 갈았다. 복수를 하기 위해 남진정책을 추진, 본격적으로 평양 경영에 나섰다. 광개토왕은 드디어 396년 한강을 건너 백제 왕성을 강하게 압박해 들어갔다. 백제의 아신왕阿莘王(392~405)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렵게 되자 마침내 항복을 선언하였다. 광개토왕은 그 징표로서 남녀 생구生口 1천명과 세포細布 1천필을 바친 아신왕으로부터 영원히 노객이 되겠다는 맹세를 받아내고서 그의 동생을 비롯한 대신大臣 10인을 볼모로 거느리고 돌아갔다. 고구려는 백제가 당분간 회생이 곤란한 수준의 부담을 지우면서 타협하였다.

치욕의 일격을 당한 백제로서는 일말의 책임을 신라로 돌려 가야와 왜로 하여금 신라를 공략하도록 사주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신라가 고구려에 밀착해 가자 백제는 그를 극도로 못마땅하게 여겨 신라에 공세를 가할 적절한 기회를 노리던 차였다. 백제가 직접 나서서 신라 공격을 주도하기 곤란했던 이유는 396년에 입은 치명상으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데다가 광개토왕이 평양까지 내려오는 등 고구려가 계속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399년 백제의 사주를 내밀히 받은 왜와 가야의 연합병력은 신라의 왕성인 금성金城을 공격해 함락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갑자기 위기에 빠진 나물왕은 북쪽 변경까지 도망해 즉각 고구려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광개토왕은 400년 보병과 기병 5만을 급파해 신라 구원에 나섰다. 고구려와 신라의 연합 병력은 금성을 탈환하는데 성공하고 이어 퇴각하는 왜와 가야 병력을 뒤쫓아 임나가라의 종발성從拔城까지 진격해 굴복시킴으로써 원상을 거의 회복하였다.

고구려의 구원 작전이 성공을 거두면서 신라의 입장에서는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상황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신라의 매금寐錦, 즉 국왕이 직접 고구려에 나아가 조공한 점이다. 매금은 「광개토왕비」를 비롯한 여러 자료에 보이는 신라 왕호이다. 이를 이사금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마립간의 다른 표기로 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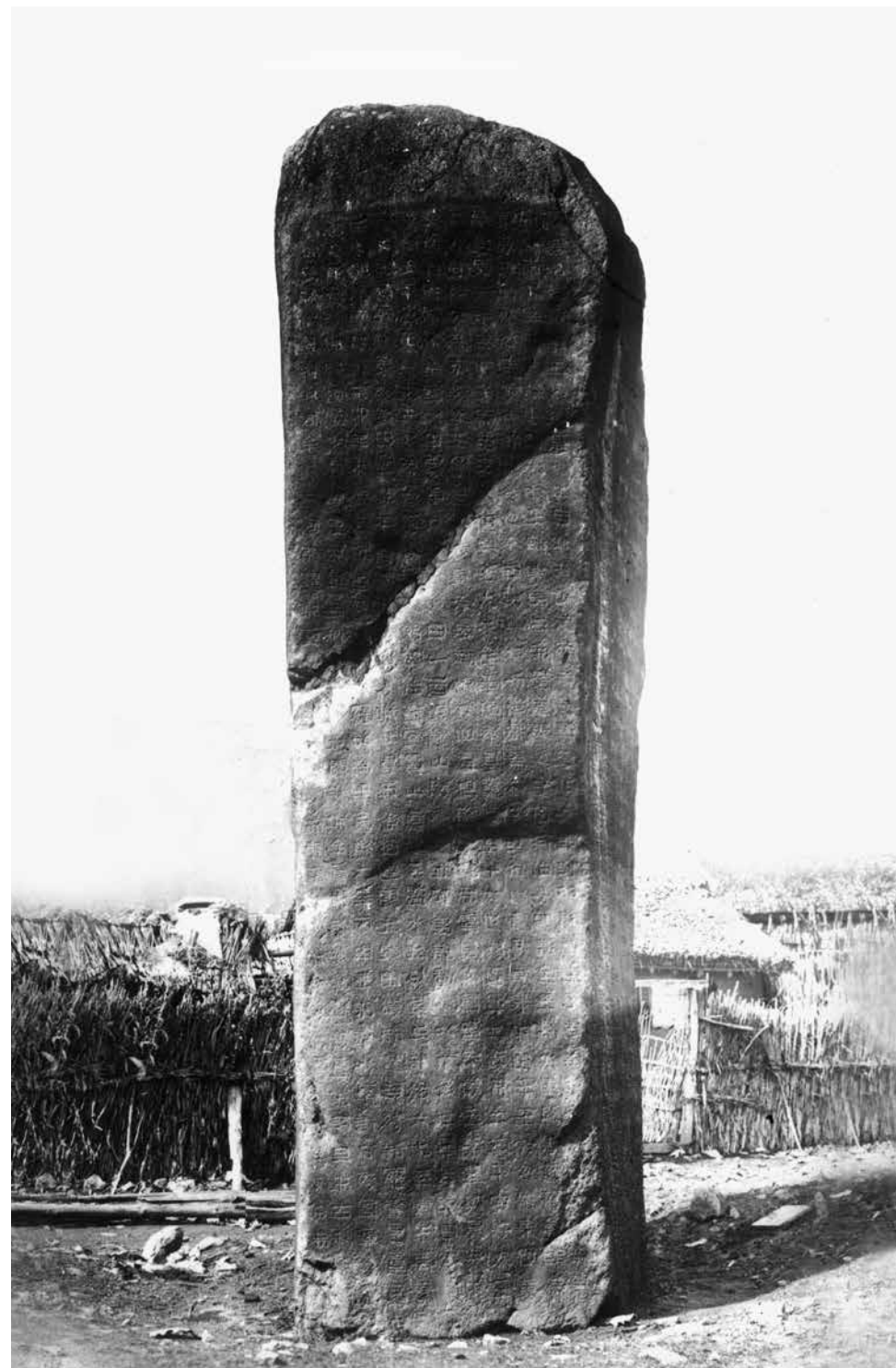
그림 2 광개토왕비

일반적이다. 원래 나물왕은 고구려의 직접 입조入朝 요구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이제 매금이 기꺼이 고구려에 나아가 신속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고구려에 직접 나아간 매금을 흔히 나물왕으로 간주하였으나 비문의 전후맥락으로 미루어 뒤이어 즉위한 실성왕일 가능성이 한결 크다. 신라왕의 직접 입조는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음을 나타낸다. 그에 따라 고구려의 문화도 저절로 물밀듯이 밀려들게 되었다.

둘째, 이 사건을 계기로 고구려 병력이 신라의 왕도와 지방의 요충지에 주둔하였다는 사실이다. 병력 주둔은 신라 매금이 고구려로 갔을 때 두 나라 사이에 합의를 거친 사항으로 보인다. 이제 신라는 당분간 고구려의 예속 아래에 들어간 것이나 다름없었다. 「광개토왕비」에 보이는 속민屬民으로 규정된 내용과 어울리는 모습이다. 고구려가 나물왕의 세 아들 대신 10년 동안 볼모로 삼았던 실성을 즉위시킨 점,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는 다시 실성을 내몰고 대신 눌지를 왕위에 내세운 사건 등은 고구려의 내정 간섭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가늠하기에 충분한 증거이다. 신라는 400년 이후 상당한 기간 고구려에 예속되어 정치적 자립이 유보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는 거꾸로 신라가 고구려의 우산 아래에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차근차근 마련해갈 기회이기도 하였다.

셋째, 신라와 가야 사이의 경계가 낙동강으로 정리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이전에는 창녕의 비자발이 가야의 7국 가운데 하나였던 데서 알 수 있듯이 낙동강 이동에도 가야 소속의 정치세력이 존재하였다. 당시까지는 아직 낙동강이 신라와 가야의 국경선으로 기능한 것은 아니었다. 이제 낙동강은 두 정치세력 간의 국경선으로 정리됨으로써 그 기능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요컨대 고구려가 신라의 위기 상황을 구원해 주고 군대를 주둔시킨 일은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신라 발전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고구려의 간섭이 정도를 넘어서자 역으로 신라의 발전에 차츰 질곡으로 작용하였다. 신라는 서서히 그에 반발하면서 자립화의 길을 꾸준히 도모해 갔다. 그를 상징하는 첫 사건이 고구려에 볼모로 가 있던 눌지왕 동생 복호의 구출 작전이었다.

나제동맹과 신라의 자립화 모색

신라는 400년 광개토왕의 병력이 낙동강 유역까지 남정해서 가야와 왜 연합세력을 물리쳐 구원해 준 이후 고구려의 강한 영향력 아래에 예속되었다. 고구려는 목적을 달성한 뒤 대부분의 병력을 곧바로 철수시켰으나 일부는 신라의 왕도를 비롯한 요충지에 남겨두었다. 병력을 주둔시킨 고구려는 신라의 내정에 간섭함과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반대급부를 요구하였다. 신라도 처음에는 부득이 그 요구에 순응하였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반발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가 신라 내부의 갈등을 조장하고 교묘하게 이용하면서 지배를 더욱 강화하려 한 것도 하나의 요인이었다. 그런 갈등은 마침내 실성왕과 나물왕의 장남 눌지 사이에 벌어진 싸움으로 표면화되었다. 두 사람은 5촌간으로서 장인과 사위의 관계이기도 하였다. 실성은 고구려의 힘을 빌려 눌지를 제거하려다가 실패해 도리어 축출되었다. 마침내 눌지가 고구려의 도움으로 즉위하였다.

실성왕처럼 고구려의 도움을 받은 눌지왕도 처음에는 기존 관계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정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그것이 신라의 발전에 뚜렷하게 장애가 된다고 진단하면서 점점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나 자주화하는 길을 모색해 갔다. 눌지왕은 그리 호락호락하지가 않았다. 일단 즉위하자마자 볼모로 십여 년 동안이나 해외 생활을 하던 자신의 두 동생을 귀국시키려는 시도를 단행하였다. 당시 정상적 외교 통로를 매개로 한 귀환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눌지는 비상적 방법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그를 추진하기 위해 선정된 인물이 박제상朴堤上이었다. 그의 출신지를 왕경, 양산이라 보는 등 논란이 되어 왔으나, 최근 울산으로 보려는 주장이 유력시되고 있다. 박제상은 상대하기 쉬운 고구려로 먼저 가서 복호를 구출한 뒤 곧장 왜로 가서 미사흔을 구출해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왜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신라가 고구려의 예속 아래 있었음에도 복호를 신라로 데려오는 데 정상적 외교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신라와 고구려 두 나라 사이에 어떤 문제가 내재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당시 칼자루를 쥔 쪽

이 고구려였으므로 신라도 처음에는 정상적 창구를 통해 처리하려 했을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 비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 이는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실제로 그리 순탄하지가 못하였음을 시사한다.

이 시기 고구려 내부에서도 이미 실성을 지지하는 입장과 눌지를 지지하는 입장이 서로 대립하던 상황이었다. 정상적 외교를 통한 접근에 반대한 쪽은 눌지의 즉위를 탐탁하지 않게 여겼다. 눌지왕이 부득이 박제상을 동원해 비상적 구출 작전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성공을 거둔 것은 고구려 내부에서 눌지를 지원한 세력 덕분이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눌지왕은 결국 자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하게 느꼈던 것이다. 고구려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방안은 서서히 백제 쪽으로 접근하는 길이었다. 때마침 427년 단행된 고구려의 평양성 천도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그를 상당한 위기로 인식한 백제가 공조를 위해 먼저 신라에 접근하였다. 공동 대처를 절실히 바라던 신라가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일단 433년 나제동맹이 결성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갓 출범한 약체의 신라가 국제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얻었던 경험은 이후 신라의 발전에 상당한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약소국으로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강대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6세기 중엽의 진흥왕대에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동시에 적으로 돌리는 일대 결단을 단행하고 그것이 성공을 거둔 것은 어쩌면 이때의 시련과 경험 같은 것이 계속 축적된 덕분이었을지 모른다.

고구려와의 관계 파탄과 변화

나제동맹이 성립되었다고 해서 신라가 곧장 반反고구려 기치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입장은 아니었다. 신라는 한동안 교묘하게 이중적 외교 입장을 견지하면서 저울질하였다. 당분간 예전처럼 고구려와도 우호관계를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자주노선을 선언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다. 백제와는 우호적 관계를 긴밀히 맺어가면서도 물밑에서는 언제 가해질지 모를 고구려의 압박에 대응하는 양면책을 구사하였다. 앞으로 신라가 나아갈 기본 방향은 친백제·반고구려 쪽으로 잡혔던 것이다.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조성된 갈등의 수위는 점점 높아져 갔다. 직접적 마찰과 대립은 중앙에서보다도 변경지대에서 먼저 일어났다. 450년(눌지왕 34) 고구려의 변장邊將이 실직悉直(오늘날의 삼척)의 들판으로 사냥을 나왔다가 신라의 하슬라何瑟羅(오늘날 강릉) 성주城主 삼직三直에게 피살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변장이나 성주의 구체적 실체는 모호하지만 중앙으로부터 파견된 지방관 혹은 군관이라기보다는 모두 당해 지역 출신의 유력자였을 가능성이 크다. 각각의 영역 내 유력자 사이에 벌어진 다툼이었다. 피해를 입은 고구려는 그에 항의하는 한편 보복하기 위해 신라의 변경을 대상으로 직접적 군사 행동을 감행하였다. 이에 신라가 즉시 사죄함으로써 이 사건은 더 이상 비화되지 않고 일단 마무리되었다. 그렇지만 이후 두 나라 사이의 군사적 긴장과 대립은 점점 고조되어 갔다. 454년(눌지왕 38)에는 고구려가 갑자기 신라의 북변을 공격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 이듬해에 고구려가 백제를 공격하였을 때 신라는 병력을 보내어 백제를 도와주었다. 이처럼 신라는 노골적으로 군사 대결을 시도함으로써 고구려와 결별하는 마지막 수순을 밟아갔다.

그런데 『일본서기』에는 464년 이전의 어느 시점부터 고구려 병력 일백여 명이 신라의 왕도에 주둔하였음을 전하는 기록이 있다. 이 병력이 언제부터 신라 왕도에 주둔한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400년 고구려 남정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주력군은 철수하였으나 한동안 일부 병력은 돌아가지 않고 잔류하였다. 병력의 수는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그들의 신라 주둔이 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으면 눌지왕 즉위 이후 일단 철군하였다가 어떤 다른 사건을 계기로 재차 파견된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464년 시점에서 보면 주둔 병력은 극히 소수였으므로 외적의 공격에 대해 신라를 직접 도와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도 군사 고문顧問 정도의 명분을 내세워 차라리 신라의 내부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데에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짐작하면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던 455년의 군사적 충돌 이후 두 나라가 일시 타협한 결과일 공산도 크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바로 직전의 여러 해

동안 왜가 신라의 변경을 대규모로 침범한 사례가 보이므로 그에 대비하기 위해 일시 고구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수도 있었겠다. 여하튼 그 이전부터 신라 왕도에는 고구려 병력이 주둔하였음은 분명하다. 이는 두 나라의 관계가 심한 굴곡을 거치면서도 아직 완전하게 파탄이 난 상태는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그런데 464년 신라가 왕도에 주둔하던 고구려 병력 일백여 명을 일시에 급습해서 몰살시키는 사건을 일으켰다. 그 내용이 『일본서기』에 매우 설화적인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다. 고구려의 백여 명 주둔 병사 가운데 한 사람이 휴가를 얻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길을 안내하던 신라인 경마잡이(典馬)에게 자신들이 신라를 공격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정보를 누설하였다. 경마잡이는 중도에 몰래 신라로 되돌아와 고구려 휴가병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전하였다. 신라는 선수를 쳐 주둔 고구려 병력을 모두 죽였다. 이때 살아남은 병사가 탈출해 이를 본국에 알렸다. 이로써 두 나라는 드디어 원수지간이 되기에 이르렀다.

설화성 짙은 부분이 뒤섞여 있으나 골격까지도 모두 그렇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다. 상당 부분은 사실성을 띤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에서 확인되는 그 시점 전후의 분위기는 그런 실상을 방증한다. 신라는 이후 고구려의 공격에 대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갔다. 위의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오래도록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면면히 이어져 왔던 신라와 고구려 두 나라 사이는 464년의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파탄이 난 셈이었다. 신라는 장차 고구려의 공격이 필히 있으리라 예상하고 여러 모로 대비책을 강구해 나갔다. 특히 이를 계기로 신라는 체제를 전면 재정비함으로써 새로운 지배질서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2 부체제와 그 운영

6부의 성립

4세기 중엽 신라가 진한의 여러 분립된 정치세력을 통합함으로써 성립했다 하더라도 지배질서가 즉각 그에 어울리게 구축된 것은 아니었다. 새로운 지배체제가 뿌리를 내리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아직 기존 질서가 강하게 온존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신라 영역으로 편입된 지역도 비록 독립성은 상실하였으나 아직 기존 기반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고 일정 부분 유지되고 있었다. 따라서 명실상부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정립해 가는 데는 상당한 절차와 과도기적 과정이 필요하였다.

사로국은 원래 내부가 여러 개의 읍락邑落으로 구성된 구조를 하고 있었다. 그 가운데 정치적 중심 역할을 맡은 읍락은 각별히 국읍國邑이라 불렸다. 이런 내부 구조는 신라의 성립과 더불어 근본적으로 바뀌어 나갔다. 진한사회의 통합으로 사로국 자체 내부도 결속을 추진해가면서 읍락의 재편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읍락 간 재편 과정을 거쳐 새로이 성립한 조직체가 바로 부部였다.

부란 명칭은 뒷날 어느 시점에 이르러 신생국 신라에 비해 선진국으로서 정치적, 문화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고구려의 그것을 본받아 붙여졌다. 다만, 사로국의 각 읍락이 신라의 성립과 함께 그대로 부로 전환한 것은 아니었다. 사로국의 주도권이 석씨로부터 김씨족단에게 넘어간 것도 그런 과정에서 진행되었다. 여러 읍락이 전면적으로 재편된 결과로서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것이 부였다. 인적 구성이나 물적 토대가 기존 읍락보다 한결 커진 부도 생겨난 반면 그들에 흡수됨으로써 소멸한 읍락도 있었다. 몇몇 읍락이 합쳐져 하나의 부로 재편되기도 한 만큼 사로국을 구성한 기존 읍락의 수와 새로 출현한 부의 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재편의 과정을 거쳤으므로 부는 읍락과는 성격을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조직체였다. 읍락에 비해 부는 내부의 계급 분화가 한층 더 진전되었으므로 그만큼 공동체성은 약화된 상태였다.

부의 성립 시점에 대해 이사금 시기로 보는 견해와 마립간 시기로 보는 견해로 엇갈려 있다. 재편을 고려하면 후자 쪽이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읍락이 부로 바뀐 것 자체가 그 직전과는 다르게 어떤 내부 구조의 변화를 동반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라의 출현이란 곧 읍락을 대신한 부의 성립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신라의 핵심 지배자 집단으로서 부가 출현하자마자 곧바로 그와 같은 단위 명칭이 붙여진 것은 아니었다. 그런 집단들이 존재하다가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 비로소 부라 불리었다. 6세기 초의 금석문에 동일 집단을 대상으로 부를 붙이기도 하고 생략한 경우가 있음은 그를 방증한다. 이는 그때까지도 부란 단위명이 아직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하였음을 뜻한다. 신라에서 부란 용어가 수용된 것은 5세기 후반 무렵의 일로 짐작된다. 부란 용어가 채택된 것은 그 집단이 고구려의 5부와 유사하게 기능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의 부는 외형상 고구려의 그것이 수용되었으나 양자는 규모나 구조 및 운영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고구려의 5부 각각은 원래 나那 또는 나국那國이라 불리는 하나의 읍락국가 규모였다. 이를테면 국왕을 배출한 계루부는 원래 하나의 독립국이었다. 따라서 개별 나부는 다시 여러 개의 읍락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와 비교할 때 신라에서 최종적으로 완성된 6개의 부는 모두 합쳐야 겨우 사로국, 혹은 그보다 약간 더 큰 규모였다. 신라의 6부를 고구려의 5부와 대비하면 6부 전체가 고구려의 1개 부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이후 두 나라의 지배 구조나 정치 운영에서 차이를 가져온 근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신라의 부는 탁喙(또는 梁), 사탁沙喙(또는 沙梁), 모탁牟喙(또는 牟梁), 본피本彼(또는 本波), 습비習比(또는 斯彼), 한기漢祇(또는 漢只)의 6부로 일단 완결되었다. 그런데 성립 당초부터 6부로 출발하였다는 견해가 있고, 그와는 달리 처음에는 3부였다가 부 사이에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규모가 차츰 커져 가장 유력한 부가 다시 3개 혹은 2개로 분화되어 마침내 최종 6부로 정리되었다는 새로운 견해도 있다. 전자는 사로국을 구성하던 6촌이라 불린 6개의 읍락이 그대로 6부로 바뀌었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러면서도 양자의 차이나 과정 등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면 사로국이 신라로 전환되면서 외형은 물론이고 내부적으로 진행된 통합운동에 따른 재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해하는 결과가 된다. 신라라는 새로운 국가가 출현하였는데 내부적으로 아무런 변동이 뒤따르지 않았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6개의 읍락이 그대로 6부로 이행하였다고 보는 해석은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한편, 후자는 그에 대해 의문을 품고서 제기된 주장이다. 특히 부가 지닌 운동성과 자립성을 기본 바탕으로 의식한 데서 도출되었음이 특징적이다. 부는 그 자체로 정치적 독자성을 강하게 지녔던 만큼 모두 균등하지가 않았다. 신라로의 발전 과정에서 사로국의 읍락이 3개로 통합되면서 부로 전환되었는데 이 세 개의 부는 각각 규모가 달라 동등한 권한과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었다. 부별로 대외 군사 활동을 경쟁적으로 벌였으며 그 결과 얻은 전리품을 차등적으로 배분 받음으로써 그 규모나 구조의 차는 더욱 벌어졌다. 이런 경향성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강화되어 나갔다. 마침내는 탁과 같은 유력 우세한 부가 자체 분화를 겪음으로써 6부가 성립하였다는 주장이다.

전자는 기왕에 오래도록 유지되어 온 주장인 반면 후자는 새로운 금석문 자료에 근거한 신설이다. 아직 그 결과가 완전하게 정리된 상태는 아니지만 장

차 부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그 성립의 과정과 성격 및 기능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

부체제와 회의체

6부는 흔히 지배자 공동체라 일컬어지고 있다. 부가 사로국 내부의 승리자들이 최후로 결집함으로써 나온 조직체였으므로 이는 적절한 이해이다. 거기에는 사로의 지배자뿐만 아니라 그에 복속되어 중앙으로 편입된 지방의 유력자까지도 들어 있었다. 사로 내부의 재편을 거친 결과 성립한 것이 부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기존 체제는 저절로 바뀐 셈이었다.

부의 출현과 동시에 지배층 재편의 수단으로서 마련된 것이 간제干制였다. 부를 구성한 유력자에게 간(그로부터 분화한 干群들도 포함)이라는 칭호를 획일적으로 부여하였다. 왕경 유력자의 경우 세력 기반의 대소나 우열에 따라 이미 서열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였으므로 일률적으로 간이란 호칭이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간도 서열에 따라 약간의 분화가 진행된 것이었다. 뒷날 왕경인을 대상으로 지급한 경위京位의 모태는 바로 여기에 있다.

간제의 도입은 곧 지배자 공동체 내부에서 일정한 재편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뜻한다. 이는 새로이 성립한 지배체제가 그 전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서, 부의 성립과 함께 일어난 커다란 변화였다. 간들로 편제된 유력한 지배세력을 대표하는 수장이 바로 '으뜸 간', '우두머리 간'으로서의 마립간이었다. 신라가 성립하면서 사로국 자체는 이제 왕도로 기능할 발판을 갖춘 셈이었다. 물론 사로국이라는 인식을 완전하게 벗어나 그것이 제대로 왕도로서 기능하기까지는 이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일단 그 씨앗은 뿌려진 셈이었다. 왕도의 성립은 곧 그에 상대되는 지방의 존재를 상정하게 한다.

간이란 호칭은 왕경 6부의 유력자만이 아니라 지방의 유력자에게도 동시에 주어졌다. 신라의 지방으로 편입된 기존 독립국 유력자들의 기반이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탓에 아직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들의 기반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는 방편으로 간이란 칭호를 부여해 대우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뒷날 지방민을 대상으로 한 외위外位의 시원이었다.

이처럼 출발 당시의 간은 중앙과 지방 사이에 별다른 차별이 없었음이 큰 특징이었다. 이 점은 6세기에 왕경인을 대상으로 해서는 경위를, 지방민 유력자에게는 외위를 지급함으로써 신분체계를 달리 운영한 사실과는 대조된다. 이후 지방에 대한 지배를 줄곧 강화해 가면서 지방민의 위상을 크게 약화시켜 나갔다.

이처럼 마립간 시기 초에는 왕경인과 비교해 지방민이 크게 차별을 받지 않았다. 이는 진한 시기의 질서가 일정 부분 지속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아직 중앙집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비롯된 당연한 결과였다. 그렇지만 이후 지방지배가 강화되자 지방 유력자의 기반이 점차 침탈당하면서 크게 차별 받는 쪽으로 진행되었다.

당시 마립간의 지위와 위상 자체는 초월적 상태가 아니었다. 마립간은 신라 국왕이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탁부의 부장이었다. 6부의 부장 가운데서 서열상 제일급이지만 결코 절대권자는 아니었다. 신라 국가의 중요한 일은 각 부의 부장을 비롯한 그에 버금가는 유력자들이 참여한 회의체에서 논의되었다. 6부 각각은 우열의 격차가 났으므로 회의체의 참여자 수도 부별로 달랐다. 유력 우세한 부의 경우는 부장을 비롯한 다수가, 그렇지 못한 부는 소수만이 참여하였다. 시기가 내려올수록 그런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회의체가 간이라 불리는 지배층으로 이루어졌다는 의미에서 고구려나 부여의 제가회의諸加會議의 사례로부터 유추해 간군회의干群會議, 혹은 제간회의諸干會議라 부른다. 마립간은 그런 간군회의의 주재자였다.

이처럼 부 출신자로 이루어진 회의체를 중핵으로 운영된 지배질서를 일반적으로 부체제라 일컫는다. 부체제에서 가장 중시된 것은 바로 회의체를 운영한 사실이다. 신라 국가의 모든 중요 사항이 회의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부체제는 그 이전의 공동체성을 완전하게 탈각하지 못하였음을 보여 준다.

간군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왕경인으로만 한정된 것은 아니었다. 간이란 칭호를 보유한 지방의 유력자에게 적어도 겉으로는 자격이 동등하게 부여되었다. 그들도 처음에는 중앙의 정치에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었다. 물론

거리상의 제약이 있었으므로 모든 회의에 언제나 직접 참여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특별히 분쟁의 소지가 큰 외교상의 문제나 군사 동원과 연관된 전쟁과 같은 핵심 사안은 그들도 참여한 회의체에서 결정되었다. 이는 결정사항이 지방민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데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 점은 눌지왕이 즉위한 뒤 고구려와 왜에 볼모로 가 있던 자신의 두 동생을 구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가운데 당시로서는 가장 변경 지역 출신 유력자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박제상을 적임자로 선정한 사실로부터 방증된다. 이처럼 부체제의 초기 단계에 간을 부여받은 지방 유력자에게도 신라의 중앙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은 진한에서의 운영 원리가 아직 완전히 일소되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부체제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관부가 따로 두어지지 않았으며, 당연히 관직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부별로 시원적 형태의 관료 조직은 갖추어져 있었다. 이는 실무를 담당하고 내부 서열을 나타내는 용도로서 관직과 관등을 겸한 성격의 것이었다. 다만, 전체 부가 모두 대등한 상태는 아니었다. 6부 가운데 특히 마립간을 배출하는 탁부나 갈문왕葛文王을 부장으로 한 사탁부와 같은 부는 지배집단의 층위가 매우 두터워 간을 칭할 만한 유력자의 수가 많았다. 자연히 그를 보좌하는 실무자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마립간 시기에는 아직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관료체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부별로 다원적 형태의 초보적 관료 조직이 갖추어졌음이 특징이다. 부에 한정된 사안은 부별로 자체 결정되어 실행으로 옮겨졌다.

이상과 같이 마립간 시기의 지배층은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그룹과 이를 집행하는 두 그룹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었다. 이를테면 크게 간층은 전자에, 나마奈麻층 등은 후자에 속한다. 어느 경우라도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집행하는 구조였다. 그것이 부체제 운영상의 또 다른 주요 특징이었다. 이는 아직 특정 집단이 배타적, 우월적 지위를 완전히 확립하지 못하고 함께 대처해야 하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인하게 잔존한 데서 기인한다.

매사가 부를 중심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에 마립간의 위상도 뒷날의 국왕에 비해 그리 높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른 부들로부터 늘 견제를 받는 처지였다. 특히 탁부와 비슷한 규모의 위상을 지녔던 사탁부의 부장은 마립간의 강력한 경쟁자였다. 사탁부의 부장을 특별히 갈문왕이라 부른 자체가 그를 방증한다. 그래서 당시에는 마립간과 갈문왕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마립간 시기에는 갈문왕이 사탁부 부장을 비롯해 여럿이었다. 왕비의 아버지나 왕의 동생도 갈문왕으로 불리었다. 다만, 그들이 대부분 자기 당대로 한정되는 일회성의 상징적 호칭을 지닌 데에 지나지 않았다면 사탁부의 갈문왕만은 유일하게 지위를 세습한 현실적 실력자였다. 갈문왕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운영한 것은 당시 진행되기 시작한 가계 분화 현상과 맞물려 있었다. 큰 범위의 왕족 내부에서 왕위계승권을 배타적으로 보유한 왕가王家나 왕실王室 개념이 조금씩 싹터가고 있었다.

부체제 운영과 그 한계

마립간 시기 정치 운영의 주축을 담당한 것은 6부였다. 6부 각각은 강한 독자성을 지니면서 신라 국가 전반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적 기능을 하였다. 6부의 부장을 비롯한 부별 유력자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국가의 중대한 일들이 결정되고 추진되었다.

그런데 6부 모두가 대등하지를 않았다. 인구 구성이나 규모면에서 차이가 났으며 크게 유력 우세한 부와 그렇지 못한 약체의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6부 가운데 탁喙과 사탁沙喙의 2부가 전자였다면, 나머지 4부는 내부적으로 약간의 우열 격차는 있었지만 후자에 속하였다. 그들 간 격차는 시기가 내려오면서 점점 더 벌어져 갔다. 그런 측면에서 부체제란 영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한시적 성격의 것이었다고 하겠다. 유력 우세한 2부를 중심으로 정치력이 더욱 결집되자 다른 4부는 저절로 현저히 약화되는 길을 걸었다. 5세기를 거치면서 부체제는 머지않아 무너질 운명을 맞아가고 있었다.

부체제를 오래도록 유지하지 못하게 한 또 다른 요소는 내부 구성에서도 찾아진다. 6부 각각은 혈연적 기반을 달리하는 여러 다양한 소집단으로 이루

어져 있었다. 이런 소집단을 부내부部內部라 부르려는 견해도 있다. 겉으로는 6부 각각이 마치 하나의 혈연집단으로서 독자성을 지닌 강고한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통이 다르고 정치적 입장과 지향을 달리하는 여러 소규모 집단의 결속으로 이루어진 조직체였다. 하나의 거점 읍락을 중심으로 여러 소집단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탓이었다. 소규모 집단들은 주류와 비주류로 나뉘고, 그들 사이에는 상당한 우열의 편차가 존재하였다. 소규모 집단 각각도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였다. 파사왕婆娑王대에 그 아들인 지마祗摩의 배필을 얻을 때 한기부 내의 두 정치세력 사이에 보였던 갈등과 대결의 양상은 그런 실상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런 측면에서 부는 성립 당초부터 부서지기 쉬운 구조를 한 조직체였던 셈이다. 부 각각의 내부는 어느 정도 분화된 계급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크게는 동일한 혈족 집단인 듯 보이면서도 다시 여러 가계로 이루어져 있었다. 가계들은 정치적으로 상호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였다. 나물왕의 후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그 직계 비속卑屬과 실성왕 사이의 싸움은 그런 사정의 일단을 잘 보여 준다. 이들 양자는 같은 김씨족단으로서 서로 가까운 혈연관계였다. 가계 분화가 진행되자 동일한 혈연이라도 정치 지향을 달리하면 대립·갈등하게 됨을 보여 주는 뚜렷한 사례이다.

하나의 부를 구성한 여러 작은 혈연 집단의 가계가 분화되는 모습은 그 내부의 혼인 양태를 통해서도 유추된다. 마립간 시기가 출범한 전후의 혼인 관계를 살피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정리된다. 하나는 전혀 다른 혈연 집단과의 사이에 행해진 소위 족외혼族外婚이며, 다른 하나는 동일한 집단 내에서 이루어지는 족내 혼인이다. 마립간 시기 이전부터 그와 같은 두 경향은 뚜렷이 대비된다. 아마 동일한 혈연 집단에서 그처럼 다른 양상으로 혼인이 추진된 데에는 각기 나름의 이해관계와 명분이 내재되었을 터이다. 동일한 집단 내에서의 혼인이 일정한 경향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행해졌다면 이는 그 자체가 바꾸기 힘든 하나의 관행으로 굳어졌음을 뜻한다. 끝내는 그것이 상호 배타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강한 정치적 지향성까지도 갖게 되는 것이라 하겠다. 뒷날 성립한 골품체제 아래의 혼인이란 바로 그런 속성으로부터 배태

된 것이었다. 마립간 시기 국왕의 혼인관계를 통해 그런 사정을 뚜렷이 간취해낼 수 있다. 마립간 시기의 문을 연 나물왕대를 기준으로 전후 사정을 살피면 그런 실상의 대강이 드러난다.

김씨족단이 정치적 세력 기반을 제대로 구축한 것은 사실 나물왕의 할아버지 구도仇道 때의 일이다. 그에게는 미추味鄒, 말구末仇의 두 아들 외에 또 다른 아들로서 대서지大西知란 인물이 있었다. 대서지는 바로 실성왕의 아버지이다. 그런데 『삼국사기』에서는 대서지의 출자를 김씨 시조인 알지閼智의 후예라는 사실만 간단히 언급하였을 뿐 구체적 가계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와 달리 『삼국유사』에서는 미추왕의 동생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실성이 나물왕에 의해 볼모로 선정되어 고구려로 보내져서 10년간이나 머무른 점,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이기는 하나 귀국 후 마침내 나물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나물왕과는 혈연관계가 그리 멀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아무래도 4촌간으로 기록한 후자 쪽이 한결 타당할 듯하다. 그렇다면 구도는 나물왕과 마찬가지로 실성왕에게도 할아버지가 된다. 구도에게는 이사금에 오른 미추와 나물의 아버지인 말구, 그리고 실성의 아버지인 대서지 등 세 아들이 있었던 셈이다.

형제 사이인 미추와 대서지가 석씨와 혼인한 반면 말구만은 각별히 김씨인 휴례休禮부인과 혼인하였다. 휴례가 말구와 어떤 혈연관계였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으나 같은 김씨족단 내부에서의 혼인이었음은 분명하다. 미추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며 대신 딸만 2명 있었다. 두 딸 가운데 한 사람은 나물과, 나머지 한 사람은 실성과 혼인하였다. 위의 4명은 모두 종형제 사이였으므로 극심한 근친혼이다. 김씨족단 내부의 근친혼 관행은 말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물왕의 장남인 눌지는 정치적 경쟁관계에 있던 실성왕의 딸과 혼인하였는데 두 사람은 6촌간이었다. 눌지의 아들인 자비는 서불한 미사흔未斯欣의 딸과 혼인하였다. 미사흔은 나물왕의 셋째 아들로서 눌지의 동생이므로 자비는 4촌과 근친혼을 한 셈이 된다. 자비의 아들 소지는 이벌찬 내숙乃宿의 딸 선혜善兮를 왕비로 맞아들였다. 내숙은 뒷날 진흥왕대에 『국사國史』를 편찬한 거칠부居柒夫의 할아버지 잉숙仍宿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다면 선혜는 거칠부의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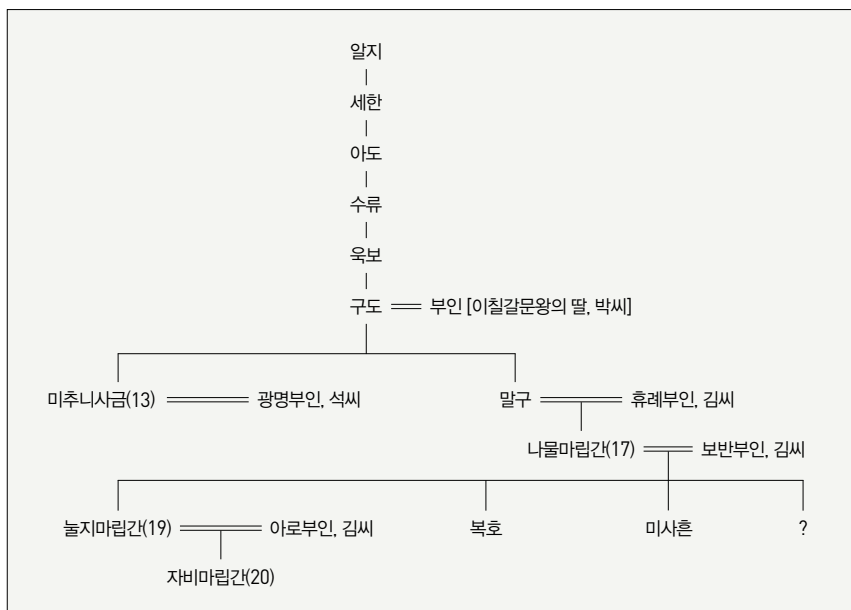
그림 3 나물왕 중심의 가계도

물력勿力과는 남매지간이다. 거칠부가 나물왕의 5세손이라 하므로 내숙(잉숙)은 3세손으로서 증손자에 해당한다. 소지도 나물의 3세손이므로 내숙과는 곧 형제 항렬이라서 서로 아무리 멀어도 6촌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소지와 선혜의 혼인도 상당한 근친혼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보면 나물왕의 직계 비속으로서 마립간에 오른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8촌 이내와 근친혼을 행하였음이 확인된다. 마립간 시기의 국왕에게는 근친혼이 일종의 원칙으로 고착된 상태였다. 이런 근친 간의 혼인 양상은 이어지는 시기인 중고의 전반기와는 무척 대조되는 모습이다. 소지왕과의 정치적 대결을 통해 왕위를 승계한 지증왕은 물론이고 그 아들인 법흥왕, 그리고 그를 이어 즉위한 진흥왕은 모두 김씨가 아니라 다른 족단인 박씨와 혼인하였다. 3대에 걸쳐 박씨와의 혼인이 이루어졌음은 당시 그 가계에서는 하나의 관례로 정착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소지왕은 지증왕과 가까운 혈연관계이기는 했어도 이미 두 가계는 혼인 양태에서 나뉘고 있었다. 이것이 곧 서로 간 정치적 입장과 지향이 달랐음을 방증하는 것으로서 직계와 방계처럼 가계 분화가 일정 정도 진행되었음을 드러내는 사례이다.

그와 같은 경향은 나물왕 이전부터 나타났다. 나물왕의 할아버지 구도는 박씨와 혼인하였고, 두 삼촌인 미추왕과 대서지는 모두 석씨와 혼인하였다. 당시는 소위 족외혼이 주류적 경향이었다. 반면 그의 아버지 말구만은 같은 김씨와 혼인하였고 그것이 이후 계속 이어졌다. 대서지의 아들인 실성도 나물과 마찬가지로 미추왕의 딸과 4촌간 근친혼을 행하였다.

그렇다면 마립간 시기를 전후한 지배집단 내부의 혼인 양상으로는 일단 크게 근친혼과 족외혼의 두 흐름이 존재하였음은 확인된다. 원래는 후자가 일반적 관행이었다. 이는 다른 혈연집단과의 혼인을 자신의 세력기반을 유지해 나가는 수단으로 삼는 경향이었다. 반면 근친혼은 말구 이후 마립간 시기 국왕 중심 지배세력의 주류적 혼인 양태로 정착되었다. 김씨족단 가운데 특히 마립간의 지위를 승계한 가계에서는 극심한 근친혼을 행하였다. 나물왕의 직계가 근친혼을 행한 것은 당시로서는 일반적 관행이 아니라 차라리 특수 사정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근친혼은 다른 집단과 혼인을 하지 않고도 자체 기반을 충분히 단단하게 갖추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달리 말하면 이는 마립간 시기를 연 김씨족단의 주류가 그만큼 정치적으로 강력한 기반을 지니고 정통이라 자처하였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같은 김씨족단 내에서도 다른 혈연집단과의 족외혼을 추구해 나간 가계가 따로 존재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방계들이었다. 그들은 직계와 내부적으로 경쟁하며 우위를 지켜가기 위해 다른 혈연집단과 연계할 필요가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족외혼을 추구한 것이었다.

마립간 시기 지배체제 내부의 불안정성, 급속히 진행되던 가계의 분화 등은 안팎으로부터 어떤 계기가 주어진다면 질서를 뿌리 채 뒤흔들 만한 요소를 미리 갖추고 있었다. 그 직접적 계기는 고구려와의 관계 파탄에서 야기된 지방 재편이란 배경으로부터 주어졌다.

3 지방지배의 시작과 방식의 변화

지방의 재편

신라는 사로를 거점으로 한 넓은 영역을 보유한 국가였다. 신라가 성립하자 사로 지역은 저절로 왕경으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사로는 신라의 정치적 핵심세력이 자리한 곳으로서 서라벌, 서벌이라고도 불리었다. 오늘날 수도를 의미하는 서울이란 단어의 어원이다.

왕도의 성립은 그에 상대되는 지방의 존재를 뜻한다. 신라는 왕도와 함께 지방이라는 두 축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국가이다. 당시 신라의 지방은 과거 진한 시절 독립적 읍락국가가 기본단위였다. 이들은 신라 영역으로 편입되어 독립성을 차츰 상실하였다. 상호 대등한 관계로부터 지배·피지배 관계로 바뀌면서 여러 형태의 제약이 가해졌다. 오래도록 정체성을 나타낸 용도의 국명은 단순한 지역명으로 바뀌거나 전혀 다른 새로운 지명으로 대체되었다. 국명이 그대로 지명으로 통용된 경우는 기존의 지배 구조가 완전히 해체되지는 않았음을 뜻한다. 지방 유력자의 지배권이 일부 박탈되기는 하였으나 그 지위가 상당 부분 그대로 어어진 것이었다. 반면, 새로운 지명으로 대체되었다는 것은 주요 기반이 해체되는 과정을 밟았음을 나타낸다. 이는 재지 유력자들이 중앙정부에 반기를 들거나 비협조적일 경우에 취해진 조치였다. 이때에는 신라의 지배를 수용하는 새로운 지배세력이 전면에 대신 내세워졌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라의 전체 영역은 꾸준히 재편되어 나갔다.

신라 중앙정부는 영역을 편제하면서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하였다. 하나는 촌제村制이며,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한 간제干制였다. 촌은 원래 3세기 중국의 삼국 전란기에 자위적自衛的 목적에서 쌓은 방어벽으로 둘러싸인 지역을 가리키는 데서 나온 용어였다. 고구려에서는 이를 수용해 여러 취락으로 이루어진 촌락을 지칭하는 데 사용하였다. 신라에서는 고구려를 통해 촌제를 받아들였는데 처음에는 지방 가운데 특정한 정치적 중심 거점을 가리켰다. 고구려의 촌이 지방행정의 기초 단위인 성城을 구성한 하위 단위였다면 신라에서는 고구려의 성과 같은 큰 규모를 대상으로 삼았다. 대체로 기존 읍락국가의 기초 단위인 읍락 수준이었다. 그것은 6세기 이후의 촌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행정의 기본 단위로 설정된 점에서 유추된다. 이후 촌은 차츰 그를 구성하는 하위의 자연 취락을 지칭하는 용도로까지 넓혀졌다. 이로 말미암아 신라의 촌은 수용 초기에는 거점만을 지칭하다가 어느 틈엔가 하위 단위까지도 가리키는 이중적 용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촌제가 전체 지역에 걸쳐 동시에 시행된 것이 아니라 일단 편제가 가능한 지역부터 먼저 설정한 뒤 점차 그 대상을 넓혀 나갔다. 촌으로 설정된 단위의 재지 유력자들에게는 간이란 새로운 호칭을 부여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간은 왕경의 유력자 뿐 아니라 지방의 유력자에게도 공히 주어진 호칭이었다. 지방의 유력자 가운데서도 촌으로의 편제 과정을 거친 곳의 유력자에 한정해 지배권을 공인해 준 것이었다. 출발 당초에는 간을 소지한 지방 유력자는 왕경 유력자와 동등한 대접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마립간은 지방의 유력자에게 간이란 칭호를 부여하면서 그 지위를 보증하는 현실적 물증으로서 옷과 함께 그에 부속한 일체의 장신구 등 이른바 위세품을 지급하였다. 지방 유력자가 주인공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 지역의 큰 무덤에서는 대체로 머리에 쓰는 관冠과 관모冠帽를 비롯하여 귀걸이, 목걸이 등의 장신구류, 허리띠 및 군사권을 상징하는 다양한 도검류刀劍類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 부장품들은 중앙의 적석목곽분에서 출토되는 것들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다. 외형적 규모나 질량면에서 왕경의 최고위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바로 다음 등급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는 지방 유력자가 소수의 최고위 왕족급은 아니어도 상당한 우대를 받는 존재였음을 증명하는 물증이다.

그런데 각 지방의 비슷한 크기를 가진 무덤에서는 유사한 양상과 획일성이 엿보인다. 이는 간이란 칭호를 부여받은 유력자들에게 중앙정부로부터 그 지위를 보증해 주는 위세품도 거의 공통적으로 주어졌음을 뜻한다. 물론 지방 세력의 규모나 정치적 중요도 및 유력자의 충성도 등에 따라 당연히 약간의 차등이 뒤따랐을 터이다. 그로 말미암아 동등하게 간이라 불렸더라도 점차 새로운 위계가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분화 과정을 거쳤다. 이는 곧 뒷날 성립하는 외위제의 초기적 모습을 반영해 준다.

간접지배방식

지방의 유력자들은 촌을 하나의 기준 단위로 해서 간을 지급받았으므로 그들은 대체로 '모모촌간村干'과 같은 형식으로 불리었다. 촌간이라 칭해진 유력자는 중앙정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고 반대급부로서 당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부여받았다. 과거의 독립된 읍락국가 시절 지녔던 전통적 권위와는 달리 이제는 중앙정부의 현실적 위세를 빌려 지방민에 대해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그들의 힘이 직접 미치는 범위는 당해 촌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통적으로 그에 부수되었던 일정한 범위까지도 포함되었다. 이른바 촌은 사실상 복속 당하기 이전 읍락국가의 국읍에 해당하는 거점의 성격을 지녔다. 이에 따라 나머지 기존 읍락들은 자연스레 촌간의 지배권 아래에 놓였다. 촌간은 중앙으로부터 승인받은 촌을 기반으로 삼아 여타의 읍락에까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중앙 정부는 촌간을 매개로 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신라가 지방 유력자들에게 읍락국가 시절 행사하던 권한을 인정해 준 것은 양자 사이에 이루어진 일정한 타협이 낳은 산물이었다.

신라의 지배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촌으로 편제되고 간이란 칭호를 받는 대상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였다. 말하자면 이는 곧 촌간이라 불리는 유력자의 수가 전반적으로 많아졌음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에서는 그들을 늘려가면서 상호 충성 경쟁을 유도하는 식으로 차츰 촌락 깊숙이까지 침투하려 하였다.

각 촌은 촌간을 정점으로 해서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 촌정村政은 여러 재지세력이 참여한 조직체를 통해 운영되었다. 뒷날 촌사村司의 모태가 된 조직이었다. 중앙과 마찬가지로 재지 유력자들이 참여한 회의체에서 공동으로 논의되었다. 미숙하나마 이 조직체에는 실무자로 구성된 초보적 행정 구조도 갖추어져 있었다. 그들의 조직은 고구려의 사례로 미루어 일정한 지위까지는 명단을 중앙에 보고해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촌락 내부의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지방을 통치해 나간 이유는 중앙정부의 지배체제가 지방관을 파견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화되지 못해 아직 미숙하였기 때문이다. 지방 유력자들은 비록 독립성을 잃기는 하였어도 정치적 기반까지 완전히 상실한 상태는 아니었다. 중앙정부로터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받는 대신 일정 수량의 공납貢納을 의무적으로 부담하였다. 이처럼 왕명을 대행하는 지방관을 직접 파견하지 않고 지방 유력자 중심의 공납을 매개로 해서 이루어지는 지방통치를 흔히 간접지배라고 일컫는다. 간접지배란 아직 중앙집권화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데서 나온 과도기적 지방지배 방식이었다.

간접지배라 하더라도 중앙정부로부터 통제와 관리가 모든 지역에 대해 일률적 수준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재지세력의 위상과 존재 양태가 각각 달랐기 때문이다. 복속의례적 성격의 공납을 바치는 것만으로 거의 완전한 자치를 허용 받은 경우, 원래의 재지세력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지고 전면적 재편을 거쳐 전혀 새로운 세력이 심어진 경우, 기존 유력자가 거의 그대로 기반을 온존한 경우 등으로 나뉜다.

간접지배 단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 유력자의 역할과 기능에 그만큼 기대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지방 유력자들이 멋대로 정치력을 행사하도록 방치해 둔 상태는 아니었다. 신라 중앙정부는 나름의 다양한 감독과 감시 체계를 마련해 두었다. 군사적 요충지에 중앙군을 파견해 통제를 가하기도 하고 수시로 감시관을 파견해 감찰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국왕이 직접 순수巡狩하면

서 위무하기도 하였다. 지역별로 충성 경쟁을 유도해 상호 결속을 방해하는 등 여러 조치를 강구하였다. 반란 사태 등으로 관리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군사적 정벌을 감행하여 기반을 완전히 해체시키기도 하였다.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지세력을 활용한 간접지배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이며 과도기적인 방식이었다. 중앙의 지배체제가 차츰 정비되거나 내부적 필요성이 커지면서 왕명을 대행하는 지방관 파견 문제가 자연스레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신라의 지배기반이 차츰 안정적으로 자리잡고 그와 함께 내부적 생산력이 급속히 향상되자 그럴 필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그 위에 주변 정세의 변동은 이를 더욱 촉진시켰다. 신라 중앙정부는 5세기 후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도사道使와 같은 지방관을 먼저 파견함으로써 직접지배를 하기 위한 본격적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지방세력의 성장과 재편

신라는 상당한 기간 고구려의 예속 아래에 있다가 점차 그를 벗어나 자립화의 길을 다각도로 모색하면서 국제동향을 면밀하게 살피는 등 소중한 외교적 경험을 쌓아 나갔다. 그것은 6~7세기에 치열하게 전개된 삼국 간의 항쟁에서 신라가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판단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자립화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서 고구려로부터 가해진 강한 압박으로 큰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위기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라가 내부의 체제 정비를 꾀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신라가 고구려에 직접 대항해서 자립화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면서 오로지 백제와의 동맹에만 전적으로 기댄 것은 아니었다. 신라는 당시 스스로 고구려와 대적할 만한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자신하였다. 자체의 내적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확보한 자신감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럴 정도로 신라는 마립간 시기를 통해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따라서 고구려의 예하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성장을 기본적 배경으로 삼아 이루어진 일이었다.

신라의 급성장은 곧 지방 지배를 토대로 하였다. 신라는 스스로의 형편에 맞추어 지방을 적절히 통제하면서 내적으로 크게 성장해 나갔다. 그런 양상은 5세기에 영조된 고총고분의 규모가 외형적으로 매우 커진 점, 그 수량 또한 엄청나게 늘어난 점, 게다가 거기에 부장된 유물의 질량質量이 앞선 시기에 비할 바 없이 풍부해진 점 등으로 뚜렷이 증명된다. 그것이 중앙의 지배세력에게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지방 유력세력도 동반된 것이었다. 말하자면 지방에 대한 성공적 지배는 곧 중앙의 성장이면서 동시에 지방 유력세력의 성장이기도 하였다.

그처럼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속히 성장한 배경은 당연히 농업생산력의 향상에 있었다. 농업생산력의 향상을 가져온 동력은 따비, 괭이, 쇠스랑, U자형쇠삽날, 살포, 호미, 낫 등과 같은 새로이 개발된 다양한 형태와 용도의 철제 농공구였다. 황남대총과 같은 대형의 고총고분에서는 20점의 쇠스랑과 14점의 U자형쇠삽날이 출토되었다. 비슷한 시기 왕경의 다른 고총고분이나 지방 유력자의 그것에도 마찬가지로 수치는 비록 적지만 농공구들이 부장되었다. 이 농공구들은 지역별로 유력자가 농업생산력을 관리·통제한 실상을 반영한다. 그 최고의 정점에 자리한 것이 마립간이었다.

한편, 이 무렵 전국적 규모로 축조되기 시작한 수리水利시설과 우경牛耕의 보급도 농업생산력의 향상과 관련해 주목해볼 만한 대상이다. 429년(눌지왕 13) 둑의 길이가 2170보步에 달하는 시제矢堤를 축조하였다는 사실이 상징하듯이 당시 중앙정부의 주도 아래 수리시설도 적지 않게 만들어졌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라 일반적으로 502년(지증왕 3) 우경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왔거니와 그에 훨씬 앞서는 시기의 보습이 발견된 사례로 미루어 우경은 사실상 한층 이른 시기에 시작하였음이 분명해졌다. 따라서 지증왕대에는 흔히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우경을 적극 보급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438년(눌지왕 22)에는 민에게 우차牛車의 법을 가르쳤다고 한다. 이는 단지 우차에 국한된 조치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소를 기르거나 다루는 기술을 함께 가르친 사실을 말한다. 따라서 그와 함께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우경과 같은 축력을 활용한 농법도 도입되었다고 봄이 온당하다.

이상의 몇몇 사항은 마립간 시기 농업생산력이 크게 진전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사례들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왕경을 재정비하도록 만들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고구려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주요 계기였지만 그것이 실제로 시행 가능하도록 한 것도 농업생산력의 향상이었다. 그 결과 인력과 물산은 자연히 왕경으로 집중되기 마련이었다. 마침내 왕경은 포화 상태에 이르러 이제 기존의 구조로서는 더 이상 수용이 곤란해졌다. 그래서 왕경 재정비의 일환으로서 수용된 대책이 이른바 방리제坊里制였다.

방리제의 채택은 곧 기존 6부의 재편으로 이어졌다. 490년(소지왕 12) 처음으로 왕경에 시사市肆, 즉 시장을 개설하여 사방의 물자가 원만히 유통되도록 조치한 사실은 지방의 인력과 물산이 왕경으로 집중되고 있었음을 뚜렷이 증명한다. 처음으로 시사를 열었다는 것은 그와 함께 잉여가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수준을 뛰어넘어 적지 않게 축적되었음을 뜻한다. 지방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물산이 그만큼 풍부해졌음을 말한다. 다만, 아직 국가가 직접 나서서 시장을 체계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해 나갈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지난 509년(지증왕 10)에야 동시東市를 설치한 것은 그런 실상을 반영한다.

지방에서 생산된 물산이 중앙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은 그를 위한 관리체계를 갖춘 데서 가능한 일이었다. 487년(소지왕 9) 처음으로 사방에 우역郵驛을 설치하고 해당 관청에게 명령해 관도官道를 수리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우역은 중앙에서 발급한 문서나 정령政令이 순조롭게 지방에 도달하도록 돕는 보조적 기능을 한 곳이다. 그런 우역을 교통상의 요충지 곳곳에다 설치한 것이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인적 왕래나 물자 유통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교통망의 조직화를 의미한다. 우역을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 관청으로 하여금 관도를 수리하고 관리하도록 하였다. 관도는 국가의 직접적 관리 아래에 둔 공식의 국도를 뜻한다. 물산이 증대하자 지방을 체계적으로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 준다.

농업생산력의 향상으로 물산이 중앙으로 점점 더 집중되는 현상이 벌어진 사실은 곧 중앙 지배세력 내부의 빈부 격차를 더욱 벌리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력의 격차는 정치력과 직결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자연히 지배세력 내부의 갈등과 분란이 야기되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6부 가운데 유력 우세한 탁 및

사탁 2부와 여타 4부 사이의 위상 격차는 한층 더 벌어졌다. 탁과 사탁부 중심의 방리제 정리로 나타나듯이 왕경의 전반적 재편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왕경의 재편만이 독립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그와 함께 지방에 대한 재편 작업도 비슷한 시점에서 시작되었다. 지방 재편을 추동한 계기는 축성 사업이었다. 지방 곳곳의 축성을 위한 역역 동원 방식이나 규모 등을 보이는 구체적 기록은 없지만 468년(자비왕 11) 니하泥河의 축성 사례로 미루어 15세 이상의 연령에 도달한 사람이 동원의 주된 대상이었다. 역역 동원의 필요성이 높아지자 국가 차원에서 연령별, 성별 파악을 위한 기초적 작업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를 현지에서 관리할 조직도 당연히 갖추어졌다. 물론 지역별 최고 우두머리인 촌간이 그런 역할을 총괄하였을 것이지만 역시 그 하위에서 실무를 담당한 조직도 당연히 운영되었을 터이다. 지방통치를 위한 기반 조직이 국가적 규모에서 비슷하게 이루어지게 된 데는 그런 배경이 작용하였다.

이처럼 5세기 후반 고구려와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축성을 위한 대대적 역역 동원이 필요하였고 그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 각지에서 지방민을 조직화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직전까지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운영되던 지방민 조직은 전국에 걸쳐 비슷한 모습으로 균질화되기 시작하였다. 지방민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은 국가가 직접 개입하게 되면서 비슷한 체계로 갖추어졌다. 국가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해야만 지방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용이해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 진행된 축성 작업은 지방을 전면적으로 조직화하는 주요 계기였다고 하겠다.

일단 시급을 요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축성을 위한 조직화 작업이 실시되었을 터이지만 그 범위나 대상은 점점 더 넓어져 갔다. 당장 전국에 걸쳐서 똑같은 조직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그럴 만한 발판은 마련된 셈이었다. 이와 같은 지방 인력의 조직화는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밑거름의 기능을 하였다. 동시에 지방민으로 편성된 공적 병력을 조직화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기도 하였다. 지방에서도 그 이전에 이미 촌간의 통제 아래 자체의 질서 유지를 위한 자위적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었다. 이제 그 규모가 커지면서 이후 지방의 행정 정비와 함께 지방 군사력이 조직될 기반이 마련되었다.

농업생산력의 향상은 곧 지방 경제력의 규모를 매우 크게 증대시켰다. 그 점은 각 거점 지역에 영조된 고총고분의 외형과 부장 유물로 입증된다. 마립간 시기의 모든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군사적으로 차지한 비중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적 대접을 받았다. 그 점은 고총고분의 규모나 수량을 비롯해 그로부터 출토되는 유물의 질량으로 미루어 짐작되는 사실이다.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 나아가는 교통상의 거점이나 요충지, 혹은 적대 세력과 접경한 지역이나 그에 버금가는 곳은 대체로 고총고분의 규모가 크고 수량 또한 많다. 거기에서 출토되는 유물 또한 그에 어울리게 대단한 양상이다. 토기와 같은 일상생활 용품은 물론이고 여러 위세품에서 중앙의 최고급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 다음 가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이는 마립간 시기 지방의 유력자가 정치적으로 어떤 대접을 받았던 것인지를 여실히 입증해주는 사실이다.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요충지의 유력자에게는 이탈이나 반란을 방지할 의도에서 크게 우대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런 지원을 발판으로 농업생산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한층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었다.

반면, 왕경에 가까워 중앙의 정치력이 직접 미치는 범위에 속하거나 혹은 이른 시기에 신라로 편입된 지역 등은 대체로 고총고분의 규모가 별로 크지 않고 그 수량 또한 많지가 않다. 이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고 당해 지역 유력자를 지방통치에 활용하던 간접지배 시기에 중앙정부가 반半자치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약화시킨 결과라 하겠다. 그것은 왕경과 가까운 곳부터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을 미리 제거하기 위한 데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지방관 파견과 직접지배의 시작

그런데 중앙정부의 입장으로서는 지방 유력세력의 성장과 발전을 무한정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었다.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자 그들에 대한 적극적 통제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구려와 완전히 결별할 무렵 지방 유력자에 대한 대비책도 아울러 강구하였다. 어쩌면 고구려는 신라와의 갈등이 시작

되자 지방세력의 이탈을 획책하였을지도 모른다. 고구려로부터 신라로 나아가는 길목이거나 그와 가까운 지경에 위치한 지방민의 반발을 적절히 활용할 의도에서 지원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400년 고구려가 남정한 뒤 한동안 병력을 주둔시켰거나 통과한 지역은 선진문화를 접촉한 경험이 있었다. 고구려는 그들을 대상으로 자기 세력화를 도모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를테면 경북 북부의 영주나 봉화, 동해안 방면의 흥해 이북은 바로 그런 지역에 해당한다. 『삼국사기』 지리지에서는 특이하게도 이 지역들에 대해 원래의 고구려 영토라 명기해 놓고 있다. 464년 무렵 고구려가 신라 전체를 장악하려는 계획을 추진한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사전 정지작업이 상당히 진전된 데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이제 신라는 지방을 기왕과 같은 방식으로 마냥 방치해 두기가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고구려에 대적한다는 선언을 하고 나선 마당에 지방에 대한 통제도 아울러 강화하려고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이 일단 전국에 걸친 축성 사업의 형태로 나타났다.

지방 요충지를 중심으로 한 축성 사업은 마립간 시기의 근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방민을 조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역으로 그를 매개로 확대되어 가던 지방 유력자의 경제력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뒤따랐기 때문이다. 아마 축성에 소요된 제반 경비의 상당 부분은 지방 유력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유도하였을 터이다. 이는 그들의 경제력 성장을 더 이상 방치해서 안 되는 분위기와 관련된 일이었다. 그로써 지방세력의 성장을 단계적으로 억제해 나가려는 방안을 마련해 갔다.

지방에 대한 통제는 고구려와의 싸움 및 그에 대비한 축성 사업을 계기로 활발히 추진되었지만 동시에 지방민 조직화 작업도 병행되었다. 그 구체적 실상의 파악은 힘든 형편이지만 그를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축성을 위한 대대적 역역 동원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조직화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것은 489년(소지왕 11) ‘놀고먹는 백성[游食百姓]’을 내몰아서 농사를 짓게 한 조치를 통해 유추된다. ‘놀고먹는 백성’이라는 실체는 대단히 모호하다. 다만,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생산 수단을 보유하지 못해서 놀고 지냈던 것이 아니라 놀면서도 먹고 살아가는 것이 가능한 유력자들을 가리킨 데서 그처럼

'유식백성'이라 불린 듯하다. 이제 그들을 직접 농사에 종사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그것도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전체 영역을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곧 지방 유력자에 대한 재편 작업이 전반적으로 시도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실이다.

이상과 같이 축성을 위한 역역동원을 계기로 지역별 지방민의 조직화가 이루어졌다. 국가권력이 지방 깊숙이 침투할 기회가 마련된 것이었다. 외부로부터 가해진 위기는 신라로 하여금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게 만든 주요한 계기였다. 지방 유력자를 재편성하게 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지방민 재편 작업은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 걸쳐 실시되었다.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촌간제 대신 촌주제村主制가 새로 도입된 것이 아닌가 싶다.

촌주제가 언제 어떻게 처음 실시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503년에 세워진 「포항 냉수리 신라비」에 촌주란 직명이 처음 보이므로 이를 하한으로 함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보다 2년 앞서는 501년 세워진 「포항 중성리 신라비」에

그림 4 포항 냉수리 신라비

는 촌주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그와 비슷한 유력자를 여전히 촌의 간지干支라 부르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501년부터 503년에 이르는 사이에 촌주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고 단정하기는 힘들겠다. 아마도 그 이전의 어느 시점에 촌주제가 수용되었으나 아직 널리 확산되지 않고 양자가 혼용하던 사정을 반영한다고 보인다. 이는 촌주제가 일시에 전국에 걸쳐 실시되지 않고 점진적 과정을 밟아 퍼져나갔음을 뜻한다. 그런 의미에서 촌주제가 처음 시행된 시점도 그로부터 그리 멀리 소급하지는 않을 터이다.

그림 5 포항 중성리 신라비

촌간제로부터 촌주제로의 변환은 지방에 대한 전면적 재편이 추진되었음을 말한다. 그 시점과 계기로 설정할 수 있는 유력한 대상은 464년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된 축성 사업이라 하겠다. 사실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축성과 동시에 지방민으로 편성된 군사력의 조직화가 긴요하였다. 축성을 위한 역역동원을 실시하면서 먼저 지방의 유력자를 조직화하고 그 하나의 방편으로서 촌주제를 도입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촌주제의 도입은 촌간제와는 달리 지방이 독자성을 상당 부분 잃고 중앙정부에 그만큼 예속되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기존의 간지를 보유한 유력자 가운데 친親중앙적 입장을 취하면서 순순하게 복종하는 유력자를 가려 먼저 촌주라는 직명을 부여하기 시작하였다.

촌주제 실시의 밑바탕에는 지방민 조직화를 매개로 지방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의도도 아울러 깔고 있었다. 그렇게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방 유력자의 기반이 너무도 커진 상태였다. 물론 촌주제가 일시에 전국에 걸쳐 시행된 것은 아니고 긴급하게 필요한 일부 지역에 한정해 실시되었으며, 그로부터 점차 전면 확대해 나간 것이었다. 촌주제의 실시는 지방지배상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지녔다. 국가 권력의 지방에 대한 침투가 그만큼 진행되었음을 뜻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는 그와 함께 지방관을 파견해 지방에 대한 직접지배를 실현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마립간 시기에 지방관이 처음 파견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중고기에 행정 단위로 설정된 성촌을 대상으로 파견된 지방관인 도사란 직명이 앞서 든 「냉수리비」와 「중성리비」에 각각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5세기의 어느 시점에 중앙으로부터 왕명을 대행하는 도사가 처음 파견된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단, 촌주제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걸쳐 한꺼번에 그들이 파견된 것은 아니었다. 정치적·군사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지역부터 먼저 파견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그 대상지를 늘려나갔다. 파견의 첫 시점은 분명하지 않으나 촌주제 실시와 맞물려 진행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시행의 시점으로서 주목해 볼만 한 대상은 497년(소지왕 19) 여러 관리群官로 하여금 목민을 감당할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1인씩 천거하도록 하였다는 사실이다. 천거하도록 한 대상을 군관이라 한 점도 주목된다. 군관은 일단 6부의 유력자 전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6부 전체를 대상으로 목민관을 추천하게 하였던 셈이다. 이때의 목민관이란 바로 지방관으로서 도사를 제외하고는 달리 설정하기가 곤란하다. 도사를 처음 파견하기 위한 것이거나 아니면 그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각기 1인씩 천거하게 한 사실로 미루어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이전 어느 시기에 도사가 처음 파견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럴 때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487년 관도를 수리한 사실을 손꼽을 수 있다. 도사의 도道란 관도官道, 사使는 국왕의 사인使人을 의미한다. 관도의 수리 속에는 도사 파견의 사실이 함축적으로 내포되어 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더라도 그것이 도사 파견과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이처럼 마립간 시기 후반기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동의 조짐이 나타났다. 하나는 고구려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면서 주변 정세가 급속히 긴장되어 갔다는 사실이다. 그에 대비하기 위해 내부적 결속을 도모함으로써 지배체제가 확연히 바뀔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세력의 성장이 일정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점차 중앙정부에게 큰 우려 대상이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때마침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해 실시된 축성 사업은 그런 제재를 추진하는 명분과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지방민을 재편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중앙과 지방의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었다. 그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지배세력 사이의 이해관계가 저절로 표출되었다. 6세기 초의 「중성리비」와 「냉수리비」의 내용은 그런 실상을 잘 보여 준다.

4 지배집단의 갈등과 새 질서

내부 체제의 재정비

사실 고구려는 신라가 자신들과 적대관계로 돌아서게 된 이유로서 그 배후에서 줄곧 백제가 조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심하였다. 504년 북위에 파견된 고구려의 사신 예실불芮悉弗이 선무제宣武帝 세종世宗과 나눈 대화 가운데 금을 산출하는 부여는 물길勿吉로부터 쫓겨났고, 흰색 옥돌[珂]을 생산하는 섭라涉羅는 백제에게 병합되었다고 주장한 기록이 보인다. 과거 고구려가 부여와 섭라에 영향력을 행사해 금과 옥돌을 그로부터 확보하여 북위에 보내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섭라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제주도로 보는 견해와 신라로 보는 견해로 엇갈려 논란되고 있으나 후자가 타당하다. 외교적 수사에서 나온 표현이므로 꼭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당시 고구려는 마치 신라가 백제에게 병합되었다고 인식하였을 정도였다. 그러던 상황에서 백제가 고구려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도발적 사건을 일으켰다.

백제는 개로왕蓋鹵王(455-475) 즉위 이후 추진한 왕족 중심의 혁신적 시책이 일단 성공을 거두면서 지배체제를 일신一新할 수 있었다. 이것이 고구려에게는 큰 위협으로 다가왔다. 체제 개혁의 성공으로 한층 자신감을 얻은 개로왕은 469년 고구려의 남변을 먼저 공격해 영역을 넓히면서 청목령青木嶺에 대책大柵을 설치하는 등의 도발 행위를 감행하였다. 게다가 472년에는 북위에 처음 사신을 파견하면서 국서를 보내어 고구려를 침공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고구려는 드디어 백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격할 채비를 차려나갔다.

마침내 475년 고구려는 백제를 압박해 왕도 한성을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사로잡는 전과를 올렸다. 사로잡힌 개로왕은 고구려의 본영인 아차산성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였다. 고구려의 공격을 받자마자 개로왕은 동생인 문주文周를 신라로 급파하여 구원병을 요청하였다. 문주가 신라로부터 1만의 병력을 빌려 돌아왔을 때 고구려는 이미 한성을 초토화시킨 뒤 개로왕을 사로잡아 한강을 건너 일단 아차산성으로 물러난 뒤였다. 문주는 그곳에서 곧바로 즉위한 후 한강 유역을 뒤로 하고 금강 유역의 웅진으로 옮겨 백제국가를 재건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신라는 미구에 닥치게 될 위기에 대처하여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갖추어 나갔다.

그렇지 않아도 신라로서는 앞서 464년 이후 고구려의 대대적 침공을 예측하고서 착실히 준비해가던 중이었다. 467년(자비왕 10)에는 전함戰艦을 수리하였다. 전후 사정으로 보아 거기에는 왜병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도 깔려 있음을 무시할 수 없겠으나 고구려가 동해안을 따라 남하할지 모른다는 예측에서 비롯한 대비책의 일환이었다. 과연 468년(자비왕 11) 고구려가 말갈 병력을 거느리고 동해안 북변의 실직성을 공격하였다. 신라는 그에 대해 15세 이상의 하슬라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통로인 니하에다가 성을 쌓아 맞섰다.

그 이듬해 469년에는 왕도의 방리명坊里名을 정하였다. 방리의 명칭을 정하였다는 사실은 단순히 글자 그대로의 의미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는 부체제 아래에서이기는 하지만 일차적으로 왕도의 구획에 처음으로 방리제를 도입하였다는 사실을 뜻하며, 동시에 기왕과는 다르게 왕경을 크게 쇄신하였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이기도 하다. 왕도의 쇄신은 곧 기존 6부의 질서를 개편하려는

뜻도 바탕에 깔고 있었다. 말하자면 왕도의 행정적 개편이라 할 방리제의 수용은 그 자체 6부체제의 재정비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를 계기로 6부가 완전하게 해체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건 변화가 크게 수반된 것으로서 뒷날의 사정을 감안하면 탁부와 사탁부 중심의 집권력 강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외형적으로는 가장 유력 우세한 탁부와 사탁부가 행정적 성격의 방리제를 수용하면서 다른 4부를 대상으로 일단의 통제를 가하는 조치를 내린 것이었다. 6세기 초의 금석문들을 검토하면 탁부와 사탁부를 제외한 다른 부에서는 간군干群은 물론이고 나마奈麻조차도 거의 보이지 않음은 이때의 조치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진다. 아직 6부의 근간이 해체된 상태는 아니지만 탁과 사탁 2부 중심으로 개편이 진행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말하자면 왕경의 방리제 도입은 곧 6부제의 근본을 개편하겠다는 생각을 바닥에 깔고 진행한 것이었다. 이는 고구려의 공격이 고조되어 가는 위기 상황에 대비하려는 일환에서 나온 조치이기도 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군사제도상의 정비가 행해진 사실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473년 아찬 벌지伐智와 급찬 덕지德智를 각각 좌장군, 우장군으로 삼았다고 한다. 그들 두 사람은 463년 왜인이 양산 방면으로 침투하였을 때 함께 출정해 대패시키는 등 군공을 세운 적이 있었다. 그러다가 이때에 이르러 좌, 우장군에 임명되었다. 두 사람은 이후 자비왕과 소지왕대에 걸쳐서 활발한 군사활동을 벌였다. 신라에서 장군제가 처음 도입된 시점과 배경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이때에 좌, 우장군제를 둔 것은 군제의 전반적 개편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뒷날 주요 관부의 장관직을 복수로 둔 시원도 여기에서 찾아진다. 장군으로서 좌우의 2인을 배치한 일은 6부를 2부 중심으로 개편한 것과 맞물려 진행된 군제의 개편이라 짐작된다. 고구려의 군사적 공격과 같은 외부적 요인이 결국 왕도의 재정비를 비롯한 군제 개편 등을 추동함으로써 신라가 전반적 질서를 재편하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편, 신라는 왕도의 정비와 병행해서 지방에 대한 정리 작업도 동시에 착수하였다. 470년 삼년산성三年山城을 시발로 해서 전국에 걸쳐 축성 작업을 실시하였다. 삼년산성이란 성의 이름이 3년에 걸친 역역동원으로 이루어진 데서

비롯한 것이라 하거니와 축성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던가를 반영하는 것이다. 일견 신라가 이때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하는 데 얼마나 고심하였던가를 잘 보여 주는 사례이다. 471년에는 모로성芼老城, 474년에는 일모一牟, 사시沙尸, 광석廣石, 답달沓達, 구례仇禮, 좌라坐羅 등에다가 성을 쌓았다. 이들 전부의 구체적 위치를 현재로서는 분명하게 파악하기 곤란하나 대체로 교통로 및 군사상의 요충지였으리라 추정되고 있다.

고구려의 공격 위험이 한층 고조되어 가자 신라는 이미 언급한 것처럼 6부를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왕도 자체의 방어를 목적으로 473년 명활성明活城을 수리하였다. 수리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미 축성의 기초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상태였는데 이는 발굴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이다. 이제 그것을 다시 대대적으로 수리하였다는 것은 아마 토성을 석성으로 고쳐 쌓았음을 뜻함이 아닌가 한다. 명활산성은 경주의 동쪽에 위치하며 그 규모가 대단히 크다. 경주에서 토함산 자락인 추령楸嶺을 거쳐 동해안으로 나아가는 길목에 있는데 이 방면으로 침입하는 왜병을 막는 요충지로 기능하여 왔다. 바로 이 시점에서 그를 수리한 것은 왜병뿐만 아니라 미구에 닥칠 고구려의 공격에 대비한 피난처의 용도로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과연 475년 백제의 한성 함락 소식을 접하자마자 왕은 거소를 곧장 명활산성으로 옮겼다. 이후 488년 월성月城을 수리해서 되돌아올 때까지 명활산성은 10여년이나 왕성으로 기능하였다.

신라의 예상대로 고구려는 475년 백제 공략에 성공한 이후 481년에는 말갈병을 거느리고 동해안을 따라 남하를 거듭해 경주의 바로 북쪽인 미질부彌秩夫 즉, 경북 포항의 흥해까지 이르렀다. 신라는 백제와 가야 연합세력의 도움으로 그를 가까스로 물리쳤다. 484년에는 고구려가 내륙의 모산성母山城까지 진출하자 역시 백제병과 힘을 합쳐 대파하였다. 이후에도 곳곳에서 고구려와의 전투가 벌어졌다. 신라는 이들을 단독으로 혹은 백제와 연합해 물리침으로써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464년 이후 5세기 후반은 신라가 고구려로부터 가장 자주 공격을 받았으나 그를 성공적으로 물리침으로써 거꾸로 지배체제를 새로이 갖추어가는 절호의 기회로 삼을 수가 있었다.

원래 고구려의 공격을 유발한 최초의 계기는 신라가 그 주둔 병력을 몰살시

킨 사건이었다. 신라는 그에 철저하게 대비하여 고구려의 파상적 공세를 잘 넘겼다. 반면 백제는 오히려 한강 유역을 상실하고 남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크게 타격을 입었다. 이때의 경험은 신라가 외교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함양시켜 추후를 대비하는 데 크게 영향을 끼쳤을 뿐만 아니라 내부적 변화를 도모해 지배질서를 새로이 구축하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 신라는 외적과 싸우면서 내부를 단련함으로써 스스로를 변모시켜 나가고 있었다.

지배집단의 갈등 표출과 지증왕의 즉위

지배체제의 정비와 함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거듭 강화해 가는 과정에서 지배세력 간의 갈등이 점차 겉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지배집단의 가계 분화가 진행되던 상황이었고 거기에 이해관계가 틈입하게 된다면 누적된 갈등이 언젠가는 폭발할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 그런 사정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소지왕도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 점을 시사해 주는 몇 가지 뚜렷한 사례가 찾아진다.

소지왕은 즉위하자마자 백관들에게 작爵을 일제히 일급씩 올려주었다. 작이 가리키는 바의 구체적 내용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지만 어쩌면 관등제의 시원적 형태로서 그에 따른 경제적 혜택까지 수반한 것으로 보인다. 국왕이 즉위하면서 관작을 일률적으로 올려 준 사례는 그리 흔치가 않다. 뒷날 진흥왕眞興王이나 성덕왕聖德王 등이 즉위할 때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관작을 올려 주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은 드문 일이었다. 따라서 그 자체가 어떤 특수한 사정에서 말미암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소지왕이 부득이 그런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지배세력 내부에서 점증한 대립과 갈등의 분위기와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

그와 관련하여 487년(소지왕 9) 나을奈乙에 신궁神宮을 설치하였다는 사실은 각별히 주목된다. 소지왕은 즉위 2년째인 480년과 7년째인 485년 시조묘에 배알하고서 친히 제사를 지냈다. 특히 485년에는 시조묘를 관리하는 사람

의 수를 20가家나 늘렸다. 이는 시조묘를 새롭게 정비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럼에도 2년 뒤에는 시조묘와는 별도로 신궁을 설치하였다. 대단히 급작스럽게 추진된 일이었다.

나을은 시조가 처음 태어난 곳을 가리킨다. 나을이 지닌 본래의 의미는 태양, 나정蘿井, 국정國井 등 여러 가지로 풀이되고 있다. 이때의 시조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대체로 박혁거세로 보려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럼에도 나을신궁에 모셔진 주신에 대해서는 견해가 엇갈려 논란되고 있다. 시조묘의 주신과 마찬가지로 박혁거세로 보는 설을 비롯해 김씨의 시조 김알지, 나물왕, 미추왕 등으로 간주하는 설, 천지신天地神이라는 설, 제천의례를 행한 곳이라는 설 등으로 나뉘어 아직 정설은 없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나을은 신라가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해가는 과정에서 분열된 혈연집단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종교적 상징으로서 기능하였다고 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시조묘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음에도 하필 이 시점에서 다시 다른 주신을 모신 신궁을 설치한 의도는 분명하지가 않다. 어쩌면 그를 매개로 기왕과는 다른 어떤 구심체의 기능을 추구하려는 목적이 내재되지 않았을까 싶다. 달리 말하면 새로운 신궁 설치를 통해 내부 결속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배세력 사이에는 상당한 균열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당시 시조묘도 그 이전과 비교하면 기능이 크게 약화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그대로 유지되었다. 소지왕은 시조묘의 기능에 대신하려는 듯 495년에는 신궁에 행차하여 친히 제사를 지냈다. 시조묘에 내재된 기능은 대체로 신궁으로 옮겨졌다. 이후 시조묘가 뚜렷하게 정치적으로 기능한 사례는 별로 확인되지 않는 데서 유추되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신궁은 당시 시조묘의 기능을 대신하면서도 그것을 한 단계 뛰어넘는 어떤 것을 노린 상징성을 지녔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를 매개로 분열 갈등하던 지배집단으로 하여금 새로운 자세와 각오로 결속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의도에서였던 것 같다.

바로 그런 시점에서 소지왕이 월성으로 되돌아간 사실도 예사롭게 보이지가 않는다. 이는 적어도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이라는 근본 원인이 해소되었

다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단행한 일이겠다. 바로 이듬해인 489년부터, 이후 494, 496, 497년 등 거의 매년이다시피 신라는 고구려와 전투를 벌였다. 물론 이들은 고구려가 신라의 변경을 공격해 온 데 대응한 사례들이다. 495년에는 백제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신라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신라는 그에 부응해 장군 덕지德智를 파견하여 구원해 주었다. 이로 보면 신라가 왕의 거주지를 명활산성에 두고 있을 때보다 월성으로 옮긴 이후에 고구려와의 싸움이 한층 더 빈발해졌음이 확인된다. 이는 명활산성으로 옮겨간 근본 원인이 완전히 해소된 상태가 아니었음을 뜻한다. 그럼에도 굳이 월성으로 되돌아갔는데, 그 배경은 단순히 고구려와 관련한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어쩌면 임시 피난처의 청산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함으로써 국왕의 권위를 높이고, 나아가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을지 모른다. 496년에 궁궐을 중수한 것도 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위의 몇몇 사례는 소지왕대가 지배세력의 통합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음을 보이는 대목이다. 이는 역으로 지배세력 사이의 분열과 갈등의 골이 그만큼 깊어진 상태였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와 관련된 구체적 사정은 널리 알려진 사금갑射琴匣 설화에서 확인된다. 사금갑 설화는 『삼국유사』에만 실려 있다. 그를 간단히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소지왕이 즉위 10년째인 488년 천천정天泉亭으로 거동하려 할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이때 쥐가 "까마귀가 가는 곳을 찾아가 보세요"라고 말하였다. 사자使者가 남쪽의 피촌避村에 이르니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어 그를 한참 살펴보느라 그만 까마귀의 향방을 잃어버렸다. 이때 한 늙은이가 못 가운데에서 나와 글을 올렸는데 겉에는 '열어보면 두 사람이 죽고 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다'고 되어 있었다. 사자가 돌아와 바치니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2인은 서민이고 1인은 왕입니다"고 하였다. 왕이 그렇다고 여겨 열어보니 '거문고를 넣어두는 통을 쏘아라'라고 쓰여 있었다. 소지왕이 궁월로 들어가 금갑을 쏘니 그 속에서 내전內殿의 분수승焚修僧이 궁주宮主와 간통하고 있었다.

이 설화는 전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지만 몇 가지 사항은 사실성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궁중에까지 승려가 들어와 불사佛事를 행하고 있었다는 점, 그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이 궁주宮主를 중심으로 한 여성들이라는 점 등이다. 소지왕은 결과적으로 승려와 궁주를 죽였으므로 그들과는 입장을 달리한 셈이었다. 말하자면 당시 불교가 궁중에까지 침투한 상태였고 이로 말미암아 수용 여부를 둘러싸고 격렬하게 논란, 대립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유추된다. 마침내 소지왕이 승려와 궁주를 죽인 사실로 미루어 이때 불교 수용파가 일시 패퇴되었다고 보아도 좋겠다.

설화의 내용으로 보면 불교 수용을 추진한 쪽은 궁주였다. 궁주가 승려와 간통하였다는 것은 전자가 불교와 밀착되었음을 나타낸 표현이다. 궁주도 단순히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불교 수용을 추진한 어떤 배후의 집단과 연결되었을 터이다. 궁주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일 소지왕의 왕비라면 약간 흥미로운 이해가 가능해진다. 그녀는 이벌찬 내숙의 딸 선혜부인이다. 그렇다면 이는 각별히 유의해볼 사실이다. 선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칠부에게 고모가 되는 인물이다. 거칠부의 아버지 물력은 524년의 「울진 봉평리 신라비」에 일길찬의 관등을 지닌 인물로 등장한다. 물력은 관등으로 미루어 그에 앞서는 지증왕대에도 정치적 활동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그의 아들 거칠부는 어릴 때 출가해 승려가 된 적이 있으며 진흥왕대의 정치와 군사 부분에서 핵심이었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거칠부가 지증왕 가계와 연결된 점, 그 자신이 출가한 경험이 있는 점, 불교를 신봉한 법흥왕과 진흥왕대에 가장 유력자로서 활동한 점 등으로 볼 때 그의 집안은 불교 수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세력 가운데 하나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미 김씨족단 내에는 가계 분화가 진행되면서 그와 동시에 전통적 지배이데올로기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입장과 새로운 시대를 지향해 불교와 같은 고등종교를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이 엇갈리던 상황이었다. 그것이 곧 소지왕 암살미수사건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국왕을 살해하려 기도하였다는 것은 궁중 내에서의 대립 양상이 어떠하였는지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직 불교 수용파의 세력 기반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하였던 것 같다.

그와 같은 대립 양상은 지방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도 나타났다. 원래 6부 각각은 지역별로 정치적·경제적 기반을 확보하고서 거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전국에 걸친 축성 사업을 통해 각 지방의 형편에 대한 세세한 파악과 함께 지방민의 재편으로 통제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중앙권력이 침투해 들어갔다. 이런 과정에서 6부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6부 가운데 탁부 및 사탁부와 다른 4부 각각은 물론이고, 그 내부의 가계별로도 이해관계가 달랐다. 축성을 계기로 지방 재편이 이루어져 나가자 그들 사이에는 갈등이 저절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그 점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것이 소지왕이 말년 날이군捺已郡 즉, 오늘날 경북 영주에 행차함으로써 빚어진 사건이다.

500년(소지왕 22) 소지왕은 날이군으로 행차해 그곳의 유력자인 파로波路의 집에 머물렀다. 소지왕은 여러 차례에 걸쳐 파로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으며 마침내 그의 딸 벽화碧花와도 깊은 관계를 맺었다. 소지왕도 기본적으로는 탁부의 부장으로서 그의 족단이 특정한 지역과 밀착해 있던 실상을 보여 준다. 소지왕이 날이군에 내왕하면서 거친 고타군古陁郡 즉, 오늘날 경북 안동 출신의 노구老嫗가 잠행 자체는 물론이고 왕의 행태를 힐난하고 나섰다. 그 내용은 지극히 유교적이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나 특정 지역과의 각별한 관계에 대해 주변의 다른 지역에서는 내심 어떤 불만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별로 동등하지 않고 달랐던 사정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고타군 출신 노구의 반발은 곧 지역 유력자의 입장이면서 동시에 왕경 지배세력의 입장까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 점은 소지왕이 몰래 벽화를 궁중으로 데리고 와서 별실에 안치하고 관계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데서도 유추되는 사실이다.

그것은 여하튼 불교의 수용을 둘러싼 문제, 지방에 대한 재편의 진행 과정 등에서 지배세력 내부에는 상당한 갈등이 일고 있었다. 두 사건은 그런 점을 암묵적으로 시사해 준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지향해 나아가려 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진통이었다. 진통의 강도와 진폭이 크면 클수록 대립과 마찰도 그만큼 격렬하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제 대치하던 세력들 간의 대립이 폭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마립간 시기 말기에는 갈등하던 두 세력 간의 노골적 싸움으로 번져 신라는 내부적으로 크게 진통을 겪고 있었다. 그것이 소지왕과 지증왕의 대결로 나타났다. 소지왕은 매금왕寐錦王이며, 지증왕은 그에 버금가는 갈문왕이었다. 전자는 국왕으로서 탁부의 부장이었고, 후자는 사탁부의 부장으로서 정치적 2인자였다. 두 사람은 가계가 분화되면서 개인의 소속도 달랐지만 정치적 입장 또한 그러하였다. 매금왕은 전통을 고수하려 한 반면, 갈문왕은 새로운 지향을 갖고 있었다. 전자가 불교를 배척하였다면 후자는 불교를 수용하려는 쪽이었다. 양자의 첫 대결에서는 전자의 승리로 끝났지만 두번째 대결에서는 후자에게 승리가 돌아갔다.

지증왕은 「냉수리비」에 의하면 즉위 전 사탁부의 부장으로서 갈문왕이었다. 사서史書에서는 눌지왕이 사망하자 64세의 나이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순조롭게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즉위 시 연령이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많은 점, 사탁부 출신인 점, 소지왕의 말년이 석연치 않은 점, 지증왕의 즉위년이 기록상 차이가 나는 점, 갈문왕으로서 정치 운영의 구심적 역할을 한 점, 즉위하자마자 그 전과는 다른 여러 가지 개혁적 시책을 활발하게 펼친 점 등등의 사정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지증왕의 즉위 과정 자체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다.

사탁부 출신의 갈문왕이었던 지증왕은 정상적이라면 왕위 승계가 어려웠을 것이다. 소지왕의 말년이 날이군 출신의 벽화와 야합해 자식까지 낳았던 기사로 마무리된 것은 그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아마도 지증왕은 순조로운 왕위 계승이 아니라 정변을 거쳐 즉위하였다고 봄이 적절할 터이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즉위하자마자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개혁적 시책을 추진하였다. 율령의 반포, 불교의 수용, 관료조직의 정비 등 뒷날 법흥왕대에 구체적으로 실시되는 혁신책 시행의 기초를 다졌고 낙동강 및 동해안 방면으로 영역 확장을 도모함으로써 큰 성과를 올렸다. 그래서 지증왕대는 이후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시대라 할 중고기의 단초를 사실상 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제3장

중앙집권체제로의 전환과 운영

1 율령체제의 성립과 운영

지증왕의 개혁적 시책

정상적 상황이라면 즉위가 불가능했을 지증왕은 64세라는 늙은 나이로 왕위에 올라 새로운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이는 여러 모로 기왕과는 현저히 다른 지배질서 수립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사항 몇 가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즉위 3년째 되던 502년 순장殉葬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한 사실이다. 직전의 소지왕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순장제를 유지하면서도 남녀 각 5인으로 제한하였다가 이제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신라에서 언제부터 어떻게 순장제가 도입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처음에는 그 수치상 강제적 제약이 없었다. 소지왕의 사망을 계기로 해서 일시 10명으로 제한하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쳤다가 이제 그런 관행 자체를 없애버렸다. 순장을 금지한 밑바탕에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적 인식과 함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상황이 맞물려 작용한 것이었다. 순장 금지 조치는 자연 장제葬制 전반에 걸친 변화를 수반하게 마련이었다. 바로 2년 뒤인 504년 상복법喪服法을 제정한 사실은 그

를 방증해 준다.

상복법의 구체적 내용은 기록이 없어 잘 알 수가 없지만, 왕족을 비롯한 귀족들의 장례의식 방법과 절차, 규모 등 제반 사항을 국가가 통제·관리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는 머지않아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질서가 구축되어 나가리란 사실을 예고해 주고 있었다. 그것은 오직 왕경의 지배층에게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그 영향이 지방 유력자에게까지 미쳤음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둘째, 504년 처음으로 우경牛耕을 실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우경의 실시 목적이 곧 권농勸農에 있다는 데서 드러나듯이 농업생산력을 높이려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경에 사용된 농기구인 보습이 이미 그보다 앞서 출토된 사례로 미루어 이 무렵 우경이 처음 도입된 것은 아니었다. 우경을 실시한 것은 소를 기르고 농기구를 관리하는 일, 농민을 동원하는 일 등을 국가가 관장함으로써 지방 유력자를 직접 장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한층 높이려는 의도였다. 우경의 시행은 곧 신라국가가 장례의식을 통해 지방을 장악하려 한 것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시책이었던 셈이다.

셋째, 503년 신라라는 국호를 확정하였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신라를 비롯해서 사로斯盧, 사라斯羅, 서라벌徐羅伐 등 여러 국호를 뒤섞어 사용하였다. 이들은 단순히 표기상의 차이에 그치지 않고 내포된 의미도 달랐다. 크게는 신라 계통과 사로 계통으로 대별된다. 사로 계통은 기존 사로국에 뿌리를 둔 국호로서 사실상 현재의 경주분지만을 한정적으로 가리키는 좁은 범주의 의미이다. 그럴 때 사로는 신라의 왕도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그를 구성한 6부를 뜻하기도 하였다. 반면, 신라는 사로를 중심 거점으로 해서 영역으로 편입된 지방 전체를 아우르는 넓은 의미의 국호이다. 그 외연이 무한정 계속 늘어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신라가 주로 대외적 용도로서 사용되었다면, 사로는 왕경과 지방을 구별하려는 대내적 용도가 일반적이었다. 양자는 오래도록 병용되었으나 이제는 오직 신라 하나만으로 통합해서 정식의 국호로 사용한다는 표명이었다. 그러면서 그것을 '덕업일신망라사방德業日新網羅四方'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포장하였다.

신라로 국호를 정리한 것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왕경과 지방이 그 테두리에서 하나 됨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제 신라국왕도 조그마한 국가인 사로국왕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복속된 지역까지도 아울러 포괄하는 큰 국가의 왕이란 의식을 강력하게 드러낸 셈이었다. 그를 위해 기왕에 사용한 마립간 대신 중국식의 왕호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부터 중국식의 왕이란 호칭은 오로지 신라국왕만이 사용할 수 있었다. 이때 전체 신료가 신라국왕의 호를 올리는 형식을 취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로써 신라국왕의 위상이 크게 달라질 발판이 마련되었다. 전체 영역을 직접 다스리는 유일한 지배자임을 선언함으로써 천하의식이 마련되는 기반을 갖추었다. 신라 국호의 확정은 곧 새로운 시대의 출발 선언이었다.

넷째, 신라국왕이 친히 국내의 전체 영토를 주군현州郡縣으로 정리하였다는 사실이다. 전국을 하나의 체계 아래 관리하려는 조치였다. 물론 당시 지방 편제 단위의 정식 명칭은 주군현이 아니라 주군성촌이었다. 그처럼 전국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일률적 편제를 단행한 데에는 나름의 의미가 깃들어 있다. 신라국왕의 이름 아래 전체의 영역을 재편하였다는 것은 덕업을 골고루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란 측면에서 국호의 확정과 중국식 왕호 사용에 어울리는 조치였다. 그를 위해 필요한 과업은 영역 확장은 물론 그를 굳게 지켜내는 일이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동해안 방면에 실직주悉直州를 설치해 이사부異斯夫를 군주로 삼아 파견하였다. 그 결과 신라는 빠른 시간 안에 동해안을 따라 북상해 강릉 이북 일대까지를 영역으로 편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512년에는 울릉도에 있던 우산국于山國까지 복속시키는 전과를 올렸다. 이로써 전국을 단위로 지방관을 파견해 직접 지배를 확대시켜 나갈 기반이 마련된 셈이었다.

법흥왕의 율령 반포

지증왕이 시작한 개혁적 시책을 토대로 해서 체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 것은 법흥왕法興王(514-540)이었다. 지증왕의 장남인 법흥왕은 아버지가

추진한 기본 정책을 이어받아 제도적으로 안착시키는 데 힘을 쏟았다. '모즉지왕牟卽智王'이란 신라식의 왕명 외에 '법을 일으켰다'는 뜻을 지닌 불교식 왕명을 사용한 데서 드러나듯이 그는 정말 법을 크게 일으키고자 하였다. 법흥왕은 사망 뒤에 주어진 시호諡號가 아니며 살아 있을 때 사용한 왕명이었다. 그처럼 불린 것은 불법佛法을 공인한 그의 업적에서 비롯한 것이지만, 그 속에는 율법律法을 일으켰다는 의미도 함께 내포한 것이다. 법흥왕이 불법은 물론 율법도 정착시킨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법흥왕은 재위 7년째 되던 520년 처음으로 율령을 반포하였다. 신라의 율령이 중국에 기원을 둔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중국의 율령이 고구려와 백제를 거쳐 신라로 전해졌다. 율령은 크게 형법적인 율律과 행정법적인 영令의 양대 체계로 이루어진 법령을 말한다. 중국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성문법적 체계로 발달한 율령은 한문자漢文字를 비롯한 유학 등과 함께 주변 지역에 전파되어 국가 경영의 기본체계로 자리잡아 갔다. 신라가 율령을 반포하기에 이른 것은 사회 제반의 현상을 담아낼 그릇이 필요해질 정도로 복잡해졌음을 뜻한다. 율령 속에는 국가 운영의 여러 기본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지증왕 이후 국가의 제도가 점차 정비되어 나간 결과 마침내 그를 담아낼 체계가 절실해짐으로써 율령이 수용된 것이었다.

이때 반포된 율령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왕에 논란이 많았다. 크게 신라국가의 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령 전반을 포괄한 것으로 보는 입장과 당시 신라의 정치사회 발전을 낮게 평가한 나머지 백관百官의 공복제公服制와 그 색깔을 규정한 한정적 법령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 엇갈려 있었다. 전자는 그를 확정지을 만한 구체적 기록이 없다는 한계를 지닌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그런데 550년 무렵 건립된 「단양 신라적성비丹陽 新羅赤城碑」가 발견되자 사정이 일변하였다. 거기에는 토지제도 및 그 운영과 연관되는 전사법佃舍法이란 편목과 연령등급 등이 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율령이 단순히 공복제를 뛰어넘어 여러 범위에 걸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입증해 주었다. 게다가 1988년 발견된 「울진 봉평리 신라비蔚珍 鳳坪里 新羅碑」에서는 신라 율령에 대해 좀 더 구

그림 1 단양 신라적성비

체적인 사항을 보여주는 내용이 확인되었다. 524년 작성된 봉평리비에는 법흥왕대의 율령 반포 사실 자체를 의미하는 '대교법大敎法'이란 표현과 함께 구체적 율령 편목인 노인법奴人法이란 표현이 보인다. 노인은 신라인으로 편입된 예속민隷屬民을 총칭하는 용어이므로 노인법은 그들의 신분적 지위와 성격 등을 규정한 율령의 한 편목인 셈이다. 같은 비문에는 장육십杖六十이나 장백杖百과 같은 장형杖刑의 존재를 알려주는 표현도 보인다. 장형은 태笞, 도徒, 유流, 사死와 함께 5형刑의 하나로서 중국식의 율이 수용되었음을 증명한다. 법흥왕대의 신라 율령은 중국식의 율에다가 신라식의 영을 결합한 형태로 구성된 것이었다.

이처럼 신라 율령은 새로 발견된 금석문 자료에서 구체적 편목이 확인됨으로써 단순히 백관의 공복 규정에 머문 수준이 아니라 국가 경영 전반에 걸치는 법령이었음이 명백해졌다. 나아가 당시 성립되었음 직한 골품제骨品制, 관등제官等制, 그리고 관직제 등의 운영에 관한 편목도 단편적 형태로나마 들어 있었으리라 여겨지고 있다. 신라의 고유한 형벌체계는 아니었지만 5형을 갖추었다는 자체는 신라사회가 밑바탕으로부터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법흥왕대에는 율령을 반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강력한 집권력이 요

구되던 상황이었다.

율령을 수용한 목적은 원래 법률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주민을 무조건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학의 근본정신인 인仁을 실현하려는 데에 있었다. 공동체 사회가 해체되고 새로운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탈바꿈해 가면서 지배세력이 자칫 기존 질서를 그대로 고수하려 한다거나 혹은 무분별하게 자의성恣意性을 발휘할 소지가 없지 않았다. 그래서 모든 땅은 왕의 것이며, 그 주민도 당연히 왕의 백성이라는 이른바 왕토왕민사상王土王民思想 아래 왕도정치를 실현함으로써 수장이나 귀족 등 지배집단들의 자의적 침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하였다. 성문법에 따라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공평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전 주민을 공민화公民化시켜 새로운 지배질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려 하였다. 그를 통해 종국적으로 노렸던 것은 국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수립이었다. 이제 합리적 원칙에 입각해 관료 조직을 착실하게 운용하는 길만이 지배질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는 가장 긴요한 일이었다. 법흥왕은 그런 상황 아래 율령에다가 지배질서를 체계적으로 담아내려 하였다. 이처럼 신라사회가 그 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면모를 보여 준 것이 바로 율령의 반포였다.

불교의 공인과 상대등 설치

정치사회적 사정이 현저히 달라지면 저절로 그에 어울리는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가 요구되게 마련이다. 국가 형성의 초기에는 지배자 집단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신화나 설화적 형식만으로도 자신들의 권위 분식이 가능하였다. 공동체 단위마다 그런 인식을 두루 보유하였음을 보면 질서 유지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주었음은 분명하다. 그렇지만 사회가 한층 진전되고 인지가 발달하자 사정은 크게 달라졌다. 여러 정치 집단이 통합되어 더 큰 규모의 정치체가 출현하자 종래의 이데올로기는 더 이상 먹히지 않았다. 이제 중앙집권화를 도모하면서 그에 걸맞은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가 필요해졌다. 그처럼 달라진 상황에 어울리는 새로운 종교가 도입되었으니 바로 불교였다.

불교는 경쟁 상대였던 고구려나 백제에서는 이미 4세기 후반 국가 차원에서 수용, 공인되었다. 신라에서도 오래전 선진의 고구려나 백제는 물론 중국과도 접촉함으로써 불교의 존재 자체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아직 무르익은 상태가 아니었다. 그러다가 6세기에 접어들어 바야흐로 새로운 지배이데올로기가 절실해질 정도로 정치사회적 상황은 확연히 달라졌다.

신라에서 불교는 국가적 종교로서 공인되기에 앞서 5세기 전반 무렵 일부 지방에 전래되어 점점 퍼져가던 중이었다. 처음 알려진 지역은 일선一善(경북 선산)과 같이 왕도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진 변두리였다. 눌지왕대에 고구려의 승려 아도阿道가 그곳으로 들어와서 포교를 하기 시작하였다. 이 지역이 고구려 경역으로부터 신라의 왕도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교통상의 요충지이거나 혹은 고구려 병력이 400년 남정하여 머물던 주둔지였던 데서 말미암았을 공산이 크다. 이후 불교는 선산 지역 주변으로 차츰 확산되다가 마침내 왕경에서도 신봉자가 적지 않게 나왔다.

그러나 488년 왕궁 깊숙이까지 들어온 분수승이 주도해 소지왕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벌어진 데서 드러났듯이 불교 수용 문제를 두고 왕실 내에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려 있었다. 불교를 적극 수용하려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대립·갈등하였다. 그 사건 이후 불교가 국가적 차원에서 공인되기까지는 다시 상당한 우여곡절의 과정을 겪었다. 지증왕이 즉위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런 갈등이 겉으로 표출된 결과였다. 불교 신봉자였던 지증왕이 즉위하였음에도 즉각 공인되지 못한 이유는 아직 반대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지증왕은 불교 공인을 당장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은 대신 순장 금지 등을 통해 수용할 수 있는 저변을 점진적으로 넓혀가는 시도를 하였다. 이제 법흥왕이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불교 공인의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고 있었다.

법흥왕이 반포한 율령이 점점 뿌리를 내려가면서 국왕권은 한결 강화되었다. 법흥왕은 군사적 기반을 공고히 할 목적으로 517년 중앙의 관부官府 가운데 최초로 병부兵部를 설치하였다. 6부에 분산되어 있던 군사력을 집중시켜 국왕 중심의 중앙군을 마련한 것으로서 이는 국왕의 군사권 확대를 의미한다. 법흥왕은

율령의 반포는 물론 그 안착에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셈이었다. 법흥왕은 율령 반포 직후인 521년 비록 백제를 매개로 한 것이지만 중국 남조의 양梁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신라국가의 존재를 알렸다. 당시 남조에서는 불교를 혹신惑信해 승복을 입고 출가까지 한 무제武帝가 재위하고 있었다. 양나라 무제의 불교에 대한 시책은 백제 성왕聖王의 불교 정책에도 적지 않게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법흥왕으로 하여금 머지않은 장래에 불교를 공인하게 하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다만, 신라에서는 아직 전통을 고수하려는 귀족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공인하기에 이르기까지 한바탕의 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법흥왕은 재위 14년째 되던 527년 측근인 이차돈異次頓으로 하여금 전통적 소도蘇塗 신앙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천경림天鏡林에다가 불교를 공인하려는 뜻을 지닌 흥륜사興輪寺를 짓도록 하였다. 그러자 귀족들이 즉각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차돈과 사전에 모의해 추진한 일이었지만 반대에 부닥치자 그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법흥왕은 부득이 그의 목을 베는 극단적 조치를 취하였다. 이차돈의 목을 베는 순간 흰색의 피가 그로부터 솟구쳤고, 머리는 멀리 왕경 북쪽 소금강산의 백률사栢栗寺에 떨어지는 이변을 보였다고 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법흥왕은 반대세력을 누르고 마침내 불교를 공인할 수 있었다.

고구려나 백제가 각각 외교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의 왕조로부터 불교를 직접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쳤다면 신라의 경우는 달랐다. 밑으로부터 수용되고 왕경 및 왕실에까지 알려졌으며 다시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공인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점은 신라의 불교 수용만이 갖는 특징적 면모였다. 신라가 불교를 뒤늦게 공인하였으면서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널리 퍼지고 국가 경영에 그를 적극 활용한 것도 그런 특이한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불교 공인 시점과 전개를 놓고 약간의 논란이 제기되어 있다. 흥륜사 창건 작업이 다시 시도된 시점이 535년이란 점에 착목해 이때에 이르러 비로소 불교가 공인되었다고 해석한 견해가 있다. 531년 귀족회의의 의장인 상대등上大等이 두어진 사실을 근거로 법흥왕이 그 자리를 귀족들에게 양보하는 일대 타협의 대가로서 불교를 공인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이에 따르면 국왕은 상대등 주도의 대등회의大等會議로부터 크게 견제를 받는 한계를 지닌 존재로서 설정되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528년 법흥왕이 내린 살생 금지 법령은 불교의 공인과 관련해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이다. 당시의 살생 금지는 불교 공인을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가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 이때를 불교 공인의 해라고 풀이해도 무방하다. 신라 최초의 사찰인 흥륜사의 창건 작업이 뒤늦게 재개된 이유는 그 사이에 벌어진 대립과 갈등을 무마하기 위한 시간이 일정하게 소요된 때문이었다. 그것이 완전히 마무리된 이후에서야 비로소 재개가 가능해진 것이었다. 그렇게 보면 상대등의 설치에 대한 이해도 저절로 달라져야 마땅하다.

상대등은 대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등회의의 주재자이다. 상대등을 일명 상신上臣이라고도 하듯이 대등은 '크다'는 뜻과 복수의 존칭 어미인 '등'을 합친 것으로서 한자어로는 신臣의 뜻이다. 신에 상대되는 존재가 군君이다. 따라서 대등회의는 군왕을 대전제로 한 신하들의 회의체이며, 상대등은 그를 주재한 의장이다. 따라서 대등회의는 군과 신이 엄격하게 구별되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상대등은 신하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군왕과 연결하고 중재하는 중간자적 역할을 담당한 존재였다. 대등회의에 참여하는 자격은 일정 수준 이상의 관등을 보유하거나 특정 신분에 속한 귀족 관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부여되었다. 신라국가의 중대한 일들은 거기에서 논의되었고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실행으로 옮겨졌다. 대등회의가 뒷날 화백和白회의로도 불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화백은 '화합또는 和議해서 아뢴다'는 뜻이다. 화합한다는 것은 곧 중대 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면 이를 조정해 합의를 이룬다는 의미이다. 만장일치로 결론을 이끌어냄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결론을 아뢰는[白] 대상은 어디까지나 국왕이었다.

이처럼 대등회의는 군신 간의 분별을 뚜렷하게 한 회의체였다. 국왕 대신 상대등이 그를 주재하였다는 것은 곧 국왕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음을 뜻하므로 그것이 군신간의 타협에 의한 산물일 수가 없다. 불교 수용을 둘러싸고 벌어진 싸움에서 법흥왕이 승리를 거둔 결과로 상대등을 설치하고서 국왕은 그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부상한 것이었다.

대등회의가 두어지기에 앞서 원래 그 모태로서 부체제 아래에 회의체가 존재해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였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6부의 유력자들인 간을

칭하는 수장층들만이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으므로 그를 흔히 제간회의라 부른다. 6부의 규모나 위상에 따라 참여자의 수는 차이가 났다. 6부의 현실 세력 격차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 회의체의 주재자는 바로 국왕인 마립간이었다. 당시 신라 국왕은 소속 탁부의 대표자로서 최고 지배자이기는 하였지만 초월자는 아니었다. 회의체의 결정으로부터 제약을 받는 존재였다.

그런데 제간회의 대신 대등으로 구성된 새로운 회의체가 꾸려졌다. 대등회의체가 결성되면서 그 대표자는 상대등에게로 넘어갔다. 이로부터 국왕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직전까지 국왕이 마립간적인 성격이 강한 매금왕寐錦王으로 불렸지만 530년대에는 대왕大王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국왕을 대왕이라 높여 부른 것은 그 위상이 귀족 가운데 단순한 제일인자의 수준을 뛰어넘어 초월자적超越者的 존재로 부상하였음을 의미한다. 대등회의의 주재권이 상대등에게 맡겨진 것은 사실상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대왕을 일반 귀족 관료들과는 뚜렷하게 차별짓기 위한 의도에서였다. 대왕으로 불린 신라국왕은 이제 단순히 귀족들의 대표자를 넘어 초월적 존재로 부각되었다.

이처럼 신라 불교의 공인은 타협의 산물이 아니라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치열하게 전개된 싸움에서 국왕이 승리를 거둔 결과였다. 이제 국왕권에 곧장 도전할 유력자는 거의 제압되기에 이르렀다. 불교 공인에 성공하면서 국왕권도 자연 높아져 새로 두어진 상대등을 친왕적親王的 인물로 선정하였다. 상대등은 국왕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뒷받침하고 대변하기 위한 자리였다. 물론 이후 국왕권이 부침을 거듭함으로써 상대등의 역할도 일관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었지만 처음 설치될 때는 친왕적 성격이었음이 확실하다. 법흥왕 재위 23년째 되던 536년 건원建元이라 연호를 처음 도입한 사실은 초월적 위치로 부상한 국왕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 주는 표지였다.

이제 단지 국왕권의 위상만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 동안 유지되던 6부체제에도 근본적 변동이 뒤따랐다. 독자성을 강하게 지닌 부의 기능이 완전히 바뀐 것이다. 이로써 마립간 시기 이후 오래도록 유지되어온 6부체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부체제 아래에서는 국왕도 6부 가운데 핵심인 탁부의 부장이었을 따름이다. 그래서 국왕도 인명을 표기하면서 소속 부를 첫머리에 관칭冠稱하였다. 그렇지만 대왕이라 칭하면서부터 이제 신라국왕은 소속 부를 칭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국왕이 부를 뛰어넘는 초월적 존재로 부상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사례이다.

부체제의 해체가 법흥왕대에 급작스레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지증왕이 실력으로 즉위한 뒤부터 꾸준히 추진된 체제 개편의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마련되었다. 이후 줄곧 6부 가운데 유력 우세한 탁부와 사탁부의 2부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따라서 기존 부체제는 사실상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불교 공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한판의 싸움에서 국왕 측이 승리를 거둠으로써 명맥이나마 유지되던 부의 독자적 기능은 완전히 상실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6부는 오직 왕도의 지역 구분으로서만 기능할 따름이었다. 부체제가 해체·소멸됨으로써 초월적 국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가 탄생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앙집권적 지배체제의 토대를 마련한 법흥왕은 재위 27년만인 540년 사망하였다. 그의 무덤은 애공사哀公寺의 북쪽 봉우리에 조영되었다. 애공사는 당시가 아니라 뒷날 건립되었는데 그 위치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선도산[西岳] 아래임은 분명하다. 법흥왕의 무덤으로부터 사실상 왕릉의 구체적 위치가 기록에 처음 등장한다.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신라의 왕릉은 경주분지 중심부의 대릉원 일대에 모두 함께 조영되었다. 이 일대에는 왕릉만이 아니라 그 혈족 및 여타 여러 지배세력들의 무덤도 모두 같이 조성된 점이 특징적이었다. 이처럼 지배자 집단의 무덤이 한곳에 군집을 이루어 함께 조영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공동체적 의식을 강하게 지녔음을 반영한다. 법흥왕의 무덤이 그를 벗어나 외곽지대에 따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곧 그런 공동체성이 실질적으로 부정되기 시작하였음을 뜻한다. 대왕이란 왕호를 칭하면서 초월자적 지위로 올라서고 공동체인 부체제가 소멸한 사실과 맞물려 진행된 현상이었다.

골품제의 정비와 새로운 체제

지증왕 즉위 이후 시행된 여러 혁신적 시책은 그를 이은 법흥왕이 더욱 강력하게 추진함으로써 신라의 지배질서 전반이 그 전과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초월자적 지위로 부상한 국왕의 위상에 걸맞게 제반 제도도 새롭게 정비되어 나갔다. 그처럼 제도적 뒷받침이 따르지 않으면 새로운 지배체제의 영속적 유지는 보장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율령의 반포나 불교의 공인도 그런 배경 아래에 추진되었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대상은 골품제骨品制라는 신분제의 편성이었다.

중앙집권적 귀족국가가 출범함에 따라 자연히 그를 지탱하는 기반인 지배집단의 근본 성격도 달라졌다. 직전까지의 지배집단은 부체제 하의 공동체성이 강한 수장적 성격을 지녔다면 이제는 그와 판이한 성격의 귀족관료가 출현하였다. 물론 아직 관료로서의 성격이 미약한 초기적 모습을 띠었지만 장차의 진행 방향은 이미 설정된 상태나 다름없었다.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이 귀족관료들이 적절히 재생산될 수 있는 제도화가 필요하였다. 그를 위해 마련된 것이 골품제였다.

골품제의 시원을 별다른 조건 없이 따진다면 무한정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제도로서 실제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520년(법흥왕7) 율령을 반포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간干이라 불린 층이나 그 하위의 실무를 담당한 층으로 크게 나누어진 정도였고 그들의 지위가 대체로 세습되었으므로 신분적 속성을 띤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들의 정치사회적 위상이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런데 법흥왕이 반포한 율령 속에 그것이 편목으로 자리 잡았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단순히 관행으로만 승인되어 왔던 특권이 이제 성문법적 제도로서 보장받게 된 것이다. 골품제란 신분제가 정식 출범함으로써 지배집단을 강하게 규정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출발 당초부터 골품제가 완성된 형태였던 것은 아니다. 정치제도가 정비되면서 그에 어울리게 내용도 차츰 갖추어져 나갔다. 말하자면 골품제는 처음부터 고정불변한 형식과 내용으로 고착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지배체제에 어울리게 정비, 운용되어 갔다.

골품을 흔히 골骨과 두품頭品의 품이 하나로 결합되어 성립한 용어라 이해해 왔다. 그러나 거기에는 뚜렷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두품의 어간은 어디까지나 '두頭'이지 '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의 '품'은 단순히 '두'의 등급을 의미하는 접미어에 불과하다. 따라서 골품은 골과 두품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용어가 아니라 골품과 두품이 각기 따로 존재하였고 그것이 하나로 결합함으로써 성립한 것이었다. 이때 '두'는 단순히 어떤 '머리'를 가리키며, 따라서 거기에는 수치가 많은 것을 높고 귀하게 여기는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 이때의 '두'가 어떤 '머리'를 지칭하는 것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그것이 사람이나 동물의 수치를 나타내는 단위로 사용됨이 일반적이므로 부릴 수 있는 사람 혹은 보유할 수 있는 동물의 수치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한 사람이 그럴 만한 수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표현한 것이겠다. 두품의 수치가 높을수록 신분이 높아지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골품은 두품과 구별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그와는 다른 의미를 지녔음이 확실하다. 이때의 골을 둘러싸고 뼈로 해석하는 주장, 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는 견해 등 논란이 많지만 상대되는 '두'와 관련지어 이해함이 적절하다. 그럴 때 골은 '두'라는 이른바 머리 속에 든 핵심으로서 골수骨髓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온당하다.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겉모양을 의미하는 '두'보다는 그 속에 든 핵심적 내용물이라 할 '골'이 한층 더 중시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원래 머리에 등급이 매겨진 데서 두품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처럼 골에도 따로 등급이 있게 된 데서 골품이라는 용어가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처럼 골품과 두품이란 용어가 각기 병존하였는데 어느 시점부터 골품으로 통칭되면서 그 제도를 총칭해 골품제라고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골품은 골의 품을 나타내는 좁은 의미와 두품까지를 아우른 넓은 의미를 동시에 갖는 셈이 된다. 후자가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골품의 용법이다.

골품제는 흔히 성골과 진골의 두 등급으로 나뉜 골품과 6등급으로 나뉜 두품 등 전체 8등급으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법흥왕 7년 율령을 반포할 때에 이미 그처럼 8등급으로 나뉜 구조가 완성된 상태로 출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최상급의 성골聖骨이 진평왕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출현한 데서 명백하다. 따라서 원래 골품제가 제도로서 모습을 갖춘 법흥왕대에는 골은 오직 하나로서만 존재할 따름이었고, 두품도 그처럼 6등급으로 세분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애초에 두품이 몇 등급이었는지를 가

늠하기 힘들지만 진평왕대에 이르러 골로부터 성골이 분화되고 그에 따라 기존의 골이 진골眞骨로 불리게 되었을 때 더불어 두품도 한층 더 세분됨으로써 전체 8품의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짐작된다. 8품성골八品姓骨이란 용어는 그런 실상을 어렴풋하게나마 반영해 준다.

골품제 운영의 핵심은 골품과 두품의 구별에 있다. 골품과 두품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간극이 가로놓여 있었다. 골품은 최상층의 지배집단이 소속한 신분층을 가리킨다. 그들은 정치 운영을 기본적 특장特長으로 하면서 모든 특권을 배타적으로 독점하려 하였으며, 따라서 그것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하려 하였다. 그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골품은 잘 분화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골이 나뉘어 성골이 출현하게 된 것은 당시의 정치사회적 특수 사정에서 말미암았다. 반면 두품의 분화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루어졌다. 골품 집단이 주축이 되어 정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체제의 골간을 유지해 가기 위한 방편으로 두품의 분화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쉽게 생겨난 하위의 두품은 그만큼 쉽게 소멸될 성질을 지니기도 하였다. 성골이 골로부터 상향 분화되어 출현하였던 만큼 쉽게 소멸될 성질을 지녔던 것과 마찬가지였다.

골품제가 제도화되기 이전 지배집단은 크게 간干층과 비간非干층의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다. 간층 집단이 신라사회 전반의 정치적 운영을 담당하였다면 비간층은 그 아래에서 구체적 실무 행정을 분담하였다. 각자가 맡은 역할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자연 세습되어 갔을 터이다. 그런데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갖추어져 가면서 간층 사이에서도, 그리고 비간층 사이에도 역할에 따라 차츰 구획이 생겨나고 저절로 우열에 따른 등급이 매겨졌다. 간층 내부에서 계선界線이 생겨나 하나의 뚜렷한 층위가 지워졌다면 비간층 내에서도 역시 층위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간층 집단 가운데 최고 상층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 원래 동일한 간군 집단 출신이었으면서도 계선의 간극을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그를 뛰어넘을 수 없도록 고착화시켰다. 여기서 사실상 상층부인 간들 가운데도 '골'과 '두' 사이에 하나의 뚜렷한 계선이 그어졌다. 최상층 집단이 가장 신경 써서 운용하려 한 것은 바로 간층 내부에서 그어진 계선이었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간층 하위와 비간층 상위 사이의 계선도 엄격하게 유지·관리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골품제는 골품과 두품 사이의 계선, 그리고 두품 가운데 원래 간층과 비간층 사이에 경계가 그어져 크게 3분된 상태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이 계선들은 시기가 내려오면서 넘나들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였다. 그것이 신분질서의 유지를 뛰어넘어 골품제 중심의 신라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골품제는 구조적으로 크게 3등급을 기본 축으로 해서 운영된 신분체계라 하겠다.

골품제 운용상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왕경인을 대상으로 한 신분제였다는 사실을 손꼽을 수 있다. 지방민은 골품제의 신분질서 바깥에 배치된 골품 외적인 존재로 취급되었고, 그에 따라 그들만을 대상으로 삼은 신분체계가 따로 마련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골품제는 신라의 모태였던 사로국의 지배자층을 중심으로 한 승자의 신분체계라고 할 수 있다. 왕경지배자 공동체를 유지해 가는 기본적 수단이 골품제였던 셈이다. 그런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관등제이다.

관등제의 구조와 운영

골품제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혈통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집단적 신분제라면 그와 밀접하게 연계되면서도 차츰 관료조직과 연결해 운영한 제도가 관등제官等制였다. 관등은 때로는 관위官位, 관품官品, 관계官階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관등은 관료제 질서 속에서 특정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를 보여 주는 신분 표지이다. 관등의 운용을 제약하는 것이 골품제였다. 따라서 관등제는 관료제는 물론이고 골품제의 테두리에서 살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이해가 가능하다. 거꾸로 관등제는 골품제의 실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가늠자이기도 하다.

사실 골품제, 관등제, 관직제의 삼자가 밀접히 연관된 것은 본래 그들이 분화되기 이전에 하나로 어우러져서 운용된 데서 기인한다. 4세기 이후 신라의

정치사회가 점점 발전하고 지배체제가 그에 걸맞게 정비되어 나가면서 각기 분화의 길을 걸었다. 그렇지만 기존 체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끝내 연계 운용되었다. 마립간 시기 부체제가 출범하면서 왕경이건 지방이건 가릴 것 없이 유력 우세한 수장층에게 지급된 간의 존재는 그런 실상을 증명해 주는 사례이다. 간을 부여받은 수장은 그 지위가 혈연적으로 승계된다는 측면에서는 신분적 속성을, 그 자체가 직무를 내재하고 있다는 의미에서는 관직적 성격을, 그리고 관료조직 내에서 등급의 속성을 지녔다는 의미에서는 관등적 성격을 함께 내재하고 있었다. 이 세 속성이 미분화된 채 하나로 어우러져 있다가 신라 정치체제의 발전 과정과 함께 세분되어 나갔다. 대사나 사지 등 일부 관등이 뒷날까지 관직으로도 기능한 것은 그런 실상을 방증해 주기에 충분한 사례이다.

삼국 각각은 지배체제를 정비하면서 점진적 과정을 밟아 관료조직을 갖추어 갔다. 그 결과 모두가 공통적으로 관등제를 창출하는 특징을 보였거니와 삼국 간에 교섭 및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그로 말미암아 운용상에서 상당한 공통성을 지니기도 하였지만 각국이 처한 형편에 따라 나름의 뚜렷한 특성을 지니기도 하였다. 이는 정치사회적 기반과 형성 배경 및 과정에서 드러난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그 가운데 신라에서는 유독 관등제를 경위京位와 외위外位의 둘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특징을 보였다. 경위는 왕경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 반면, 외위는 지방민을 대상으로 삼은 다른 성격의 관등제였다. 고구려나 백제의 구체적 실상은 잘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는 한 이원적 운영을 하였다고 볼 근거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등제의 이원적 운영은 일단 신라만의 특징이라 단정해도 무방하다.

이처럼 삼국 가운데 오직 신라만이 왕경인과 지방민을 각기 별개의 관등제 체계 속에 넣어 이원적 방식으로 운용한 것은 곧 지방민에 대한 인식과 그 대응 방식이 독특하였던 데서 말미암는다. 말하자면 삼국은 지방민을 대우하는 방식과 인식에서 근본적 차이를 갖고 있었으며 그것이 이후 지배질서 전반에 걸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게 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지방민을 차별하지 않고 적극 포섭하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하지만 신라는 달랐다.

신라는 관등제를 이원적으로 운용하면서도 왕경인 대상의 경위를 중심축으로 하였음은 물론이다. 외위라는 지방민만을 따로 다룬 관등체계를 운용한 것은 그들이 왕경인과는 다른 신분 구조로 편제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방민을 골품제란 신분체계 속에 넣지 않고 제외한 것은 결국 차별화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신라의 모태였던 사로국 출신자가 아닌 지방민을 다른 신분제로 편제함으로써 복속 주민이라는 인식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6세기에 이르기까지도 지방민을 대상으로 노인奴人이란 용어를 일부 사용하였음은 그를 방증한다. 이후 외위는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정비되고 또 삼국 간 항쟁이 격화되어 가는 가운데 차츰 소멸의 길을 걸었다. 7세기 후반 통일기 초기에는 마침내 완전히 소멸됨으로써 경위로 일원화되었다. 그러나 신라는 외위제를 매개로 마련한 지방민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였다. 흔히 신라사회를 폐쇄적이라 일컫는 이유의 하나도 바로 이런 데에 있다.

관등제인 경위는 17등 체계로 이루어졌는데 법흥왕 7년 율령을 반포하던 시점에서는 거의 모두 완성되었다. 그런데 『삼국사기』 등의 문헌 기록에는 이미 32년(유리왕 9)에 17관등체계 모두가 일시에 갖추어진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후대의 사실을 그렇게 소급·부회한 데에 지나지 않는다. 근자에 발견된 6세기 초의 몇몇 금석문 자료에 의하면 그때까지도 17등 관등은 일부만 존재하였음이 확실하다. 당시까지는 국왕을 정점으로 한 관등체계가 모두 갖추어진 상태는 아니었다. 6부별로 부장이 각기 자신의 관료들을 직속으로 거느림으로써 다원적 체계로 운용되었다. 다만, 6부 각각이 완전히 별개의 관등체계를 독자적으로 가진 것은 아니었다. 관등의 명칭이 동일한 점으로 미루어 일단 통일성을 보이는데 이는 중앙으로부터 일정한 통제를 받았음을 뜻한다. 부마다 관등 보유자의 수치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부별로는 독자적 관리를 하였지만 중앙정부에 정식 보고해 허락받도록 하는 등의 규제 아래 놓아 두었던 것이다. 이처럼 6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신라에서는 아직 국왕을 정점으로 명실상부한 일원적 관등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다원적 형태로 운영되었다. 이는 당시의 부체제적 정치 운영과 맞물린 현상이라 하겠다.

그런데 율령이 반포되면서 경위는 각간角干(또는 伊伐湌)으로부터 조위造位(또는 先沮知)에 이르는 17등 체계로 일단 완성을 본 것 같다. 율령 속에 골품제가 하나의 독립된 편목으로 자리 잡으면서 관등제 관련 규정도 함께 들어갔다. 그때 골품 및 관등과 어우러져 운용되었음 직한 공복제도 역시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되었음이 분명하다. 그 직전까지 겨우 몇몇만 존재하던 경위는 급속히 정비됨으로써 마침내 율령이 반포될 즈음에는 17등 체계가 갖추어졌던 것이다. 이후 17등 체계의 기본 골격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왜 더 이상 분화되지 않고 17등으로만 그쳤는지, 그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여하튼 그것이 신라 관등제 운용의 특징 가운데 하나로 손꼽힌다. 물론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제1등인 각간의 상위에 대각간, 태대각간太大角干과 같은 새로운 관등이 두어지곤 하였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상설위常設位가 아닌 비상위非常位로 취급되었을 따름이다.

한편, 경위를 골품제와 연동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통일기에는 신분의 제약을 받는 관료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특진의 길로서 중위제重位制를 마련해 운용하였다. 중위제는 아찬, 사찬, 대나마, 나마 등 몇몇 관등에만 한정해 설정되었는데, 이들도 결국 17등의 기본 골격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는 어떤 경우라도 완성된 17등 체계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나가려 한 신라 지배층의 강고한 입장을 잘 보여 준다.

중위제의 존재를 통해 17등 관등체계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크게는 상위의 간군과 나마 이하 두 군群이다. 간군 관등은 다시 대아찬 이상과 아찬 이하, 나마 이하 군은 나마 군과 사지舍知 이하의 두 군으로 각각 분류된다. 이는 관등이 골품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의미하지만 당초의 성립 과정과 존립 기반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처음 관등과 관직이 미분화된 상태에서 관료 조직은 크게 간과 나마로 구성되었으나, 직능職能이 분화됨으로써 차츰 증설되어 갔다. 양자를 기본 축으로 해서 상층인 간군의 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나마 이하는 그보다 뒤늦은 6세기 무렵 거의 일시에 성립하였다. 이처럼 경위는 하향으로 분화하였음이 특징이라 하겠다.

이들 각각은 자체에 직능과 동시에 등급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 그들 사이에 신분상의 계선까지 설정되었다. 아직 초기에는 관직이 그리 많지 않았으므로 관등적 성격이 뒤섞인 상태로 운용되었다. 그러다가 관부가 점차 설치되고 그에 따라 새로운 관직이 두어지면서 관직과 관등 양자는 연동해 운영되었다. 대체로 진평왕대에 이르러 『삼국사기』 직관지職官志에서 볼 수 있는 기본 체계를 갖추게 된 것 같다. 여하튼 관등이 골품제 및 관직제와 일체화해 운영되었지만 그 원칙과 체계는 법흥왕대에 일시에 마련된 것이 아니라 점진적 과정을 밟아 정리되었다. 그러면서 출발기의 성격을 완전히 탈각하지는 못하였다.

한편, 지방민 대상의 개인적 신분제라 할 외위의 경우 경위와는 성립 과정과 시점에서 상당한 차이가 났다. 501년의 「중성리비」에서는 간지干支-일벌一伐(또는 壹伐)과 간지-일금지壹金知의 두 체계가 존재한 사실로 보아 아직 일원적 외위 체계가 갖추어진 상태가 아니었음이 분명하다. 503년의 「냉수리비」 단계에서도 그런 실상이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524년의 「봉평리비」 단계에는 간지를 최고위로 해서 아척阿尺에 이르기까지 외위의 기본 4등급 체계가 갖추어졌다. 바로 얼마 전 반포된 율령 속에 그처럼 정리되었음을 추정케 한다. 이후 정복전쟁으로 영역이 늘어나고 그에 어울리게 지방 통치체제가 정비·강화되면서 기본 4등을 골격으로 해서 상급인 간지의 분화가 진행되었다. 외위는 간지를 중심으로 상향 분화되어 간 것이 특징이거니와 마침내 최고위인 악간嶽干에 이르기까지 11등 체계로 완성을 보았다. 하위가 고정된 채 간지라는 상급의 관등이 분화되어 간 것은 새로이 영역으로 포섭된 지역의 유력자층을 포섭해 내기 위한 방편에서였다.

외위제의 운용은 신라의 지방통치가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는가를 가늠케 하는 척도이다. 외위도 그 자체 내에 신분제적 속성을 내재한 것이거니와 골품제보다는 한층 탄력적으로 운영되었다. 지방민 가운데 통치에 적극 협조하거나 군공을 세웠을 경우 포상용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하였다. 신라가 지방통치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런 특징적인 외위 체계를 적극 활용한 결과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운영상 모순과 한계를 안고 있어 삼국 간의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머지않아 소멸될 운명이었다. 그런 뜻에서 외위는 과도기적 관등제였던 셈이다.

2

영역 확장과 지배질서의 확립

진흥왕의 즉위와 지소태후의 섭정

법흥왕은 신라의 지배체제가 부체제 단계를 벗어나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 진입하는 데 결정적으로 공헌한 제왕이었다. 말년에는 자신이 공인한 불교에 귀의하여 왕명에 걸맞게 그 홍포에 노력하였다. 법흥왕은 540년 사망하였는데 아들이 없어 7세의 어린 삼맥종彡麥宗(또는 深麥夫)이 즉위하였으니 바로 진흥왕眞興王(540-576)이다. 그가 어린 나이로 즉위한 자체는 당시 신라의 지배체제가 그럴 만큼 기반이 갖추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런데 진흥왕은 법흥왕의 아들이 아니라 외손자이면서 조카였다. 즉위한 명분이 어느 쪽에 있었던 것인지는 분명하지가 않다. 법흥왕에게는 지소只召라는 딸이 있었는데 입종갈문왕立宗葛文王과 혼인하였다. 진흥왕은 그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났다. 입종은 법흥왕의 친동생이었으므로 조카 지소와의 혼인은 극심한 근친혼이었다. 진흥왕이 즉위하기 직전의 모습은 「울산 천전리서석蔚山 川前里書石」에 보인다.

「천전리서석」은 울산 태화강의 지류인 대곡천변에 있는 커다란 암벽을 지칭한다. 암각화와 함께 수많은 글씨가 새겨져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이 냇가

그림 2 울산 천전리서석 을묘명

에 사부지갈문왕徙夫智葛文王과 그 일행이 525년 다녀가면서 처음으로 글자를 새겨 골짜기 이름을 서석곡이라 붙였다고 한다. 사부지갈문왕은 진흥왕의 아버지인 입종이다. 그로부터 14년의 세월이 흐른 뒤인 539년에 이르러 이제는 진흥왕의 어머니 지소부인이 지난날 남편 입종이 결혼 전 놀러왔던 사실을 기리며 자신의 어머니 보도保刀부인 및 어린 아들 삼맥부와 함께 놀러왔다가 옆에다 다시 글을 새겨 흔적을 남겼다. 이후 서석곡의 존재가 신라 왕경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다녀가는 명승지로 부각되었다. 여기저기에 이미 잘 알려진 인물들도 등장하는데 특히 화랑의 이름이 많이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그들의 유오지遊娛地 가운데 하나가 되었음이 분명하다.

서석곡에는 법흥왕이 직접 다녀간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무즉지태왕另卽知太王', '법흥대왕聖法興大王' 같은 형태로 이름이 보이므로 당시 가장 유력한 왕족 인사들은 거의 모두 등장하는 셈이다. 539년은 법흥왕이 사망하고 진흥왕이 즉위

하기 바로 직전의 해이다. 이 시점에 입종갈문왕이 자신이 처음 왔다간 흔적을 남긴 서석곡의 행차에 지소부인을 따라 동참하지 않은 점, 참가자들이 525년의 일들을 회상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그는 그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음이 확실하다. 그래서 진흥왕에게 왕위가 승계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입종은 생존하였더라도 즉위하기 힘들었을지 모른다. 그는 법흥왕과 함께 지증왕의 아들이기는 하였지만 사탁부 소속의 갈문왕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는 왕위에 오르기가 곤란하였다. 탁부 출신자만이 즉위가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지증왕은 원래 사탁부 출신으로서 갈문왕이었지만 즉위함으로써 탁부에 소속하게 되었고 그래서 장남인 법흥왕의 즉위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그의 혈연적 정통성은 원래 사탁부에 있었고 따라서 혈통상의 갈문왕 지위는 자연히 둘째인 입종에게 돌아갔다. 따라서 진흥왕은 과거의 상태라면 사탁부 갈문왕에 취임해야 마땅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부체제적 질서가 무너진 상태였다.

그런데 진흥왕의 어머니는 탁부 출신으로서 법흥왕의 딸이었다. 어쩌면 진흥왕은 그의 어머니를 잇는 자격으로서 즉위의 정당성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싶다. 물론 법흥왕이 대왕이라 칭하면서 부체제적 질서는 이미 해체되었으므로 출신 소속이 갖는 엄격성은 거의 해소되었지만 진흥왕은 어린 나이였음에도 즉위하게 된 명분을 여전히 거기에 두고 있었다. 지소가 진흥왕 대신 섭정할 정당성도 거기에서 찾았던 것이라 하겠다.

지소태후는 섭정을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사면을 단행하였고 관료들의 관작을 일률적으로 1급씩 올려주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는 섭정의 명분을 갖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는 한편 이사부를 중용하였다. 지소태후는 이듬해인 541년 이사부를 병부령에 임명해 내외병마의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실상 이사부로 하여금 실권을 갖도록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소태후는 이사부에게 크게 의존하는 섭정을 하였던 것이다.

이사부는 지증왕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관계였으므로 그 손자인 진흥왕과도 그리 멀지 않은 왕실의 일족이었다. 이사부는 지증왕이 소지왕과 권력 다툼을 벌일 때 전자를 지원하기도 하였을 것 같다. 이는 그가 지증왕과 정치 지향을 함께 하였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지증왕이 505년 이제 막 20세를 갓 넘겼을 이사부를 처음 설치한 군사적 요지인 실직주의 책임자 군주로 임명한 것도 그가 지닌 역량과 함께 그러한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부는 이후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영역을 확장해가는 데 크게 성공을 거두었고 512년에는 우산국까지 복속시킴으로써 지증왕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였다. 520년대에 법흥왕이 낙동강 하류의 금관가야를 공략하는 작전을 펼칠 때도 선봉에 서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지소태후는 혈연관계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쌓아온 이사부의 그런 경륜을 높이 평가해 자신의 섭정을 도와주도록 요구하였던 것 같다.

이처럼 진흥왕 즉위 초기의 정국을 실제로 이끈 인물은 이사부였다. 그 점을 뚜렷이 보여 주는 것이 『국사國史』의 편찬이다. 이사부는 국왕 중심의 집권체제를 다져갈 필요성에서 신라 역사의 정리를 건의하였다. 그래서 왕실의 일족으로서 자신과 비교적 가까운 혈연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지향이 같은 거칠부居柒夫를 역사 편찬의 총 책임자로 천거하였다. 거칠부 주도로 최종 정리된 신라 역사서가 바로 『국사』였다. 이 책이 현재 전해지지 않아 구체적 내용을 잘 알 수가 없지만 몇몇 사서에 기록된 신라 초기 왕계는 여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씨 지배체제가 확립되었음에도 왕계가 그 중심으로 일원화되지 않고 박혁거세가 신라 건국시조로 내세워졌다거나 석탈해가 존재하는 등 이른바 3성교립交立이 기록된 사실은 그를 방증한다. 이후 통일기에 김씨 중심으로 신라 왕조를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에도 3성교립의 내용이 결국 부정되지 않은 것도 최초의 공식적 역사서에 그렇게 기록된 데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사부가 역사서 편찬을 건의하면서 '국사란 모름지기 군신의 선악을 기록해 후대에 포폄褒貶을 드러내어 보이는 데에 있다'는 유교식 역사 서술의 기본 방침인 술이부작述而不作의 태도를 내비친 것은 그를 뚜렷이 방증해 준다. 『국사』의 편찬 자체는 이사부의 정치적 식견이 만만치 않았음을 보여 주는 실례이다.

이사부는 『국사』 편찬을 통해 장차 신라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실제적으로 국가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가는 작업을 본격 추진하였다. 544년(진흥왕 5)에는 병부령을 1인 더 설치하였다. 당시 자신이 병부령이었으므

로 이제 복수가 된 셈이었다. 이후 상대등과 집사부執事部의 시중侍中을 제외하고 나머지 중앙 핵심 관부의 장관직이 대개 복수複數로 임명되는 선구였다. 어쩌면 이는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군사 일체를 담당한 병부의 비중이 높아진 데서 기인한 역할 분담이었겠지만 다른 한편 서로를 견제하려는 의도도 내재하였다. 사실 이사부 자신은 병부령으로서 군사를 총괄하는 동시에 정치 전반을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병부령을 1인 더 두어야 하는 형편이었다. 바로 이해에 당시 중앙의 핵심군단으로서 대당大幢을 둔 것도 그와 무관하지가 않다. 대당을 설치하는 군제개혁과 함께 병부령의 증치를 단행한 것이었다. 대당은 신라 군사력의 중핵을 이루는 조직으로서 이후 국왕을 보위할 뿐만 아니라 영역을 확장해가는 정복전쟁을 추진하는 데 구심적 기능을 다하였다. 이런 군사적 시책은 진흥왕이 즉위한 뒤 국운을 건 한판의 승부수인 한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추진하는 데 주요 기반이 되었다.

지소태후는 법흥왕이 건립을 추진하던 흥륜사를 544년 완공하면서 승려의 출가도 처음 허용하였다. 불교와 정치가 본격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길을 닦은 셈이었다. 양나라 무제는 549년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자국에 와 있던 승려 각덕覺德에게 불사리를 딸려 보내었다. 이때 진흥왕이 백관들과 함께 흥륜사의 앞길에까지 나아가 맞았다고 한다. 바야흐로 신라는 불교국가로서 웅비할 기틀을 갖추어가고 있었다.

진흥왕의 친정과 한강 유역 진출

540년 7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진흥왕은 재위 12년째인 551년 성년成年이 되자마자 곧장 친정을 선언하였다. 그를 뚜렷이 보여 주는 조치가 개국開國이란 연호의 사용이었다. 법흥왕이 536년 연호 사용의 첫 문을 열었지만 진흥왕이 즉위하면서도 새로운 연호로 바꾸지 않았다. 그처럼 1세1원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이유는 지소태후가 섭정하면서 법흥왕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려 한 의도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 비추어 이제 진흥왕이 친정하자마자 즉시 개국이란 연호로 바꾼 것은 예사로워 보이지 않는다. 나름의 특색 있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특히 연호를 개국이라 칭한 사실은 각별히 주목되는 점이다. 이미 나라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나라를 연다'는 뜻의 '개국'을 연호로 채택한 것은 친정하는 데 임하는 진흥왕의 결기가 강하게 깃든 표현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은 '나라를 연다'는 소극적 뜻보다는 '신라를 새롭게 열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욕이 담긴 의미였다. 장차 신라를 새로운 나라로 건설해 내겠다는 강한 결의를 내비치는 젊디젊은 대왕다운 면모라 하겠다. 과연 진흥왕은 이후 여러 모로 그에 어울리는 정책을 추진해 성공을 거둠으로써 신라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았다.

진흥왕은 친정을 시작한 바로 그 해에 낭성娘城(현재의 청주 지역)에까지 처음 행차함으로써 추진 방향을 내비쳤다. 이미 이 방면으로의 진출은 지소태후의 섭정 시기에 시작되었다. 548년 고구려가 예족을 앞세워 백제의 독산성獨山城을 급습하는 등 사건을 일으켰다. 이에 백제가 신라에게 병력을 파견해 도와주도록 요청하자 진흥왕은 즉각 장군 주령朱玲으로 하여금 3천의 병력을 이끌고 나가 돕도록 하였다. 그러자 550년에는 백제가 고구려의 도살성道薩城을 공격하였다. 고구려는 그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백제의 금현성金峴城을 함락시켰다. 이후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는 두 성을 놓고서 치열하게 각축하였다. 마침내 두 나라가 힘을 거의 소진하였을 즈음 기회를 틈타 이사부가 두 성을 단번에 공략해 탈취하는 전과를 올렸다. 이사부는 두 성을 증축하고 거기에다 갑사甲士 1천명을 배치해 지키도록 하였다. 이는 신라의 입장에서는 물론 삼국 간의 관계에서도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런 시도의 밑바탕에는 신라가 머지않아 백제까지도 적으로 돌릴 수 있음을 은근히 내비친 것이기 때문이다. 두 나라 사이에 433년 군사동맹이 맺어진 이후 여러 차례 굴곡을 겪으면서도 기본 골격은 그대로 이어져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머지않아 깨어질 것임을 예고한 상태나 다름없었다. 말하자면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예비적 행위였다. 진흥왕이 친정하자마자 첫 사업으로서 이제 갓 장악한 낭성 지역으로 행차한 것은 바로 그런 정책을 실현에 옮기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진흥왕이 순행하면서 낭성에 이르렀을 때 대가야 출신으로서 얼마 전 신라로 귀화한 악성 우륵于勒과 그의 제자들이 가까운 국원國原(오늘날 충주)에 사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즉각 그들을 하림궁河臨宮으로 불러들여 음악을 연주하도록 지시하였다. 진흥왕은 우륵의 가야금곡 연주를 다 듣고서 그 이듬해 계고階古, 법지法知, 만덕萬德의 3인을 우륵에게 보내어 배우도록 지시하였다. 우륵은 그들의 능력을 살펴 가야금 연주, 노래, 춤을 각기 나누어 가르쳤다. 진흥왕은 얼마 뒤 그 결과를 직접 들어보고서 지난날 낭성에서 들었던 것과 다름없다고 크게 기뻐하면서 그들을 포상하고 신라의 국가 음악이라 할 대악大樂으로 삼으려 하였다. 이에 일부 신하들이 나서서 가야금곡은 멸망해가는 나라의 음악이므로 대악으로 삼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반대하였다. 이때 진흥왕은 대가야가 멸망한 것은 대가야왕이 음란해서 자멸한 것이지 음악에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힐난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강행하였다. 이 사건을 통해 예악禮樂을 중시하는 진흥왕의 근본 자세를 규지해볼 수 있거니와 장차 왕도정치를 추진하려는 모습의 일단도 엿볼 수 있다. 진흥왕이 개국이란 연호 아래 만들려는 신라국가가 결국 왕도정치와 연관되어 있음을 짐작케 한다.

백제는 551년 한강 유역의 탈환이란 오랜 숙원을 풀기 위해 신라에다 병력 파견을 요청하였다. 신라는 그에 부응해 병력을 보내었다. 이로써 백제 중심으로 신라 및 가야의 3국 연합군이 결성되어 한강 유역 진출 작전을 펼쳤다. 사실 기존의 문헌 기록만으로 볼 때 신라가 한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한 것은 이때이지만 550년 무렵 건립된 「단양 신라적성비」의 내용을 염두에 두면 그와는 약간 다른 이해가 가능하다. 신라는 백제와 연합군을 편성하기에 앞서 이미 단독으로 고구려의 관할 아래 있던 남한강 상류 방면으로 진출해서 성공을 거둔 상태였다. 「적성비」에 따르면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인물이 명장 이사부였다. 그렇다면 신라로서는 벌써 단독의 힘으로라도 한강 유역으로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서 그를 추진해 왔던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언급한 도살성과 금현성을 신라가 일거에 장악한 일은 결코 우연하게 추진된 사건이 아니었다. 신라는 이미 한강 유역으로의 진출을 은밀히 기획하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기던 중이었다. 백제는 신라의 그런 내심이나 입장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채 많은 손해를 무릅쓰면서 자신들 주도 아래 한강 유역을 장악하기 위해 신라를 끌어들였다. 신라는 속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백제 요구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차근차근 실현해 갔던 것이다.

일단 백제와 연합한 신라의 한강 진출 작전은 거칠부 등 8명의 장군이 함께 추진해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당시 고구려는 돌궐이 건국하는 등 북방의 정세가 심히 불안하고 안으로는 귀족들 간 다툼의 여진이 말끔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남쪽 방면을 제대로 돌볼 겨를이 없었다. 고구려의 그런 사정은 자신의 옛날 왕도 소재지였던 한강 유역의 탈환을 자나깨나 꿈꾸어온 백제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였다. 그래서 별로 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서도 쉽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백제는 자신의 왕도였던 거점도시 한성漢城은 물론 오늘날 남양주로 추정되는 평양平壤 등 6개 군郡을 손에 넣었다. 이때 신라는 경기도 동부 및 강원도 산악 일대로 추정되는 10군을 장악하였다.

그런데 이미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려는 행보를 미리 내보인 신라로서는 백제의 손에 들어간 6군을 침탈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사실 그런 시도는 일반적으로 지적되고 있듯이 단순히 신라가 장악한 10군의 땅이 백제의 6군에 비해 인적·물적 기반이 미약했던 데에만 요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물론 그 직전부터 준비된 것이지만 진흥왕의 개국에 걸맞은 원대한 포부를 실현하려는 의지로부터 나온 것이었다. 그 밑바닥에는 진흥왕이 백제의 힘을 빌리지 않고 이제부터 독자적으로 중국과 교류·교섭하려는 계획이 깔려 있었다. 오랜 동맹국 백제를 거꾸로 영원한 적대국으로 돌리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강 유역을 독차지하려는 욕심을 드러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신라는 방심하고 있던 백제의 허를 찌르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일단 신라는 자신들이 고구려와 밀약을 맺었다는 첩보 수준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 사실 당시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밀약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추진된 것인지는 뚜렷하지가 않다. 그에 대해 몇몇 견해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 첩보를 입수한 백제는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552년 왜에다가 군사를 요청해 대비하려고 하였

다. 그것이 뜻한 바대로 진행되지 않자 백제는 553년 눈물을 머금고서 일단 자진 후퇴의 형식으로 한성의 군사를 철수시켰다. 그 결과 신라는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백제가 장악하고 있던 한강 일대를 손에 넣는 전과를 올렸다.

신라는 확보한 한강 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신주新州를 설치하고 김유신의 할아버지로서 이 방면 작전에 다대한 군공을 세웠던 김무력金武力을 첫 군주로 임명하였다. 한강 유역 일대를 '새로운 지방'이란 의미를 갖는 신주로 명명한 데는 상당한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낙동강 유역권이나 동해안 방면과는 성격이 전혀 다른 새로운 영토였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개국이란 연호에 썩 어울리는 땅이라는 뜻이 스며들어 있다. 바야흐로 진흥왕이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이리하여 삼국 간의 관계는 기왕과는 전혀 다른 상황을 맞고 있었다.

관산성 전투의 승리와 새로운 시대의 개막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가 연합해 공격한다면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눈물을 머금고서 애써 탈환하였던 옛 영토 한강 유역을 포기하고 일단 퇴각하였다. 신라와 직접 맞서 싸우지 않고 물러난 것은 차후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두 나라는 직접 대적해 싸움을 벌인 것이 아니었으므로 기존의 동맹관계가 겉으로는 아직 유효한 셈이었다. 사실 백제가 싸움을 피해 서둘러 철군한 것도 차후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조치였다. 백제 성왕은 그런 본심을 숨기고서 기존 동맹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거듭 내비치기 위해 자신의 딸을 진흥왕의 소비小妃로 보내었다. 백제로서는 겉으로는 신라에 대해 특별한 반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표시를 한 셈이다. 하지만 이는 내심 보복전을 펼칠 준비를 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기 위한 술책이었다.

신라로서도 백제가 가진 기본 입장을 간파하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그 요구에 따라주었다. 실상은 장차 벌어질 일을 예상하고서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었다. 그것은 554년 7월 명활산성明活山城의 수축 작업을 끝낸

그림 3 경주 명활산성작성비

사실에서 유추된다. 명활산성의 수축은 근자에 발견된 「명활산성작성비明活山城作城碑」에 의하면 551년부터 전국의 주민을 동원해 실시하였던 것 같다. 이 해는 백제와 함께 한강 유역으로 진출한 바로 그 시점이므로 혹시 그것이 실패할 경우 고구려의 역습을 받을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기 위한 데에 있었다. 이후에도 수축 작업을 그대로 지속하다가 554년에 이르러서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554년 완성한 것은 이제 고구려보다는 백제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이 바뀌었다. 삼국 사이에 긴장감이 크게 고조되고 긴박하게 돌아갔음을 반영하는 사실이다.

과연 신라가 예상하던 대로 백제는 명활산성 수축이 완료될 즈음 왕도를 직접 겨냥하고서 총공세에 나섰다. 백제로서는 한강 유역을 다시 빼앗는 길이

곧 국운을 건 한 판의 전쟁이라 생각하고 전면전을 기도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는 데에 이르기까지는 쉽지가 않았다. 백제의 내부에서 신라와 전면전을 펼치는 데 대한 반발이 만만치가 않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한강 유역 진출 작전의 실패에 따른 책임론이 거론된 데다가 다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킨다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경제적·군사적 부담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랜 경륜을 지닌 원로 대신들은 가급적 충분히 준비해서 뒷날을 기약하는 것이 좋겠다는 신중론을 폈다. 반면, 이십대 후반의 혈기왕성한 왕자 여창餘昌은 당장 전쟁을 추진하자는 강경론을 고집하였다. 아직 젊었지만 현실의 실력자로서 머지않아 연로한 성왕을 대신해 왕위에 오르게 될 여창의 주장이 마침내 관철되었다. 백제는 한강 진출 실패의 여파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아 아직 준비 상태가 충분하지 못하였음에도 정예 병력 3만을 동원해 신라 공격을 감행하였다.

여창을 총사령관으로 한 백제 병력은 곧바로 익산, 남원을 거쳐 육십령이나 팔량치를 넘으려 한 것이 아니라 익산, 금산, 옥천을 거쳐 약간 우회하는 경로인 추풍령 혹은 그 북쪽의 화령華嶺 방면으로 나아가려고 북상하였다. 어쩌면 신주 방면 군사의 움직임을 고려한 작전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세등등한 상태에서 출정한 여창은 신라의 요새지 관산성管山城을 함락시키고 그 일대를 장악해 대비하는 등 초반전에는 상당한 전과를 올렸다. 당시 신라에서는 군주인 각간 우덕于德과 이찬 탐지耽知 등을 보내어 막았으나 패배하였다. 다급해진 신라는 한강 유역을 지키던 군주 김무력의 신주 병력을 관산성 방면으로 급파해 구원하도록 지시하였다.

관산성 싸움에서 승리를 거둔 여창은 즉각 왕도 사비성에 머물던 성왕에게 승전보를 날렸다. 성왕은 그를 듣자마자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바로 전장으로 내달았다. 그런데 성왕은 승전 소식을 접하고서 주변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도 않은 채 황급하게 극소수의 병력만 이끌고 전장으로 나아갔는데, 다급한 나머지 가장 빠른 길을 선택하였다. 이것이 돌이킬 수 없는 화근이 되고 말았다. 여창이 진군하였던 행로를 뒤따라가지 않고 사비 도성에서 관산성으로 직행하는 최단거리를 선택하였다. 성왕은 때마침 한강 유역에서 신주 병력을 이끌고 출발한 김무력이 관산성 부근에 이르러 길목에 매복시켜둔 삼년산군三年山郡 출신의 유력자인 고간高干 도도都刀가 이끄는 부대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이었다.

사로잡힌 성왕은 신주군주 김무력이 주둔한 본진으로 끌려갔다. 김무력은 형을 집행하면서 전쟁 도발의 책임을 백제에게 돌리는 명분을 내세웠다. 백제가 선공先攻한 사실 자체를 오랜 동맹관계를 파기한 일로 주장해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이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성왕의 목을 벤 뒤 몸통은 돌려주고 머리는 신라 왕도로 가져갔다. 이 소식을 접한 백제는 더 이상 전의를 상실할 정도로 기세가 꺾였다. 신라의 대대적 공격으로 수세에 몰린 여창은 몇몇만을 거느리고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탈출하였다. 동원된 정예 병력 대부분은 전사하고 말았다. 관산성 싸움은 신라의 완승으로 결말이 났다. 백제로서는 이후 원상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정도로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반면 신라로서는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된 일대사건이 바로 관산성 싸움이었다.

관산성 싸움은 백제 단독으로 치른 전투가 아니었다. 가야와 왜도 소수 병력이나마 보내어 연합군으로 참전하였다. 신라로서는 그 동안 백제 주도 아래 일종의 동맹관계를 맺고 있던 가야를 그대로 둘리 만무하였다. 특히 백제는 성왕의 사망과 관산성 싸움의 대패로 말미암은 여파로 심각한 내부 혼란을 겪고 있었으므로 가야를 후원할 여력이 없었다. 신라는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가야 총공세에 나섰다.

진흥왕은 가야 공략 준비를 착착 진행하였다. 555년 일단 상주로부터 하주下州를 따로 분리해 낙동강 가까운 비사벌比斯伐에 주치를 두었다. 바로 이 해에 진흥왕이 북한산北漢山까지 순행에 나섰는데, 새로 편입된 지방민에 대한 위무는 물론 고구려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그와 아울러 동해안 방면의 주치를 강릉보다 한참 북쪽의 비열홀比列忽로 옮겨 배치하였다. 이 또한 고구려의 남쪽 경역을 상당히 잠식한 셈이었다. 한편 사벌沙伐에 있던 상주上州의 주치를 감문甘文으로 옮겼다. 바로 이 해에 한강 유역 신주의 주치도 좀 더 북쪽의 북한산으로 옮겨 갔다. 이런 주치의 이동 전반을 보면 고구려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그 방면의 영역 확장을 도모하고 나아가 낙동강 이서 방

면의 가야를 공략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었다. 감문 방면에 상주의 주치를 둔 것은 백제의 도움을 차단하면서 그 방면으로부터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비사벌에 주력군을 배치해 낙동강을 바로 건너려 했다. 이는 당시 가야 남북의 유력세력이었던 안라와 가라(대가야)의 연합을 차단하려 한 군사작전이었다.

신라는 상대적 약체였던 안라를 먼저 제압하고 즉시 북쪽의 대가야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562년에는 가야 전체 영역을 장악하였다. 이로써 가야는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졌다. 561년 진흥왕이 직접 행차하여 세운 「창녕비 昌寧碑」에는 중앙군은 말할 것도 없고 사방에 파견된 군주가 병력을 이끌고 참여한 모습이 보이거니와 이는 신라가 가야 공략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를 보여 주는 뚜렷한 사례이다.

신라는 진흥왕이 즉위하고서 한강 유역을 장악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낙동강 유역의 가야 복속이라는 오랜 숙원도 풀었다. 동해안을 따라 계속 북

그림 4 북한산 비봉과 진흥왕 순수비(복원비)

그림 5 진흥왕대의 신라 영역 확장도

상함으로써 영역을 크게 넓혔다. 「북한산비」, 「마운령비」, 「황초령비」는 그런 모습을 웅변해 주고 있다. 진흥왕이 친정하면서 내걸었던 개국은 이로써 실현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564년 진흥왕은 북제北齊에 사신을 파견해 처음으로 독자적 힘으로 동아시아 국제무대에 얼굴을 내밀었다. 그 이듬해에는 북제로부터 낙랑군공신라왕樂浪郡公新羅王이라는 작호를 받았다. 진흥왕이 이때 김씨 성을 당당하게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그런 분위기를 적절히 반영한다. 신라왕의 위상은 이제 국제무대에서 공인을 받은 셈이었다. 바야흐로 가장 후발주자였던 신라가 선발주자 고구려 및 백제와 나란히 어깨를 겨루는 삼국 정립기로 돌입하게 되었다.

황룡사의 창건과 전륜성왕의 표방

진흥왕은 개국이란 연호 사용과 함께 한강 유역 진출에 성공하자 이제 그에 어울리게 내부 체제를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 일환으로서 진흥왕은 가장 먼저 궁궐을 성대하게 하는 작업을 단행하였다. 그것이 현저히 높아진 국왕의 권위를 과시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553년 월성의 동쪽에다 새 왕궁을 지어 옮기려 하였다. 그런데 왕궁 설립 예정지에서 황룡黃龍이 나타나자 그를 절로 바꾸어 짓게 되었다고 한다.

절의 건립을 마무리한 뒤 황룡이 나타난 사실을 고려해 황룡사黃龍寺라 이름 지었다. 그러다가 얼마 뒤부터는 표기를 황룡사皇龍寺로 바꾸었는데 이것이 이후 공식적 표기가 되었다. 그처럼 사찰 명칭을 바꾼 데에는 깊은 뜻이 스며 있는 듯하다. 원래 황색은 오방색 가운데 중앙을 의미하며, 그래서 황제를 상징하는 색깔로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황룡사 자리가 천하의 중심이면서 동시에 신라 국왕도 황제라는 인식이 깃들어 있는 것이다. 이후 오래도록 황룡사가 신라 불교의 중심지이면서 국왕과 밀접하게 관련된 듯이 운영된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561년 세워진 「창녕비」에 보이는 사방군주四方軍主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진흥왕도 자신의 영역을 4방이라고 인식하는 나름의 천하의식을 갖고 있었다. 그런 천하를 관리하고 다스리는 주인이 신라 국왕으로서 스스로 황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왕궁을 새롭게 짓고자 한 시도 자체는 그를 겉으로 드러내기 위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황룡사를 굳이 황皇으로 표기하려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로써 황룡사는 신라 국왕과 불교가 결합하는 중심지로 기능하기 시작하였다.

왕궁 조성 예정지가 갑자기 사찰로 바뀐 데는 그곳이 주거지로서는 그리 적절하지 못한 요인도 작용하였던 것 같다. 당시 신라인들은 황룡사의 바로 북편을 용궁龍宮이라 부르고 있었다. 그곳에는 평소 물이 솟아나와 항상 고여 있는 저습지였던 데서 그처럼 불린 것이었다. 따라서 애초에 새로운 왕궁 조성은 저습지를 메우는 대대적 작업을 전제로 하였다. 아마도 그렇게 추진되다가 갑작스레 기본 계획이 변경되었다. 그처럼 엄청난 규모의 역사를 벌이면서 목적을 바꾸게 된 명분으로서 황룡이 나타났다는 막연한 사실을 내세운 것은 석연

그림 6 발굴 후 정비된 황룡사지

하지가 않다. 이는 뒷날에 그를 적당히 포장하려 한 데서 나온 것일 뿐 실제로는 다른 배경과 요인이 작용하였다.

황룡사 창건에는 553년(진흥왕 14) 시공해 566년에 이르러 처음 준공될 정도로 상당히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다. 최초 사찰인 흥륜사에 비하면 엄청난 공력을 들였던 셈이다. 이는 그 목적이 그리 간단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사실 당대에 국가적 보물로 설정된 소위 삼보三寶 가운데 장육존상과 9층목탑의 두 개가 황룡사에 있었던 점으로 보면 그것이 차지하는 정치적 비중을 대충이나마 유추해낼 수 있다. 황룡사 완공 후 그 사주寺主가 신라 불교계를 대표하는 국통國統의 역할을 겸한 사실도 그를 방증하기에 충분하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면 왕궁 예정지를 갑작스레 사찰로 바꾼 밑바탕에는 강한 정치적 목적이 작용한 느낌이 짙다. 왕궁을 크게 지어 그 권위를 겉으로 내세우는 형식적 측면보다는 실질적·현실적 목적이 작용한 소치가 아닐까 싶다. 국왕권이 크게 고양되자 바로 얼마 전 공인되어 이제 막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지배이데올로기로서 자리매김 되기 시작한 불교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였다. 국왕권의 위상은 정치이념으로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깊이 뿌리내리기 힘들었다. 불교 공인 자체만으로는 그것이 저절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진흥왕은 황룡사 창건을 전후해 지배이데올로기 구축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미 흥륜사를 창건하고 승려의 출가를 허용하였지만 550년에는 대서성大書省이란 승관직僧官職을 마련해 그에 한발 더 다가갔다. 대서성은 문필文筆을 담당한 직임으로서 승려가 그에 임명되어 국왕을 보좌한 것은 불교와 정치의 결합 관계가 한층 깊어졌음을 뜻한다. 그렇지만 대서성을 두는 것만으로는 크게 높아져가던 국왕권을 보장하기는 어려웠고 한층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왕궁을 조성하려다가 갑작스레 사찰로 바꾼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신라에서는 불교에 대한 이해 수준이 그리 높지 못한 상황이었다. 특히 갑작스레 목적이 달라진 점에 주목하면 특별한 요인이 밑바탕에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럴 때 주목해 볼 만한 것은 혜량惠亮이란 승려가 고구려로부터 망명해온 사실이다. 그는 신라가 551년 한강 유역 진출 작전에 성공했을 때 고구려를 이탈해 거칠부를 따라왔다. 거칠부는 젊은 시절 출가해 전국을 유람할 때 일시 고구려 경역으로 들어갔다가 강경講經 중이던 혜량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그 역량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거칠부는 혜량이 입국하자마자 진흥왕에게 추천하였다. 진흥왕은 즉시 비록 상징적이기는 하나 최고의 승직이라 할 국통國統을 신설해 혜량을 그 자리에 앉혔다. 혜량이 당시 국통이면서 동시에 사주寺主라 불린 점으로 미루어 처음에는 유일한 국가 사찰이었던 흥륜사에 주석한 것 같다. 만일 진흥왕이 왕궁 예정지를 황룡사로 바꾼 목적이 정치적으로 불교를 활용하기 위한 데에 둔 것이라면 당시의 형편으로 보아 그를 발의한 것은 국통인 혜량일 수밖에 없다. 진흥왕은 혜량의 건의를 받아들여 왕궁을 황룡사로 바꾼 것이었다. 이로써 불교는 정치와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기반을 갖춘 셈이었다. 한편 신라 불교에 고구려 불교 혹은 그를 매개로 한 북위北魏 불교의 일부 요소가 결합하기에 이른 것이다.

황룡사가 오랜 시일이 걸려 완공된 사실은 그 규모와 함께 비중이 무척 컸음을 반영한다. 황룡사의 사주가 곧 국통을 겸한 사실은 불교의 중심자적 역할을 맡았음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진흥왕은 혜량의 건의를 적극 받아들여 황룡사를 지렛대로 삼아 불교를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려 한 것 같다. 그럴 때 각별히 주목되는 점은 진흥왕이 스스로 전륜성왕을 표방하였다는 사실이다.

당시 불교와 신라국가의 관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이 전륜성왕轉輪聖王이다. 전륜성왕은 불법에 따라 영역을 넓혀 제국을 건설하고 백성을 다스림으로써 불국토를 구현한다는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가장 이상적인 군주상이다. 영역의 확장이 곧 불교의 홍포를 위한 것으로 포장되었다. 전륜성왕이 지닌 권위와 막강한 힘은 금륜金輪, 은륜銀輪, 동륜銅輪, 철륜鐵輪이라는 전차의 바퀴로 상징된다. 고대 인도의 통일제국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이 현실에 출현한 전륜성왕의 전형으로 간주되었다. 그와 같은 전륜성왕 인식은 중국의 남북조시기에 수용되었는데 특히 불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적극 활용한 북조에서는 황제가 곧 부처라는 '왕즉불王卽佛' 의식을 만들어내었다. 양나라 무제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남조에서도 그런 의식이 형성되었고 그것이 백제에서도 수용되었는데 성왕聖王은 바로 그를 본받으려 한 데서 나온 왕명이라 추측되고 있다. 그

런 전륜성왕을 진흥왕이 본격적으로 표방하고 나선 것이다.

진흥왕이 첫째 아들을 동륜이라 하고, 둘째 아들을 사륜舍輪(또는 鐵輪)이라고 이름 지은 사실은 스스로 전륜성왕이라 인식하였음을 증명해 주는 사실이다. 그런 의식은 자신을 금륜이라고 전제한 데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황초령비」와 「마운령비」에서 확인되듯이 변경 일대를 순수하면서 2인의 승려를 대동한 일은 그런 실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어 준다. 진흥왕은 574년 황룡사의 주존불로서 장육상丈六像을 조성하거니와 전형적 전륜성왕으로 공인된 아소카가 빚으려 하다가 끝내 실패해서 내보낸 재료를 갖고 완성했다는 설화는 자신이 그를 능가하는 수준이라 자부하고 있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거기에는 진흥왕에 앞서 전륜성왕을 자처한 경쟁자인 백제 성왕을 이겼다는 승자 의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575년 장육상의 눈물이 발꿈치까지 적셨는데, 이는 곧 이듬해 진흥왕의 사망을 예고해 준 것이라는 이야기는 곧 장육상 자체가 바로 진흥왕임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진흥왕은 왕즉불 의식에 충실하였으며, 그런 호국불교의 중심지는 황룡사였다. 뒷날 황룡사에 자장이 만난 신인의 아들 호법룡護法龍이 살고 있다는 설화적 이야기는 그런 사정의 일단을 반영해 준다. 왕궁이 갑작스레 사찰로 바뀐 배경에는 그처럼 왕즉불 의식을 실현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이었다.

왕궁을 지어 옮기려 한 실질적 이유는 월성이 너무 협소해 수용 능력상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새로운 왕궁 건설이 취소됨으로써 기존 월성을 일단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정치의 정신적 중심지는 황룡사로 옮겨간 것이지만 거주지로서의 왕궁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로써 왕궁으로서의 월성에는 장차 변화가 나타난다. 왕궁의 부족 공간이 월성을 중심 거점으로 해서 점점 바깥으로 확장되어 간 것이다. 그 점을 뚜렷이 보여 주는 사실이 월성 주변을 감싸고 있던 해자垓字의 용도 변화이다.

해자는 월성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서 일부는 남천南川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인공적으로 둘러쳐 배치하였다. 월성 해자는 발굴을 진행한 결과 방어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던 시기에 비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좁혀져 간 경향을 뚜렷이 보였다. 이는 해자의 본래적 기능이 점점 축소되고 소멸되어 갔음

을 뜻하는 사실이다. 해자의 본래 기능 해소는 곧 월성 자체가 바뀌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왕궁의 기능을 월성만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된 데서 비롯한 근본적 변화였다. 본궁本宮 혹은 대궁大宮이란 이름과 함께 다양한 궁궐의 명칭이 기록상에 나타나는 사실은 그를 증명해 준다. 월성이 본궁, 대궁이라면 그 외연이 확장되면서 동궁東宮, 북궁北宮, 남궁南宮을 비롯한 여러 별궁들이 월성의 바깥에 세워져 하나의 군을 이룸으로써 그를 보완하도록 한 것이었다. 진흥왕이 월성 외에 다른 새로운 궁궐 건설을 포기한 사실은 왕궁의 구도 전반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동시에 신라 왕경의 도시 구조에서 변화를 시도한 일이기도 하였다. 새로운 왕궁을 지으려 한 의도 속에는 왕경의 도시계획까지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6세기에 들어와 신라국가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늘어난 인구와 정치적·경제적 능력 때문에 기존 왕궁과 왕경으로는 감당하기 곤란한 상태에 직면하였다. 그런 조짐은 5세기 말부터 나타났다. 이때 지방관을 파견하고 우역을 설치하는 등 지방에 대한 지배를 강화해 가면서 확보된 인적·물적 기반은 자연히 왕경으로 몰려들었다. 이로 말미암아 기존 체계로써는 그를 제대로 수용하기 힘들었다. 이때 수도에 처음 방리제가 수용되었다거나 시사市肆를 개설하였다는 사실은 그를 방증한다. 그런 양상이 6세기에도 이어졌음은 동시東市가 따로 개설된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이제는 왕궁만이 아니라 왕경 전반이 그에 어울리게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법흥왕이 사망하였을 때 무덤을 왕경 한복판의 대릉원에다 조성하지 않고 따로 떨어진 외곽으로 옮겨간 밑바닥에는 왕경을 재편성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었던 것이다.

사실 신라가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도시 구조와 도로망으로써는 늘어난 인구와 경제 및 행정 조직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려웠다. 왕궁의 신설로부터 출발한 신라의 새로운 도시 계획은 황룡사 건립으로 바뀜으로써 자연히 이를 중심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진흥왕이 전륜성왕으로 자처하면서 황룡사로 무게 중심이 몰리는 모습이었다. 월성을 중심으로 해서는 그를 보완하는 별궁이 만들어지고 그 주변을 다시 관사官司 건물이 에워쌌다. 동시에 주민과 물자의 안정적·체계적 거주와 관리 및 소통을 위한 도시

망 건설이 필요하였다. 그를 위해 마련한 것이 방제坊制였다. 방은 방형으로서 일정한 규격을 정연하게 갖춘 단위를 뜻한다. 이런 방제는 기록상 자비왕대에 수용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여러 정황상 부의 하위 단위인 리제里制가 일부 실시된 사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왕경 전체에 걸쳐 그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기초 단위로서 네모반듯한 방坊을 설정한 것은 진흥왕대에 새로운 왕궁을 기획하면서부터이다. 다만, 그것이 황룡사로 바뀌면서 신라의 도시계획은 이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되는 특징을 갖게 되었다. 이로써 황룡사가 단순한 불교 사찰이 아니라 왕경의 한가운데에 자리함으로써 도시계획의 기준이 되고 나아가 정치적·종교적으로 신라 전체를 관장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진흥왕은 황룡사를 중심으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의 지배자로도 군림하였다.

새로운 성격의 인재 양성과 화랑도 창설

진흥왕이 친정을 시작하면서 신라를 새로운 국가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호기로운 선언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인재가 절실하였다. 이제 갓 출범한 국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를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부체제적 성격이 강한 인물들은 걸림돌일 뿐이었다. 목숨을 바쳐 충성해야 할 근본 대상이 6부나 그 부장이 아니라 신라국가와 국왕으로 달라졌기 때문이다. 국왕은 이들을 기반으로 왕도정치를 구현해 내려고 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율령은 그를 위해 마련한 제도적 장치였다.

국왕권은 물론 지배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가기 위해 항상적 기구가 필요하였다. 또 그를 운영하려면 이를 제대로 감당할 관료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병부나 상대등 등 정치적, 군사적으로 긴요한 대상을 중심으로 제도적 정비가 이미 시작된 상태였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런 기구를 정상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이었다. 기존 공동체성에 기반을 둔 성격의 인물들로써는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었다. 바야흐로 이제 새로운 성격의 인재상이 필

요한 시대를 맞아가고 있었다.

직전의 부체제 아래에서는 독자성을 지닌 부를 기본 단위로 해서 각기 필요한 나름의 인재를 육성, 선발하는 방식을 갖고 있었다. 오랜 전통적인 공동체 운영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6부가 소멸된 마당이었으므로 그를 벗어나 새로운 조직과 지향을 지닌 성격의 인재를 길러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위해 시도된 것이 바로 원화제源花制였다. 원화제는 복수의 여성을 상징으로 내세워 그들을 중심으로 젊은 지원자를 불러 모아 조직한 것이 특색이었다. 새로운 성격의 인재를 양성하려는 노력은 지소태후가 섭정하면서 먼저 시작되었다. 원화源花라는 젊고 예쁜 여성을 앞세워 미성년의 어린 남자아이 수백 명을 불러 모아 이들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인재로 기르는 방식이었다. 국가에서는 그들 가운데 적절한 인물들을 관료나 군관 등으로 선발하려 하였다.

그런데 조직의 구심으로서 원화를 여성으로 내세운 점, 그것도 복수라는 점이 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원래 조직을 둘로 나눈 것은 상호 건전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능력을 배가시키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최초의 원화였던 남모南毛와 준정俊貞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 후자가 전자를 몰래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새로운 인재 양성의 방식을 추구해 가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으로서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보여 준다. 원화제의 실패로 한동안 인재 양성의 방식은 다시금 모색되었다.

그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 새로 마련된 것이 화랑도花郞徒였다. 이제는 여성이 아니라 화랑이란 남성을 구심으로 내세웠다. 화랑은 여성처럼 화장을 한 꽃미남을 뜻하므로 원화제의 잔영을 그대로 남기고 있는 셈이었다. 그것은 강제적으로 조직한 것이 아니라 자발성을 지닌 조직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구성된 조직도 꼭 2개로 제한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놓아두었다. 실패한 원화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 화랑제 운영의 특성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 국가가 주도해 조직을 결성한 것이 아니며 측면에서 지원만 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화랑도는 순전한 국가조직이 아니라 반관반민적半官半民的 성격의 특수한 조직이었다고 함이 적절하다.

화랑도가 조직된 시점은 분명하지 않다. 『삼국사기』에는 진흥왕 말년인 37년(576) 창설된듯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신라가 대가야를 대상으로 마지막 총공세를 가하던 562년 당시 화랑으로서 사다함斯多含이 등장하는 사실로 미루어 이때를 성립의 하한으로 한다. 『삼국유사』에는 최초의 화랑으로서 설원랑薛原郎이라는 인물이 보인다. 여하튼 화랑도가 정식 출범한 시점을 명확하게 가늠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다만, 화랑도 조직의 창설과 관련해서는 진흥왕대에 활약한 명신 거칠부를 잠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화랑도의 교육 내용이 출사出仕하기 이전 그의 어린 시절 경험과 매우 닮았기 때문이다.

거칠부는 관료로 나아가기에 앞서 승려로서 출가出家한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때 전국 산천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국경을 넘어 고구려에까지 들어가 고승 혜량을 만나 그가 진행한 강경講經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귀국한 뒤 성년이 되어 관료로 진출하였다. 이때 천하를 주유하면서 만났던 여러 승려를 비롯한 수많은 문사文士들은 『국사』를 편찬하는 데 동원되었다. 어린 시절의 체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거칠부가 경험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화랑들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화랑들은 도의道義를 닦고 가락歌樂을 즐기며 전국의 산천과 명승지를 찾아다니면서 지형지세를 익혔다. 그를 통해 상호 협동하고 단결하면서 심신을 연마하고 풍류를 즐기며 호연지기를 길렀다. 그들의 활동무대가 전국적이었다는 점은 주목해 볼만하다. 이런 경험들은 뒷날 군사 활동을 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였을 터이다. 이런 모습들은 혼자였는지 아니면 여럿이 그룹을 구성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거칠부가 출사出仕하기에 앞서 경험한 것들과 매우 유사하다. 특히 그가 출가한 자체는 물론 혜량을 만난 사실도 각별히 주목된다. 그와 관련지어 화랑도의 조직 구성을 살피면 흥미로운 점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화랑도는 상징적 대표인 화랑과 그 구성원인 낭도郎徒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이들이 모두 15세 이상 19세 사이의 미성년자였음은 물론이다. 그런데 화랑도 조직 속에는 이들 외에도 승려가 포함되어 있었다. 예비 승려인 사미승沙彌僧은 몰라도 정식의 비구승比丘僧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출가가 가능하였다. 승려가 됨으로써 그들은 자연히 면세면역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랑도 조직 속에 들어 있는 승려는 결코 미성년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크게 보면 화랑도의 구성원이기는 하였지만 어디까지나 그들을 가르치는 교사敎師였다. 승려들의 이름자 끝에 이따금씩 사師가 붙기도 하는 것은 그 때문이었다. 그들은 당시 최고의 지식층으로서 어린 화랑과 낭도들을 가르쳤다. 대체로 문자를 중심으로 경전 등 습득해야 할 기본적 소양이 교육 내용이었다. 그들이 화랑도에 배속된 것은 어디까지나 국가의 승인을 받아서였다. 화랑도 조직을 단순히 완전한 민간 기구로 볼 수 없는 근거의 한 가지가 여기에 있다.

승려들은 교사로서 화랑도들을 가르치면서 마침내 그들의 장단점과 능력, 잘잘못 등을 살펴 인사에 반영되도록 고과考課해서 국가의 요청에 따라 천거하는 역할까지 맡았다. 뒷날 8세기 초에 이르러 진골귀족 김대문金大問이 화랑들의 전기인 『화랑세기花郎世記』를 저술해 '현좌賢佐와 충신忠臣이 이로부터 우뚝 솟아나고 양장良將과 용졸勇卒이 그로부터 나왔다'고 화랑 출신자의 역할을 한마디로 총평한 점은 주어진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잘 보여 주는 사실이다.

어린 시절 거칠부가 출가해 경험한 일, 혜량을 만난 일, 그들이 전륜성왕의 구심으로서 황룡사 창건을 건의해 실현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사람의 건의로서 실현된 것이 화랑도 조직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흥륜사의 승려였던 진자사眞慈師와 미시랑未尸郎의 설화적 이야기가 시사해 주듯이 신라인들은 화랑을 미륵彌勒의 화신이라 여기는 관념을 갖고 있었다. 미륵은 미래에 구원을 위해 나타날 부처인데 그것이 화랑의 모습으로 현실의 신라에 나타난 것으로 여겼다. 그런 의식 속에는 그들의 힘에 의해 신라가 장차 이상향으로서 미륵의 세계를 구현해 주리란 기대와 희구가 깔려 있었다. 미륵의 세계는 전륜성왕으로 자처한 진흥왕이 꿈꾼 이상세계이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화랑은 진흥왕이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한 신라의 국가상을 만들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재의 대표이며, 화랑도는 그 전위조직이었다. 진흥왕이 그처럼 새로운 인재 양성을 통해 바란 것은 바로 개국이란 새로운 국가상의 정립이었다.

이처럼 화랑도는 진흥왕이 친정한 뒤 황룡사 창건을 계기로 해서 거칠부와 혜량의 건의를 받아 창안해낸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신흥 조직이었

다. 창설되자마자 가야 정벌에 따라나선 사다함이 보인 행태는 이후 본받아야 할 행위의 전범으로 자리 잡았다. 화랑도 조직은 일시로 끝난 것이 아니라 승계되었다. 점차 여러 화랑도 조직이 출현하였고 그들 사이에 저절로 경쟁이 벌어졌다. 각각의 조직은 나름의 특색과 지향을 지녔으며 이에 따라 그를 나타내는 조직의 독자적 명칭을 갖고 있었다. 김유신이 소속한 화랑도는 미륵신앙에 무게를 둔 '용화향도龍華香徒'란 명칭을 갖고 있었다. 이들에게는 황권黃卷, 또는 풍류황권風流黃券이라 불리는 명부가 있었다. 화랑도는 성년이 된 뒤 출사를 위해 조직을 떠나야 했으므로 그때 이름이 지워졌지만 새로운 인물들이 채워짐으로써 각각의 조직은 계승되어 갔다.

이처럼 화랑도는 진흥왕이 신라 국가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데 소요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창안한 조직이었다. 승려가 교사로서 참여한 점, 불교식 왕명이나 진흥왕의 전륜성왕 의식에서 드러나듯이 현실에서 이상세계를 구현해내기 위한 목적에서였다. 그러나 그들에게 심어진 교육의 내용은 불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국가에 대한 충성, 부모에 대한 효도, 친구 간의 신의 등이 기본 덕목이었다. 뒷날 이것들이 고승 원광이 정리한 세속오계世俗五戒로 정리되었지만 신라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덕목이었다. 말하자면 불교의 미륵세계를 이상향으로 추구하면서 정작 현실의 정치사회에 소요되는 덕목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이 되어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화랑도 조직은 겉으로는 불교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유학적 성격을 강하게 지녔다. 따라서 시대가 진전되어 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종교적 요소보다 현실적 요소가 자연 부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화랑도는 한시적 유용성만을 가진 인재 양성의 한 방식이었을 따름이다. 장차 유학의 정치이념에 입각한 본격적 왕도정치 추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데 거쳐야 할 과도기적 성격을 지녔다고 하겠다. 왕도정치가 본격화되는 중대에 이르러서는 화랑도가 쇠퇴하고 그 대신에 유학의 경전을 중심으로 한 교육기관인 국학國學이 급부상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3 관료제적 체제의 정립

태자책봉제의 실패와 진평왕의 즉위

진흥왕은 친정을 시작하면서 설정한 기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다. 영토를 적어도 3배나 넓혀 인적·물적 토대를 크게 갖춘 점, 황룡사를 창건해 지배체제의 이념적 기반을 구축한 점, 화랑도를 창설해 새로운 시대를 짊어질 인재 양성의 토대를 마련한 점 등은 그를 뚜렷이 증명해 주는 사실이다. 564년 처음 독력으로 동아시아 국제무대에 당당하게 얼굴을 내밀었던 것은 그처럼 축적된 힘의 분출이었다. 동아시아 세계의 일원으로 활동하겠음을 선언한 신호탄이었다. 그런 뜻에서 삼국 통일의 토대가 이 무렵 마련된 것으로 보는 하나의 견해는 한갓 과장된 평가라고만 치부할 수 없다.

그런데 진흥왕의 앞에는 이제 그를 어떻게 순조롭게 영원토록 지켜낼 것인가 하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배체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지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복속 주민을 신라의 민으로서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긴요한 일이었다. 그를 위해 필요할 때마다 주치州治를 이동해 재배치시키거나 보강하고, 사민을 실시하는 일 등으로 촌락 지배를 강화해 나갔

다. 한편 불교를 널리 홍포하기 위해 불사佛事를 활발히 일으키고 불경을 적극 입수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다. 그리고 564년 이후로는 거의 매년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자주 남조 아니면 북조에 사신을 보내었다. 이는 내치를 기반으로 해서 국제외교 쪽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이때의 일들은 뒷날 신라가 국제동향에 각별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를 잘 활용해 마침내 삼국통일의 승자가 되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그런 제반 시책에 어울리게 568년에는 연호를 '크게 번창시킨다'는 뜻의 태창太昌으로 바꾸었다. 이는 내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를 위해 마지막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자신의 후계구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어느 누구에게 어떻게 왕위를 물려주느냐에 따라 자신이 이룬 업적은 물론 새롭게 출범한 신라국가의 명운이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흥왕은 그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다.

진흥왕은 재위 27년째인 566년 장남 동륜銅輪을 태자로 책봉하였다. 태자의 책봉은 차기 왕자王者로서의 경험을 미리 쌓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후임자를 미리 정해둠으로써 혹여 앞으로 왕위계승을 놓고 벌어질지 모르는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였다. 신라에서 태자 책봉으로는 첫 사례였다. 그 이전까지는 그런 원칙이 아예 없었거나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할 정도로 왕위 계승 체계에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는 아직 국왕권이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비롯한 당연한 결과였다. 왕위 계승은 국인國人이라 불리는 사람들로 구성된 회의체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굳어져 있었다. 진흥왕이 재위할 때에 벌써 태자를 책봉한 사실은 전례 없는 새로운 시도였던 셈이다. 이는 진흥왕의 정책이 크게 성공을 거두었기에 비로소 가능해진 일이었다. 진흥왕은 태자 책봉을 통해 이후 왕위 계승 체제를 안착시키려 기도하였다.

이처럼 진흥왕은 태자를 지명함으로써 왕위를 안정적으로 승계시켜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하였다. 그러나 태자로 책봉된 동륜이 6년 뒤인 572년 갑자기 사망하고 말았다. 진흥왕이 설정한 본래 의도가 꺾이는 조짐이었다. 이후 새 태자가 책봉된 것인지 어떤지는 기록에 보이지 않는다. 진흥왕에게는 사륜이란 둘째 아들도 있고 또 동륜태자에게도 이미 아들이 있었으므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를 저울질 하였을 지도 모른다. 이것이 진흥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진지왕眞智王(576-579)의 정통성 여하를 둘러싸고서 벌어진 논란의 빌미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동륜태자가 사망하기 바로 몇 달 전 태창 대신 '널리 구제한다' 뜻의 홍제鴻濟로 연호를 고친 데는 상당한 의미가 깃들어 있다. 태창을 사용한지 겨우 4년 만에 다시 바꾼 홍제라는 연호 속에는 널리 구제하고 위무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사실상 이때부터 태자를 왕위 계승자로서 곧장 교육을 시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태자의 사망이란 사태를 맞았다. 진흥왕은 그로부터 정신적 충격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 같다. 그해 12월 전사한 사졸들을 위해 외사外寺에다 팔관연회八關筵會를 7일 동안 열었다. 외사가 가리키는 구체적 대상은 불분명하지만 왕궁 바깥의 모든 사찰을 뜻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이는 그동안 신라국가를 위해 몸 바친 모든 전사자를 위한 전국적 추모제였던 셈이다. 그런 일을 사전에 치르지 않아 태자가 사망하는 흉사가 일어났다고 인식하였을지 모를 일이다. 거기에는 진흥왕이 자신의 슬픔을 달래는 한편 왕위계승의 문제를 고심하던 모습이 강하게 깃들어 있다. 그 이듬해에는 엄청난 재원과 공력을 들여 스스로를 상징한다고도 해도 좋을 장육상을 조영하였다. 태자 책봉의 실패가 가져다 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과도 무관하지 않다.

진흥왕은 576년 8월 사망하였다. 법흥왕의 무덤 가까이에 묻혔는데 이는 정통계승자라는 뜻에서였다. 그 뒤를 둘째 아들 사륜舍輪(또는 鐵輪)이 이었으니 바로 진지왕이다. 진지왕은 둘째였지만 형이 사망함으로써 부자계승의 원칙에 따라 즉위한 것이었다. 손자인 동륜태자의 아들에게로 왕위가 넘어가게 된다면 정쟁이 유발할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진지왕이 즉위한 것이었다.

즉위할 때의 진지왕도 비교적 젊은 나이였고 또 계승의 과정에서 약간의 곡절을 겪었으므로 기반 자체는 매우 불안정하였다. 그래서 유능하고 노련한 정객 거칠부가 상대등으로 취임해 그를 보좌해 주는 역할을 맡았다. 531년 처음 상대등이 두어지고 철부哲夫란 인물이 임명된 이후 그 후임자의 선임 여부는 분명치 않으나 오래도록 공백이었던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거칠부의 취임

은 곧 상대등의 부활인 셈이었다. 거칠부가 그 자리에 임명된 배경은 진지왕의 즉위가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진지왕의 즉위로 신라 내정에는 일말의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백제가 그런 실정을 간파한 것인지 공세를 가함으로써 불안을 부추겼다. 그런 도중 진지왕은 재위 4년째 되던 579년 갑작스레 사망하였다. 그의 죽음은 자연스런 일이 아니었다. 『삼국유사』에서는 진지왕이 '정치가 어지럽고 황음하여 국인이 폐위하였다'고 풀이하였다. '황음하다'는 표현은 진지왕 스스로 범한 과실이 폐위의 원인이라 풀이하고 있는 셈이다. 정치가 어지러워진 결과 황음하였던 것인지 진지왕이 황음함으로써 정치가 어지럽게 된 것인지의 선후관계는 불분명하지만 진지왕 재위 기간 동안 양자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던 것은 분명하다. 이로 말미암아 진지왕은 국인들에 의해 재위 4년만에 폐위되어 죽음을 맞았다. 이때의 국인이란 귀족회의인 이른바 화백회의의 구성원을 가리킨다. 아마도 진지왕의 진퇴 문제를 놓고 열린 화백회의에서 치열하게 논란한 끝에 폐위가 정식으로 결정된 것 같다. 화백회의를 주재한 거칠부는 책임을 지고서 상대등에서 물러났다.

사실 진지왕대의 문제는 동륜태자의 사망으로 순조로운 왕위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예견된 일이기도 하였다. 당시 일어난 논란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재연된 결과였다. 그것이 정치적 상황을 여러 모로 어렵게 만들자 진지왕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황음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황음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유부녀였던 도화녀桃花女를 탐하려 했다는 설화적 이야기로부터 약간의 시사를 받을 수 있다. 아마도 정상적 혼인 관계를 벗어난 일탈행위가 문제로 되었던 것 같다.

진지왕의 폐위로 동륜태자의 아들이 뒤를 이었으니 진평왕眞平王(579-632)이다. 진평왕이 즉위함으로써 진흥왕의 원래 직계 쪽으로 왕위 승계가 되돌아갔다. 이를 두고서 동륜계와 사륜계의 대립과 갈등 관계로 파악하려는 견해가 널리 퍼져 있지만 아직 당시에는 진흥왕계 내부의 가계가 대립할 정도로 분화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진지왕의 아들 용춘龍春이 진평왕의 보호 아래 궁중에서 길러졌고 뒷날 왕실 운영 전반을 책임진 내성內省의 책임자로 임명된 데서

쉽게 유추되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는 국왕을 정점으로 한 권력 집중화를 도모해온 정치세력과 그에 반발해 귀족들의 발언권을 중심으로 한 지배체제를 지향한 정치력의 대립으로 봄이 적절하다. 부체제 중심의 권력 분산을 지향한 세력은 이 전환기에 아직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으며 체제 내로 편입되기는 하였으나 핵심세력으로 부상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연 국왕권 중심의 체제 지향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점은 이후 진평왕대의 동향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

지배체제의 안정과 제도적 정비

귀족회의의 추대를 받았다는 자체가 진평왕의 즉위가 순조롭지 않았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진흥왕이 구축한 체제가 일시에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지만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 불안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한편 진평왕이 즉위할 때의 연령이 그리 높지 않았던 점도 그를 부추긴 요인이었다. 어떻게 하면 그와 같은 불안정한 지배체제를 안정시킬 것인가가 그에게 주어진 제일의 과제였다.

진평왕은 즉위하자마자 거칠부가 물러난 상대등 자리에 노리부弩里夫를 임명하였다. 노리부를 적성비의 대아간 내례부지內禮夫智나 진지왕 2년(577)공격해온 백제를 물리친 이찬 세종世宗과 같은 인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의 정치적 입장이나 성향은 잘 알 수가 없으나 진평왕은 일단 그의 보좌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한편 진평왕은 즉위 2년째 되던 580년 김후직金后稷을 병부령으로 삼았다. 노리부와 김후직은 진평왕대 초반을 이끌어간 주축이었다. 이들이 정치와 군사를 각각 분담해 책임을 졌던 것 같다. 주목되는 사실은 노리부가 전통적 방식의 이름을 가졌다면 후직이 한문식의 이름을 사용하였다는 점이다. 한문식의 이름은 승려와 국왕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되었거니와 일반 귀족으로서 후직과 같은 사례는 비교적 빠른 편에 속한다. 그런 의미에서 후직은 시대를 앞서간 새로운 성격의 인물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원래 후직은 중국 주周의 전설상 시조로서 농업의 신으로 떠받든 존재였다. 그런 인물의 이름을 빌린 것은 그의 가계가 이미 유학에 물든 상태였음을 뜻한다. 진평왕이 사냥에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을 때 후직은 유학의 경전을 끌어다가 간언하였으며 죽어서까지 뜻을 관철시켰음은 그를 증명해 주는 사실이다. 그가 지증왕의 증손이란 사실도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따라서 후직은 진평왕과 혈연적으로 그리 멀지 않았으며 왕도정치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입장이었다고 유추할 수 있다. 그는 진평왕을 적극 지지하였다. 뒷날 유학을 이상으로 삼아 신라국가를 새롭게 열어가려 한 대표적 인물인 김춘추나 김유신과도 연결된다.

진평왕은 즉위 6년째(584)에 연호를 건복建福으로 바꾸었다. 왜 즉위하면서부터 즉각 그렇게 연호를 바꾸지 않았는지는 잘 알 수가 없다. 다만, 이때에 연호를 그처럼 바꾼 데는 나름의 계기와 배경이 작용하였을 터이다. 어쩌면 이때에 진평왕이 성년이 됨으로써 친정을 선언하기 위해 연호를 고쳤을 가능성도 있다.

진평왕대에는 13년(591)에 이르기까지 많은 새로운 관부와 관직이 두어졌다는 점에서 특징적 면모를 보인다. 이를 제1단계 관제 정비의 시기라 할 수 있다면 제2단계로 관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은 그로부터 한참 지난 진평왕 44년(622)에 이르러서의 일이다.

먼저 제1단계의 관제 정비이다. 직전까지는 병부 등 군사와 관련된 관직을 필두로 감찰을 맡은 사정부司正府, 재정과 기밀을 맡은 품주稟主 등 기본적 관부나 관직의 설치가 중심이었다면 진평왕대에는 중앙관부 전반에 걸친 기본 골격이 대략 갖추어졌다. 3년(581) 관리의 인사를 담당한 위화부位和府를 시작으로, 6년(584) 공납을 담당한 조부調府, 마정馬政과 거승車乘을 맡은 승부乘府, 8년(586) 의례와 교육을 담당한 예부禮部가 차례로 두어졌다. 이로써 통일기에 성립하는 6전典 조직의 골간은 대체로 갖추어진 셈이었다. 다만 그에 소속된 관원들까지 이때 일시에 모두 완비된 것은 아니었다.

진평왕 전반부에 두어진 네 관부 가운데 위화부를 제외한 나머지 세 부는 장관인 영令과 사史로 구성된 이원적 체제였다. 반면, 위화부에는 장관이 따로 없이 실무를 담당한 대사大舍와 사史만을 두었음이 특징이다. 그렇지만 위화부도 두 종류의 관원밖에 두지 않았다는 점에서 같은 범주에 속한다. 이런 이원적 관원 구성의 전범이 된 것은 가장 먼저 설치된 관부인 병부였다. 당시까지 병부도 장관인 영과 사의 둘만으로 구성되었다. 다만, 병부에는 다른 관부가 이원적 체제를 갖추게 될 즈음인 진평왕 11년(589)에 영과 사 사이에 제감弟監을 둠으로써 3등관 체계로 발전하였다. 이는 병부가 신라 관부 조직의 구성상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 주는 사실이다. 당시 군사조직이 갖는 선도성과 함께 중요성을 반영한다.

이처럼 진평왕대까지는 하나의 관부가 3등관제를 기본으로 한 점이 특징이었다. 이후 진덕여왕眞德王女을 거쳐 통일기 신문왕神文王대에 이르러서는 당제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 모두 5등관제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당시에는 관부가 크게 부部와 부府의 두 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양자는 정치적 비중이나 중요도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서 그 시원은 진평왕대에 있다. 다만, 양자 사이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 이때에 부에 소속하는 속사屬司가 두어졌다. 속사로서 가장 먼저 설치된 것은 진평왕대 병부 소속의 선부서船府署로서 거기에 대감과 제감을 각 1인씩 배치하였다. 이는 이후 두어지는 속사의 효시로서, 진평왕 46년(624)에는 예부에 대도서大道署, 품주稟主(뒷날에는 그로부터 분리된 창부倉部)에 상사서賞賜署를 두었다. 진평왕대 전반부에 추진된 관부의 정비는 13년(591) 영객부령 2인의 설치로 일단 막을 내렸다.

그와 관련해 같은 해에 남산신성南山新城의 축조를 완공한 사실이 주목된다. 이때의 남산신성 축조와 관련해 세워진 비가 현재까지 10기 발견되었다. 이 비문은 남산신성이 왕경의 주민 뿐만 아니라 당시 신라 영역에 속한 전체 주민을 동원한 대역사로서 추진하였음을 보여 준다. 왕경 부근의 주요한 성을 축조하면서 전국의 주민을 동원하는 방식은 명활산성에서도 확인된 바 있지만 그 규모나 범위 면에서 남산신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당시 영토의 크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게다가 성의 이름을 각별히 신성新城이라고 붙인 사실도 주목된다. 모든 비문의 첫머리에 만약 남산신성이 완성 후 3년 이내에 붕괴되면 책임을 진다는 국가(국왕)를 대상으로 다짐하는 맹세의 문장이 공통적으로 들

어 있다. 이는 신라의 주민으로서 국가(국왕)에 대해 충성을 다짐하는 선언의 의미이기도 하려니와 신성의 축조가 앞서 추진된 관제의 정비와도 전혀 무관하지 않았음을 시사해 준다. 남산신성을 중심으로 그 일대에는 이후 수많은 불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신라 불국토佛國土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되는데 신성의 축조는 그 출발점이었다. 이는 진평왕 13년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 관제 정비의 완결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진평왕 13년 이후 관제 정비의 움직임이 오래도록 보이지 않다가 진평왕 44년(622)에 이르러 그 동안 따로 관리되던 대궁大宮, 양궁梁宮, 사량궁沙梁宮의 3궁을 합쳐서 내성內省의 소속으로 삼고 거기에 장관으로서 1인의 사신私臣을 두어 통합 관장하게 하였다. 이는 왕실 사무 전반에 걸친 개편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하거니와 이후 이어진 제2기 관제 개편 작업의 신호탄이기도 하였다. 이듬해인 진평왕 45년(623)에는 병부에 대감大監 2인을 두었다. 관제를 정비할 때마다 언제나 병부의 정비가 앞서간 것이 특징이었거니와 가장 먼저 영-대감-제감-사와 같은 4등관제 조직을 갖추게 된 사실은 그를 입증한다. 이는 진덕여왕대에 관부 전체에 걸쳐 4등관제를 일시에 갖춘 일의 선구였다. 이처럼 관부의 정비는 병부가 선도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군사적 필요성이 그만큼 강한 시대상에서 말미암는다. 46년(624)에는 시위부에다 대감 6인을 두었다. 시위부가 처음 두어진 셈으로서 국왕의 호위를 담당하였다. 앞서 궁중사무 전반을 맡은 내성과 함께 국왕권 강화를 도모한 조치였다.

그림 7 경주 남산신성비 제1비

요컨대 진평왕대는 신라의 관제 조직 발달상에서 주목해 볼 만한 시기였다고 하겠다. 진평왕대 후반의 관제 정비는 전반과는 확연히 달랐다. 궁중 업무를 전담하는 통합 관부인 내성의 설치를 계기로 국왕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놓여 있었다. 당시 점차 고조되어 가던 삼국 간의 긴장 상황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새로운 외교의 시도

진평왕은 남산신성을 축조한 이듬해인 592년에는 명활산성과 서형산성西兄山城을 개축하였다. 이때에도 지방민을 전국적 규모로 동원한 것인지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 그밖에 왕경 서북방을 관리, 통제하는 요새로서 기능한 부산성富山城도 바로 이즈음 축조되었다. 이로써 왕경을 둘러싼 방어체계는 비교적 완벽하게 갖추어진 셈이었다. 이는 신라가 동아시아의 국제정세 변동을 적확하게 간파한 데서 나온 대책이었다. 바로 직전인 진평왕 11년(589) 원광圓光이 구법 활동을 위해 남조의 진陳으로 갔거니와 이 시점은 북조를 통일한 신흥의 수隋가 진을 압박해 가던 바로 그때였다. 그런 정세가 곧바로 신라에까지 전해짐으로써 삼국 사이에는 전운이 크게 감돌기 시작하였다. 진평왕이 왕도의 방어체계를 강화하려 한 의도는 그런 동향을 파악한 데서 나온 것이었다.

수는 589년 진을 멸망시킴으로써 남북조의 분열시대를 마감하였다. 수백년 동안 분열된 중원에서 통일왕조가 등장한 사실이 삼국에 던진 충격파는 결코 작지 않았다. 이제 전반적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되어야 할 국면을 맞고 있었다. 수의 건국자 문제文帝는 고구려왕과 백제왕은 물론 신라왕을 대상으로 책봉을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바야흐로 삼국 간에도 새로운 질서를 겨냥한 재편의 기운이 크게 일고 있었다.

불안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신라를 대상으로 먼저 도발을 감행한 것은 백제였다. 신라의 배신에 따른 한강 유역 상실과 관산성 전투의 참패란 뼈아픈 숙원宿怨을 풀기 위한 것이었다. 패전의 책임자였던 위덕왕威德王은 장기간 재위하면서 어느 정도 정상을 회복한 상태였다. 혜왕惠王과 법왕法王의 짧은 재위기간을 거쳐 무왕武王이 즉위하면서 신라에 대해 적극적 공세로 나왔다. 진평왕 24년(602) 백제는 사비성에서 가장 짧은 길로 소백산맥을 넘어 신라 경역에 이르러 요충지 아막성阿莫城을 공격하였다. 이후 이 방면을 둘러싸고서 신라는 백제와 치열하게 일진일퇴의 접전을 벌였다. 백제는 전면전이 아닌 지구전을 펼쳐 신라의 영역을 꾸준히 잠식해 가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한편, 603년부터 한

강 방면에서는 고구려가 이따금씩 신라에 대해 공세를 펼쳤다. 국경선 요충지 여기저기에서 산발적 전투가 벌어져 전선이 형성되었다. 한반도 삼국 간에는 신라를 주된 대상으로 삼은 싸움이 전개되면서 바야흐로 전면전으로 비화할 분위기가 차츰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신라는 두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 궁지에 몰리게 되자 이제 막 통일제국으로 출범한 수나라에 적극 다가갔다. 고립 상태의 신라로서는 이제 기댈 대상이라고는 오직 수나라뿐이었다. 신라는 거의 매년이다시피 공식 사절 혹은 승려들을 보내어 수의 내부 동향 및 국제정세를 살폈다. 진평왕은 재위 30년(608) 고구려의 공세에 시달린 나머지 원광으로 하여금 군사 원조를 요청하는 글[乞師表]을 지어 수나라가 공격해 주도록 요청하였다. 대중외교의 본격적인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물론 고구려는 그 뒤에도 신라에 대한 공세를 그만두지 않았지만 걸사표 사건은 장차 신라가 생존을 위해 외교전을 적극 펼치게 되는 주요 계기였던 셈이다.

수를 대상으로 삼은 외교전의 전개와 관련해 주목되는 사실은 그를 전담하는 관부가 설치된 점이다. 바로 이 무렵 외교를 전문적으로 담당한 독립 관부가 처음 두어졌음은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음을 뜻한다. 외교의 향방은 곧 신라의 명운을 결정할 중대 사안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삼국 간의 긴장감이 크게 고조될 무렵 마침 통일제국 수의 등장으로 동아시아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어갈 조짐을 보이자 외교의 중요도가 무척이나 커졌다. 이제 동아시아는 외교를 통해 하나로 연동하는 세계체제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외교를 전담한 기구의 설치에 관한 기록은 약간의 착란을 보인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진평왕이 13년(591) 외교를 전담한 관부로서 영객부를 처음 두었다고 한다. 영객부는 액면 그대로 손님을 처리하는 부서라는 의미이므로 외교사절의 접대를 담당한 관부였음이 확실하다. 통일기의 경덕왕 때에 이를 사빈부司賓府로 고쳤음은 그를 증명해 준다. 물론 그렇다고 담당 업무가 꼭 외빈의 접대에만 국한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외부 손님의 접대가 곧 외교의 일환이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처럼 표현되었을 따름이다. 따라서 영객부는 외교 사절의 접대를 중심으로 해서 외교 전반을 맡은 관부였다고 봄이 순조롭다.

그런데 영객부의 설치에 대해 같은 책의 직관지에는 다른 기록이 보인다. 이에 의하면 본래는 왜전倭典이 있었는데 진평왕 43년(621) 영객전領客典으로 바꾸었다고 한다. 이를 받아들인다면 원래 왜전이 영객전이며, 그것이 다시 영객부로 격상된 셈이 된다. 621년까지 존재하였던 왜전과 그 이전 591년 두어졌다는 영객부가 어떤 관계인지 확실하지가 않으며 혼동을 보인다. 간혹 직관지에는 후대의 결과적 사실이 소급 기록된 경우도 보이므로 591년의 영객부를 왜전의 설치로 볼 여지도 없지가 않다. 그렇지만 591년의 시점이 신라가 이제 막 수와 외교관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던 때라는 점을 고려하면 영객부의 설치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이들은 주로 대수對隋 외교를 전담하였을 것 같다.

그런 착란에 대해서는 결정적 단서나 근거가 없는 한 일단 두 기록 모두를 살려 적절히 이해함이 바람직한 접근이다. 591년의 영객부 설치는 글자 그대로 관부가 없는 상태에서 외빈 접대를 담당해 오다가 그때 이를 전담하는 고위직 2인을 지명한 조치였다면 그와는 별개로 대왜對倭의 창구를 담당한 왜전은 이미 존재하였다. 언제 두어진 것인지 가늠하기 어렵지만 어쩌면 가야가 신라에 의해 완전히 멸망한 이후일지 모른다. 621년에 이르러서는 왜전을 없애면서 동시에 외빈 접대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영객전에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그 이전까지 외교 창구를 대상 국가별로 따로 두었다가 621년에 이르러 영객전으로 통합한 것이었다. 이때 왜전을 폐지하였다는 것은 창구의 중심이 중국 쪽으로 옮겨졌음을 뜻한다. 이는 당 중심 외교에 몰입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서 이제 외교전이라 이름 붙여도 좋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객전의 설치는 신라 외교사에서 각별히 주목해도 좋을 기념비적인 일이었다.

바로 그 해는 중원에서 수의 뒤를 이은 당을 대상으로 신라가 사신을 처음 보낸 시점이기도 하므로 영객전은 그와 무관하지 않을 듯하다. 당의 고조는 신라의 사신 파견에 부응해 즉각 통직산기상시通直散騎常侍 유문소庾文素를 보내어 새서璽書와 함께 그림이 그려진 병풍 및 비단 3백필을 보내었다고 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영객전이 두어진 것이다. 영객전의 설치는 신라가 당을 중심으로

외교전에 진력盡力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었다. 중국 남북조 분열의 시기에 한때 신라는 왜와의 외교에 비중을 둔 접근을 하였지만 중도에서 통일제국이 출현하자 저절로 무게의 중심이 그 쪽으로 옮겨졌다. 왜전은 통일기에 이르러서는 다시 별도로 설치되었는데 그때는 중앙행정관부가 아니라 왕실 사무 일체를 전담하는 내성에 배속시킨 점이 특징이다. 신라가 왜와는 왕실 중심으로 특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이때 신라가 외교전을 펼친 것은 단순히 국제동향에 대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다. 그럴 만한 내부적 기반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데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 동안 불교를 공인해 불경을 적극 입수하였으며 유학승들을 많이 파견함으로써 국제정세의 파악은 물론 문자에 대한 이해 수준도 현저히 높아진 상태였다. 외교전을 준비할 채비가 갖추어진 것이다. 다만, 원광의 사례에서처럼 승려들이 중심이었고 오로지 외교만을 전담하는 외교전문가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외교의 비중이 커지면서 전문가가 필요한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그 단초를 연 것이 바로 영객전의 설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때를 신라 외교사의 한 획기劃期라고 규정해도 지나치지가 않다.

석가족 의식과 왕실의 정리

법흥왕대에 공인된 신라 불교는 진흥왕대를 거치면서 꾸준하게 발전해 한층 내실을 갖추어 나갔다. 특히 불교는 황룡사를 중심 거점으로 삼아 정치와 밀착, 운용됨으로써 국가종교로서 뿌리내려졌다. 황룡사의 사주는 당연직 국통으로서 국왕의 정책 자문을 맡으면서 불교계를 총괄하였다. 이로써 신라 불교는 정치와 떼어내기 어렵게 하나로 혼융이 되었다. 진흥왕이 전륜성왕을 자처하면서부터 그런 현상은 한결 두드러졌다. 그를 명분으로 내세워 활발한 정복활동을 벌였거니와 영역 확장은 단순히 인적·물적 확대가 아니라 불법의 구현과 홍포를 위한 일로 분식되었다. 진흥왕은 새로이 편입된 영역 전반을 순수巡狩하면서 승려를 대동하였는데 이는 그런 실상을 충분히 반영하는 사실이다. 뒤늦게 공인된 신라 불교가 영역 확장에 성공함으로써 급속히 확산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신라는 불교국가로서의 면모를 착실하게 갖추어 나갔다. 오랜 시간을 투여해 566년 일단 마무리 작업을 마친 황룡사에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에 안치할 주존불을 새로 조영하는 작업이 추진되었다. 바깥으로부터 재료를 들여왔다는 설화가 시사해 주듯 재료나 조영 기술은 물론이려니와 장육상丈六像이란 엄청난 규모에서 드러나듯이 완성하기가 매우 힘든 사업이었다. 황룡사를 창건하자마자 그에 어울리는 규모의 주존불상이 필요하였는데 실패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진흥왕이 사망하기 2년 앞서 574년 주조에 성공하였다. 바로 이듬해에는 진흥왕의 죽음을 예견한 듯이 장육상이 눈물을 흘렸다는 설화를 남긴 사실로 보면 그것이 곧 전륜성왕을 표방한 진흥왕 자신을 상징한다고 여긴 것 같다. 이로써 신라의 정치와 불교는 하나로 기능할 토대가 마련된 셈이었다.

진평왕은 진흥왕의 그런 정책을 충실히 그대로 이어받아 불교에 한결 더 관심을 기울여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먼저 내제석궁內帝釋宮이란 특이한 사찰을 건립하였다. 제석은 하늘에 있으면서 천상천하의 모든 것을 주재하는 역할을 맡은 불교 최고의 천신이다. 사찰이면서도 제석궁이라 이름 붙인 이유는 제석을 신앙의 주요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사찰을 궁宮이라고 한 점과 함께 안[內]이라 표현한 사실이 흥미롭다. 제석궁을 내불당內佛堂처럼 왕궁 내에다가 세웠기에 이름을 그처럼 붙인 것이다. 다만, 진평왕이 수레를 타고서 절까지 행차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그 위치는 반드시 왕궁의 안이라고 단정짓기가 주저된다. 여하튼 왕궁의 바로 가까이 국가적 사찰로서 황룡사가 있었음에도 왕궁에 직속한 내제석궁을 따로 세운 것은 왕실의 위상 강화라는 의도와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그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석가족 의식이었다.

638년에서 643년까지 6년 동안 당에 유학한 적이 있던 고승 자장慈藏은 중국의 오대산五臺山에서 문수보살을 만났다고 한다. 이때 문수가 자장에게 이르기를 '너의 나라 국왕은 천축天竺의 찰리종왕刹利種王으로서 미리 부처의 수기

[佛記]를 받아 따로 인연이 있으므로 동이공공東夷共工의 종족과 같지가 않다'고 말했다 한다. 찰리는 인도의 귀족 계급 크샤트리아인 찰제리刹帝利를 가리키므로 신라왕은 거기에 뿌리를 둔 특별한 혈통이라는 표현이다. 따라서 신라 왕족의 혈통이 유별나다는 뜻이겠다. 당시 신라인들이 가진 일반적 인식이 그처럼 중국에까지 알려질 정도였다.

이는 불교의 설화를 빌린 형식이기는 하지만 신라 국왕의 혈통이 특이하다고 여길 만한 현상이 이미 신라 왕실에서 만들어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진평왕의 이름은 백정白淨이라 하고 왕비의 이름은 마야摩耶부인이라 하였다. 백정과 마야는 각기 석가모니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다. 진평왕의 두 동생의 이름을 각기 백반伯飯과 국반國飯이라고도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백정의 동생으로서 석가모니에게는 삼촌이었다. 이로 보면 진평왕 일족은 모두 석가모니 집안의 이름을 모칭冒稱하고 있었던 셈이다. 신라 왕족을 찰제리종이라고 여긴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다. 진평왕 일족을 단순히 찰제리종 정도가 아니라 바로 석가모니 일족이 신라에 환생한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는 신라 왕족을 신성시하려는 의식에서 비롯한 것으로서 여타 귀족들과는 차별을 지으려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그런 의식이 언제부터 나온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진흥왕이 전륜성왕으로 자처한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일족을 신성시한 데서 비롯한 것이었다. 이런 신성가족 의식은 신라 왕실의 권위를 크게 드높이려 한 데에 목적이 있었다. 그와 관련해서 왕실을 재정비하려 한 시도도 주목해 볼 만하다.

진평왕은 재위 7년째이던 585년 대궁, 양궁, 사량궁의 3궁에다가 각각 사신私臣 1인을 두었다. 대궁은 국왕의 주거인 본궁을 가리키며 양궁과 사량궁은 각각 본래 양부와 사량부에 위치한 별궁으로 보인다. 본래 그 부들이 독자적 기능을 갖고 있던 시절을 떠올리면 그곳은 부의 수장인 부장部長들의 거관居館이었던 셈이다. 부체제가 해체되자 저절로 왕실의 직할로 편입되었고 이때에 사신이 두어져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특히 중고기의 왕실은 사량부 소속의 지증왕이 즉위한 뒤 그 후예들이 줄지어 왕위를 이어갔으므로 사실상 두 부는 하나나 다름없었다. 따라서 국왕은 대궁을 거주지로 해서 저절로 양궁과 사량궁을 함께 관장하게 되었다. 법흥왕대 이후 국왕권이 초월화 되었음에도 오래도록 부체제적 질서의 잔재가 완전히 청산되지는 못한 상태였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3궁에다가 각기 사신을 따로 둔 것은 왕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려는 시도의 첫걸음이었다 하겠다.

그런데 뒷날 문무왕은 백제를 멸망시킨 이듬해인 2년(661) 논공행상을 하는 과정에서 본피궁本彼宮이 보유한 재화財貨, 전장田莊, 노복奴僕을 김유신과 김인문에게 포상으로 분여하였다. 이런 실상을 고려하면 그 궁들은 각기 다양한 형태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하겠다. 그렇다면 그를 관리하는 사신은 궁 자체는 물론 그에 부속된 재산도 관장하는 역할을 맡았음이 분명하다. 이는 왕실의 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서 국가와 왕실의 재정과 행정을 분리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중앙집권적 귀족국가로서 한 단계 더 나아간 모습이었다.

사실 부체제가 해체되고 국왕권이 확립되면서도 아직 부에 소속한 재산과 국가나 왕실 재산의 분리 등 기본적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다. 그러다가 진평왕 7년 3궁에 각각 사신을 둔 것은 그런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기반이 갖추어진 데서 비롯한 것으로 여겨진다. 바로 이 무렵 중앙관부가 상당수 신설되거나 정비되었다. 중앙관부가 정비되면서 저절로 미분화 상태에 놓여 있던 왕실 사무를 따로 떼어내서 관리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는 중앙행정과 왕실을 이원화하려는 첫 작업이었다. 다만, 아직 3궁을 따로 둔 것은 기존 체계를 일시에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데서 말미암는다.

그러다가 진평왕은 재위 44년째인 622년에 이르러 3궁을 하나로 통합하고 총괄 관리하기 위해 내성을 두었다. 거기에는 사신 1인만을 배치하여 3궁을 모두 관장하도록 하였다. 3궁을 분장하던 사신과 통합한 사신은 같은 명칭이라도 그 위상이 같을 수는 없었다. 복수의 관원을 두지 않았던 것도 그런 점을 반영한다. 사신의 관등 범위가 중앙의 핵심적 관부와 비슷하지만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점에서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서 사신 이하의 관리 조직을 체계적으로 갖추었다. 이는 왕실 사무가 중앙행정과는 별개로 완전히 분리 운영되었음을 뜻하는 사실이다. 국가와 왕실의 분리는 곧 왕실의 위상이 크게 높아진 데서 가능한

일이었다. 왕실의 사무를 따로 분리해야 할 정도로 왕족 자체가 신성가족으로 인식된 데에 있었다. 말하자면 왕족이 신성가족으로 의식되면서 왕실의 사무는 중앙행정 관부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왕실의 개념과 왕족의 범위 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그를 뚜렷이 보여 주는 사실이 골족骨族의 분화에 따른 성골聖骨의 출현이었다.

성골의 성립과 왕위 계승

진평왕이 석가모니 가족의 이름을 빌려 자신의 일족 이름으로 삼은 목적은 신성가족을 표방함으로써 왕실 및 왕족의 위상을 드높이려는 데에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자신의 왕위 계승권자를 얻으려는 기획도 아울러 작용하고 있었다. 정반왕으로 자처한 그의 입장에서 장차 얻게 될 남자 아이는 당연히 석가모니였으며 그를 정당한 왕위 계승자로 삼을 터였다. 그것이 신성가족의 완성이면서 당시 주창되던 왕즉불 의식을 결정적으로 보강해 주는 조처이기도 하였다. 만일 석가모니로 표상된 아들이 즉위한다면 신라는 인도보다도 훨씬 나은 그야말로 현실의 진정한 불국정토佛國淨土가 되는 셈이다.

그러나 진평왕이 잔뜩 기대를 걸었지만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았다.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들을 얻지 못하였다. 신라의 석가모니는 탄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앞으로 왕위 계승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예고해 주는 일이었다. 진평왕은 아들을 얻는 데 실패하였지만 대신 딸을 3명이나 두었다. 첫째는 덕만德曼으로 진평왕의 뒤를 이은 선덕여왕이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경험이 있었는데 남편은 확정적이지는 않으나 삼촌인 백반으로 추정되고 있다. 둘째는 천명天明인데, 폐위된 진지왕의 아들 용춘龍春과 결혼해 뒷날 무열왕이 된 김춘추金春秋를 낳았다. 셋째는 선화善花로서 백제의 무왕武王과 혼인하였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동요薯童謠와 함께 미륵사彌勒寺 창건을 발의한 설화의 주인공이다.

진평왕이 꾸준히 노력을 기울인 결과 왕실의 위상과 권위가 한결 높아졌지만 문제는 아들을 낳지 못함으로써 왕위를 정당하게 이어갈 계승권자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법흥왕, 진흥왕, 진지왕, 진평왕은 본디 전왕의 직계 적통嫡統들이 아니었다. 따라서 중고기에 들어와 사실상 단 한 차례도 순조롭게 왕위가 계승되지 못한 불행을 되풀이 해서 겪은 셈이었다. 진평왕은 지배체제를 실질적, 제도적으로 꾸준히 강화시켰지만 가령 자신의 후계 구도를 정상적으로 확정짓지 못한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신라의 석가모니를 낳아 승계시키겠다는 계산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지만 실패로 돌아갈 위기를 맞고 있었다.

그런 어려운 정황에서 진평왕이 고안해낸 것이 바로 성골 관념이었다. 자신의 직계를 내세워 신성가족으로 출발하였지만 이미 그에게는 그럴 만한 명분과 배경이 작용하고 있었다. 그의 세 딸 가운데 백제 무왕과 외교적 목적으로 국제혼인한 선화의 예외를 제외하면 나머지 두 딸은 극심한 근친혼을 하였다. 동륜태자도 아버지인 진흥왕의 여동생으로서 자신에게는 고모에 해당하는 만호萬呼부인과 혼인하였다. 진평왕 자신의 왕비인 마야부인의 아버지는 복승福勝 갈문왕인데 혈연관계는 뚜렷하지 않지만 「창녕비」에 보이는 이름을 확인할 수 없는 갈문왕으로서 진흥왕의 동생이라 추정되기도 한다.

그런데 중고기의 문을 실질적으로 열었다고도 평가할 지증왕 이후의 혼인관계를 살피면 차이가 나는 두 흐름이 간취된다. 하나는 박씨와의 혼인이다. 지증왕의 왕비는 박씨였고, 그를 이은 법흥왕과 진흥왕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다른 하나는 근친혼이다. 지증왕의 아들로서 사탁부의 갈문왕이었던 입종은 아버지와는 달리 법흥왕의 딸로서 자신의 조카인 지소와 근친혼을 하였다. 그런 근친혼의 흐름은 동륜태자에게로 이어졌다. 특히 동륜태자의 직계들은 그런 근친혼의 흐름을 계속 이었다. 그와 같은 중고 왕실 내부의 두 갈래 혼인 흐름 가운데 진평왕대에 이르러서는 거의 예외가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근친혼이 하나의 뚜렷한 흐름으로 정착하였다. 진평왕이 그 일원을 신성가족이라 표방할 수 있었던 배경과 명분으로는 그와 같은 근친혼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다. 혹은 신성가족을 표방하면서 진평왕이 그를 유지해 가는 수단으로서 근친혼을 적극 조장한 측면이 없지도 않다.

근친혼은 당연히 왕실과 왕족의 범위를 극히 좁히는 결과를 가져 왔다. 기왕에 김씨 왕위가 확립된 나물왕계와 지증왕계라면 왕실 및 왕족의 범위가 대단히 넓었다. 그러나 국왕을 중심으로 해서 극심한 근친혼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왕족의 범위는 매우 좁아질 수밖에 없다. 기왕에 막연한 탁부나 사탁부로부터 김씨족단으로, 그리고 이제는 근친혼을 통해 그 범위가 한층 더 좁혀진 것이다. 내성의 설치로 국가와 왕실 및 그 재정의 분리가 확연히 이루어진 사실도 그를 뒷받침해 준다. 왕실의 범위가 줄어들었다는 것은 결국 왕위 계승권자가 특정한 집단에 국한되었음을 뜻한다. 그를 보증해 준 것이 바로 신성가족 의식이었다.

진평왕은 신성가족 의식을 하늘로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은 것처럼 포장하였다. 즉위하던 해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옥황상제의 명령으로 옥으로 만든 허리띠를 내리자 진평왕이 꿇어앉아 직접 그를 받았다고 한다. 이후 교사郊祀(왕도 바깥의 큰 제사)나 종묘의 대사大祀 때는 항상 그것을 착용하였다. 이를 신라의 삼보 가운데 하나인 천사옥대天賜玉帶라 일컫거니와 국왕권이 하늘로부터 정당하게 부여받았음을 상징하는 표지로서 활용되었다.

이런 인식 아래에서 기존의 골족 의식이 그대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기왕에 간을 칭한 지배 집단 가운데 최상층부를 핵심 중의 핵심이란 의미의 골이라 칭하였지만 이제는 그들 가운데 현실적 신성가족으로서 천사옥대를 찰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가계가 특별히 구별되었다. 이는 곧 골족의 분화를 의미하였으니 바로 성골의 탄생이었다. 골족이 처음부터 진골眞骨이라 불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골의 출현으로 이제 골족은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다. 전자가 기존의 막연히 광범한 왕족이었다면, 후자는 중고기 후반에 정치적 목적을 띠고서 나온 좁혀진 신성왕족이었다. 정당한 왕위 계승권도 이제 이들에게만 국한되었다. 622년 왕실 사무를 전담하는 내성을 중앙관부와 완전히 분리해 따로 설치한 것도 바로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내성이 관장한 범위도 이 성골들에 한정되었다.

이처럼 성골은 진평왕이 추구한 신성가족 의식 하에서 기존 골족으로부터 격상해서 성립한 새로운 상층의 골족이었다. 그와 같은 성골이 만들어져 가는 가운데 골품제 전반에 대한 재정비도 이루어졌다. 성골이 출현함으로서 골품의 구조는 전체로 8품을 갖추게 되었거니와 이 무렵 두품의 분화도 함께 진행된 결과였다. 진평왕대에 많은 관부와 함께 관직이 두어졌고 그에 따라 신분 및 관등제와의 관계를 재설정해서 운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런 관계를 재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골품제의 운용은 한층 엄격해졌다. 그것이 곧 관료제의 정비 과정이기도 하였다. 신라 관료제의 발달사에서 진평왕대를 각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골품제는 진평왕대에 행정 관부를 정비하면서 자연스레 재정립의 과정을 거치고 있었다. 성골이 탄생될 무렵에는 골품제의 정비 작업이 일단락된 것 같다. 그것은 설계두薛罽頭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설계두는 막연히 의관자손衣冠子孫으로만 나오는데 그의 행위로 보아 구체적으로는 6두품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가 뜻이 맞는 친구들과 모여 어울릴 때 신라에서 사람을 쓰는 데 골품을 논하므로 그 족속이 아니면 재주와 공로가 있더라도 뛰어넘을 수 없다는 불만을 토로하고서 621년 홀연히 신라를 떠나 중국으로 나아갔다고 한다. 설계두가 이 무렵 그와 같은 불만을 품게 된 것은 7세기 초에는 골품제에 대한 제반 정비 작업이 진행되었음을 뜻한다. 6두품의 위상이 그로 말미암아 한층 더 낮아진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었다.

이때 골품제가 새롭게 재정립되도록 유도한 것은 관료제의 정비와 성골의 탄생이었다. 두품의 정비가 관료제와 연관된다면 골품의 정비는 진평왕이 왕위 계승을 목적으로 추진한 성골의 출현과 직결된 것이었다. 골품제는 관료제와 결합해 한층 엄격하게 운용되었다. 진평왕은 왕위 계승을 추진하면서 아들을 낳고자 하였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제는 신성가족의 이름 아래 성골이란 새로운 골품을 만들어내었다. 그것은 곧 신성가족 범위 내에서 왕위를 승계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그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였다.

4 새로운 지배체제의 지향

선덕여왕의 즉위와 김춘추·김유신

진평왕은 과거에 겪었던 잘못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직계의 자식이 승계하기를 바랐다. 그래야만 자신이 쌓은 과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아들을 얻지 못하게 되자 이제는 딸이라도 승계하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활용한 것이 성골 관념이었다. 홀로 된 첫째 딸 덕만을 승계의 대상자로 내세웠다. 자신의 친동생인 백반과 국반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던 것 같다. 설사 그들이 생존해 있었더라도 진평왕으로서는 자신의 직계비속에게 물려주려 시도하였을 공산이 크다.

진평왕은 덕만이 왕위를 잇도록 하는 작업을 차근차근 추진하였다. 그렇게 기대를 걸 수 있었던 것은 관료제 정비를 통해 국왕 중심의 지배체제가 강화된 때문이기도 하려니와 그 자신의 장기간 재위도 크게 작용하였다. 스스로가 구축한 지배체제가 그로써 상당히 깊이 뿌리를 내렸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진평왕이 고령에 접어들어 마지막 시점이 막상 다가오자 덕만의 즉위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진평왕이 사망하기 바로 직전인 631년 이찬 칠숙柒宿과 아찬 석품石品이 모반 사건을 일으켰다. 사전에 발각되어 주모자 칠숙은 사로잡혀 동시東市에서 참형되고 9족族이 멸족 당하는 엄한 처벌을 받았다. 석품은 백제로 도망하였으나 처자식을 보려고 되돌아왔다가 붙잡혀 죽었다. 그들을 엄하게 다스린 이유는 왕위 계승에 반대하였기 때문이지만 반발이 이어지는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였다. 칠숙의 모반은 실패로 끝났지만 덕만의 즉위를 놓고서 논란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실 여왕의 즉위는 전례가 전혀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남성의 계승을 당연하게 여기던 분위기에서 여성의 즉위가 순조롭게 진행될 리 만무하였다. 아무리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더라도 쉽게 마무리될 일은 아니었다.

632년 진평왕이 사망하고는 그가 희망했던 대로 덕만이 왕위에 올라 선덕여왕이 되었다. 그렇지만 즉위하기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곡절을 거쳤으리라 생각된다. 진행 상황을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엄격한 통제·관리를 통해 사전에 문제를 정리하였을 가능성이다. 칠숙의 모반 사건 진압이 그 계기였다. 진평왕이 오래도록 쌓아온 지배체제가 그만큼 정비된 결과였다. 둘째, 앞서 언급한 신성가족이나 그로부터 나온 성골의식의 명분이 어느 정도 먹혀들었을 가능성이다. 성골의식은 즉위는 물론 논란을 잠재우는 데도 적절하게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셋째, 김춘추金春秋·김유신金庾信과 같이 선덕여왕을 적극 지지하는 세력의 현실적 힘이 어느 정도 작용하였을 가능성이다. 이들이 상당한 실력을 갖춘 상태였으므로 강한 반발이라도 어느 정도 무마할 수 있었을 터이다.

이런 몇몇 요건이 작용하였겠지만 반대파들이 마침내 여왕의 즉위를 수용하기에 이른 것은 지지파들이 내세운 타협적 제안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여왕의 즉위는 이번 한번만으로 끝날 수 있는 과도기적 사건이다. 특히 선덕여왕은 이미 나이가 많고 병약하였으므로 새로운 후계가 필요할 시점도 그리 멀지 않았다. 그럴 때 그에 가장 가까운 자리는 상대등이었다. 따라서 상대등 자리를 놓고서 한 판의 홍정이 벌어진 것이었다.

진평왕 10년(588) 상대등 노리부가 사망한 뒤 그를 이은 이는 이찬 수을부首乙夫였다. 수을부는 진평왕 7년 3궁 가운데 양궁의 사신이 된 수힐부首肹夫와 동일인이거나 혹은 이름으로 미루어 일정한 관계가 있는 인물로 보인다. 이는 당시

국왕의 측근을 상대등에 임명한 사실을 의미하지만 그 뒤로는 오래도록 상대등이 임명되지 않았다. 진평왕은 수을부 다음의 상대등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두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가 40여년만인 선덕여왕 즉위년에 을제乙祭를 상대등에 지명해 국정을 총괄하게 하였다. 이후에는 상대등이 거의 빠짐없이 임명되었으므로 을제의 임명은 그 단초를 연 것이나 다름없었다. 오래도록 비어 있던 상대등에 을제를 임명한 사실이 선덕여왕의 즉위와 함께 진행된 점은 예사롭지가 않다. 이때의 상대등 부활은 선덕여왕의 즉위를 받아들인 데 대한 반대급부로서 반대파에게 양보한 것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선덕여왕의 즉위는 상대등 임명과 맞물려 진행된 반대파와 지지파 간 타협의 산물이었다 하겠다.

서로 대립하는 두 그룹이 타협을 맺게 된 것은 자칫 갈등이 폭발하여 내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신라의 앞날은 보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제와 고구려가 각각 강하게 압박할 뿐만 아니라 중원을 통일한 당이 주변 세력을 굴복시켜 나감으로써 동아시아 정국에는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내분이 일어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지 모를 일이다. 그런 형편에서 대립하던 두 세력이 일단 타협함으로써 각기 다음을 기약한 것이었다.

여왕의 즉위에 강하게 반대한 세력은 당연히 전통적 귀족이었다. 이들은 국왕을 정점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집권적 지배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부체제의 운영을 승계한 회의체를 통해 귀족의 발언권이 관철되는 체제를 지향하였다. 상대등이란 타협안을 쉽게 받아들였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상대등을 매개로 해 국왕을 견제하면서 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려 하였다. 이로써 상대등의 성격은 바뀌어 나갔다. 그래서 한동안 상대등에는 귀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물이 지명되었다.

여왕의 즉위를 적극 지지한 세력은 전통적 귀족들과는 입장을 달리하였다. 이들은 국왕을 정점으로 한 지배체제의 강화를 적극 추진하였다. 그들 속에는 전통 귀족들도 당연히 들어 있었지만 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이념과 지향을 지닌 세력들도 있었다. 말하자면 여왕의 즉위를 지원한 세력들은 매우 복합적이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부각된 것은 새 시대를 열어가려

한 김춘추와 김유신 일파였다.

김춘추는 국인들에 의해 폐위된 진지왕의 손자이다. 그의 아버지는 용춘龍春(또는 龍樹)이었다. 그는 진지왕이 폐위되지 않았더라면 당연히 뒤를 이어 즉위할 만한 인물이었다. 다만, 그에게는 아버지 진지왕의 폐위뿐만 아니라 출생에서도 약간 의혹이 가는 문제점이 있었다. 진지왕이 폐위 당할 때의 명분과 나이 및 도화녀 설화에 비추어 용춘의 출생은 당시 공인된 혼인 형식과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다. 도화녀로 표상된 여성과의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私生兒로서 유복자遺腹子였을 공산이 크다. 그럼에도 그는 진평왕의 비호 아래 궁중에서 길러진 진골귀족이었음은 확실하다. 출사해서는 내성사신으로 임명되기까지 하였다. 다만 그는 정상적으로 즉위할 자격을 제대로 갖춘 것 같지 않으며 그래서 전통적 귀족으로부터는 항상 견제를 받는 입장이었다. 그가 진평왕의 둘째딸 천명과 혼인하기는 했어도 근본 자격이 회복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김춘추 역시 마찬가지였다.

김유신은 증조부가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仇衡王이었다. 금관가야계의 후예였다는 점에서 전통적 귀족에게는 매우 이질적인 분자였다. 그의 할아버지 무력武力은 진흥왕대의 영토 확장을 위해 치른 온갖 전투에 선봉으로 나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명장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전통 귀족으로부터 언제나 극심한 견제를 받았다. 김유신의 아버지 김서현金舒玄과 어머니인 진흥왕의 동생 숙흘종肅訖宗의 딸 만명萬明과의 혼인 이야기나 동생 문희文姬와 김춘추의 혼인 등에 얽힌 이야기는 그런 실상을 잘 보여 준다.

이처럼 김춘추와 김유신은 모두 엇비슷한 태생적 한계로 말미암아 전통 귀족으로부터 늘 견제, 소외를 당하는 처지였다. 그 때문에 서로는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위로하면서 가까이 지냈다. 두 사람은 전통 귀족들에게 반감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 신라사회의 한계와 모순을 깊이 인식하였다. 특히 비슷한 연령층으로 젊었던 두 사람은 의기투합해 일단 선덕여왕의 편에서 즉위를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그들은 여왕의 즉위 자체가 신라사회의 근간을 바꾸는 일대 사건이었으므로 장차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 설정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겼다. 선덕여왕에 대한 지지는 그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

다. 그들이 권력의 핵심에 다가가려 한 것은 현황 타개가 목적이었지만 단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신라사회를 새롭게 열어가고자 한 열망도 작용하고 있었다. 여왕의 즉위는 그런 길목에서 접하게 된 호기였다. 마침내 선덕여왕이 즉위하게 됨으로써 그 길은 뚜렷이 열리고 있었다.

흔들리는 집권체제와 당과의 외교

선덕여왕은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 사이에서 진행된 적절한 타협으로 즉위하게 되었다. 이후 체제가 두 세력 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유지된 까닭에 선덕여왕대에는 이렇다 할 개혁적 시책을 펼치기가 곤란하였으므로 현상 유지가 최선책이었다. 선덕여왕이 유난스레 불사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정치적 구조 개편이란 자칫 견제와 균형을 깨트릴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선덕여왕대는 마치 살얼음판을 디딘 듯한 상황에서 각자는 물밑에서 다가올 사태를 예비하고 있었다. 지지파와 반대파는 상호 견제를 도모하면서 각각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실력을 키워갔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한가운데에 있던 선덕여왕은 각종 스트레스를 받아 매우 힘든 생활을 영위하였다. 분황사芬皇寺나 영묘사靈廟寺와 같은 사찰이나 첨성대瞻星臺처럼 정치성이 희박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었다.

선덕여왕은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병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다. 마침내 재위 5년째 되던 636년에는 백약이 무효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래서 건강 회복을 기원해 황룡사에다 고승들을 불러 모아 『인왕경仁王經』을 강론하는 백고좌를 열었고 백명을 출가시켜 승려가 되도록 허용하였다. 『인왕경』에는 호국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 흔히 호국경으로 불리거니와 선덕여왕의 쾌유가 곧바로 호국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바로 그 해에 소수이기는 하나 백제 병력이 영역 깊숙한 옥문곡玉門谷까지 침투해 들어온 사건도 비록 쉽게 제압하기는 하였지만 안팎으로 불안을 키웠다. 얼마 뒤에는 고구려가 한강 이북 칠중성七重城을 대상으로 도발한 사실도 그런 정황을 부추겼다.

그런데 선덕여왕의 재위 11년째 되던 642년 백제가 병력을 대거 동원해 낙동강 이서 지역 40여성을 공략하는 사건을 일으켰다. 이는 전면전에 가까운 수준의 전쟁이었다. 신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여겨 즉각 당에다 원병을 요청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백제는 이어서 낙동강 이서 방면의 군사적 거점인 대야성大耶城까지 공략하였다. 낙동강 유역의 옛 가야 영역 거의 대부분은 백제의 수중에 떨어졌다. 백제 무왕이 600년 즉위하자마자 지리산 자락을 중심으로 해서 야금야금 잠식해온 최종 결과였다. 왕도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전선이 형성되자 신라 내부에서는 크게 불안감이 감돌았다. 바야흐로 신라와 백제 사이는 곧장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641년 즉위한 의자왕은 이듬해 자신에게 반감을 가진 일군의 정치세력을 제거하는 궁정 쿠데타를 단행하였는데 그로부터 야기된 불안정을 무마시키려는 방편으로서 신라를 대상으로 도발을 단행한 것이었다.

그림 8 합천 대야성 원경

대야성 함락은 그 자체만으로도 신라에게는 작지 않은 타격이었지만 총사령관이던 대야성 군주가 김품석金品釋이었다는 점이 커다란 문제였다. 그는 자신이 왕경에서 데리고 간 막료들의 아내뿐만 아니라 지방 유력자의 아내를 탐하는 부도덕한 행태를 보여 내부 결속력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었다. 게다가 백제가 총공세를 가해왔을 때 품석은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성을 나가 항복하려 하였다. 대야성 출신의 죽죽竹竹이 나서서 끝까지 항전하기를 주장하였지만 결국 이를 뿌리치고 목숨을 부지하려고 항복했으나 살해당하고 말았다. 그가 지역 총사령관으로서 보인 행보는 당시 일반인들까지 평소 지켜야 할 덕목으로 여긴 세속오계世俗五戒의 내용과는 정반대였다. 대야성 상실에 대한 책임은 물론 그가 보인 행태는 당연히 비난의 표적이 되었을 터이다.

그런데 품석은 당시 선덕여왕 지지 세력의 한 축인 김춘추의 사위였다. 사위가 딸과 함께 사망한 슬픔을 제대로 가눌 만한 겨를도 없이 그는 즉각 정치적 수세에 몰렸다. 오래도록 유지되어 오던 세력 균형은 무너질 위기를 맞고 있었다. 반대파들이 그를 그대로 넘어갈 리 만무하였다. 그래서 김춘추는 어떤 적극적 자세라도 당장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덕여왕에게 나아가 자신이 고구려에 직접 들어가 청병해 대야성 전역戰役의 패배를 설욕하겠다고 간청하였다. 바로 그때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이 정변을 일으켜 영류왕榮留王을 내몰고 보장왕寶藏王을 내세워 정권을 좌지우지하던 중이었다. 신라와는 오랜 적대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대외 강경론의 입장을 취한 연개소문이 집정하고 있는 한 고구려가 그의 요구를 받아줄 리 없었다. 그런 정황에서 김춘추가 청병을 목적으로 고구려에 간다는 것은 당장 어떤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기보다는 위험을 무릅쓴 행보 자체가 그에게 가해지는 비난의 무마용임과 동시에 고구려 내부의 사정을 정탐하기 위한 것이었을 공산이 크다. 과연 고구려에서는 한강 방면의 죽령 일대 땅을 당장 돌려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 연개소문은 이를 거절한 김춘추를 옥에 가두었다. 김춘추는 고구려에 들어갈 때 이미 그런 상황을 예상해 준비를 해 두었다. 그는 고구려의 내분을 적절히 활용해 뇌물과 계책으로 무사히 탈출할 수가 있었다.

고구려를 대상으로 한 교섭에 실패한 신라는 이제 당으로 눈을 돌렸다.

643년에는 잇달아 당에다 사신을 보내어 긴박한 위기 상황을 도와주도록 거듭 요청하였다. 이때 신라는 백제가 고구려와 연합해서 자신을 공격해 사직을 위태롭게 하므로 멸망의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백제가 고구려와 연화連和한다는 사실을 각별히 강조한 이유는 당을 당장 도발시키기 위한 책략에서였다. 이에 대해 당 태종은 신라 사신을 위로하면서도 세 가지 계책을 제안하여 선택하도록 강요하였다. 첫째, 당이 소규모 변방 병력과 거란·말갈의 병력을 동원해 요동을 공격하면 일시적이나마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요, 둘째, 수천의 붉은 옷과 깃발을 신라에 주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병력이 이를 때 그를 펼쳐 보이면 당병인 줄 알고 도망갈 것이요, 셋째, 백제가 신라를 깔보는 것은 여자가 왕이기 때문이므로 당의 왕족을 파견해 신라왕으로 대체하면 직접 군선 수백 척에 군사를 실어 보내 도와주겠다는 것이었다. 신라 사신은 제시받은 세 가지 계책 어느 것도 선뜻 선택하기 곤란하였다. 당장은 셋째 계책이 절실하였지만 거기에는 당의 왕족을 신라 국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무리한 단서조건이 달려 있었다. 당의 태종은 어찌할 줄 몰라 머뭇거리는 사신을 용렬하고 능력이 없다고 힐난하였다.

사실 당은 내부적으로 고구려를 겨냥한 전면전을 벌써 결정해 놓고 추진 중이었다. 640년 고창高昌을 정복한 뒤 주변의 남은 강적은 고구려뿐이었다. 당은 고구려를 순조롭게 굴복시키기 위해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동향을 세밀히 관찰하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었다. 과거 수나라가 세 차례나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경험과 그 결말을 익히 알고 있던 당으로서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 태종이 내건 세 계책은 사실상 거절의 명분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당이 머지않아 실행에 옮기려 한 것은 신라로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제1책이었다.

그런데 정작 당 태종이 한 말은 신라 조정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왔다. 당이 구원병을 보내는 조건으로 내건 여왕의 통치 문제였다. 뒷날 이것이 '여주불능선리女主不能善理'란 표현으로 정리되어 여왕 반대파가 공세의 주요 명분으로 활용하거니와 그런 내용이 사신을 통해 신라 국내에 전해지자 여론은 들끓었다. 그렇지 않아도 백제 공략으로 심히 불안한 내정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선덕여왕이 즉위하면서 구축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어지면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황룡사 9층목탑의 건립

신라가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에 빠져 당에다 청병사를 파견하던 무렵인 643년 3월 구법求法을 목적으로 입당한 자장慈藏이 5년의 생활을 청산하고서 귀국하였다. 그것은 선덕여왕이 당 태종에게 요청한 데 따른 것이었다. 선덕여왕은 자장이 당면한 위기 타개의 적임자라 여겼다. 선덕여왕은 그가 출가하기 전에도 태보台輔의 자리가 비어 있으므로 맡아달라는 강권을 할 정도로 신뢰하였다. 만일 그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자장의 머리를 벨 수도 있다고 협박하였다. 선덕여왕은 당시 갈등하던 세력들의 견제와 대립으로 아슬아슬하게 곡예를 거듭하던 정국을 이끌어가는 데 자장만큼 적절한 인물이 없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런데도 자장은 하루라도 계戒를 지키지 못한다면 죽음이라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선덕여왕은 부득이 출가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장의 아버지 무림茂林은 진골귀족 출신으로서 그의 집안은 당시 가장 유력한 문벌에 속하였다. 무림은 후사가 없어 천부관음千部觀音에게 아들을 얻게 되면 출가시키겠다고 빌어 자장을 얻었다고 한다. 자장은 관료로서 활동도 하고 결혼해 자식을 얻은 뒤에 출가를 결행하였다. 아마도 그가 관료 생활에서 보인 역량을 선덕여왕이 익히 알고서 대보에 발탁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자장은 5년 동안 당에서 생활하면서 당초 목적한 구법 활동을 벌였음은 물론 장안으로 가서 태종을 만나 환대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그는 당의 내부 동향 전반에 대한 정보나 소식을 익히 알고 있었다. 신라가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 상황을 맞고 있으며 당에 사신을 보내어 군사를 요청하였다는 사실 등등에 대해서도 물론 알고 있었다. 그가 태화지太和池에 이르렀을 때 신인神人(또는 圓香禪師)이 신라는 여자 왕이 되어 덕과 위엄이 없는 탓에 이웃나라가 침공하므로 돌아가 황룡사에다 9층탑을 세우게 되면 이웃나라들이 잇달아 항복할 것이라는 계책을 주었다는 설화가 전해진다. 이는 자장이 신라의 여러 정황을

그림 9 경주 황룡사지 9층목탑 찰주본기

두루 알고 대비책까지 미리 마련해 귀국하였음을 뜻한다. 귀국 자체가 선덕여왕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면 당연히 자장으로부터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방편을 자문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선덕여왕이 자장에 건 기대가 그만큼 컸음을 의미한다.

자장은 귀국하자마자 선덕여왕에게 황룡사에 9층목탑을 건립하도록 건의하였다. 그렇게 하면 신라의 이웃 아홉 오랑캐[九夷]가 저절로 복속하리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신라 최초의 9층탑 건립에 대해 안홍安弘이란 승려가 이미 앞서 제기한 적이 있었다. 중국에 오랜 기간 유학한 경험을 가진 안홍은 625년 귀국해 비슷한 명분을 내세워 9층탑 건립을 제안하였다. 안홍은 수의 문제文帝 이후 중국에서 행해진 여러 불사를 경험하고서 그런 주장을 펼쳤을 듯하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신라가 큰 위기를 맞은 상황이 아니어서 그리 절실하지 않은 탓에 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장도 출국하기 이전부터 그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을 터이다. 이제 여러 모로 새로운 소식과 정보를 갖고 갓 돌아온 자장이 당면한 안팎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황룡사에다 9층목탑 건립을 제기하자 선뜻 받아들여졌다. 자장은 당연히 있을 법한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신인으로부터 그것이 가져다줄 효과를 예언 형식으로 들었던 것처럼 꾸며대었다. 선덕여왕도 당면 위기를 벗어날 마땅한 방책이 달리 없었으므로 일단 자장의 건의를 즉각 받아들였다. 자장에 대한 신뢰가 컸던 데다 선덕여왕의 치세에 반대하는 세력들조차 불교를 지배이데올로기로 삼고 있었으므로 거기에는 쉽게 동의하였다.

사실 자장이 9층 목탑의 건립을 추진한 데는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었다. 당시 신라가 처한 안팎의 현실 사정을 고려하면 대규모의 불사는 아무리 자장의 건의라 하더라도 대단히 무모한 일처럼 비쳤을 수 있다. 한가롭게 그런 대역사를 감행할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신라로서는 군비를 증강해 눈앞의 백제 공세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국가적 핵심 사찰인 황룡사에 9층목탑을 건립한다고 해서 반드시 대외적 긴장이 즉시 기대대로 완화되리라는 보장도 없었다. 그럼에도 엄청나게 소요되는 재원을 쏟아 부으면서까지 9층목탑을 세우려 한 데에는 어떤 내부의 정치적 목적이 깃들어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주목되는 점은 백제로부터 최고의 기술자를 불러 왔다는 사실이다. 신라는 백제에다 많은 보물을 제공해 장인을 보내어 주도록 요청하였다. 백제는 신라의 제안을 수용해 아비지阿非知란 장인을 보내었다. 신라에 적극 공세를 가하던 백제가 신라의 요청을 순순히 받아들인 데는 나름의 의도가 작용하였을 터이다. 의자왕이 주도한 정변으로 야기된 내부의 불안정한 상황이 아직 말끔히 가시지 않은데다가 얼마 전 신라를 공격해 확보한 영토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기 위한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바로 그때 신라가 장인 파견을 요청해 온 것이다. 백제로서는 그 자체가 곧 신라가 일단 적대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의 표시로 마치 휴전 제의처럼 받아들였을 공산이 크다. 신라가 군비보다는 그런 방면으로 눈을 돌린 것도 백제로서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요구를 들어 주었다.

신라가 노린 것도 바로 그 점이었다. 9층목탑을 짓고 또 장인을 요청함으로써 백제의 대응방식과 동정을 살피면서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잠깐이라도 늦출 여지를 가지려 하였다. 만약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당분간 휴전하는 셈이므로 한시적이나마 위기 상황을 벗어나 화평을 유지함으로써 그를 틈타 내부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엄청난 경비를 투여해 9층목탑을 건립한 바탕에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아비지를 파견함으로써 잠시나마 휴전이 성사되었다.

한편 그와 함께 내부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용도도 컸다. 당으로부터 방금 전해진 '여주불능선리'란 첩보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와 어쩌면 외부로부터 받는 위기보다 내부 분열이 더욱 심각한 지경이었다. 선덕여왕 지지 세력 쪽이 한층 불리해졌다. 대외적 위기 극복을 목적으로 벌인 외교 활동이 도리어 국내 사정을 악화시켰던 것이다.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번지는 여론을 잠재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바깥으로부터 가해지는 위협에다가 내부까지 극한의 분열 양상이 지속된다면 신라는 자칫 공멸할지 모른다는 위기의식도 팽배해졌다. 반대파들이 9층목탑을 건립하는 데 동의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사실 겉으로는 바깥 위협 세력의 굴복이란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

로는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분열의 기운을 잠재우려는 데에 9층목탑 건립의 주된 목적이 있었다.

그를 추진하는 실무 총책임자로는 김춘추의 아버지 용춘이 임명되었다. 용춘은 소장小匠 2백명을 이끌고서 자장이 제안한 9층목탑의 건립을 주도하였다. 용춘은 선덕여왕 편에 선 인물로서 자장과는 입장을 같이 하였으므로 9층목탑의 건립은 사실상 선덕여왕 지지세력이 주도한 셈이었다. 다만, 자장과 용춘·춘추가 기존 신라사회에 대한 근본 인식이나 나아갈 방향까지 같았던 것은 아니었다. 그 점은 뒷날 김춘추가 집권에 성공하면서 드러난다. 9층목탑 건립은 여왕 반대파까지 합의해 당면한 신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부의 안정을 되찾기 위한 여론의 결집을 겨냥한 의도가 강하였다.

이상과 같이 보면 황룡사에다 9층목탑을 건립하는 사업 자체는 불사佛事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강한 정치적 행위였다. 선덕여왕이 안팎으로 맞은 위기와 시련을 극복하려는 목적에서 자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던진 일종의 과감한 승부수였다. 이는 황룡사의 중창이면서 동시에 정치와 불교의 혼융일체를 다시금 실현하려는 목적도 깔린 것이었다. 여주의 치세를 반대하던 세력들조차 찬성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를 통해 노린 목표는 각기 달랐다. 그것은 당의 고구려 침공이란 일대 사건과 그 결과를 놓고서 노골적으로 벌인 격돌에서 드러났다.

비담의 난과 새로운 지향

황룡사 9층목탑의 건립이 거의 마무리되던 즈음 새로운 상황이 벌어졌다. 당이 고구려에 대해 전면적 공세 작전을 펼치려 하였던 것이다. 당은 640년 고창을 멸망시킨 후 이제 고구려만을 남겨둔 상태였으므로 공략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당은 641년 진대덕陳大德을 보내 고구려의 변경에서 왕도에 이르기까지 지형지세와 군사 상황을 낱낱이 파악하였다. 그는 임무를 끝내고 돌아가 『고려기』라는 보고서를 당 태종에게 제출하였다.

이처럼 당이 고구려와의 전면전을 펼치기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철저히 추진한 것은 수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생각에서였다. 수의 양제煬帝는 건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구려를 세 차례나 무리하게 공격하다가 실패의 후유증으로 멸망을 초래하였다. 당도 아직 건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으므로 기반이 그리 굳건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태종이 즉위하면서 일으킨 정변의 여진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굳이 고구려 공격을 감행하려 한 것도 성공을 통해서 안팎의 여러 문제점을 말끔히 정리하고자 한 의도에서였다. 태종이 직접 원정에 나선 데에도 그런 목적이 깔려 있었다.

당태종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기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서 644년 먼저 사농승司農丞 상리현장相里玄奬을 고구려에 보내었다. 이는 고구려의 내부 동향 파악과 함께 전쟁의 명분을 찾으려는 것이었다. 상리현장은 그 직후인 645년 초에는 백제와 신라로 가서 태종의 조서를 전달해 고구려 원정에 동참하기를 촉구하였다. 그에 대해 두 나라의 반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백제는 당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고구려 공격이 개시되자 그를 틈타 신라 공격에 나섰다. 그러나 백제와 달리 신라는 당의 요구에 부응해 3만, 혹은 5만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당서唐書』에 5만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신라가 당에게 공식 통보한 수치로 보인다.

그런데 신라의 파병이 쉽게 결정된 것은 아니었다. 파병 문제 자체를 놓고서 내부적으로 논란이 크게 벌어졌다. 혹시 백제가 공격할지 모른다고 우려한 반대파와 당의 강한 요구를 뿌리치기는 곤란하다는 찬성파의 주장이 대립하였다. 겉으로는 파병 인원을 5만이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3만을 보내는 선에서 일단 타협을 본 듯하다. 대백제전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다. 과연 우려했던 대로 백제가 틈을 타 서쪽 변경의 일곱 성을 함락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게다가 태종의 고구려 친정마저 실패로 끝났다. 이로 말미암아 신라 내정은 책임 문제를 놓고 일대 혼란에 빠졌다. 출정이 마무리되었을 무렵인 645년 11월 이찬 비담毗曇이 상대등으로 임명된 일은 그와 관련된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었다.

선덕여왕 5년(636)에 임명된 전임자 수품水品의 향방은 뚜렷하지 않지만 비담이 645년 상대등에 취임한 것이다. 전후 상황으로 미루어 비담의 상대등 임명

은 출정 사건과 무관하지가 않다. 특히 바로 얼마 뒤 비담의 행적을 염두에 두면 그의 상대등 취임은 출정 사건으로 빚어진 처리의 부산물이었음이 확실하다.

전쟁의 결과 때문에 병력 파견을 강력하게 주장한 쪽의 입장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었다. 파병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는 분명하지 않지만 패전 자체와 백제에게 영토를 빼앗긴 것은 문제였다. 따라서 참전을 주장한 쪽은 당연히 수세에 몰렸다. 그를 무마하기 위해 내어놓은 일종의 협상 카드가 수품 대신이거나 혹은 공석空席이었던 상대등에 강경론자인 비담이 임명된 것이다. 당에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등 외교 활동을 추진한 쪽이 여왕 지지 세력이었다면 참전을 적극 주장한 일파도 역시 그들이었다. 참전을 반대한 쪽은 역시 여왕의 반대편에 선 일파들로서 가장 적극적 반대론을 펼친 대표자가 바로 비담이었다. 그런 비담이 상대등이 됨으로써 일단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은 넘겼으나 실상은 안전핀이 뽑힌 폭탄이 던져진 상태나 다름없었다. 비담 일파가 그런 절충적 제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다음의 왕위를 승계하는 데 가장 유리한 자리가 상대등이었기 때문이다. 선덕여왕의 최후가 그리 멀지 않았던 상황도 그런 결정을 받아들이는데 작용하였다.

내부 갈등은 잠시 가라앉았지만 물밑에서는 줄곧 들끓고 있었다. 문제는 선덕여왕 이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달려 있었다. 반대파들은 다시는 여왕이 즉위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들이 들고 나온 명분은 당 태종이 말했다는 '여주불능선리론'이었다. 한편 아직 여러 모로 즉위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던 김춘추 중심의 여왕 지지파들은 성골의 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성골남진론聖骨男盡論'을 명분으로 내세워 선덕여왕의 4촌 동생인 승만勝曼을 밀었다. 이 점에 관한 한 두 입장 사이에는 한 치의 양보나 타협점이 없었다. 두 입장이 팽팽히 대치 중인 상황에서 김춘추가 왜로 건너갔다. 646년 9월 새로 출범한 왜의 대화개신大化改新 정부에서 개혁을 이끈 주요 인물인 고향현리高向玄理가 신라를 방문하였다. 그가 12월 귀국할 때 김춘추도 답방의 명분을 앞세워 따라나섰다. 김춘추가 도왜할 수 있었던 것은 대립하던 두 일파의 합의에 의한 것이겠지만 바닥에 깔린 속셈은 달랐다.

'여주불능선리'파는 김춘추가 부재한 틈을 적절히 활용해 큰 일을 도모할

계획이었다. '성골남진'파는 왜를 대상으로 한 외교적 목적 외에 여왕의 즉위와 관련된 동향과 정보 일체를 파악하는 목적이었다. 왜에서는 동아시아 최초로 593년 추고推古가, 또 642년에는 황극皇極이 왕위에 오르는 등 이미 두 차례나 여왕이 승계하는 경험을 하였다. 왜에서 여왕의 즉위가 가능하였던 것은 직전 국왕이 정당한 후계자 없이 사망해 정쟁이 벌어질 위험성이 커 일종의 타협책으로서 왕비가 즉위하였다. 이는 어디까지나 특수 상황의 과도기적 방편이었던 셈이다. 645년 대화개신 추진파가 집권에 성공하자 황극이 즉시 물러났음은 그를 방증한다. 그런 정보는 여왕의 즉위를 지지하는 일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명분이었다. 김춘추는 답방을 도왜의 형식적 명분으로 내걸었겠지만 실은 그런 실상과 동정 파악이 본래의 목표였다.

여왕 지지파의 거두 김춘추가 없는 틈을 타서 상대등 비담은 647년 1월 초 염종廉宗 등을 부추겨 명활산성을 거점으로 자신의 즉위를 겨냥해 반란을 일으켰다. '여주불능선리'를 명분으로 내걸었음은 물론이다. 이때 여주는 물론 선덕여왕이기도 하지만 그 뒤를 이어 진덕여왕을 추대하려는 데 대한 반발이기도 하였다. 선덕여왕은 난이 막 시작된 시점인 1월 8일 사망하였다. 선덕여왕은 시해 당한 것이 아니었다. 이미 노령이고 병약한 상태였으므로 반란이 일어나자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선덕여왕을 뒤이어 승만이 즉위하니 바로 진덕여왕眞德女王이다.

비담의 난은 1월 17일까지 십여 일간 계속되었다. 지배귀족들이 크게 둘로 나뉘어 왕경 일원 전체가 반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비담 일파가 우세해 왕군王軍의 거점인 월성月城을 포위해 공세를 가하였다. 왕군이 크게 수세에 몰렸을 때 명장 김유신이 기지와 책략을 발휘해 병사의 사기를 북돋우고 마침내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다. 1월 17일에 이르러서는 전세가 완전히 역전됨으로써 왕군은 비담의 반란을 진압할 수 있었다. 막 출범한 새 정권은 비담의 난에 직접 가담한 주모자 30인과 그들의 9족까지 연좌시켜 죽이는 등 엄형을 가하였다. 이는 그런 반란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경고성의 조치였다. 이로써 사실상 새로운 시대의 막이 올랐던 셈이다.

제 II 편

신라의 삼국통일과 전개

제 1 장

삼국통일과 중대의 지배체제

1 김춘추의 집권과 중대 왕권의 성립

김춘추에 대한 극단의 평가

『삼국사기三國史記』에는 신라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상대, 중대, 하대의 세 시기로 구분하고, 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 이후 그의 직계가 즉위했던 혜공왕惠恭王(재위765~780)까지를 신라의 중심시기인 '중대'로 설정하였던 사실이 전한다. 이는 신라인들이 태종무열왕, 즉 김춘추의 집권을 신라사 전개의 획기적 분기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현재 역사학계에서도 신라의 '중대'를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누린 신라 최고의 전성기로 이해하고 있다.

김춘추가 살았던 7세기 전반은 동아시아 전체가 격동하던 시대였다. 수隋·당唐이 5호16국五胡十六國 이래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중국 지역을 통일하고 주변부에 힘을 과시하면서 5세기 이래 동아시아 각국의 세력균형 속에서 안정화되었던 국제질서가 위협받게 되었다. 강력한 수·당의 등장에 맞서기 위해 고구려가 거란契丹·말갈靺鞨 부락을 강력히 통제하고, 또 신라에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다시 만회하려는 전략을 수립하게 되면서 590년대 이후 신라와 고구려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매우 격렬한 전쟁 상태에 돌입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고구려가 신라 북변을 치는 틈을 이용해, 백제도 신라의 서변을 거세게 공격하며 낙동강 방면으로 동진하였다.

김춘추는 긴박하게 전개된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신라가 처한 국내·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는 왕도정치王道政治에 기초한 유교정치이념을 수용하여 신라의 중앙집권체제를 혁신하였고, 나羅·당唐의 군사동맹을 이끌어내어 삼국통일의 전략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김춘추는 단순히 당의 힘에 빌붙으려 한 것이 아니라 신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해 당의 선진적인 국가체제와 동아시아 전략을 직시하고 활용하였다. 김춘추는 이후 300년을 더 지탱했던 신라의 정치, 경제, 외교, 문화의 새로운 전범을 만들어내었다.

물론 당이란 외세를 끌어들여 동족국가인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배족자背族者'라며, 김춘추를 극단적으로 비난했던 평가를 필두로, 김춘추의 정치적 외교적 행각을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현재까지도 학계에 상당히 널리 펴져 있다. 그러나 김춘추의 행동에 대해 '배족'이라는 근대적 민족주의의 잣대를 대는 것은 무리한 적용이다. 김춘추의 친당외교親唐外交를 모화주의慕華主義와 외세의존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그의 친당외교가 추구한 궁극적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춘추와 비담, 이름이 역사를 말하다

김춘추가 태종무열왕으로 즉위한 해는 654년이지만, 그가 실질적으로 신라 최고의 권력자로 부상했던 시점은 그보다 앞서 상대등上大等 '비담의 난'을 진압했던 647년이었다. '비담昆曇'은 불교 소승경전小乘經典의 이름인데 비해, '춘추春秋'는 공자孔子가 지은 역사책으로 유교의 아이콘이다. 7세기 전반 신라 정치계의 라이벌이었던 두 지도자의 이름은 이처럼 각각 불교와 유교에서 차용되었고, 비담의 몰락에는 신라의 정치이념이 불교에서 유교로 전환되는 '시대변화'가 상징처럼 숨어있다. 비담이 불교를 지배이념으로 삼은 이상국가理想國家로서 '진골眞骨 연립'의 왕국을 지향하였다면, 춘추는 유교적 왕도정치를 기초로 한 '국왕國王 중심'의 집권체제 확립을 정치적 목표로 삼았다.

물론 당시 신라에서는 불교가 여전히 지배이데올로기로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불교적 이상理想 군주인 '전륜성왕轉輪聖王'이나 '왕즉불王卽佛(왕이 곧 부처다)' 사상을 통해 불교 역시 신라의 왕권 강화에 이바지한 바가 컸다. 또 화랑도花郞徒에서도 승려가 화랑을 보좌하며 낭도郞徒들을 교육, 선도하는 등 국가발전단계에서 야기되는 인간사회의 갈등이나 모순을 종교적으로 치유하여 신라인의 단결을 이끌어내었고, 국가관을 함양하는 데도 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불교는 종교였기 때문에, 당시 신라가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는 올바른 정치시스템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역할을 할 수 없는 본질적 한계가 있었다.

당시 신라에서 유학이 점차 정치적 문화적 저변을 넓혀간 것도 그 때문이었다. 진평왕대眞平王代 이후 유학과 중국의 예제禮制는 신라의 관료조직 정비에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도덕적 실천 원리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불교에 유교 사상을 조화롭게 결합한 원광圓光의 '세속오계世俗五戒'는 바로 그러한 시대적 산물이었다. 또 612년(진평왕 34)에 두 명의 신라 청년이 3년 동안 『시경詩經』, 『상서尙書』, 『예기禮記』, 『좌전左傳』 등의 유교경전을 익혀 나라에 충성할 것을 맹세한 「임신서기석壬申誓記石」이나, "추운 겨울이 와야 소나무와 잣나무의 기개를 알 수 있다"는 『논어論語』의 구절이 당시 신라 지배층의 좌우명으로 널리 유행하였던 사실 등은 이 시기에 유학이 신라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파급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너는 불교를 공부할 것이냐? 유학을 공부할 것이냐?" 묻는 아버지의 질문에 "불교는 세속을 떠난 교리라서 저는 유학을 배우겠다."고 한 강수强首의 대답은 진평왕 이후 격상되어가고 있었던 유학의 정치적 위상을 잘 대변하고 있다. 강수를 비롯해 이 시기 유학에 진력했던 신라의 청년들은 김춘추의 혁신적인 정책과 나당동맹羅唐同盟의 외교를 뒷받침했던 가장 중요한 일꾼들이었다.

유학이 신라에서 급부상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왕권 측의 적극적인 수용과 보급 의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유학적 소양을 지닌 관리들은 일차적으로

한자·한문에 능하였기 때문에, 삼국간의 항쟁 국면에서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 병력을 신속히 동원하는 문서행정 시스템을 가능케 하였다. 그러나 유학 수용의 목적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유학의 근본은 효孝에 있고, 이 효는 궁극적으로 '충忠'으로 귀결된다. 「임신서기석」에서 유학 공부를 맹세했던 청년들의 목표도 "국가에 대한 충성"이었다. 유학은 '군군신신君君臣臣 왕은 왕다워야 하며,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처럼, 신하와 절대로 동격일 수 없는 초월적인 왕권과 그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관료들의 머릿속에 손쉽게 주입시켜 주었다. 또한 왕도王道는 문덕文德뿐만 아니라 애민愛民을 위한 무덕武德의 겸비도 당연시하였기 때문에 전쟁이 백성을 몰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치적 선동도 가능케 하였다.

'비담'처럼 불교식 이름들이 유행하고 있던 시절에 그들과 구별되는 '춘추'라는 이름은 어린 춘추의 자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는 후일 김춘추의 행동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성인이 되면 '자字'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는 유교 예법인 '관례冠禮'가 신라에서는 김춘추의 아들들에서 최초로 확인된다. 또 648년 김춘추가 당태종唐太宗을 만나서 맨 처음 요구한 것도 당의 국학國學에서 행해진 공자에 대한 석전釋奠 의례와 유교 강론講論을 참관하는 것이었고, 춘추가 신라로 돌아온 뒤 국학 건립의 초석을 닦은 사실들은 유학과 중국문화의 수용에 대한 김춘추의 태도와 인식을 잘 말해준다. 비담의 난 이후 진덕여왕대眞德女王代에 김춘추가 단행했던 중앙집권적 관료체제 확립을 위한 혁신적 정책이나 예제禮制의 수용, 나·당의 밀월적 외교관계의 구축 등은 기실 모두 아버지 용춘이 지어준 그의 이름 '춘추'에서 이미 싹을 틔웠다고 할 수 있다.

진덕여왕의 즉위와 그 의미

647년 정월正月 상대등 비담과 염종廉宗 등 구귀족의 반란을 진압한 김춘추와 김유신金庾信은 정국을 완벽하게 장악하였다. 비담은 "여왕은 잘 다스릴 수 없다"며 반란을 일으켰지만, 김춘추 일파는 그들이 보란 듯이 선덕여왕善

德女王에 이어 다시 여왕을 내세웠다. 이가 바로 진덕여왕이다. 김춘추는 당시 소외되었던 하위 골품 출신 인사와 지방 출신 인사들을 규합하여 자신의 세력 기반으로 삼았다. 나아가 이들을 국가의 공적 질서에 포괄하기 위해 관료조직을 확충하고,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집권체제를 확립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종래의 귀족연합체제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진골 대등大等 세력과 갈등을 빚었다.

법흥왕法興王 이래 신라의 왕들은 자신을 '태왕太王'이라 칭하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진골 권문權門들이 진지왕眞智王을 폐위시켰던 사건으로 볼 때 당시 신라 왕권은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신라 국가는 왕을 포함한 진골 세력의 공동지배 위에 세워진 건물이었다. 왕과 진골들이 식읍食邑이나 녹읍祿邑을 통해 경제권과 군사권을 분할 지배하고, 그 지역들의 재생산을 진골들이 책임지는 방식, 즉 국가가 왕과 진골 권력의 총합으로 운영되었다. 진골연합체제는 생산력이 불안정하고 자연재해에 크게 취약했던 고대사회古代社會에서는 왕이 전국을 일원적으로 지배하여 국가재정 전반을 총괄하는 시스템보다는 재정적 위기에 대처하는 데 유리한 점이 많은 꽤 유연성이 있는 체제였다.

이러한 신라의 국가시스템 유지에는 진골세력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왕은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진골귀족들의 '회의會議'를 통한 협의를 거쳐 정책을 결정했다. 또 이러한 귀족회의체의 구성원이었던 '대등大等'이라는 관직은, 고구려에서 대대로大對盧의 선임이나, 연개소문淵蓋蘇文 집안의 '부대인部大人' 직의 계승 사례처럼, 진골 집안의 공동 추천을 받아 왕이 추인하는 형식을 빌었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 대등회의를 주재하는 상대등도 대등 중에서 왕이 임명하였지만, 본질적으로는 대등 집단과 이해를 같이하는 존재였다.

진골들도 왕과 마찬가지로 신라 국가의 성장을 바라고 있었지만 그 열매를 왕실이 독식하거나, 진골의 고유한 특권과 기존 진골연합체제를 왕이 훼손하려 한다면, 비록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냥 좌시하지 않았다. 왕권의 성장을 마뜩찮아 했던 진골 대신들은 왕권을 보좌하는 김용춘金龍春·춘추春秋 부자父子, 김서현金舒玄·유신庾信 부자 등 왕당파의 급속한 성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물론 당시 진골 대신들도 대부분 중앙집권적 국가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신라의 피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구려·백제와 연일 계속되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치열한 전쟁 국면 속에서 지금과 같은 진골 세력의 권력분할체제가 국가적 총력전을 펼치는데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진골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진골 권문들의 마음속에는 왕실이 개혁 국면을 활용해 성장한 왕권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고유한 기존 특권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불안과 불신이 있었고, 이로 인해 진골 귀족들 사이에도 서로 이해관계가 얽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었다.

한편 선덕여왕은 고구려·백제의 침략을 외교적으로 막기 위해 적극적인 친당외교노선을 추진하였지만, 당태종은 신라 사신에게 "여자가 왕이라 고구려 백제 양국이 신라를 업신여겨 공격이 끊이지 않는다."고 모욕만 주었다. 더욱이 642년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金品釋의 난행과 비겁한 항복으로 대야성大耶城을 백제에 빼앗기게 되면서 왕실과 왕당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되었다. 대야성은 지금의 합천陜川 지역으로 낙동강 서안의 중진重鎭이다. 대야성을 비롯한 40여 성의 함락으로 이제 신라는 옛 가야加耶 땅을 모두 백제에 빼앗기게 되었다. 소백산맥이라는 안전한 방어선을 잃어버리고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백제와 대치해야만 했다. 백제군이 낙동강을 넘어서면 이제 수도 경주가 곧바로 함락될지도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었다.

김춘추가 목숨을 걸고 직접 고구려에 가서 '청병請兵' 외교를 시도한 것도 이처럼 사면초가에 몰린 신라 왕실과 왕당파의 입지를 개선하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러나 연개소문은 김춘추의 손을 뿌리쳤다. 설상가상으로 당태종의 고구려 침공도 645년 안시성安市城 전투의 패배로 좌절되었다. 더욱이 당의 고구려 원정을 돕기 위해 신라군 3만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북진하자, 그 틈을 노리고 있던 백제가 신라의 서쪽 국경 7성을 빼앗았다. 신라의 민심은 흉흉해졌고 여왕의 지도력은 땅에 떨어졌다. 이제 신라 지배층들 사이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으로 멸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다.

이러한 신라 정국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킨 것은 선덕여왕 이후에도 그녀를 이어 즉위할 성골聖骨 남자가 없었다는 점이었다. 진평왕이 애초 성골 남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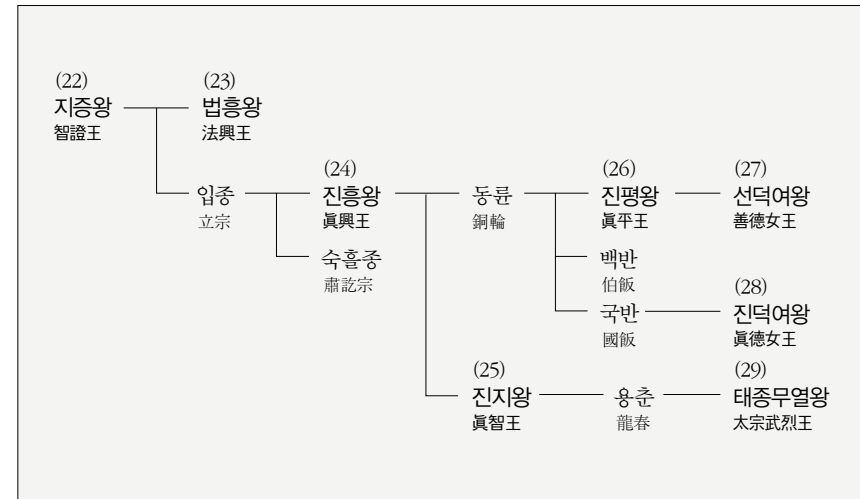
그림 1 진흥왕~태종무열왕 왕계도

다했기 때문에 선덕공주를 세웠듯이 그가 정한 좁은 성골 가계 내에는 선덕을 이을 왕위계승권자 역시 그녀의 사촌 여동생인 '승만勝曼' 후일의 진덕여왕 밖에 없었다. 진평왕이 신하들에게 강요했던 왕위계승방식대로라면 선덕을 이어 다시 한 번 여왕이 즉위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왕당파는 여왕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러나 선덕여왕의 친당외교노선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현실에서 진골들은 또 다시 여왕의 즉위를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결국 상대등 비담은 진골을 규합해 647년 정월 "여왕은 잘 다스릴 수 없다"며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비담은 패배하였다. 이는 진평왕과 선덕여왕이 준비해둔 김춘추, 김유신 세력 덕분이었다. 상대등 비담세력을 제압한 김춘추는 이제 자신의 정치적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되었다. 비담의 난은 왕권과 진골 대등의 대립과 길항관계에서 점차 전자가 승리하여 신라에 중앙집권체제가 확립되는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김춘추는 "여왕은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비담의 주장을 일축하고 보란 듯이 다시 여왕을 옹립하였다. 조금 무리한다면 춘추가 직접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또 다시 여왕을 즉위시킨 것에는 신권臣權이 개입할 수 없는 신라 왕권의 신성성과 절대성을 내외에 표방하는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었다.

김춘추의 도당외교와 친당정책

진덕여왕이 즉위한 이듬해인 648년 김춘추는 당태종을 만나기 위해 60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중국으로 건너갔다. 현실의 실권자가 난관이 많은 외교 교섭에 직접 나서는 위험을 무릅쓴 사실은 그것이 갖는 비중과 심각성을 말해준다. 김춘추는 신라의 명운을 마치 당과의 외교 성사 여부에 건 듯하였다. 그는 도당 행차를 당면의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신라를 자신이 오래도록 꿈꾸어 왔던 모습으로 만드는 최선의 길이라 여기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당과의 외교 교섭에 성공해 우군을 확보하는 것은 내부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장차 신라사회를 새롭게 만들 중국의 선진문화를 체득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먼저 주목되는 것은 김춘추가 당태종을 친견하는 자리에서 당의 국학國學에서 행해진 석전釋奠 의례와 국학의 강론講論 교육을 참관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한 사실이다. 석전은 공자를 기리는 제사의례이고, 국학은 유학 교육의 전당이다. 이러한 춘추의 제안은 유학에 심취해 있었던 자신의 모화적慕華的 성향을 표현하여 당태종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외교적 수사修辭로도 볼 수 있지만, 신라의 국가체제를 유교 정치이념으로 일신하려는 자신의 꿈과 포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김춘추는 이미 오래 전부터 유학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김춘추가 외교적 목적을 밝히기에 앞서 먼저 당의 유학 및 교육에 깊은 관심을 보이자 당태종은 자신이 직접 쓴 비문인 「온탕비溫湯碑」와 「진사비晉祠碑」, 그리고 새로 지은 역사서인 『진서晉書』를 선물로 주고, 신라왕에 버금가는 '특진特進'의 벼슬을 내리는 등 특별히 환대하였다. 이는 춘추를 장차 신라의 군주가 될 인물로 예우한 셈이다.

김춘추는 겉으로 일단 국학에 깊은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의 입당 목적을 감추고 있었다. 종래 신라의 사절이 매번 당에 가면 고구려·백제의 공격을 막아달라며 아쉬운 소리를 했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김춘추의 내심을 궁금하게 여긴 당태종이 오히려 입당의 목적을 먼저 물었다. 그때서야 김춘추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이 품었던 신라의 사정을 곡진히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둘이 나눈 대화는 밀약답게 감춰져 있다가, 공교롭게도 뒷날 신라와 당이 서로 격렬하게 싸웠던 나·당전쟁기에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다. 신라가 백제 땅을 차지하고 당에 반기를 들자 당의 장군 설인귀가 이를 꾸짖는 편지를 문무왕文武王에게 보냈다. 이에 문무왕은, 선친 김춘추가 당태종을 만났을 때 당태종이 "고구려를 치는 것은 땅이나 재물에 욕심이 나서가 아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평정되면 평양平壤 이남의 백제 땅은 모두 신라에게 주겠다"고 직접 약속하였던 사실을 강조하는 답서答書를 보내었다.

이는 당시 당태종이 김춘추와 함께 고구려 정벌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의하였고, 이때 당나라 단독이 아니라 신라와의 협력과 군사동맹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음을 알려준다. 더욱이 주목해야 될 점은 당이 고구려만을 공격했던 기존의 패턴과 달리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정벌한다는 전략상의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백제는 그간 신라보다 더 자주 당에 조공사절단을 파견하였기 때문에 당태종이 백제를 정벌하겠다는 발상을 먼저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는 애초 김춘추의 구상으로, 고구려 정벌에 실패했던 당태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그가 가지고간 히든카드였다고 생각된다.

645년 당의 고구려 원정 때 신라는 3만 명을 동원해 고구려의 남쪽을 쳤지만, 백제는 오히려 이 빈틈을 노려 신라의 일곱 성을 빼앗아갔다. 『수서隋書』에 잘 표현되어 있듯이 이미 당태종도 백제의 친고구려적 성향을 감지하고 있었던 터였다. 또한 안시성安市城에서의 뼈아픈 회군을 경험했던 당태종으로서는 요하遼河에 집중된 고구려의 방어력을 분산시키고, 평양성 공격의 최대약점인 군수품 보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라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원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던 때였다. 결국 김춘추와 당태종은 고구려의 멸망이라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확인하고, 이를 위해서는 먼저 백제부터 정벌해 신라를 고구려 공격의 안정적인 남방기지로 만들어야한다는 새로운 전략에 합의하게 된 것이다. 김춘추와 당태종의 만남에서 출병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나당연합군이 우선적으로 백제를 멸망시키고 이어 고구려를 정복한다는 군사작전계획은 이미 구상되었음이 분명하다. 고구려에 앞서 먼저 백제를 정벌해야한다는 김춘추의 구상과 제안은 그의 외교 승부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준 대목이었다. 기실 백

제는 김춘추의 세치 혀로 멸망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된다.

김춘추로서는 구두로 약속한 것이기는 하였으나 일단 나·당의 군사동맹이라는 큰 성과를 갖고서 의기양양하게 귀국하였다. 이로써 김춘추의 역량은 충분히 드러났고, 그의 정치적 위상도 한결 높아졌다. 김춘추는 귀국 이후 지배체제를 새롭게 구축해갈 기초 공사에 착수하였다. 당제의 적극적 수용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당과의 군사동맹을 대내외적으로 굳히는 과시용이며 동시에 자신의 즉위 기반을 조성한다는 이중의 목적에서였다. 그 첫 시도로서 649년 당의 관복官服을 수용하였다. 651년 당복을 입은 신라 사신이 왜倭에 갔을 때 이 당복은 외교 마찰을 빚었다. 심지어 왜에서 신라를 공격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것은 당복 착용에 내재된 위력을 보여 준다. 신라의 주변국에서도 신라와 당의 동맹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춘추의 노림수는 일단 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김춘추는 당복 수용을 시발로 제반 분야에 걸쳐 당제 수용에 박차를 가하였다. 650년에는 진골로서 아홀牙笏을 잡도록 하고, 신라의 독자적 연호 사용을 포기하면서 당의 영휘永徽 연호를 수용하였다. 바로 이해에 진덕여왕이 이제 막 즉위한 당고종唐高宗의 치세를 찬미한 「태평송太平頌」을 직접 비단에 짜서 김춘추의 아들 법민法敏 편에 보낸 것도 당과의 긴밀한 관계를 굳건히 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의 관복과 연호, 그리고 태평송을 통해, 이제 신라는 당 중심의 천하 질서에 귀의하였다는 것을 대외에 가시적으로 선언한 셈이었다.

국왕 중심의 지배체제를 향한 첫걸음

김춘추가 추구했던 이러한 친당정책은 사실 외교 전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본질적인 목표는 중국의 선진적인 정치이념과 유교적 예제, 국가의례 등의 수용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었다. 김춘추는 진덕여왕 5년(651년) 큰 폭의 정치개혁을 단행하면서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김춘추는 우선 기존의 품주稟主를 발전적으로 해체해 '집사부執事部'와 '창부倉部'라는 두 개의 독립된 관부를 출범시켰다. 이는 왕의 비서기구와 재정기구를 한층 강화한 것이었다. 집사부는 왕정의 기밀를 출납出納하는 왕의 직속기구였다. 집사부는 왕과 행정을 분담 집행하는 일반 관부 사이에서 위로는 왕명을 받들고, 아래로는 여러 관부를 연결하거나 통제하는 지위를 갖고 있었다. 한편 창부를 따로 설치하면서 동시에 '상사서賞賜署'를 그 예하 관서로 삼았다. 상사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훈자에게 보답의 상을 내리는 일을 담당했다. 김춘추는 국왕에게 충성한 자들에게 정당한 물질적 보상을 하여, 앞으로 자신에게 충성할 세력들을 포섭·양성하려고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김춘추는 창부를 통해 국가의 재정과 경제를 착실히 장악해 나갔으며, 상사서를 통해 신진사류士類의 국가에 대한 충성을 이끌어내었다.

651년의 개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중앙관서 조직을 영令(장관), 경卿(차관), 대사大舍, 사史의 4등급제로 조직화하고, 행정관료를 양성하는 국학의 기초를 닦았다는 점이다. 물론 이때에는 교육직인 박사, 조교에 하급직인 대사, 사 각2인에 불과한 초보적인 관원 구성을 하고 있었지만, 신라에 유학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의 씨앗이 김춘추에 의해 뿌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학의 설치는 각 관청의 직급을 4등급제로 만든 것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4등급제는 행정의 지휘계통과 업무를 나누어서 효율적으로 전담케 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대사, 사 등의 실무행정을 담당할 인재가 원활히 충원될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 결국 국학은 4등급제 실현의 기초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국학 이전 신라의 인재 양성은 화랑도가 담당하고 있었다. 화랑도의 인재 선발은 진골 자제인 화랑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되었다. 이는 귀족의 천거제薦擧制에 다름 아니었다. 더욱이 화랑과 낭도 사이에는 공적 성격보다는 사적인 관계가 더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로 인해 화랑에 의해 천거 발탁된 낭도는 귀족들의 가신적家臣的 역할을 수행하였다. 결국 화랑도는 공적인 관료 선발로 나아가는 과도기적 제도였다. 신라를 유교 정치이념에 기초한 국왕 중심의 관료체제로 전환하려고 했던 김춘추에겐 화랑도의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할 새로운 인재 양성 시스템이 필요했고, 그것이 당태종을 만났을 때 석전과 국학의 참관

을 요청하는 형식으로 표출되었던 것이다. 또 귀국하자마자 신라에 국학의 기초를 닦았던 것이다.

그러나 진덕여왕대에 단행된 김춘추의 국학 설치 과정을 보면, 국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지도 불확실하고, 직급이 낮은 하급행정직만 설치하는 등 초보적인 걸음마 수준이었다. 이는 김춘추가 국학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데 현실적 부담을 강하게 느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비담의 세력이 제거되었지만 내부적으로 아직 김춘추의 개혁에 반발하는 진골들이 남아있었고, 더욱이 삼국통일전쟁이 가열되고 있던 전시 상황에서 그들과의 정치적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당장 추진하는 것보다는 국학 설립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정국의 방향을 예의주시해간 것이라 생각된다. 결국 국학은 그의 손자인 신문왕대神文王代에 완성되었다.

진덕여왕 5년에는 왕궁의 시위부侍衛府도 갖추어졌다. 시위부는 국왕을 경호하는 금위군禁衛軍을 말한다. 이때 시위부에는 3도徒, 즉 세 부대가 설치되었는데, 진평왕대의 시위감侍衛監에 비교할 때, 금위군에 대한 대대적인 인원 확충과 재편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금위군의 확대는 왕권의 위상을 높이고, 그 힘을 과시하여 진골 귀족의 반란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행정과 경제를 장악하려는 집사부와 창부의 설치와 마찬가지로 시위부 역시 군사적인 면에서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진덕여왕 5년에는 예부禮部, 음성서音聲署, 대도서大道署, 전사서典祀署 등 예부 및 제사 의례 관련 부속 관청기구 등이 크게 정비되었다. 음성서는 음악을 관장한 관부였고, 대도서는 사전寺典, 내도감內道監으로 별칭되었듯이 왕궁 내의 사찰을 관리하던 기구였다. 한편 전사서는 제사의례를 관장하던 관청이었다. 유교의 예는 악樂에서 완성된다. 예와 악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관청들은 진덕여왕 5년 정월에 처음 실시된 하정례賀正禮를 진행하고 장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국왕이 조원전朝元殿에서 백관으로부터 신년의 축하를 받는 하정례는 전 신라를 국왕에게 집중시켜 왕권의 중심성과 절대성을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의례였다. 김춘추는 유교적 국가의례를 수용해 왕자王者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에 진력하였다. 이러한 국가의례의 수용과 정비는 그가 왕으로 즉위한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김춘추가 추진한 이러한 제도개혁은 자신의 집권을 겨냥한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기도 하였다. 새로운 왕도정치를 실현에 옮기고 정착시키는 데에는 일단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었다. 또 그러한 개혁 과정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인재들을 요직에 등용하여 자파의 힘을 키웠다. 이는 머지않아 닥칠 왕위계승의 상황에 착실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였다. 김춘추의 왕위 계승이 그만큼 어려운 과업이었기 때문이다.

김춘추, 마침내 왕이 되다

진덕여왕이 654년 사망하였을 때까지도 김춘추는 진골들에게 왕위 계승의 일순위자로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여왕 사후 화백회의에서는 상대등인 알천閼川이 당분간 섭정攝政을 맡도록 결정하였다. 섭정 지명은 사실 국왕이 어리거나 정당한 계승권자가 없을 경우 부득이하게 취한 과도기적 조치였다. 알천을 섭정으로 선출한 것은 여왕 사후 후계자에 대한 원칙적 문제가 아직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음을 뜻한다.

그런데 알천은 오히려 이를 사양하였다. 이미 현실의 실력자 김춘추의 힘과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상태였으므로 그에게 즉위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김춘추의 즉위에는 일차적으로 진덕여왕대에 친당외교와 내정개혁을 통해 신장된 김유신을 위시한 신귀족세력의 힘이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상대등 알천도 그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알천은 김춘추가 왕자王者의 덕을 지닌 훌륭한 인물이라며 새 왕으로 맞이할 것을 주장하였다. 김춘추는 세 번에 걸쳐서 이를 사양한 뒤 마침내 즉위하였다. 이러한 삼양三讓은 성현의 고사를 단순히 실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조부인 진지왕을 폐위시켰던 바로 그 화백회의가 이제는 자신의 즉위를 간절히 원한다는 형식을 빌려 와, 자신의 가문을 복권하고 자신의 왕위계승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된 의식儀式이었다고 생각된다.

태종무열왕은 즉위하던 해에 우선 아버지 용춘을 '문흥대왕文興大王'으로,

어머니 천명부인을 '문정태후文貞太后'로 추증하여 왕권의 정통성을 확립하였다. 종래 오묘제五廟制의 성립에 대해서는 문무왕대설, 신문왕대설이 거론되기도 하였지만, 추봉대왕제追封大王制가 무열왕대부터 보이고 있는 점은 5묘에 신입하는 조치로 볼 여지가 높기 때문에 태종무열왕이 오묘제를 도입하였다고 봐도 그리 틀리지 않는다.

김춘추의 아버지인 용춘은 진지왕이 폐위만 되지 않았다면 진작에 왕이 되었을 인물이다. 춘추는 왕으로 즉위하면서 아버지 용춘을 갈문왕葛文王으로 추봉하는 전통적인 의례에 만족하지 않고, 중국의 5묘제를 수용해 신라 종묘제宗廟制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어버렸다. 5묘제는 왕이 되지 못한 현왕現王의 직계조상들도 종묘에 위位를 모시고 제례를 올리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폐위된 진지왕과 아버지 용춘을 대왕으로 복권하여, 자신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가장 강력한 상징적 조치였다. 중고기 왕실이 불교적인 성골의식을 통해 여타 진골귀족 가문과 자신들을 차별화했다면, 김춘추는 새로이 유교적인 의례를 수용해 중대 왕권의 힘을 과시하였다.

의례와 율령의 정비

당의 유교적 국가의례를 직접 경험했던 태종무열왕은 그러한 예제와 의례가 국왕의 권력과 중심성을 가시화可視化하는 상징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지만 그가 백관의 '하정례'를 신라에 최초로 도입하였던 점이나 그가 왕으로 즉위한 후 4년(657)에 설치했던 '대일임전大日任典' 등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대일임전 예하에는 전의典儀, 전알典謁, 전인典引, 전사典事 등의 관원이 확인된다. 이 관직들은 당이나 후대 고려高麗의 사례로 잘 알 수 있지만, 의례의 진행을 담당한 관직들이다. 전의는 주로 의례의 절차를 알리고, 전알과 전인은 왕과 관인의 출입을 인도引導하였다. 왕실 업무를 담당한 내성內省에 소속된 인도전引道典에도 상인도上引道, 위인도位引道, 관인도官引道 등 의례의 진행과 관련된 직명이 확인된다. 이들 관원도 국가의례를 전담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의례만을 담당한 전문관인들이 중대 초기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은 당시 이미 국가의례가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되어 있었고, 김춘추가 국가의례를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는 데 적극 이용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모든 의례는 구체적인 형식을 통해서만 구현된다. 의례 절차를 담당한 이들 관원들은 의례의 진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이 의례 절차를 숙지함으로써, 의례의 엄숙성이 유지되고, 의례에서의 왕과 관인의 위치와 행위가 물 흐르듯이 인도된다. 그것은 중심이 권위를 창출하는 밑거름이 된다. 의례는 중심과 주변, 상하관계의 예제를 시각화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 엄숙과 오랜 기다림, 반복되는 "재배再拜"를 참으면서, 중심은 권위를 얻게 되고, 주변은 상하관계를 받아들이게 된다.

예를 들어 백관의 하정례도 대일임전이 그 절차를 담당하였을 것이다. 이 의례는 조원전이라는 왕궁의 중심 공간에서 시작되었는데, '백관百官'이라는 표현이 말해주듯이, 전 신라가 남면南面한 신라왕에게 상징적으로 집중되는 의식으로 끝을 맺었다. 지방관인 주도독州都督이 올린 상표문이 왕에게 전달되고, 중앙의 관리와 6부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는 것이 하례의식의 피날레를 장식하였을 것이다. 또 지방에서도 도독을 비롯한 지방관들이 촌주들을 이끌고, 멀리 떨어져 있는 국왕을 향해 조배朝拜를 행하는 의례가 베풀어졌을 것이다. 이처럼 중앙집권국가에 있어 왕경王京의 의례는 항상 지방을 포섭, 종속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이것이 의례가 지향하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국왕은 절대적인 중심을 희구하고, 의례는 그것을 모두의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게 하는 장場이었다.

한편 태종무열왕은 즉위와 동시에 이방부격理方府格 60여 조를 새로이 법제화하여 율령정치를 더욱 강화하였다. 이방부는 진덕여왕 5년에 김춘추가 직접 신설했던 관부로서 형률刑律과 입법立法을 관장하였는데, 문무왕 7년(667)에는 좌左·우右 이방부로 확대 개편될 정도로 중대 왕권을 지탱하는 핵심 관청이었다. '이방부격'은 당나라의 율령격식律令格式 체제를 들여와 기존 신라율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에서의 '격格'은 기존 율령으로 적용하기 어려

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 황제가 '칙勅'을 내려 새로운 원칙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 항상성을 가진 것을 법전의 형태로 정리한 것을 의미한다. 격은 율령에 종속된 하위법의 차원을 넘어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을 강하게 갖게 된다.

김춘추가 즉위하면서 기존의 신라 율령을 보완하여 새롭게 편찬한 '이방부격'을 비롯해, '율령격식'의 수정과 혁신을 지시한 문무왕 21년(681)의 '유조遺詔'로도 알 수 있지만, 중대 초기에는 제도 개혁을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작업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이는 당시 신라의 율령통치체제가 상당히 성숙하였고, 당의 율령을 참조하면서도 자신의 내적 조건에 맞게 변용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해 있었음을 말해준다. 이는 김춘추의 중국 문화 수용이 신라의 조건에 맞도록 창의적으로 변용된 것임을 웅변하고 있다.

태종무열왕은 즉위 2년째인 655년 원자元子인 법민을 태자太子에 책봉하고, 자신의 여러 아들들에게 높은 벼슬을 내려 왕권의 안정과 왕실의 권력 기반을 더욱 강화시켜갔다. 656년에는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둘째 아들 김인문金仁問을 군주軍主에, 658년에는 당나라로부터 귀국한 아들 문왕文王을 집사부 중시中侍에 새로이 임명하여 직계 친족에 의한 지배체제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그의 즉위에 절대적인 기여를 한 김유신을 660년에 상대등에 임명해 자신의 왕권을 보다 전제화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가야계라는 정치적 하자가 있는 김유신이 상대등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상대등이 귀족세력의 대표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중대 왕권과 더욱 밀착되어갔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의 상대등 중심의 귀족연합체제는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신라 중대 사회에서는 왕이 임명한 재상宰相과 왕명의 출납을 담당하고 국왕과 각 관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연결시켜주었던 집사부 중시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어 갔다. 태종무열왕은 친당외교를 통해 당나라를 후원세력으로 삼고, 내정에서는 자신의 아들들과 김유신 등 최측근 세력의 정치적 안배를 통해 왕권을 안정시킨 다음, 마침내 백제에 대한 정벌전쟁을 단행하게 된다.

2 백제 · 고구려의 멸망과 삼국통일

나당연합군의 공격과 백제의 멸망

659년 10월, 당은 백제 정벌에 나설 것을 결정하고 출병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당은 출병 결정 사실이 바깥에 알려지는 것을 철저히 막았다. 신라에게도 바로 알리지 않았고 김인문과 당시 당에 와 있던 왜국倭國 사절단의 귀국도 막은 채 백제 원정을 준비하였다. 당이 신라에게 출병을 알린 것은 원정 준비가 거의 마무리된 660년 3월에 가서였다. 마침내 당의 13만 대군은 6월 18일 내주萊州, 산뚱성 봉래를 출발하여 백제로 향하였다. 1,900척으로 구성된 당군의 배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천리에 뻗쳤다고 한다.

당군의 출정에 호응하여 5만의 신라군을 이끈 태종무열왕은 백제의 사비泗沘 도성都城으로 바로 진격하지 않고 신라 북방의 남천정南川停(지금의 경기도 이천)에 가서 머물렀다. 이는 당의 출정군과 원활하게 연락을 취하고 백제의 방어 주력을 교란시키기 위한 우회 작전이었다. 태자 법민은 6월 21일 덕물도德物島(지금의 경기도 덕적도)에 도착한 당군의 사령관 소정방蘇定方을 맞이하였고, 각각 해로와 육로로 진군하여 7월 10일 사비도성의 남쪽에서 만나기로 기

일을 정하였다.

당군은 신라 수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연안 항로를 따라 남양만南陽灣을 남하한 후 태안泰安과 안면도安眠島를 돌아서 7월 9일 금강 하구의 기벌포伎伐浦로 들어갔다. 태종무열왕은 사라지정沙羅之停, 지금의 충북 청주를 거쳐 남하하여 금돌성今突城(지금의 경북 상주)에 머물렀고, 김유신이 거느린 5만의 신라군은 백제로 가는 요충지인 탄현炭峴을 넘어섰다. 금강 중류에 위치한 사비도

그림 2 나당연합군의 백제 침공도

성을 치기 위해 당군은 금강의 하구 기벌포에서 본류를 거슬러 올라갔고, 신라군은 반대로 금강의 상류에서 탄현을 넘어 사비로 진격하였던 셈이다. 탄현과 기벌포는 사비도성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이었고 지름길이었지만, 백제 측의 방어다운 방어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660년 7월 초 신라군 5만 명과 당군 13만 명으로 구성된 나당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였지만, 백제는 당의 출병 계획을 전혀 눈치 채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출병을 인지한 후에도 잘 대처하지 못하고 있었다.

백제는 당군이 덕물도에 도착한 이후에야 침공 사실을 알았고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나당연합군의 사비성 직공 전략과 수륙 양면에서의 협공과 기습에 말려 마땅한 대응책을 세우지 못하였다. 게다가 의자왕義慈王은 집권 후반기에 왕권 강화 정책으로 귀족들과 갈등을 빚어 정국이 크게 혼란스러웠다. 나당연합군이 이미 코앞에 들이닥쳤는데도 의견이 갈린 채 우왕좌왕하였다. 황산벌黃山伐에서 신라군을 막았던 계백階伯과 5천 결사대의 장렬한 최후도 백제의 멸망을 며칠 늦췄을 뿐이었다.

의자왕은 상좌평上佐平 등 최고위 관료들과 왕자들을 당군에게 보내 사죄의 글을 올리기도 하고, 죄를 빌며 재물과 음식을 보내 회유하면서 당군이 퇴각할 것을 애걸하였다. 소정방은 모든 것을 거절하였고 4개 군단으로 포위된 사비도성은 함락 위기에 몰렸다. 7월 13일 밤 의자왕은 웅진熊津(지금의 충남 공주)으로 탈출해 전열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결국 7월 18일 웅진방령熊津方領 예식진禰寔進의 투항으로 인해 사로잡혀 당에 항복하고 말았다. 7월 29일 금돌성에 있던 태종무열왕이 사비성에 도착하였고, 8월 2일에는 의자왕이 왕자와 군신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수 태종무열왕과 소정방에게 술잔을 바쳤다. 의자왕의 비애는 백제 귀족들의 통곡소리에 묻혀버렸다. 700년의 백제 사직이 불과 며칠 만에 변변한 저항 한번 못해보고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다. 9월 소정방은 의자왕을 비롯해 왕족, 대신들과 백성 1만2천여 명을 이끌고 개선하였고, 당군 1만 명과 신라군 7천 명을 주둔군으로 남겨두었다.

백제부흥운동과 그 소멸

사실 백제의 멸망은 군사력의 열세라기보다는 나당연합군의 기습 공격 앞에 당황한 중앙정부가 순식간에 무너진 결과였다. 또 전쟁은 사비성과 웅진성 등 백제의 중심 지역에서만 전개되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에는 상당한 군

그림 3 백제 부흥군의 주요 근거지

사력이 그대로 온존되어 있었다. 따라서 사실상 나당연합군과 백제의 전쟁은 의자왕의 항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 사비성泗沘城의 함락 이후 장장 3년간에 걸쳐 백제부흥운동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었다.

백제부흥운동은 처음에는 당군의 약탈과 무자비한 살육에 격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났고 비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복신福信과 도침道琛 등 중심 지도부가 형성된 이후부터는 한결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복신은 왜국에 건너가 있던 백제 왕자 부여풍扶餘豐을 맞이하여 왕으로 옹립하고 왜국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왜국은 3~4만 명 이상의 군사를 파견하는 등 물적, 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초기에 백제부흥군이 일어난 지역은 대부분 흑치상지黑齒常之나 복신의 경우처럼 자신의 출신지나 세력 근거지, 또는 파견 나가있던 임지任地였다. 특히 백제는 의자왕이 항복할 당시 5방方 37군郡 200성城의 지방통치조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지방관들이 그들의 임지인 방성方城과 군성郡城 등을 중심으로 거병하여 부흥운동에 합류하였다. 사비성에 주둔했던 당군은 부흥군의 맹렬한 공세에 여러 차례 고립되기도 하였다. 초기에 백제 서부와 북부지역에서 시작된 부흥운동은 661년에 들어서 동부와 남부지역으로 확대되었고, 마침내 200여성을 회복했다고 장담할 정도로 백제의 옛 땅 전역이 부흥군의 활동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도침은 당군에게 '언제쯤 귀국할 것인가?'라는 조롱 섞인 말과 함께 당군의 귀국을 종용하기까지 하였다. 백제부흥운동의 기세가 만만치 않게 타오르자, 당은 증원군을 파견하였고 문무왕도 직접 신라군을 이끌고 토벌전에 참여하였다.

나당연합군이 백제부흥군에 공세를 취하기 시작한 것은 662년 7월 신라군이 웅진도熊津道를 개통하여 고립된 당군의 포위를 풀게 된 게 일차적 계기였다. 더욱이 이 무렵 부흥군의 내부에 알력이 발생해 도침이 복신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이후 부여풍과 복신의 주도권 갈등이 이어졌고, 마침내 663년 부여풍이 복신을 처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흥군의 내부는 갈등으로 일부는 당에 투항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부여풍에게 합류를 거부하면서 급속히 세력이

약화되어갔다. 더욱이 초기에는 백제 남부 평야지대의 농업생산을 바탕으로 물자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점차 이 지역이 신라에게 넘어가고 왜로부터의 군량지원도 끊기게 되면서 부흥군의 물자부족이 심화되었다.

663년 7월 백제부흥군의 중심지인 주류성周留城 진압 작전에는 문무왕이 김유신 등 28명의 장군을 이끌고 출정하는 등 총력을 기울였다. 나당연합군은 수륙의 요충지인 가림성加林城, 지금의 충남 임천을 우회하여 주류성으로 직공하는 전략을 세웠다. 문무왕이 거느린 신라군과 유인원劉仁願, 손인사孫仁師가 거느린 당군의 연합으로 편성된 육군은 주류성을 공격하고, 유인궤劉仁軌와 두상杜爽, 백제 태자였던 부여융扶餘隆 등 당군이 주축이었던 수군은 백강구白江口(지금의 금강하구)로 향했다.

주류성의 부흥군도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해 고구려와 왜에 구원군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고구려는 당의 측면 공격에 대비해 구원군을 직접 파견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왜에서는 구원군을 파견해 백제·왜의 연합군이 나당연합군과 대결전을 벌였다. 663년 8월 18일 나당연합군은 주류성을 완전히 포위하였고, 8월 27일 당의 수군은 백강구에 들어오는 왜의 수군과 풍왕豐王이 거느린 부흥군과 싸워 400척을 궤멸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다. 풍왕은 고구려로 달아났다. 백강구 전투의 승리로 기세를 올린 나당연합군은 9월 7일에 주류성마저 함락시켰다. 나당연합군이 웅진에서 합세하여 출병한지 불과 50여 일만의 일이었다. 주류성에서 달아난 부흥군과 백제유민들은 왜로 망명의 길을 떠났다.

한편 신라는 백제부흥군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옛 백제 영역으로 세력을 확대해갔다. 당은 외교관 두상을 파견하여 신라 정부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신라와 백제의 경계를 획정하는 회맹會盟을 강요하였다. 신라는 그간 백제부흥군이 다 진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맹을 거절하였으나, 이들이 진압되면서 회맹을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당은 665년 8월 부여융을 웅진도독熊津都督으로 내세워 문무왕과 취리산就利山에서 회맹을 열고, 옛 백제 영역에 대한 당의 지배력을 강화하였다.

평양성의 함락과 고구려의 멸망

백제 멸망 다음해인 661년, 당은 해로를 통해 원정군을 파견하여 고구려의 평양성을 곧바로 포위하였다. 종전에 요하遼河 방면으로 공격하였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었다. 이때 당군은 무리한 공격으로 오히려 포위되어 큰 위기에 처했지만, 때마침 신라군이 남쪽에서 진격해와 식량과 물자를 공급해줌으로써, 당군은 안전하게 퇴각할 수 있었다. 김춘추와 당태종이 백제를 먼저 멸망시킨다는 구상에 합의한 것도 바로 이러한 당의 직접적인 평양성 공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백제의 멸망은 고구려의 방어 전선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종래 수양제隋煬帝나 당태종이 고구려 정벌에 실패했던 것은 요하에서 평양성까지 긴 보급로를 유지해야 하는 전략상의 약점을 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제 당은 백제의 멸망으로 고구려 남쪽에 신라라는 튼튼한 군사 기지를 갖게 되었다. 신라의 군사와 식량 원조를 받으면서 남북 양쪽에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을 손쉽게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신라로부터 군량을 공급받음으로써 겨울철 군사 작전도 가능해져 당은 고구려의 전력을 소진시켜가는 장기전으로 전략을 수정하였다.

이처럼 불리한 정세 속에서 고구려에서는 664년 10월 연개소문이 사망하였다. 영류왕을 시해하고 유혈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연개소문은 약체 권력이었다. 믿을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나 친족 밖에 없었다. 자연히 아들들에게 권력이 집중되었다. 연개소문 사후 그의 아들들 사이에 벌어진 권력 다툼은 이미 연개소문도 예견한 것이었다.

죽음에 임한 연개소문이 "너희 형제는 물과 고기처럼 합심해야 한다."고 간절히 유언했건만 형제들의 권력욕 앞에 이는 소용이 없었다. 시찰 나간 사이 동생들에게 권력을 빼앗긴 장남 남생男生은 국내성과 10만 호를 이끌고 당에 투항하였고 마침내 666년 9월 당군의 앞잡이가 되었다. 이 내분의 여파로 비열홀比列忽, 지금의 함남 안변 지역을 방어하고 있었던 연개소문의 동생 연정토淵淨土도 같은 해 12월에 12성을 들어 신라에 항복하였다. 이 비열홀 일대의 12성은 강원도 북부와 함경남도 남부 일대 지역이므로, 이제 나당연합군은 평양성

동쪽으로의 공격도 가능하게 되었다.

오랜 전쟁으로 피폐해진 고구려는 집권층 내부의 분열과 반역 행위까지 겹치면서 군센 저항력이 스스로 무너져 내렸다. 이러한 고구려의 분열을 틈타 667년 9월, 당의 총공세가 시작되었고 요동遼東의 신성新城이 함락되었다. 마침내 668년 부여성扶餘城, 비열홀, 임진강臨津江 방면에서 쇄도해온 나당연합군은 평양성을 완벽히 포위하였고, 그 해 9월 고구려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평양성 전투에서 신라군의 공은 매우 컸다. 평양성 함락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는 평양성의 외부 방어선인 사천蛇川을 돌파하는 일이었다. 비열주 행군의 총관 김문영 등은 사천의 벌판에서 고구려의 태대막리지太大莫離支 남건男建이 거느리고 온 군사와 격돌했다. 당시 함께 있던 당나라 군사들은 적진의 사기에 눌려 겁을 먹고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였지만, 김문영의 신라군은 고구려군과 맞서 물러서지 않았다. 특히 대당大幢의 소감少監 본득本得은 이 전투를 승리로 이끈 가장 중요한 주역이었다. 당군은 신라군이 이기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야 겨우 전투에 참여하는 시늉만 하였다. 이 전투에서는 한산주 소감 김상경金相京을 비롯해 많은 장수들이 전사하였다. 한편 아술牙述 출신의 사찬沙湌 구율求律은 사천 싸움에서 다리 아래로 내려가 물을 건너 진군하여 적군과 싸워 크게 이겼으나 명령을 듣지 않고 스스로 위험한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등의 공을 세웠어도 공훈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그는 분하고 한스럽게 생각하여 목을 매어 자결하려 하였으나, 주위 사람들이 구하여 죽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구율의 사례는 군율에 따라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당시 신라군의 엄정한 규율과 군기를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사천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한 신라군은 평양성 함락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후 부양斧壤 출신 군사軍師 구기仇杞는 평양성의 남교南橋를 돌파하였다. 또 평양성을 옹위하던 주변의 소성小城도 비열홀 출신 군사軍師 세활世活에 의해 함락되어 평양성의 외부 방어선이 완벽히 무너졌다. 이어 서당誓幢 당주幢主 김둔산金遁山이 평양성 밖의 진영을 파괴하여 평양성을 더욱 세차게 포위 압박하면서 전세는 신라군으로 완전히 넘어왔다. 이윽고 흑악령黑嶽令 선극宣極은 평양성 대문을, 남한산南漢山 출신의 군사軍師 북거北渠는 평양성 북문을 돌파하였다. 그간 철옹성을 자랑했던 평양성도 용맹한 신라군 앞에 마침내 무릎을 꿇고 말았다. 기세를 몰아 한산주 소감 박경한朴京漢은 평양성 안에서 고구려의 군주 술탈述脫을 척살하여 군사들의 사기를 최고로 끌어올렸다.

이러한 평양성의 함락과정으로 잘 알 수 있지만, 신라군의 승리에는 중앙군은 물론 지방 출신자들의 공이 매우 컸다. 이는 지방인들에 대한 문무왕의 대우와 정책이 적절하고 유효하였음을 의미한다. 이후 백제·고구려의 유민들까지 포섭하는 그의 삼국유민 통합정책은 이렇게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평양성은 함락되었지만 항복하지 않은 고구려 각 지방의 성에서는 대당 항쟁이 계속되었다. 고구려 왕조를 재건하려는 부흥운동도 일어나고 있었다.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이후 신라와 당의 전쟁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대당전쟁의 발발

668년 나당연합군의 대공세로 고구려는 멸망하였지만, 신라는 고구려의 멸망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이보다 앞서 당은 663년 신라 영역을 '계림주鷄林州'로 삼고, 문무왕에게 신라 왕호 외에 추가적으로 계림주 대도독大都督이라는 벼슬을 내렸다. 이는 동맹국인 신라까지도 당나라의 일개 지방으로 삼으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었다.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를 평정하면 평양 이남의 백제 땅은 모두 신라에게 준다는 김춘추와 당태종의 648년 밀약만을 믿고 그냥 기다릴 순만은 없었다. 고구려가 멸망하면 이젠 다음 차례가 신라인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일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가 668년부터 700년까지 25회에 걸쳐 매우 빈번히 일본日本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이 주목된다. 그 시작은 고구려가 멸망하기 바로 1개월 전부터였다. 왜왕도 나당연합군의 공격이 있을까 불안했기 때문에 신라 사신편에 문무왕과 김유신에게 선박과 비단을 비롯한 각종 선물을 보내었고, 또 신라 사신을 정중히 대접했다. 이로 인해 660년 이후 서로 전쟁을 치렀던

신라와 왜국 사이에 국교가 다시 재개되었다.

신라가 고구려 멸망 직전에 미리 왜국에 사신을 파견하고 우호적 관계를 회복한 것은 혹시 있을지도 모를 당과의 전쟁에 대비해 일본을 자신의 편으로 묶어두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었다. 백제와 고구려의 영역을 이미 점령하고 신라의 코앞에 주둔하고 있는 당의 병력은 신라가 대적하기에는 버거운 상대였다. 그런데 왜국마저 당의 편에 선다면 신라의 존립은 보장받기 어려웠다. 이후 신라는 왜국에 사절단의 대표로 대아찬 이상의 진골 귀족이나 고위 인사를 파견하였고, 그때마다 대규모 선물도 한 아름씩 선사하였다. 대당전쟁은 이미 발발 전부터 신라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역으로 당시 신라가 느꼈을 당의 침공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의 크기를 잘 말해준다.

668년 당나라는 평양에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설치하고 고구려 지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삼았다. 고구려가 멸망하자 그간 잠재해 있었던 백제의 영토에 대한 귀속을 둘러싸고 신라와 당 사이의 갈등이 전면에 표출되었다. 신라는 고구려 멸망 직후부터 공공연히 옛 백제 지역으로 진격해 그 땅을 접수하는 한편 고구려 부흥군을 포섭하여 대당항전에 이용했다. 마침내 신라는 670년 3월 신라 장군 설오유薛烏儒와 고구려 태대형太大兄 고연무高延武 장군이 이끄는 2만의 부대가 합세하여 압록강 건너 당군의 전초부대였던 오골성烏骨城에 주둔하고 있던 말갈靺鞨 기병을 공격하였다. 이후 장장 7년에 걸쳐 전개된 신라와 당의 전쟁은 이렇게 신라가 먼저 당을 공격하면서 시작되었다. 약자였던 신라가 먼저 전쟁을 선택한 배경에는 대당전쟁과 밀접히 연환連環되어 있었던 서역西域의 '토번土蕃', 지금의 티벳이 있다.

대당전쟁의 경과와 승리

660년 이후 당이 전력全力을 백제와 고구려 전선에 기울이자, 서역에서는 토번이 성장해 친당 세력인 토욕혼土谷渾을 누르고, 실크로드를 장악해버렸다. 669년 9월 토번이 천산남로天山南路를 급습하자, 670년 설인귀薛仁貴가 이끄는

한반도 주둔 병력이 토욕혼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로 인해 요동이나 한반도 북부 지역의 당군은 상당히 위축되었고, 670년 3월 신라군은 압록강 이북의 오골성까지 작전 반경을 넓혀 공격할 수 있었다. 같은 해 7월 설인귀가 이끄는 10

그림 4 신라의 대당전쟁도

만 명의 당군이 대비천大非川(지금의 중국 青海省 共和縣) 부근 전투에서 토번의 군사에게 전멸 당하자, 신라는 옛 백제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해버렸다. 당은 새로운 군단을 투입해 반격하였지만 무위로 그쳤다. 신라는 672년 사비성에 소부리주所夫里州를 설치하여 백제가 신라 땅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지방 행정 체제의 개편을 통해 옛 백제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갔다.

당은 671년 7월 고구려부흥운동의 중심지인 안시성을 공략하여 요동지역을 안정시키고, 672년 4월 토번의 사절이 장안에 도착하여 당고종과 무후武后를 접견하고, 양국 간에 화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자, 전력을 신라에 투입하여 672년 7월 평양에 군영을 설치하고 신라를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이에 대응해 북진한 신라군과 당군이 황해도黃海道 지역에서 격돌하였다. 전투 초반, 재령載寧 지역 전투에서는 신라가 승리하였으나 이어진 석문石門(지금의 황해도 서흥) 전투에서는 당의 고간高侃이 이끄는 정예기병의 기마전술에 말려 신라 중앙군단이 전멸할 정도로 크게 패퇴하였다. 이때 살아 돌아온 아들 원술元述을 김유신이 내친 것도 당시의 패배가 신라 조야朝野에 매우 큰 충격을 주었음을 알려준다. 더욱이 같은 해 12월에는 고구려 유민이 지키고 있던 백수산白水山을 당군이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이를 구원하려고 온 신라군마저 격파하였다. 이후 신라군은 전선을 후퇴하고 당군의 침입로에 성곽을 축조하는 등 방어에만 진력하였다. 전선은 임진강臨津江 유역에서 일진일퇴를 거듭하였다.

673년 겨울까지 당군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673년 12월 토번이 천산 지역의 서투르크 제부족을 충동하여 천산북로를 봉쇄하려 하자, 나·당전쟁은 674년 전 기간과 그 이듬해 2월까지 14개월 간 소강상태에 들어간다. 670년 토번에게 천산남로를 상실한 당은 그 대안으로 천산을 북쪽으로 우회하는 천산북로를 이용했는데, 이것마저 위협 당하자 이 루트의 방어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다.

674년의 전쟁 소강은 신라가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는 소중한 기간이 되었다. 신라 조정은 친당 귀족들을 숙청하고 여麗·제濟의 귀족들에게 관작을 주고 고구려 왕족 안승安勝이 이끄는 고구려부흥군을 익산益山 지역인 금마저金馬渚로 옮겨 살게 하고 그를 '고구려왕高句麗王'에 책봉하여 자치국으로 인정하는 등 여·제

유민에 대한 포섭에 힘쓰면서 당군과 장기전을 벌여나갈 준비를 하였다. 당의 기병에 대비한 장창부대長槍幢, 쇠뇌부대弩幢를 정비 확대해나갔고, 길목마다 요충지에 산성을 굳건히 세워 당의 침공에 대비했다.

675년 1월 토번의 사절이 장안에 와서 평화회담을 진행시키자, 그 해 2월 당군은 한반도에 재침해 왔다. 유인궤가 이끄는 당군은 임진강 이남까지 남하하여 칠중성七重城을 대파하고 그곳을 전진기지로 삼아 매초성買肖城(지금의 경기도 양주)까지 장악했다. 그러나 전쟁의 대세는 675년 신라군이 당군을 매초성에서 대파하고, 이듬해 전세를 만회하고자 서해안으로 침공하려는 당의 수군을 금강 하구인 기벌포에서 격멸함으로써 신라의 승리로 결정되었다.

당고종은 676년 이후에도 한반도에 대한 지배의지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 당은 신라가 대동강大同江 이남의 지역을 통합한 것을 인정치 않았다. 고구려, 백제의 왕손을 각각 '고려조선군왕高麗朝鮮郡王', '백제대방군왕百濟帶方郡王'으로 봉해 자기나라 수도에 머물게 하고 기회가 되면 이들을 앞세워 다시 신라를 공격할 의도를 견지하였다. 678년 9월에 당고종은 신라를 재침하려 했다. 하지만 토번 정벌이 시급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

678년 당의 18만 대군은 670년 대비천 참패 때 포기한 안서安西 4진鎭을 회복하려고 다시금 토번에 출격했으나 다시 대패하고 말았다. 이때 당 조정은 토번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부득이 방어 전략을 취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다. 고종이 독백처럼 "고구려는 요하를 건널 수 없었고, 백제는 감히 바다를 초월할 수 없었는데도 지난날 빈번하게 해마다 군대를 보내 나라를 허비했다. 비록 지난 일이지만 나는 이를 후회한다."라고 한 것은 당시 당이 처했던 속사정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신라의 당에 대한 전쟁 대비도 완벽했지만, 한편으론 신라와, 다른 한편으론 토번과, 양쪽에서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당의 딜레마로 인해 신라는 대당전쟁에서 유리한 전략을 펼칠 수 있었다. 나·당전쟁은 실로 토번·당의 전쟁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다. 대당전쟁에서 신라가 승리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토번의 전황을 적극 활용한 신라 외교력의 힘이었다. 당은 토번에 발목이 잡혀 신라에 격침되었고, 결국 일원적인 세계 지배의 야욕도 거둘 수

밖에 없었다. 당의 패배와 그 여파는 고비사막 북쪽으로도 전파되어, 680년대에는 돌궐突厥이 재차 부흥하여 유목 세계를 통일하였다. 당의 세계 장악력이 하나 둘씩 무너지고 있었던 696년, 요서遼西의 영주營州(지금의 요령성 조양)에서도 거란족契丹族 추장 이진충李盡忠의 난이 일어났고, 이 반란은 고구려유민들이 발해渤海를 건국하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하였다.

대당전쟁의 역사적 의의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으로 300년 가까이 분열되어 있던 중국이 수·당에 의해서 다시금 통일되면서 7세기 동아시아 세계는 새로운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특히 당은 630년 동돌궐 제국, 635년 토욕혼 왕국, 646년 설연타薛延陀를 차례로 정복하여 몽골고원의 여러 유목 국가의 항복을 받았고, 640년에는 고창국高昌國을 멸망시켜 투르키스탄 지역의 내륙아시아 여러 국가들에도 세력을 미치게 되었다. 그리고 수·당의 세계질서에 맞서 번신藩臣의 예를 끝내 거부했던 백제와 고구려마저도 각각 660년, 668년에 정복하였다.

이러한 수·당 제국의 등장에 대해, 동아시아에 새로운 '일원적 세계질서'가 형성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기존 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그러나 이는 수·당이 표방한 그들만의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체제는 주변 세계가 용인하지 않은 강압이었지, '질서'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수·당이 성립한 이후 나·당전쟁까지는 전쟁의 시대였다. 수·당의 힘 앞에 명멸해간 숱한 국가와 족속이 있었다. 이러한 전쟁의 시대를 세계질서가 정립한 시대로 묘사할 수는 없다. 더욱이 당의 세계 지배 야욕에 반대하고, 강하게 도전한 주변 세계가 당시에 엄존하고 있었다. 동북아 지역에서 신라와 당의 전쟁, 서역 지역에서 토번과 당의 전쟁이 바로 그것이다. 또 돌궐, 토번, 위구르, 남조南詔 등 주변의 여러 민족이 교대로 강성해져 당 제국을 위협했던 이른바 '세계의 연환성連環性'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학계는 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모 과정, 즉 과도기의 상황을 보고 이미 질서가 완성된 것으로 오인했다. 또한 이러한 시각은 세계를 구성하는 동등한 두 요소, 즉 '중심'과 '주변'에 대해 균등한 눈길을 주지 않은 편향된 관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된다. 5~6세기와 마찬가지로, 7세기 이후의 동아시아 세계 질서도 중심과 주변의 세력 균형 속에서 유지되었다. 이는 발해의 성립으로 더욱 구체화되었지만, 이러한 세계 질서 성립의 단초는 분명 삼국을 통일하고 대당전쟁에서 당을 격파한 신라의 승리에서 찾아야 한다. 사실 발해의 성립도 신라가 대당전쟁을 승리로 이끎으로써 가능했다.

나·당전쟁은 수·당과 고구려 충돌의 연장선상에 위치하며,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질서 확립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또한 신라의 삼국통일은 단순히 신라가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킨 데 그치지 않으며, '중국中國'을 자처한 수·당의 일원적 세계 지배의 야욕을 저지시키고, 중국과 주변 세계의 공존이라는 새로운 세계체제를 이끌어낸 국제전이었다.

3 중대의 지배체제와 운영 원리

중대 '전제왕권론'에 대한 반성

현재 역사학계에서는 신라의 중대를 정치적 안정과 문화적 번영을 누린 신라의 전성기로 이해하고 있다. 즉 중대에는 "왕권이 전제화하여 귀족세력을 제압하고, 태자제도를 통해 무열왕계武烈王系의 왕통王統이 안정화되었다. 또 확대된 영토와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 정치기구를 왕의 비서기구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재편 확대하고, 지방을 9주州 5소경小京과 군현郡縣으로 편성하여 중앙집권제를 완비하였다. 그 결과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에밀레종), 불국사佛國寺, 석굴암石窟庵 등 화려한 통일신라統一新羅의 문화가 만개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상술한 신라 중대 '전제왕권'의 이미지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당연한 것이어서, 의심할 필요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왕권이 전제화되고, 중앙집권화가 완비되는 방향이 과연 국가의 발전일까? 진골은 백성을 착취하고, 왕은 백성을 보호하는 수호자였을까? 그동안 우리는 신라의 정치구도를 '왕권 대 신권'으로 단순화하고, 너무나도 단선적으로 왕권강화와 중앙집권화를 국가 발전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해해 왔다.

당의 도움을 받은 신라의 김춘추는 고구려, 백제와의 외부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내부 정치구도는 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전개되지 않았다. 신라국가의 유지에는 왕만이 아니라, 그 대척점에 있었던 진골세력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신라는 왕을 포함한 진골의 공동지배 위에 세워진 건물이었다. 진골의 전횡만이 아니라, 왕권의 전제정치도 신라국가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소지를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삼국사기』와 달리 『삼국유사三國遺事』에는 신라인들이 김춘추와 그 직계의 왕조를 중대로 특화하지 않고, 하대와 함께 묶어, 신라의 내리막기인 '하고下古'로 인식한 또 다른 시대구분관時代區分觀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어쩌면 현재 학계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달리, 혹 신라인들에게 중대는 정치적 안정과 번영을 누린 신라의 전성기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유명한 향가鄕歌 작가인 충담사忠談師가 경덕왕景德王에게 바친 안민가安民歌도 역설적으로 '불안不安한 민民'을 대변한 노래일 수 있다. 실제로 현재 국어학계에서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그러나 신라인들이 보았던 중대의 이미지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 면만을 도드라지게 만든 부조浮彫는 사물의 전체를 보여주지 못한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곳은 분명 화려하지만, 그 빛의 이면엔 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중대 왕권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시야에 넣을 때, 비로소 중대 사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김흠돌의 난

676년 당군을 축출한 문무왕은 당과 더 이상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다. 대동강 이남의 고구려 옛 땅을 실질적으로 점유하였지만, 당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한강 이북 지역에 대해 적극적인 군현지배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 당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사죄사도 파견하였다. 그러나 당은 신라를 인정하지

않았고 재침의 기회만을 노렸다.

더욱이 문무왕은 생전에 왜병倭兵을 진압하기 위해 감은사感恩寺를 짓다가 다 끝내지 못하자, "동해東海 큰 바위 위에 장사지내라. 죽은 뒤 나라를 수호하는 용이 되어 불교를 받들고 국가를 보위하겠다."고 유언했을 정도로, 당시 신라는 당뿐만 아니라 일본의 협공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골칫거리였다. 대당전쟁 직후 신라의 대외관계는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러운 것이 없을 정도로 매우 불안했다.

내정도 마찬가지였다. 대당전쟁 중 문무왕은 내부 분열을 막고,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당수 진골 귀족세력을 당측에 붙은 부당배付唐輩나 역적逆賊으로 몰아 숙청했다. 전쟁국면을 이용해 왕권이 정적政敵을 제거한 것이다.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어간 동료들을 보면서도 귀족들은 통일과정에서 비대해진 왕권 앞에 일단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귀족의 울분은 왕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거셌다.

681년 문무왕이 죽고, 신문왕은 즉위하자마자 자신의 장인인 김흠돌이 역모逆謀를 모의했다며 참수斬首하였다. 이 사건에는 많은 귀족들이 연루되어 죽었는데, 신문왕은 주동자뿐만 아니라 말단 가담자들까지도 철저하게 색출하였다. 심지어 병부령兵部令(국방부 장관) 김군관金軍官과 그 아들에게는 이 모반謀反 사실을 알고도 고변告變하지 않았다는 죄목으로 자살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신문왕이 김흠돌의 난을 처결한 후 내린 교서敎書에는 "뜻밖에도 상중喪中에 난이 서울에서 일어날 줄 어찌 상상이나 했겠는가!"라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반란에 충격을 받은 것처럼 되어 있지만, 즉위와 동시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난의 수습 과정으로 볼 때, 이미 이 역모는 즉위 전에 감지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오히려 신문왕이 자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진골 핵심세력들을 미연에 철저히 숙청하고 강력한 전제왕권을 확립하기 위해 이 역모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왕의 장인은 왕권과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왕의 장인이 반역을 주도하였다는 점에 당시 왕과 진골세력의 갈등이 얼마나 심각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박朴, 석昔, 김金, 삼성三姓의 교립交立이 상징하듯이 신라에서는 왕위를 특정 가계가 배타적으로 독점하는 왕실의 신성神聖 권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신라 멸망 무렵에 박씨朴氏가 다시 왕위를 계승한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태왕太王' 칭호로 왕권이 한층 강화되었던 법흥왕 이후,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신성한 가계로서 '성골聖骨' 의식이 출현하기는 하였지만, 진지왕의 폐위가 말해주듯이 여전히 신라 왕권은 진골세력을 대변하는 협의체인 '대등회의大等會議'를 무시할 수 없었다.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체제와 재상제의 도입

중대 왕권을 개창한 김춘추는 어떻게 하면 대등 세력인 진골 권문들을 무력화無力化시키고 강력한 왕권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인가에 골몰하였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그가 추구한 친당정책은 단순히 외교전략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당의 선진적인 유교 정치이념과 예제, 의례의 수용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적인 목표였다. 이와 관련하여 선덕·진덕여왕대부터 '국상國相', '재상宰相' 등 종래에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관직 명칭이 등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김춘추가 당태종을 만나러갈 때, 그의 공식 직함도 '국상'이었다.

신라에서는 국가의 중대사를 대등들의 합의로 결정하였고, 이를 '화백和白'이라고 불렀다. 화백회의는 남당南堂과 정사당政事堂, 그리고 신성처神聖處였던 4영지靈地 등에서 개최되었다. 6세기 전반까지는 의결議決 내용을 국왕을 비롯한 회의구성원 공동 명의의 교시를 통하여 반포하였으나 법흥왕 18년(531) 상대등이 설치된 후에는 대등회의에서 논의 합의한 내용을 상대등이 국왕에게 상주上奏하면, 국왕이 그것을 재가하여 하교下敎하거나 또는 왕명王命의 형태로 반포하는 국정 운영 방식이 정착되었다. 그런데 중고기에 '상대등'이 주재하던 이런 회의 방식이 김춘추가 집권하는 중대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상재상上宰相'이 그 회의를 주재하게 되는 새로운 변화가 포착된다.

재상제도는 당나라에서 수용하였다. 당의 경우 통상 재상은 천자天子를 보좌하고, 백관을 총령하며, 만사를 다스리는 존재를 지칭한다. 신라를 이은 고려에서도 재상제가 계승되었다. 고려 재상의 직분職分도 정사를 토의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있었다. 결국 재상은 국정을 자유롭게 논의하여 국왕에게 건의하고, 또 국왕의 자문 요청을 받아 국정을 논의함으로써 국왕의 최종 결정권을 보좌하는 기능을 가졌음을 의미한다. 신라의 재상 역시 이와 같은 성격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신라 국왕은 상대등, 병부령, 시중侍中, 내성사신殿中令 등을 상재상(1인), 남북상南北相(2인), 제3재상第三宰相(복수)에 임명하였다. 재상제도는 그 등장시점으로 볼 때 선덕여왕 이래 김춘추가 국왕권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정치개혁의 하나로서 정비한 것이 분명하다. 재상은 국왕이 임용하였고, 재상회의의 결과는 원칙적으로 왕의 재가를 받아야만 집행되었다. 따라서 통일기 이후 재상의 임명권이나 회의안건 집행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국왕에게 권력이 집중되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고위 관직자들을 '재상'으로 임명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왕권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도입되었다. 중대 왕권은 재상 임명권이나 국정의 최종 결정권을 바탕으로 진골귀족들을 견제하였고, 왕이 임명하는 재상들을 통해 정책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새로운 정치 운영 시스템을 가동하였다. 재상은 중고기 대등회의의 구성원인 '대등'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대등은 진골 권문의 공동 추천을 받아 왕이 추인하는 형식이었다. 즉 대등은 혈연에 기초한 세습성을 띠고 있었지만, 재상은 전적으로 왕이 임명하는 관직이었다.

'일통삼한' 의식과 여·제 유민의 포섭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였다"는 자부심은 이미 신라 당대인들의 언사言辭 속에 등장한다. 김유신의 현손玄孫 김장청金長淸이 지은 『김유신행록金庾信行錄』을 보면, 673년 임종 직전의 김유신이 문무왕에게, "삼한三韓이 한 집안이 되어 신라가 '소강小康' 즉 태평에는 못 미치나 매우 안정된 사회가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다. 신문왕 6년(686)에 건립된 청주시淸州市에서 발견된 신라의 사적비寺蹟碑에도 "신라가 삼한을 통합해 땅을 넓혔다合三韓而廣地"는 구절이 보인다.

이때의 '삼한'이라는 용어는 마한馬韓·진한辰韓·변한弁韓이라는 원래의 역사적 실체와는 관계가 없으며, 신라·고구려·백제의 '삼국三國'과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는 몇 가지 역사적 계기가 있었다. 무엇보다도 수·당 제국의 팽창적인 동방 정책이 삼국 각각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고, 이를 계기로 중국인들은 삼국민三國民들이 서로 밀접히 연관된 역사적 실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다. 당시 신라·고구려·백제 등 삼국은 각기 다른 민족ethnic group으로 구분될 만큼 혈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결코 다르지 않았다. 삼국의 언어 혈통 풍속이 비슷하다고 중국측 문헌에 자주 언급되어 있다. 중국인들은 삼국을 동질적인 국가군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를 통칭하여 삼한 또는 삼국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651년 당고종이 백제 의자왕에게 보낸 국서國書에, '해동삼국海東三國'이라 언급하면서 또 이를 '삼한三韓'으로 표현한 사례가 이를 잘 말해준다.

그림 5 청주 운천동 사적비

애초 별개의 고대국가로 성립한 삼국은 서로 간에 수많은 전쟁과 정치적 반목을 거듭하면서 대립의식이 크게 고양되었고, 서로 간에 공동체의식이나 유대감은 미약했다. 그러나 이렇게 대립하던 삼국이 동일한 역사공동체로 승화되는 전환점이 7세기 후반에 찾아온다. 우선 백제·고구려의 멸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어 여·제의 유민이 신라라는 하나의 국가 내로 통합되었다. 이어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킨 당이 신라마저 굴복시키려 하자, 신라는 당과의 전쟁도 불사하고 '민족포섭정책民族包攝政策'을 통해 당을 삼국 공동의 적으로 삼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이는 삼국이 화학적으로 융합되고 통일되는 직접적 계기로 작용하였다.

660년 태종무열왕은 백제를 멸망시킨 직후 백제인이라도 그 재능을 헤아려 관료로 임용하였다. 문무왕도 이러한 포섭정책을 이어갔다. 고구려 멸망 후 당과 대결하게 되자, 그는 670년 고구려 부흥군과 함께 합동으로 당의 전초부대가 주둔했던 오골성을 공격케 하였다. 이 전투는 당시 고구려 유민에 대한 신라의 포섭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었음을 잘 말해준다. 문무왕 12년(672) 8월에 신라군이 고구려 군사와 더불어 당군과 싸워 많은 전과戰果를 올렸던 사례도 그러한 경우다.

문무왕은 삼국통일의 기초를 닦은 선왕 무열왕의 묘호廟號를 당태종과 동일한 '태종'으로 하였고, 고구려의 왕족 안승을 받아들여 고구려왕(후일의 보덕국왕報德國王)으로 책봉하는 등, 제후국을 거느린 중심 국가의 군주로 신라 왕권의 위상을 고양시켰다. 또 좌左·우右 사록관司祿館을 설치하고 녹봉제祿俸制를 실시해 왕권을 보좌하는 두품頭品 관인층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화시키는 등 기존의 진골 연합 체제에서 소외된 두품층을 국가질서 내로 통합하는 쇄신책을 강구하였다.

더욱이 백제·고구려의 귀족들과 각 지역 세력들에게도 신라의 관등官等을 사여하여 그 유민들을 달래고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원래 신라는 왕경 6부部 출신에게만 경위京位 관등을 사여하고 복속된 지방인들에게는 외위外位 관등을 주는 차별적인 이원적 관등제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삼국 간의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방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 공을 세운 지방민들에게 경위를 사여하고 수도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사례가 증가하였다. 더욱이 문무왕은 당과 전쟁을 치루면서 백제·고구려 유민을 포섭하고 더욱 강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그들에게도 경위를 개방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문무왕은 외위제를 없애고 관등제를 경위로 일원화하여 삼국민을 모두 단일한 관등체계로 포괄하였다. 이는 기존의 왕경 6부 중심의 권위 체계를 해체하고, 통일된 신라의 인민들은 모두 다 똑같은 왕의 신하요 왕의 백성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백제·고구려의 승려나 여론주도층을 우대하여 포섭하였으며, 지방인의 신앙과 의례의 대상이 되었던 각 지역 산천山川에 대한 제사도 중앙에서 장악하였다. 이들 승려나 각 지역의 제사는 지방민 결집의 구심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통제한 것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경위 일원화와 함께 중앙집권적인 통일국가를 지향했던 중대 왕권의 정책 방향을 잘 보여준다.

국학의 설립과 중앙관료기구의 혁신

신문왕은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의 정책을 계승하여 왕권 강화를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을 단행하였다. 즉위와 함께 김흠돌의 세력을 역모로 몰아 제거한 것은 비록 장인이라 하더라도 왕권에 도전하는 귀족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선언이었다. 이를 시발로 기존의 권력구조를 재편하려는 신문왕의 왕권 강화 정책들이 숨 가쁘게 쏟아진다. 통일 이후의 신라를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완성한 인물은 신문왕이었다.

즉위 2년(682)에는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인재 교육과 관료 양성을 목적으로 국학國學을 설립하였다. 국학은 김춘추 집권 후부터 이미 준비되기 시작하였지만, 이때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국학은 왕권을 보좌할 수 있는 두품 계층들이 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였다. 육두품六頭品인 강수强首와 설총薛聰은 이 길을 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설총은 '이두吏讀'를 완성해 문서행정文書行政 시스템의 정착을 도왔고, 구경九經에 '구결口訣'을 달아 한문

경전을 우리말로 교육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다.

"꽃나라를 다스리는 화왕花王인 모란이 처음에는 장미를 사랑하였다가 뒤이어 나타난 할미꽃의 충직한 모습에 심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 할미꽃의 간곡한 충언에 감동하여 정직한 도리를 숭상하게 된다."는 설총의 「화왕계花王戒」는 신문왕이 진골 체제에서 벗어나 관료제에 입각한 지배체제를 완성하기 바랐던 자신의 뜻을 우화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는 국학 설립 이후 두품 계층의 정치적 성장과 열망을 잘 보여준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확대된 영토와 인구를 통치하기 위해 보다 정비된 중앙 관료기구와 지방 행정조직이 필요했다. 신문왕은 관료의 인사업무를 관장했던 위화부位和府를 필두로 공작부工匠府, 예작부例作府 등 중앙정부를 중국의 육전六典 조직에 준하는 방식으로 체계화하였다. 즉위 5년(685)에는 각 관부에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사지舍知가 설치되어, 문무왕대에 설치된 말단 행정 담당자인 사史와 함께 영令·경卿·대사大舍·사지舍知·사史의 효율적인 5단계 관료조직이 완비된다. 대사 이하 실무 행정 관료는 국학을 통해 성장한 두품층들로 충원되었다.

9주 5소경과 천하관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의 영토를 흡수하고 주州, 군郡, 현縣으로 새롭게 편제하였다. 애초 '주'는 신라가 영토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설치했던 군정적軍政的 성격의 지방조직이었지만, 통일전쟁이 일단락되어가면서 광역 행정 단위로 변모하였다. 신문왕 5년(685) 완산주完山州(지금의 전북 전주)와 청주菁州(지금의 경남 진주)의 설치를 끝으로 신라는 전 국토를 '9주'로 재편하였다.

한편 신라의 영토가 소백산맥과 한강을 넘어서고, 한반도의 패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신라의 왕경王京은 점점 국토의 동남쪽 끝으로 밀려나는 형상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신라는 이미 지증왕대智證王代부터 왕경 외에 '소경小京'을 설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는 방안을 추진하였

다. 기존의 금관소경金官小京(지금의 경남 김해), 북원소경北原小京(지금의 강원도 원주), 중원소경中原小京(지금의 충북 충주) 외에, 신문왕 5년(685)에 서원소경西原小京(지금의 충북 청주)과 남원소경南原小京(지금의 전북 남원)이 설치되어 5소경의 제도가 완비되었다. 이 소경에 중앙귀족과 가야, 백제, 고구려 등 신라에 병합된 국가들의 귀족들을 옮겨 살게 하여, 각 지역의 정치적·문화적 거점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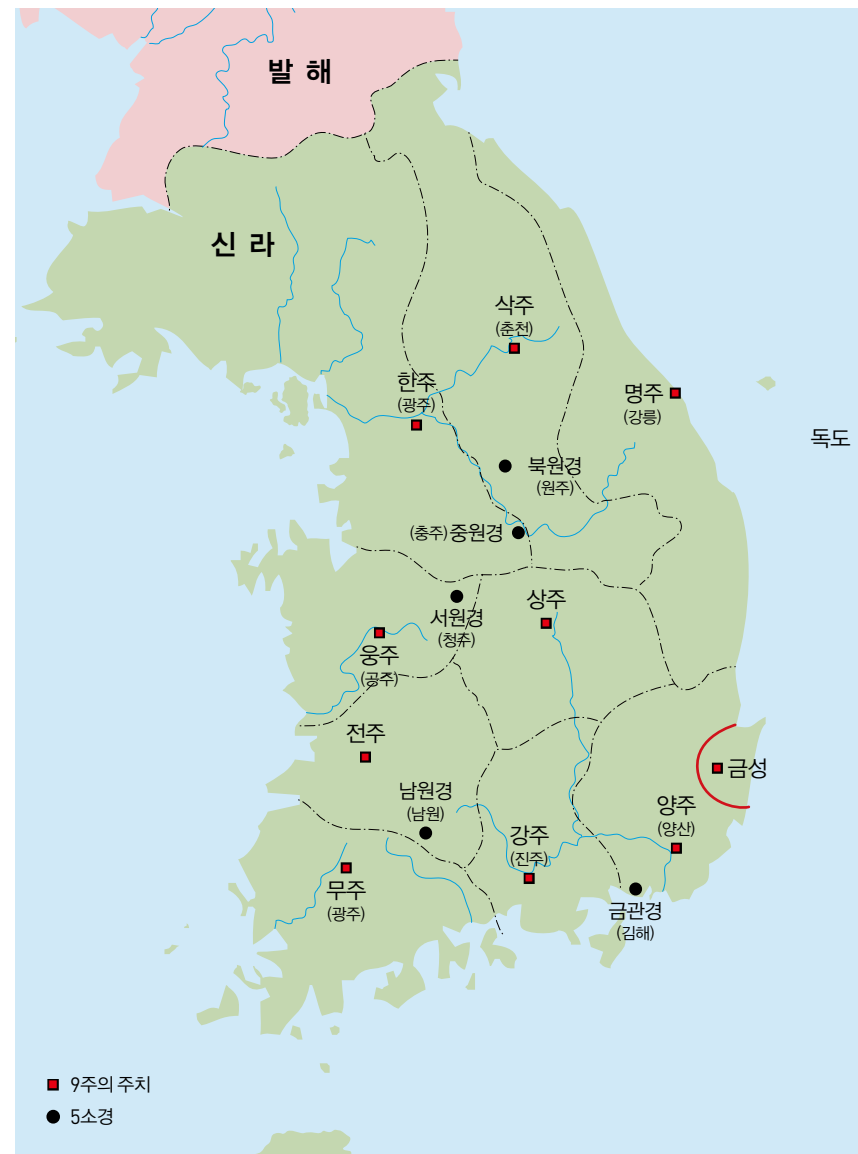
그림 6 9주5소경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라의 9주는 중국에 최초의 왕조를 연 하夏 나라의 우禹 임금이 천하를 9주로 구분하였던 것에서 따온 것으로 신라의 일통삼한 의식과 함께 천하관天下觀을 보여준다. 신문왕은 9주를 삼국의 영역에 의도적으로 각각 3주씩 나누어 배치하였다. 신라의 3개 주, 백제의 3개 주, 고구려의 3개 주가 통합되어 일통삼한의 9주가 되었음을 표상하려 한 것이다. 이러한 신문왕의 9주 편성에는 신라가 삼국을 평정하였다는 것과 삼국이 어우러져 하나의 천하가 되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었다. 물론 당시 신라의 9주에는 옛 고구려 영토의 대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신라는 고구려의 왕족 안승을 '고구려왕'으로 책봉해 익산의 금마저에 살게 하는 등, 고구려 왕실을 신라 내의 제후국으로 포섭하였다.

이처럼 신라 왕실의 삼국 통일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했다. 이는 당나라에서 김춘추의 묘호를 태종이라 한 사실을 문제 삼자 신라 조정이 이에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당의 측천무후則天武后가 신문왕 12년(692) 사신을 보내어 "너희 선왕 김춘추가 우리 태종문황제太宗文皇帝와 같은 묘호를 쓰니, 분수에 매우 넘치는 일이다. 모름지기 빨리 칭호를 고쳐라"고 꾸짖자, 신문왕은 "선왕이 이룩한 '일통삼한一統三韓'의 공이 매우 크기 때문에 태종이라는 묘호를 올린 것"이라고 당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김춘추가 일통삼한의 공을 이루었다는 신라 왕실의 자부심은 후대에도 전승되었다. 경문왕景文王(재위 861~875)이 월악산 월광사月光寺에 머물던 대통大通에게 주지住持를 추인해 준 글에도 "옛날 우리 태종대왕이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것을 가슴 아프게 여기고 삼한을 정복하고 통일을 이룩하였다"며 이 사건을 특별히 기리고 있다.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이 백제와 고구려를 통합한 공으로 신라의 종묘에서 영원히 훼철毁撤되지 않는 불천지주不遷之主로 모셔진 것도 이를 잘 말해준다.

또 신문왕은 기존의 신라인 군단에다가, 새로이 정복한 고구려인, 백제인, 보덕국인(안승의 고구려국) 및 말갈인 등을 중앙군단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최종적으로 신라의 중앙 군사조직인 9서당九誓幢으로 완비되었다. 9서당 중 신라인

으로 편성된 경우는 겨우 3개 군단뿐이고, 나머지 6개는 새로 흡수한 고구려인 3개, 백제인 2개, 말갈인 1개 군단으로 편성되었다. 심지어 중대 왕실은 일본에 사절단을 보낼 때 보덕국報德國(즉 고구려국)이나 숙신肅愼(즉 말갈)의 사절을 딸려 보냈는데, 이 또한 일본에게 신라가 이들 국가와 족속을 현재 지배하고 있음을 과시한 것이었다. 신문왕이 즉위 7년(687) 오묘五廟에 올린 제문祭文에 "이역異域의 사신들이 진기한 보물을 바치고 직공職貢(조공)을 닦는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라촌락문서」와 지방지배

「촌락문서」는 '민정문서民政文書', '장적帳籍' 등으로도 부르는데, 호구 조사 및 세금 수취를 위해 만든 장부帳簿로서, 지방 관아에서 소속 촌락의 경제적 상황을 조사해서 중앙에 보고한 것이다. 현재 남아있는 문서는 효소왕 4년(695)에 서원소경 부근 4개 촌을 조사 정리한 것으로서 당시 신라의 지방지배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최상의 자료이다. 일본의 나라[奈良] 토다이지東大寺 쇼소인正倉院에 전세傳世되다가 1933년에 발견되었다.

「촌락문서」에는 현縣과 촌명村名, 촌락의 규모, 호구의 수, 말과 소의 수, 전답田畓의 규모, 뽕나무·잣나무·호두나무 등의 그루 수가 기록되어 있다. 여러 항목에 걸쳐 매우 상세히 기록된 것은 효율적인 세금 수취를 위해서였다. 이 문서는 3년 주기로 재작성되었고, 전염병이나 기근 등으로 호구에 큰 변화가 있으면 수시로 추기追記되기도 하였다. 이 문서를 통해 당시 중앙정부가 지방 농민들을 통제 지배하는 힘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신라 지방사회의 기층 농민들은 자연 촌락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런 자연촌이 여러 개 합쳐져 행정 단위인 현을 형성하였다. 몇 개의 자연촌을 대표하는 자를 '촌주村主'라고 불렀다. 중앙에서는 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지만, 촌주들의 도움을 받아 촌민들의 세금과 인력 동원 등을 관리·감독하였다. 촌민들은 거주지를 옮길 때마다 세대 또는 개인별로 사안에 따라 전입轉入과 전출轉出 신

고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했다. 지방관은 국가의 수취를 피해 몰래 도망간 자들도 문서에 상세히 기록함으로써 인민을 각 지역단위에 긴박시키려 하였다.

「촌락문서」에 기록된 4개 촌은 전체 호수戶數 43호, 총인구 442명(남자 194, 여자 248)에 노비奴婢는 25명이었다. 촌민들은 다시 남녀별, 신분노비 별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나이의 많고 적음에 따라 노老(노인), 제除(일부 세금이 면제된 자), 정丁(세금을 부담한 장정), 조助(장정을 도울 수 있는 청소년), 추追(소년), 소小(어린이) 등의 여섯 등급으로 나누어 기록하였다. 그 외에 4개 촌은 말 61마리, 소 53마리를 비롯해, 뽕나무 4249그루 등의 경제림도 갖고 있었다. 전답의 규모나 말과 소의 숫자, 그리고 뽕나무의 그루 수로 볼 때 이들 촌락의 경제적 형편은 후대 조선시대의 일반 촌락에 비해 월등히 좋다. 이로 인해 이 문서의 촌락들은 신라 왕실의 재정원으로 특별히 관리된 촌락들이었을 가능

그림 7 일본 쇼소인 소장 신라 촌락문서

성이 제기되고 있다.

「촌락문서」에는 통일기 이후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라 고대적인 인두세人頭稅 체제를 차츰 탈피해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문서를 보면 당시 신라에서는 각 가호家戶의 재산 규모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한 호등제戶等制를 실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전체 촌락이 부담해야할 세금의 양을 계연計烟의 수로 계산해 놓았다. 이러한 9등호제와 계연의 환산 방식은 태종무열왕이 제정한 「이방부격」을 통해 실현된 수취제도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태종무열왕은 통일전쟁의 격화로 농민의 계층분화현상이 심각해지자 농민의 몰락을 방지하고 국가의 세수稅收도 안정화하기 위해 기존의 인두세 중심에서 각 가호의 경제적 형편도 고려하는 방향으로 수취제도를 혁신하였다. 다만 「촌락문서」에는 토지보다 호구에 대한 항목이 양적으로 훨씬 많고 상세하며, 연령등급별 통계가 중요하게 집계되어 있어, 각 가호의 재산 산정算定 기준은 토지보다 장정의 숫자가 더 중요하게 고려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촌락문서」에는 촌주의 공무에 대한 대가對價로 면세지免稅地였던 '촌주위답村主位畓', 지방관아의 운영과 재정을 위해 할당했던 '관모답官謨畓', 관료인 내시령內視令에게 지급된 직전職田이었던 '내시령답內視令畓' 등의 각종 토지 항목이 확인된다. 이런 다양한 토지들은 촌주의 감독 하에 농민들이 경작했고, 생산된 곡식의 일부를 지대地代로 관청 또는 관료에게 납부하였다. 이 시기의 토지 소유 관계는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입각해 관념적으로는 모두 왕의 소유였기 때문에 농민의 토지도 국가가 가호에게 준 토지라는 뜻에서 '연수유답烟受有畓'으로 명명되었지만, 실제로는 사유私有를 인정하고 있어 매매가 이루어졌다.

'꼬리표목간'과 세금의 수취

고대에는 세금을 현물로 중앙에 납부하였다. 이때 관아에서는 납세자納稅者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 납부자의 주소住所, 인명人名, 세액稅額 등을 기록한 꼬리표를 나무로 제작해 세금 꾸러미에 매달았다. 이를 '꼬리표목간' 또는 '하

찰荷札'이라고 한다. 목간은 문자를 기록하기 위해 목재를 다듬어 세로로 길게 만든 나무판을 말하며, 고대 동아시아사회에서 종이가 보급되기 이전에 널리 사용되었다. 더욱이 세금은 최종 목적지인 중앙의 수납처까지 장시간 이동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꼬리표로 내구성이 좋은 나무가 애용되었다.

이 꼬리표목간은 목간 상단에 구멍을 뚫거나, 상단 좌우에 각각 V자 홈을 파서 끈으로 묶어 세금 꾸러미에 매달 수 있도록 가공하였다. 때로는 세금을 포장한 끈이나 꾸러미 자체에 꽂아 넣기 위해 하단을 뾰족하게 깎아놓은 것도 있다. 경남慶南 함안咸安의 성산산성城山山城에서는 560년 무렵에 작성된 500여 점에 달하는 신라의 하찰이 발굴되었다. 이 하찰에는 납세자의 '주소', '이름', '세액'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는 당시 신라가 이들 납세자를 촌별로 파악한 호적戶籍을 작성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신라촌락문서」(695년)보다도 130년이나 앞선 시점에 이미 신라 중앙이 수취를 위해 각 지방의 인민을 조사 등록하였음을 의미한다. 안압지에서도 신라의 꼬리표목간이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목간을 활용한 세금 수송 방식은 통일기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의 행정 관서에서는 주·군·현 단위에서 집계되어 보고된 여러 촌락문서를 토대로 하여 전국의 호구수와 계연수를 집계하고, 각 지방행정 단위의 경제력을 파악하였다. 중앙의 세금 수납 담당 부서인 조부調府나 창부倉部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에 세금과 부역賦役을 부과하고 국가의 여러 가지 수취 정책을 수립하였을 것이다. 각 지방에서는 지방관이 촌주를 시켜 촌락 단위나 납부자가 내야할 세금을 꼬리표목간에 일일이 기록하고 세금 꾸러미에 매달아 중앙으로 수송하였다. 중앙의 수납 관청에서는 비치된 수취 대장과 세금에 부착되어 있는 꼬리표목간을 대조하여 세금 납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였다.

녹읍의 혁파와 중대 지배체제의 한계

중앙과 지방의 행정체계와 수취제도를 정비한 이후 신문왕은 즉위 9년(689) 종래 관리에게 특정 지역의 수취권을 지급하였던 녹읍제祿邑制를 폐지하고 해마다 곡식을 관청에서 지급하는 녹봉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관수관급의 녹봉제는 두품 계층에게는 이미 문무왕대에 실시되었던 조치였지만, 이때에 이르러 마침내 진골을 비롯한 모든 관료에게로 확대되었다. 대체로 녹읍은 해당 지역의 조세를 진골귀족이 국가 대신 직접 받아가는 제도였기 때문에, 녹읍의 혁파는 진골귀족의 지역 지배를 차단하려는 제도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신문왕의 중앙집권화 정책 중에서도 진골귀족에게 날린 가장 강력한 펀치였다.

그런데 같은 해에 신문왕이 왕경을 경주에서 지금의 대구大邱인 달구벌達句伐로 옮기려던 천도 계획은 진골의 반대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수도首都는 기존의 지배체제가 응축된 상징적 공간이다. 신문왕은 진골귀족의 본거지인 경주를 벗어나 중대 왕실의 새로운 공간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이는 중대 왕실의 왕권 강화 정책이 진골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았으며,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중대에 들어와 특히 신문왕대에는 중앙집권력이 현저하게 강화되었고, 새

그림 8 함안 성산산성 목간

롭게 정비된 중앙과 지방의 행정조직을 기초로 왕은 강력한 전제 권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나 이 새로운 정치 운영 시스템을 떠받친 것은 두품 계층의 성장이나 능력을 우선하는 관료체제가 아니었다. 대등회의를 대신한 것은 소수의 특권 진골가문이었다. 특히 김춘추의 아들과 사위, 그 손자들이 재상의 직을 독점하는 등 권력을 농단하였다. 김춘추와 함께 중대 왕실을 연 일등공신이었던 김유신의 손자조차도 성덕왕대聖德王代 초기에 이미 이 핵심 권력에서 배제될 정도로 중대 왕권을 지탱했던 권력 상층은 매우 폐쇄적이었다. 두품 신분층의 관직 진출은 여전히 집권 진골귀족의 천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력은 점점 이들의 손에 집중되어갔다.

중대 왕실의 왕권 강화 정책은 피의 숙청을 거쳐 너무나도 급격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무왕과 신문왕은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매우 가까운 혈족들을 정책 추진의 전면에 내세울 수밖에 없었다. 신라의 정치체제는 애초부터 진골 중심의 폐쇄적인 구조였는데, 중대에 들어와 이전보다 권력의 폭이 더욱 좁아지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정국의 불안은 한층 심화되어갔다. 중대 내내 진골의 반란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런데 이처럼 불안했던 중대 왕권이 신문왕 이후로도 80여년을 더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백제, 고구려의 멸망으로 세금을 수취할 수 있는 지역이 기존보다 1.5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더욱이 통일 전쟁기에 비하면 국방비國防費의 지출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은 그 어느 때보다 튼실하였다. 사실 중대 왕권을 떠받친 것은 강화된 왕권도, 재상직을 독점한 혈족도 아니었다. 권력으로부터 소외된 진골의 불만을 쉽게 잠재울 수 있었던 것은 왕이 그들의 품에 안겨주었던 경제적인 부였다. 녹읍의 혁파가 진골세력의 별다른 저항 없이 진행된 것은 기존의 녹읍에 버금가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녹봉이 진골들에게 반대급부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들의 대저택인 '금입택金入宅'은 말 그대로 금들로 넘실거렸다.

그러나 국가 재정에 문제가 발생해 녹봉이 안정적으로 지급되지 않게 된다면 억눌려있던 진골의 저항은 언제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이것은 곧 현실로 나타났다. 혁파된 녹읍은 70년 만인 경덕왕景德王 16년(767)에 다시 부활하였다.

4 불교 교학의 발달과 문화의 성숙

중대 왕실의 불교정책

중대 사회에서는 불교의 정치이념으로서의 역할은 축소되고, 그 대신 대중들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불교의 사상과 신앙적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로 인해 중고기에 국가불교의 색채를 강하게 띠며 전개되었던 신라불교는 통일 이후 고구려와 백제의 발달된 교학과 교리연구의 성과 등을 수용하고 통합하여 보다 다양한 불교사상을 꽃피워갔다.

신라의 국가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던 중고기에는 전륜성왕이나 진종설眞種說 등 불교적 신성성이 왕실의 권위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백제와 고구려의 거듭되는 외침으로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여왕의 즉위를 반대한 비담의 난을 경험하면서 불교만으로는 더 이상 왕실에 대한 귀족들과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었다.

이에 태종무열왕 이후 중대 왕실은 그 집권의 정당성을 불교적 신성성이 아니라 군주의 도덕적 자질과 백성에 대한 은택恩澤과 덕치德治를 강조하는 유교적 정치이념에서 찾았고, 이후 그 실현을 위해 각종 제도 개혁과 관련 정책

을 펼쳐나갔다. “용龍은 미물로서 국왕에게는 적합하지 않다”는 승려의 권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구로부터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죽어 동해의 용이 되려고 했던 문무왕의 자세에서도 백성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왕자상을 강조한 유교적 수사修辭를 쉽게 읽어낼 수 있다.

그림 9 경주 감은사지 전경

그림 10 경주 문무왕 수중릉(대왕암) 전경

문무왕은 664년 사찰에 재화나 토지를 함부로 기부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내리는 등 불교사원에 부와 경제력이 집중되어 백성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현실을 좌시하지 않았다. 또 669년 불교교단의 승정僧政을 담당하는 관청인 정관政官을 만들었고, 핵심 국가사찰에도 관리 기구를 설치하여 그 건립과 운영을 중앙행정체제 내로 흡수하였다. 불교 사찰과 교단의 문제를 불교계의 자율에 맡겼던 중고기 때와 달리, 중대에는 불교 교단을 국가 관리의 대상으로 흡수 통제해나갔다.

이처럼 중대 왕실은 정치운영의 면에서 불교보다 유교적 원리를 중시하였지만, 그렇다고 왕실이 불교신앙에서 멀어졌거나, 국가의 안녕을 비는 기복처祈福處였던 사찰의 기능을 무시하였던 것은 아니다. 문무왕은 사후에 장례를 불교식으로 치러줄 것을 유언으로 남겼고, 실제로 최초로 다비식이 거행되었다. 중대 왕실에서는 선왕들의 명복을 비는 원찰願刹들도 국가 주도로 왕경의 사방에 건립하였다.

더욱이 중대 초기에는 통일 및 당과의 전쟁으로 민심이 흉흉하였고 정국이 매우 불안정하여 왕실은 밀교의 주술적 의례에 깊이 경도되었다. 문무왕은 679년 밀교승 명랑明朗으로 하여금 당군을 격퇴하기 위한 사천왕사四天王寺 건립을 추진하게 하였다. 또 그의 장지葬地가 될 대왕암 가까이에 국가의 진호鎭護를 위해 감은사感恩寺도 창건하였다. 이 사찰은 신문왕대에 완공되어 국가의 위기를 스스로 알려주는 ‘만파식적萬波息笛’전설의 무대가 되었다. 신문왕은 또한 밀교승 혜통惠通의 건의를 받아들여 봉성사奉聖寺도 건립하였다.

당에 유학하고 돌아온 명랑과 혜통은 단순히 주문을 암송하던 종래의 밀교의식을 탈피하여 신라를 지켜줄 무수한 천왕天王, 신왕神王, 용왕龍王 등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작하여 직접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보다 대중적이고, 감각적인 밀교 작법作法을 시현하였다. 사천왕사 목탑의 기단에 부조浮彫로 표현된 양지良志의 소조상塑造像은 사천왕의 권속眷屬인 신장神將과 야차夜叉를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조각한 것으로, 사천왕신앙을 통해 전쟁의 불안을 치유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기획된 중대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신문왕은 684년 사천왕사를 비롯해 봉성사, 감은사, 영묘사, 황복사 등에

성전成典을 설치하였다. 성전은 사찰의 건립에서부터 사찰의 운영 및 경제적 후원까지도 국가가 책임을 지기 위해 설치한 관청을 말한다. 호국과 왕실 원찰적 성격을 지닌 이러한 '성전사원成典寺院'들은 중대 왕실의 전폭적 지원 하에 번성하였다.

왕실에서는 선대왕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추복追福 사업의 일환으로 성전사원에 거대한 조영물을 건립하였다. 신문왕비인 신목왕후는 돌아간 신문왕을 위해 황복사에 삼층탑을 건립하고 불상을 제작 봉안하였으며, 신목왕후와 효소왕이 죽은 후에는 성덕왕에 의해 이 황복사의 탑 내에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봉헌되었다. 이후 이 경전은 신라 조탑造塔 신앙의 근본경전으로서 큰 각광을 받았다. 한편 경덕왕은 부왕인 성덕왕을 기리기 위해 20톤에 달하는 '성덕대왕신종聖德大王神鍾(에밀레종)'을 만들려고 기획하였으나 여러 차례 실패하였고, 마침내 혜공왕대에 완성되었다.

중대에는 지방에도 사찰이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676년에 새로운 불교사상인 화엄학을 당에서 가지고 돌아온 의상義相은 화엄의 전법도량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영주 태백산에 부석사浮石寺를 창건하였다. 683년에는 재상 충원忠元의 건의에 따라 굴정현屈井縣(경남 양산)의 행정 치소를 옮기고 그 자리에 영취사靈鷲寺를 창건하기도 하였다.

불교의 대중화와 '아미타정토신앙'의 확산

중대에 들어와 불교의 정치적 영향력은 줄어들었지만, 일반 대중의 불교신앙과 신행활동은 더욱 확대되었다. 중고기 때 원광과 자장에 의해 점찰경占察經과 아미타경阿彌陀經 등이 수용 보급되어 대중교화의 기초가 마련되었고, 통일 이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해져 수도 왕경에는 하층민들 중에도 불교신앙에 참여하는 자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중고기 불교가 왕실과 귀족 중심이었다면 통일을 전후해 신라에서는 시장과 마을을 다니면서 서민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불교를 포교했던 소위 여

항불교閭巷佛教를 일으켰던 일군의 승려들이 확인된다.

진평왕대 활동한 혜숙惠宿은 600년 안홍과 함께 중국 유학을 시도했을 정도로 명망 있는 승려였지만, 시골에 숨어살면서 일반 대중들과 함께 수행하였다. 사냥에 빠진 국선國仙에게 자신의 허벅지살을 바쳐 살생의 잘못을 깨닫게 하였고, 국왕의 초청도 거절하며 민중 속에서 불교신앙을 전파하였다. 이후 혜공惠空과 같이 귀족 집안의 머슴 출신임에도 출가하여 교학을 발전시킨 이도 나타났다. 그는 승려가 된 후 작은 절에 살면서 삼태기를 눌러쓰고 길거리에서 춤을 추고 노래하며 대중들과 함께 지냈다. 대안大安도 교학으로 이름이 높은 승려였지만 왕실의 초청을 거부하고 스스로 미친 척하며 거리에서 일반 대중과 어울려 지냈다.

이러한 불교 대중화 흐름에서 원효元曉는 가장 빛을 발하는 인물이었다. 신라 교학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명승임에도 불구하고 불교적 실천에는 승속僧俗 어디에도 차이도 장애도 없음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환속하여 소성거사小性居士라 자호하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춤과 노래로 광대놀이를 하며 불법을 전하였다. 특히 그는 중생들이 염불을 통해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아미타정토신앙'을 설파하였다. 원효로 인해 "미천한 이도 불교를 알게 되었고, 십에 여덟아홉은 아미타불을 염송하게 되었다"는 칭송이 전한다.

통일기에는 노비가 서방정토에 왕생했다는 사례가 등장할 정도로 아미타신앙이 사회구성원 전체로 확대되었고 아미타불상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제작되었다. 아미타신앙이 널리 유행했던 것은 간단한 염불만으로도 극락에 왕생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 일반인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거기에 현세의 고통과 그 소리를 늘 보고 들어주시는 '관음보살신앙'이 서민들의 마음에 파고들면서 『법화경法華經』이 사회 전반에 널리 읽히기 시작하였다. 분황사의 천수관음千手觀音에게 빌어 눈먼 자식이 눈을 떴다는 내용의 향가는 당시 관음신앙의 유행을 그 무엇보다도 잘 대변한다.

원측과 유식사상의 발달

통일을 전후해서 신라인들은 중국은 물론 멀리 인도에까지 직접 불법을 배우기 위해 머나먼 구도求道의 길을 떠났다. 아리야발마와 혜업은 신라인으로서 인도 부다가야의 보리사와 마라난타사에서 불경을 연구하다 결국 귀국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성덕왕대에 혜초慧超는 중국을 거쳐 인도와 서역 여러 나라의 불교성지를 순례한 뒤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아리야발마, 혜업, 그리고 혜초慧超의 사례는 당시 신라인들의 해외 구법 활동이 매우 활발했음을 알려준다.

이로 인해 중대에는 당과 인도로부터 직수입된 많은 불교이론들이 연구되어 한국 불교사에서 가장 이채로운 교학의 전성기를 연출하였다. 특히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수립했던 원측, 의상, 원효 등의 불교학은 중국과 일본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동아시아 불교학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교학연구에서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낸 이는 중국의 유식사상을 발전시킨 원측(613~696)이었다.

동아시아 불교학에서는 남북조시대 이래로 모든 사람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는 '여래장如來藏'사상이 널리 받아들여졌다. 당시 중국에서 유행했던 섭론攝論 계열의 유식학에도 이러한 여래장사상이 혼입되어 있었다. 그런데 645년 인도에서 직접 유식사상을 연구했던 현장玄奘(600~664)이 귀국하면서, 기존의 섭론학에 큰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현장은 유식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잘못된 인식을 탐구하고 설명하는 학문으로, 인도에서는 유식과 여래장 사상이 엄격히 다른 것이며, 애초 유식과 여래장이 구분되어 있었던 초기의 지론학地論學이 보다 옳았음을 논증하였다.

원측은 진평왕대에 어린 나이에 중국에 유학 가서 이미 섭론학에 조예가 깊었지만, 현장의 귀국을 계기로 구유식舊唯識의 잘못을 인식한 뒤 현장의 신유식新唯識마저도 소화하는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또 인도와 서역 여러 나라의 언어에 밝아 현장의 불경 번역 사업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 현장은 자신이 가지고 온 불경의 번역에 집중하느라 신유식을 설명하는 저술을 남길 겨를이 없었는데, 원측이 현장이 번역한 신유식의 경론들에 주석註釋을 가해 신유식의 이론을 체계화하였다. 이로 인해 현장에게 신유식을 배운 규기窺基 등의 신진 제자들에게 미움을 받아 현장의 사상을 도용했다는 흑색선전의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658년 이래 당 황실의 적극적인 후원 하에 서명사에 주석하면서, 규기의 자은학파慈恩學派에 버금가는 서명학파西明學派라는 일가를 이루어 유식

그림 11 중국 서안 서명사 원측탑

학자로서의 그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였다.

원측은 애초 중관中觀의 입장을 수용하고 있는 구유식 사상으로 공부를 시작하였기 때문에, 현장의 신유식과 달리 중관과 유식의 공空·유有 대립적 입장을 폭넓게 포용 이해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지녔다. 원측의 유식사상은 구유식의 틀에 논리적인 신유식의 이론을 가미하여 완성한 이론체계였다. 원측의 유식사상은 제자인 도증道證이 692년에 신라로 귀국하면서 신라로도 전래되었다.

특히 도증의 제자인 태현太賢은 『성유식론학기成唯識論學記』 등 많은 저술을 통해 원측의 이론에다가 현장을 계승한 자은 규기의 학설까지 결합하고 화엄학의 견해도 참조하여 독창적인 신라의 유식사상을 완성하였다. 원효元曉 역시 중관과 유식의 비량比量이 같음을 논증하는 『판비량론判比量論』을 짓고, 공유의 쟁론이 언설에 집착한 데서 왔음을 지적하며 이에 집착하지 않는 초월적인 자세를 강조하였다. 원효는 현장이 번역한 논서의 내용을 이전의 유식학 논서들과 대조하여 종합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주로 구유식의 입장에서 신유식을 이해하려는 입장이었다.

의상과 화엄학의 발달

유식학과 함께 중대의 불교학을 대표하는 학문은 화엄학이다. 화엄학은 『화엄경華嚴經』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모든 존재의 상호연관성을 강조했던 사상으로서 당나라 초기에 지엄智儼(602~668)에 의해서 기본적 이론체계가 확립되었다. 화엄학은 여래장사상을 비판했던 현장의 신유식에 대항하여, 부처와 중생의 동일성을 '법계연기法界緣起'를 통해 해명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중국 고유 불교학의 탄생을 알리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신라의 화엄학은 문무왕 원년(661) 당에 유학하여 지엄 문하에서 배우고 귀국한 의상(625~702)에 의해 수용되었다. 의상은 진골 출신으로 귀국 후 황복사에 머물다가 얼마 후 문도들과 함께 태백산으로 들어가 부석사를 창건한

뒤 화엄학을 강의하며 지냈다. 의상의 화엄학은 그가 지은 『화엄일승법계연기도華嚴一乘法界緣起圖』에 잘 나타나 있다.

화엄사상의 핵심을 7언 30구의 시로 요약한 법계도는 문장이 중심에서 시작해서 상하좌우로 회전하는 일종의 도표 모양을 하며, 검은 글자는 중생을, 글자를 관통하는 붉은 줄은 부처의 깨달음을, 흰색 종이 바탕은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상징한다. 이는 중생의 세계가 곧 부처의 세계이며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들이 상호 연관 연결되어 있는 일승법계一乘法界의 연기緣起 구조임을 표상한 것이다. 즉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것도 존립할 수 없으니, 일一과 다多의 상입상즉相入相即을 설하여 마침내 중생과 부처가 동질적임을 논증하였다. 법계연기는 현상세계의 차별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서로 의지함으로써 각각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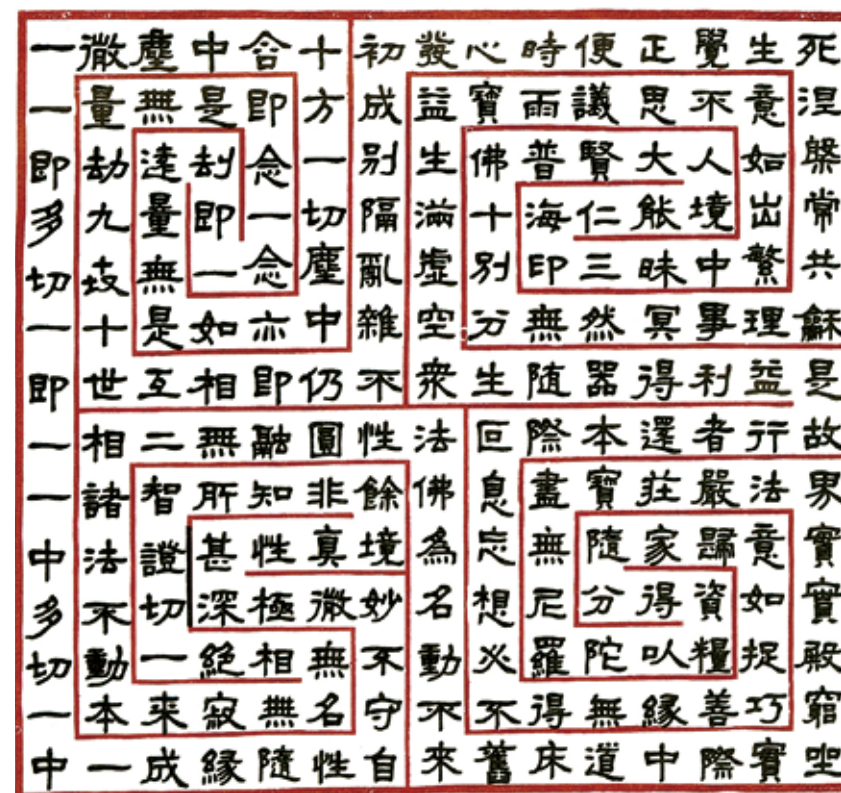
그림 12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

은 모두가 차별이 없는 중도中道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로 인해 의상은 모든 이의 평등성과 조화를 강조하여 대중들에 대한 교화를 실천해갔다. 의상은 문도들에게 석가의 평등 교단敎團을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의상의 제자 중에는 진정眞定과 지통智通처럼 하층민이나 심지어 노비 출신자도 존재하였다. 다원성으로 사회를 포용하는 화엄사상은 갈등과 모순을 한 차원 높게 인식하여 통일기 사회의 안정적 분위기 형성에 기여하였다. 의상은 지방인 영주의 부석사에서 대중교화와 문도양성에 진력하였기 때문에, 수도 경주의 불교계에는 그다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당시 중심 교단은 밀교와 유식학파가 주도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후 중대 말 경덕왕대에 의상의 손제자였던 표훈, 신림 등이 왕실과 연결되면서 이후 의상의 화엄학은 신라 교학의 중추로 발전해가게 된다. 그러나 유식학자들이 다양한 이론을 공부하고 여러 경전에 주석을 붙였던 것과는 달리 의상의 문도들은 의상이 그랬던 것처럼 화엄 교학의 체계화보다는 구체적 실천을 중시했다.

원효의 '일심'사상과 화쟁론

중대 신라 불교 교학에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은 바로 원효(617~686)였다. 원측과 의상을 비롯한 유식과 화엄의 연구자들은 중국에 가서 직접 배웠거나 중국에서 들여온 이론에 토대를 두고 자신의 사상을 전개해갔다. 그러나 원효는 중국에 유학하지 않고, 또 중국의 불교학과도 구별되는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구축하였다. 그의 사상은 오히려 중국과 일본의 승려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어 후대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원효는 압량군(오늘날의 경북 경산)의 두품 관인층 집안에서 태어났다. 650년 의상과 함께 중국 유학을 시도했지만, 고구려군에게 간첩으로 오인을 받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의상과 함께 백제 지역으로 옮겨와 있던 보덕을 찾아가서 『열반경涅槃經』을 수학하였다. 열반경은 불법의 모든 가르침들이 결국 하나로 귀결되며 중생들이 모두 참다운 가르침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일승一乘' 사상을 설파한 대표적인 경전이다. 원효는 뒤이어 의상과 함께 재차 유학길에 올랐지만 밤중에 해골 섞은 물을 달게 마신 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전하고 있다. 이후 원효는 신라에서 현장의 신역 경전과 주석서들을 스스로 학습 연구하여 이를 재래의 교학과 대조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또 일반 사회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 백성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보살의 중생제도衆生濟度를 몸소 실천하였다. 원효는 661년 나당연합군의 고구

그림 13 원효의 판비량론

려 평양성 공격에 참여하여 암호해독을 도와 신라군을 위기에서 구하였고, 마침내 환속하여 태종무열왕의 딸인 요석궁주와 결혼하여 설총을 낳았다. 이는 대중교화를 중시했던 원효의 실천 수행과 위민爲民을 지향했던 중대 왕실의 정치적 의도가 상호 공감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원효가 중국에 가지 않고 보덕 등에게서 배운 일승사상은 현장이 신역한 유식학과는 서로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 특히 유식학은 성불할 수 없는 중생이 있다는 '오성각별설五性各別說'을 주장하여, 모든 중생의 성불을 강조하는 일승사상과는 서로 모순되는 입장이다. 이에 원효는 일승사상과 유식학의 사상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의 사상체계에 주목하였다.

『기신론』에는 이 책이 인도의 경전을 양무제梁武帝 때 번역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 책은 내용상 인도보다는 중국에서 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동아시아 불교계가 이 책에 크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원효가 이 책에 대해 남긴 독특하고 절묘한 주석서 때문이다. 원효 이전 수나라와 당초에 이미 이 책에 대한 주석서가 나왔지만, 후대에 미친 영향력은 원효의 주석서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기신론에서는 일체 존재들은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마음, 즉 일심의 발현이며, 그것은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구분되지만, 양자는 동일한 마음의 고요한 측면과 움직이는 측면을 구분한 것으로 실제로는 하나로 동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원효는 이러한 기신론의 사상을 기초로 하여 여러 불교 이론을 종합하였다. 원효는 기신론이야말로 "여러 논서들 중에서 우두머리요, 많은 노쟁을 없앨 수 있는 주인이다"고 선언하였다. 원효가 불교 대중화에 뛰어든 승속불이僧俗不二의 모든 행동도 세간과 출세간의 모든 존재들이 일심의 발현과 다를 바 없다는 그의 사상을 몸소 실천한 것에 다름 아니라 할 수 있다.

『기신론起信論』을 바탕으로 '일심'사상을 설파한 원효의 사상은 동아시아 불교학에서 그 독자적 위상을 확보한 신라 교학 연구의 정화精華라고 할 수 있다. 원효는 열반과 섭론을 통해 익힌 여래장사상을 심화시켜 이를 바탕으로 기신론의 일심사상으로 나아갔다. 원효는 『기신론소』, 『금강삼매경론』, 그리고 『화엄경소』 등을 저술하여, 일체의 법이 시공에 걸림이 없이 상입상즉하는 광탕廣蕩한 세계임을 말하였다.

이와 같이 원효는 『기신론』과 『금강삼매경론』에 의거하여 서로 대립하는 이론들은 진리를 서로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불교의 근본 목적은 차별을 초월한 절대적 진리인 일심을 체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서로 대립되는 이론들이 실제로는 대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한 원효의 '화쟁론'도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나온 것이다. 원효는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에서 당시 불교학에서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개념들이 실상은 동일한 진리의 모습을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법에 의해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진리의 참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언어의 개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불교 교학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좀 더 높은 차원에서 화쟁 통합하려고 하였다. 원효의 저술은 중국과 일본, 심지어 인도에까지 전해져 큰 영향을 끼쳤다.

삼국통일을 이룩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지향하던 신라에서는 이처럼 활발한 국가의 불교교단에 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불교 교학 연구에서도 큰 성과를 이룩하였다. 유식과 화엄 그리고 여래장 사상을 중심으로 전개된 신라 불교계의 사상적 추구는 상호 연관을 보이면서 신라 불교철학을 한 단계 발전시켰다. 통일 이후 전개된 이러한 신라 불교계의 역동적인 면모는 이후 불교 교단이 왕경 중심에서 지방사회로 확산되어갔던 첫출발이기도 하였다.

한편 신라 교학의 융성은 인쇄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의상의 『일승법계도』는 애초 판각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하려던 의지가 확인되며, 이는 결국 불국사 석가탑에 봉안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의 목판인쇄술로 나아가게 된다. 이 시기 중국이나 일본의 판각술은 대체로 스템프 수준이었는데, 석가탑에 봉안된 다라니경은 후대의 목판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인쇄되었다는 점에서 신라 인쇄술의 기술적 성취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도성의 경관과 성전사원

신라 수도인 도성의 사방 입구에는 웅대한 '성전사원'이 건립되었다. 남쪽에는 사천왕사四天王寺, 북쪽은 봉성사奉聖寺, 서쪽은 영묘사靈廟寺, 동쪽은 봉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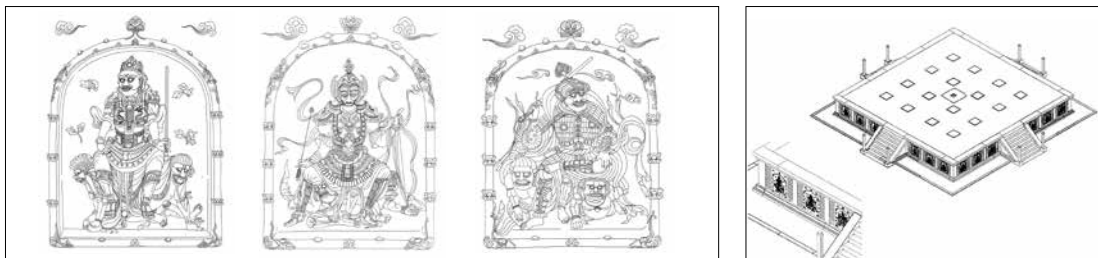
그림 14 경주 사천왕사지 출토 소조신장상(상)과 드로잉

사奉德寺가 자리잡고 있었다. 지금은 사찰이 무너져 그 찬란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사천왕사의 탑을 장식했던 사실적인 조각의 녹유신장전綠釉神將塼이나 봉덕사에 걸려있었던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을 생각하면 이 사찰들의 위용을 충분히 상상하고도 남는다.

사천왕사는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끈 정신적 귀의처였다. 사천왕사 위 낭산狼山에 있었던 선덕여왕의 장지葬地가 도리천忉利天으로 표상되었듯이, 사천왕사는 수미산 정상의 도리천으로 올라가는 불국토 신라의 입구, 경계 지점으

로 인식되고 있었다. 결국 사천왕사는 신라 왕경王京의 남방 끝에 불과한 공간이 아니라, 밀교의례 속에서는 불국토 신라의 입구이며, 이곳은 사천왕四天王이 지키는 불국토의 경계 지점이었다.

이후 봉성사奉聖寺 창건으로 시작되는 밀교승 혜통이 주도한 신문왕대의 새로운 성전사원체제는 사천왕四天王으로 수호되는 신라 불국토를 더욱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왕경의 사방四方에 성전사원을 건립해간 과정이었다. 신라 중대 왕권은 밀교의 만다라적 세계관을 도성 사방에 위치했던 성전사원을 통해 구현하고, 수도 경주를 천하의 중심, 사천왕四天王으로 수호되는 불국토의 중심으로 창출하려고 하였다.

도성의 사방에 설정된 성전사원은 이곳에서 다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관도官道를 따라 천하 9주와 연결된다. 또 지방인들은 도성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이들 '성전사원'을 처음 대면한다. 성전사원에서는 왕실이나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는 여러 국가의례가 거행되었다. 상경하는 지방인들은 화려하고 숭엄한 불교사찰과 그 의례에 압도되어, 영원불멸하는 신라 왕권을 상상하였을 것이다.

또한 도성의 사방 경계에서는 역병疫病 등 도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정不淨을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도로의 신에 대한 제사도 베풀어졌다. 이때 음습한 기운을 막는 양물로써 남근男根을 일으켜 세웠다. 이것이 훗날 마을 경계의 성표가 되는 '장승'의 기원이 되었다. 신라의 도성은 사방 경계에 건립된 성전사원이나 도로에서 베풀어진 사악한 것들을 내쫓는 벽사 의례를 통해 지방과 격절隔絶된 신성한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도성은 이러한 경계지점의 독특한 비일상적非日常的 경관을 통해, 비로소 도성인과 지방인 모두가 느끼고 의식하는 중심의 장場으로 승화되었다.

이처럼 신라는 수도였던 경주 도성의 독특한 경관과 상징적인 의례를 통해 국가권력의 위엄과 중심을 연출하였다. 도성은 마치 거대한 '극장'과도 같다. 도성이라는 '무대장치'에서 베풀어진 국가의례는 세금을 운반하여 상경上京하는 지방인에게도, 도성에 거주하는 관료들에게도, 똑같이 거대한 권력을 체감케 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국왕에 대한 충성과 복속의식을 불러일으키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신라 중대 왕권은 기본적으로 당과의 사대적인 관계를 유지하려한 점이 있지만, '태종太宗' 무열왕의 묘호廟號 문제로 알 수 있듯이, 대제국인 당과의 싸움에서

얻었던 자신감 또한 잃지 않았다. 성전사원에 기초한 신라의 독자적인 국가의례는 '호국護國과 왕실王室의 영속永續'을 기원한 중대 왕권의 의지 속에서 창출되었으며, 중대왕실은 그러한 의례를 통해 신라국가를 천하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그것을 지배하는 자신의 절대성을 시각적으로 과시하려 하였다.

문서행정의 발달과 이두의 창안

신라에서는 관청 사이에 문서행정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달해 있었다. 문서는 한자漢字로 기록되었지만, 한문은 아니었다. 우리말은 존칭, 시제時制 등의 어미語尾와 조사가 발달한 교착어膠着語이고, 또 한문은 우리말과 어순이 달라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신라인들은 순수 한문을 체득해나가는 것과 동시에, 한자를 빌려 자신의 말을 표현하는 새로운 문자체계인 '이두吏讀'를 창안하였다.

신라인들은 빽빽하게 줄지어 늘어선 한문 사이사이에 '빈칸'을 상상하고, 그 속에 자신만의 구두句讀, 조사助辭, 그리고 어미語尾 등을 착상着床시켜, 한문을 교착어로 전환 번역하는 표기 방법을 개발하였다. 이로 인해 이두 표기는 기본적으로 어간語幹은 석독釋讀하고, 그에 이어붙이는 어미나 조사는 음독音讀하는 '훈주음종訓主音從'의 표기법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이는 한문경전을 해석하기 위해 한문 사이사이에 토吐를 다는 방법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6세기 중반에 이미 신라의 문자자료에서는 같은 시기 고구려, 백제의 그것들과는 달리 우리말의 다양한 '조사'나 '선어말어미先語末語尾' 등을 한자를 이용해 표기해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확인된다. 고구려에서 6세기에 들어서면서 우리말 표기법 자체가 정체 또는 퇴조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신라에서는 오히려 더욱 발전하고 있었던 셈이다.

신라인들은 7세기 말 이전에 이미 자신의 말을 한자를 이용해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 신라에서는 문장의 끝에 '之(-다)'를 기록해 종결사를 표현했던 고구려식의 표기법을 뛰어넘어, '과거형어미', '존칭형어미' 등 선어말어미의

표기법도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말로 '보다'는 한문의 '볼 견見'자를 빌려와 어간으로 석독훈독하고, 어말어미 '-다'는 '之'를 음독하여 어간 보見에 덧붙였다. 즉 '見之(보다)'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원리를 발전시켜 '보았다'는 과거형어미인 '在'를 어말어미 앞에 삽입하여 '見在之(보았다)'로, '보셨다'는 존칭형어미인 '賜'를 과거형어미 앞에 삽입하여 '見賜在之(보시었다)'로 기록하였다.

후대의 향찰鄕札과도 하등 손색이 없는 이러한 완숙한 이두 표기가 7세기 중반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삼국통일 이후 신라는 당나라 율령의 문서식文書式을 수용하면서도 그 문서의 내용만은 이두로 기록하는 신라 독자의 문서식을 창안하였다. 이는 고려와 조선에도 영향을 미쳐 후대의 관문서들이 모두 한문이 아닌 이두로 기록되는 전범을 탄생시켰다. 한문 작성과 사용이 능숙해진 조선에서까지 이두로 문서를 기록했던 점으로 볼 때, 신라인들이 한문 찬술능력이 뒤떨어져서 이두를 발명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자신의 말로 그대로 표기하고자하는 의지의 발로에서 이두가 창안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신라인들은 중국 전적典籍의 한문 문장 사이사이에 구두점과 해석의 순서 등을 표시하거나, 이두를 간략히 기호화하여 조사나 동사 어미 등을 한문 문장의 사이사이에 적어, 한문을 읽으면서 우리말로 곧바로 직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한문 사이의 토를 구결口訣이라고 하며, 이를 집대성한 이가 바로 설총이었다. 설총은 유교경전에 구결을 달아 국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신라의 이두와 구결은 후대 일본의 '가타카나片假名'와 '오코토점ヲコト点'의 연원淵源으로서, 고대 동아시아의 한자수용과 번역의 역사를 새롭게 쓸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다.

목간으로 본 궁중의 일상

목간에 기록된 내용은 개인의 간단한 글자 연습에서부터 국가의 복잡한 행정문서에 이르기까지 고대사회의 각종 기록물이 모두 확인된다. 목간의 기록내용은 단편적인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당대當代의 살아있는 정보와 어휘를

담고 있다. 특히 왕궁의 후원이었던 안압지(월지)나 왕궁인 월성의 해자垓字 등에서 발굴된 목간들은 그동안 자료부족으로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신라 궁중의 일상에 관해 소상히 알려준다.

우선 안압지 출토 '문호목간門戶木簡'을 통해 신라 왕궁의 경비시스템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신라에서는 우선 각 궁문 별로 경비를 세울 사람들을 정하고, 이어 궁문 별로 경비의 이름들을 적은 문호목간을 제작하였다. 또 이러한 경비를 제대로 서고 있는지 감독자가 문호목간을 들고 직접 경비의 실제 실행 여부를 체크하였다. 이렇게 체크한 목간은 이후 경비의 식료지급에 활용되었다. 문호목간을 활용한 궁문의 경비시스템은 고대일본에도 영향을 주어 신라와 동일한 양식의 문호목간이 일본의 고대 궁궐에서도 발굴되고 있다.

왕궁인 월성의 해자에서는 '의약처방전'을 기록한 목간이 발견되었다. 안압지에서도 의약처방이 기록된 8세기대의 목간이 출토된 바 있지만, 이 월성해자 목간을 통해 신라에서는 이미 6세기부터 중국의 의서醫書를 학습하고 있었고, 약재효용과 조제 용량을 숙지한 의약처방이 시행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다. 「진흥왕순수비」(568년)에 보이는 '약사藥師'들이 바로 왕이나 귀족을 위해 이러한 처방을 내린 인물들이었다.

그림 15 월지 출토 목간

안압지에서 출토된 음식물 단지에 매달려 있었던 꼬리표목간에서는 '식해醢'와 같은 수산가공물의 이름이 많이 확인된다. 서해안지역에서는 소금이 풍부해 젓갈류가 많이 만들어졌다. 반면 경주가 위치한 동해안 지역은 소금이 부족해 곡물로 발효해 삭힌 수산물 식해류醢가 많이 만들어졌다. 안압지목간에 '식해醢'가 많이 보이는 것도 이러한 점과 상통한다. 이러한 식해 목간들 중에 보이는 '고성해高城醢'는 오늘날에도 동해안 지역 일원에서 많이 만들어 먹는 '가자미식해'로 추정된다.

당시 신라왕실에서는 이러한 수산가공물을 큰 항아리나 작은 병에 담아 창고에 보관하였는데, 삭히는 음식이라 제조일자를 명확히 꼬리표목간에 기록해 발효기간을 고려하여 숙성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압지 꼬리표목간들을 통해,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신라 궁중의 조리법과 음식문화까지도 연구할 수 있는 지평이 열리게 되었다.

그림 16 공중에서 내려다 본 경주 월지 전경

5 국제관계의 변화와 중대 왕권의 몰락

당과의 관계 개선

한반도에서 백제, 고구려가 멸망한 삼국통일전쟁은 한반도의 고대국가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당, 유목세계의 거란과 말갈, 그리고 일본까지도 직·간접으로 개입한 고대 동아시아의 세계대전이었다. 특히 신라와 당은 문무왕 8년(668) 이후 신라의 백제 고지 점령과 고구려유민에 대한 통합정책으로 인해 서로 크게 대립하게 되었고, 나당전쟁으로 비화되었다. 이로 인해 문무왕 8년 이후 성덕왕 2년(703)까지 양국은 사실상 국교단절 상태였다.

당과의 관계가 단절된 7세기말~8세기 초 신라에는 자기중심의 소제국관小帝國觀이 성립하였다. 신라왕이 고구려의 왕족 안승을 금마저에 안치하고 '고구려왕(후에 보덕국왕)'으로 책봉한 것이나, 천하를 의미하는 '9주'로 지방을 편성한 것, '상표上表-조서詔書'와 같은 황제급의 문서행정, '태종'이라는 묘호 등으로 볼 때, 비록 문무왕~신문왕대 초반에 한정된 짧은 기간이었지만, 신라에서도 자신을 세계의 중심으로 위치지우는 이념적, 제도적 작업들이 진행되었던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신라는 책봉국인 고구려(보덕국)의 사절단을 자신의 호위 하에 일본에 여러 차례 파견하였고, 숙신인肅愼人을 자신의 사절단 속에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이는 신라가 고구려, 숙신(말갈) 등을 지배하고 있는 소제국임을 일본에 과시한 것이다. 심지어 신라에 온 일본사절단도 번국으로 표상되어, 신라에 조공하는 형식의 외교의례를 행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의 압박 하에 있던 돌궐, 말갈, 거란, 해 등 동북아시아의 여러 민족이 부흥하는 7세기말을 기점으로 당에게 불리해진 국제정세를 이용해 신라는 당과의 냉전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려고 하였다. 신문왕 3년(683) 신라는 보덕국의 안승에게 김씨 성을 하사하고, 왕경에 거주케 하였다. 이 조치는 당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신라 내부의 책봉국적 지위를 지닌 보덕(고구려)국을 없애려고 한 것이다. 이에 기인하여 동왕 4년(684)에는 보덕국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이후 신라가 이를 진압하면서 신라 내부의 '소고구려'국은 완전히 소멸되었다. 신문왕은 6년(686) 당에 사신을 파견하여, 『예기禮記』를 청하였고, 이에 측천무후는 「길흉요례吉凶要禮」를 내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신문왕이 당과의 화해를 모색하고, 당의 세계질서와 예적 형식을 받아들이려는 의도 하에 단행한 사전조치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대조영大祚榮이 영주를 탈출해 당의 추격을 뿌리치고 말갈과 고구려의 유민을 규합하여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한 698년 이후, 당은 신라와 더 이상 냉전적 갈등관계를 견지하기 어려운 국제적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어 성덕왕(702~737)과 당현종(712~755)의 시대에는 발해의 세력 확장과 발해와 당의 전쟁을 계기로 신라와 당의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져 나당전쟁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

발해와 당의 전쟁과 신라의 참전

719년에 대조영(발해 고왕)이 죽고 맏아들 대무예大武藝, 즉 무왕이 즉위하였다. 그는 즉위 후 인안仁安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독립국가로서의

위상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여러 말갈 부족을 통합하는 등 영토 확장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의 시호가 무왕인 것도 생전에 무력정벌에 커다란 업적을 남겼음을 의미한다. 『신당서新唐書』 발해전에 의하면, "무예가 즉위해 크게 영토를 개척하자, 동북의 여러 오랑캐가 두려워서 신하로 복속하였다."고 전한다. 신라가 성덕왕 20년(721) 7월 북쪽 국경에 장성長城을 쌓았던 것도 바로 무왕의 영토 확장 정책과 관련이 있다.

또한 727년에는 발해가 처음으로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때의 외교문서를 보면, "욕되게 여러 나라를 주관하고 외람되게 여러 藩國을 아우르게 되어,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풍속을 계승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무왕의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 이때 발해가 일본에 사절단을 보낸 것은 당과 가까워진 신라를 견제하려는 측면이 강하였다. 당시 발해는 동북쪽의 흑수말갈黑水靺鞨 문제를 둘러싸고 당나라와 대립하였다. 발단은 무왕의 정복에 위협을 느낀 흑룡강 유역에 있던 흑수말갈이 사신을 당나라에 보내면서 비롯되었다. 당현종은 이들 지역을 당의 영토로 간주해 흑수주黑水州로 삼고 통치관을 파견하였다. 발해는 당의 이러한 조치를 발해를 앞뒤에서 협공하는 적대적인 정책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무왕은 이러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일본과 국교를 맺으려 하였고, 726년에는 아우 대문예 등을 시켜 흑수주를 무력으로 정벌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대문예는, 무모한 흑수 토벌이 발해의 자멸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벌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무왕이 뜻을 꺾지 않자 대문예는 할 수 없이 흑수부로 진격하였는데, 국경선에 이르러 다시 한 번 토벌의 철회를 간하였다. 이에 노한 무왕은 사촌형인 대일하大壹夏를 보내어 군의 통솔을 대행시키고 대문예를 소환하려 하였다. 이에 대문예는 당나라로 망명하였다.

대문예의 송환교섭을 둘러싸고 당나라와 발해 간에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다. 732년 무왕은 장군 장문휴張文休를 시켜 산동반도의 등주登州를 공격하고 자사刺史 위준韋俊을 살해하였다. 이에 당나라도 대문예를 유주로 보내 군대를 징집해 발해를 쳤다. 또 태복원외경大僕員外卿 김사란金思蘭을 신라로 보내 733년(성덕왕 32)에 발해의 남쪽 국경지대를 공격하게 하였다. 당시 당의 힘만으로는 발해를 완벽히 제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발해의 남쪽에 있던 신라를 끌어들여 이이제이의 방법으로 발해를 제어하려 하였던 것이다.

신라는 발해의 남하를 저지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 당과 불편했던 관계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신라는 발해를 공격했으나 큰 추위와 많은 눈이 내려 병사들이 반 이상이나 동사凍死하여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되돌렸다고 당에 보고하였지만, 실제 신라는 발해와 당의 싸움에 전력을 기울여 당을 도우려 하였던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신라의 전략은 애초 대조영이 영주를 탈출해 당나라와 긴장관계에 있었을 때, 그에게 '대아찬'이라는 신라의 벼슬을 내려 그의 정착을 도왔던 사례와 같이 이미 발해 건국 초기부터 견지하여온 정책이었다. 성덕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재정립하고, 또 발해의 남하만을 저지하는 수준에서 발해와 당의 갈등을 조장 또는 관망하였다. 결과적으로 신라의 이러한 정책은 유효하였다. 735년 신라는 당의 이이제이를 역이용해 이때 당으로부터 패강(지금의 대동강) 이남을 신라의 땅으로 인정받았다. 나당전쟁은 이때 비로소 공식적으로 종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발해 무왕 사후 그의 아들 문왕이 즉위하면서 당도 결국 발해와 화해하게 된다. 당이 문왕을 '발해국왕'에 책봉하였고 발해와 당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왔다. 나당전쟁 이후 격동하던 동아시아 세계에 이제 당나라를 축으로 신라, 발해, 일본 등이 공존하는 비교적 안정된 국제 관계의 틀이 정립되었다. 각국 간에는 사신 왕래가 빈번해졌고 민간 차원의 교류도 늘어났다. 그런 가운데 신라와 발해 및 일본은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자국의 발전에 힘써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다.

신라와 발해의 관계

신라와 발해는 서로 교류하고, 경쟁하면서 220여 년을 병존한 이웃나라였다. 최근 발해를 한국사에 포섭하기 위해 신라와 발해 사이에 동족의식이 존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러한 비약은 오히려 한국사의 체계화에 역

기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신당서』에는 신라인들이 발해인은 톱날같은 이빨과 날카로운 손톱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야만인이라고 멸시하였던 사실이 전한다. 또 신라인들은 애초 길쌈시합이었던 가배嘉俳에서 기원한 추석 명절을 언젠가부터 발해를 물리친 전승일로 기념하는 등 발해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드러내었다. 최치원도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암적인 존재라고 표현한 외교문서를 당에 보내었다. 이러한 자료로 볼 때, 신라인들은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적대적인 국가로 인식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중국측 자료에 의하면 발해에는 이웃나라로 나가는 다섯 개의 중요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 중의 하나로 '신라도'가 거론되어 있다. 신라도는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上京에서 동경東京, 그리고 남경南京을 거쳐 신라의 천정군泉井郡(지금의 함남 덕원)에 이르는 길이다. 당시 두만강 유역에 있었던 발해 동경에서 신라의 천정군 사이에는 39개의 역驛이 있었고, 그 사이에 발해의 남경이 위치하였다. 신라도를 통하여 발해와 신라가 접촉하였던 구체적인 사실은 『삼국사기』에서 두 번 확인된다. 또 당나라 사신 한조채韓朝彩가 이 신라도를 따라 발해에서 직접 신라로 들어갔다는 일본 측의 기록도 남아있다. 이 교통로는 발해와 신라를 잇는 기능만 했던 것이 아니다. 때로는 발해 사신이 일본으로 가는 경로로도 사용되었다. 즉 777년 1월에 발해 사신이 남경의 토호포吐號浦를 출발하여 일본으로 향하였다. 이처럼 발해와 신라 사이에는 사절 파견이 없지는 않았지만, 경제적 교역이나 우호적인 상시적 외교관계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삼국사기』에 보이는 두 번의 사절 파견이나 발해 자료의 신라도를 근거로 동족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과의 '조공'무역

성덕왕 이후 전개된 신라와 당의 조공책봉 관계는 고대 중국의 정치적 이상인 왕도사상이 외연으로 확대된 것이다. 이를 주변 세계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중국과 주변국가 간의 형식적인 신속 관계를 기초로 평화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국제질서가 확립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 속에서 신라 왕권도 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 신라는 성덕왕(702~737) 재위 기간에만도 45회의 대당 교섭을 행할 정도로 양국의 인적 물적 교류는 가히 폭증이라 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신라는 당과의 교류과정에서 성당盛唐의 문물을 수용하고 서역 문화와도 접촉함으로써 문화의 질적 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신라는 당으로부터 '군자君子의 나라', '인의仁義의 나라'라는 칭송을 들을 정도로 문화와 사상이 날로 성숙하였다.

당과의 외교관계는 단순한 사절의 왕래에 그치지 않았다. '조공'이라는 형식을 통해 정치적 문화적 교류뿐만 아니라 물적 교류, 즉 교역交易이 활성화되었다. 당과의 공적 교역은 다시 신라를 매개로 일본 지역으로 확장되었다. 통일 전 신라의 조공품은 주로 토산물이었으나, 통일 이후에는 그 구성이 풍부해지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제품이 더해졌다. 예를 들어 문양을 실제와 방불하게 수놓은 모직 카펫이나 살아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움직이는 만불상 등 미니어처 제품은 너무나도 경이로워 당 황제까지도 놀랄 정도였다.

삼국통일 이후 신라의 왕실과 귀족은 1.5배로 확대된 영토와 인구 속에서 풍요를 누렸다. 7세기 말에는 수도 경주에 시장이 세 곳으로 늘어날 정도로 지배층의 재화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우수한 장인을 장악한 왕실과 귀족들은 개별 공방을 차려 사치품을 직접 생산하였지만, 품질이나 종류 면에서 만족할 수 없었다. 자연히 그들은 세계의 화려한 물산이 집중된 중국과 실크로드, 바닷길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렸다.

일본과의 외교 갈등

신라와 일본은 백제부흥운동 때 서로 교전국이었으나,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당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라는 668년(문무왕 8) 일본에 먼저 사절단을 파견하여 외교관계를 재개하였다. 이후 양국은 활발히 교류하며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하였다. 이로 인해 신라에서 일본으로 공식 사절을 파견한 마지막 해인 779년(혜공왕 15)까지 신라는 일본에 45회의 사절을, 일본은 신라에 25회의 사절을 파견하였다. 7세기 후반부터 8세기 초까지 신라는 일본에 율령국가 건설에 필요한 지식과 선진문물을 전해 주었다.

그러나 성덕왕 집권 이후 신라와 당의 관계가 점차 호전되면서, 그리고 701년 대보율령의 완성을 계기로 일본의 율령국가체제가 완비되면서, 신라와 일본 양국은 외교상의 의전 문제로 큰 갈등을 빚었다. 당을 본떠 천황제 율령국가를 건설하고자 하였던 일본 조정은 대외관계에서도 신라를 번국蕃國으로 취급하여 자신의 하위에 놓는 외교형식을 고집하였다. 그러나 양국의 외교관계에서 신라가 당과 일본의 협격을 두려워하였던 7세기 말~8세기 초에도 일본과 신라 사이를 중화中華와 번국蕃國의 관계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관련하여 신라 및 일본 사절단이 상대국에 체류한 기간이 주목된다. 신라의 견일본사遣日本使는 길어도 4개월을 넘지 않았으며, 평균 2~3개월 내에 임무를 마치고 귀국하였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견신라사遣新羅使는 최소 7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신라에 체류하였다. 이는 일본적인 소중화 세계는 신라에게 큰 메리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일본이 신라를 통해 중심 문화를 학습, 수용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결국 8세기 이후 신라와 당의 관계가 점차 호전되면서, 이와 반비례로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소원疏遠해져갔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신문왕대인 689년에 일본측이 신라 사절단의 관위官位가 낮아지고 있음을 문제 삼을 때부터 엿볼 수 있지만, 양국 관계가 심하게 악화된 것은 발해의 건국을 기점으로 신라와 당, 발해와 일본을 축으로 하는 새로운 동아시아의 합종연횡이 이루어지면서부터였다. 신라는 733년 발해와 당의 전쟁에 원군을 파견하였고, 이에 답하여 당은 735년에 대동강 이남에 대한 신라의 지배권을 인정해주었다. 신라와 당이 밀월관계였던 726년에서 732년까지 신라는 일본에 사절단을 한 번도 파견하지 않았고, 그 사이 발해가 727년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여 발해와 일본 간에 국교가 수립되었다.

당과의 관계를 나당전쟁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한 신라는 일본과의 관계에서 종전과 다른 고압적 자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734년 일본에 파견된 신라 사절단은 스스로 '왕성국王城國'이라고 표현하였다가 일본측에 의해 쫓겨났고, 이어 736년 신라에 파견되었던 일본 사신은 "신라가 상례常禮를 지키지 않고, 사신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당시 일본측은 신라를 정벌할 계획을 논의할 정도로 신라의 변화된 태도에 분개憤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덕왕은 742년 신라에 온 일본 사신을 오만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743년 신라는 일본에 보내는 국서國書에서 종래 일본왕에 선물하였던 '조調'라는 표현을 없애고, 이를 '토모土毛' 즉 정치성을 배제한 그냥 특산물이라고 개칭하였다. 이에 일본은 이를 트집 잡아 신라사신을 곧바로 돌려보내었다.

이처럼 발해와 당 사이에 전쟁이 발발한 733년을 분수령으로 하여,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신라는 당과의 우호적인 관계에 힘입어 일본에게 종전과 다른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였고, 일본은 이러한 신라의 태도가 733년 이전에 정립되었던 양국의 '상례'를 위반한 것이라며 꾸짖었다.

일본과의 교역 증대

일본과의 외교적 힘겨루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도 신라는 끊임없이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신라는 732년, 734년, 738년, 742년, 743년 등 5번에 걸쳐 사절을 파견하였다. 특히 이 무렵의 사행은 그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크며,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절단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 『속일본기續日本紀』에서 확인 가능한 이 시기 신라사절의 규모는 714년 20명, 719년 40명, 723년 15명, 732년 40명이었던 것이 738년에는 147명, 742년 187명, 752년 700명, 763년 211명, 764년 91명, 769년 187명, 774년 235명이었다. 양국의 외교관계가 악화되어 갔는 데도 신라 사절단의 규모는 이와 반비례하여 752년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신라에서 대일외교를 담당한 관청은 내성內省에 소속된 '왜전倭典'이었

다. 내성은 신라의 왕실 업무를 총괄하던 관청인데, 그 예하에는 특히 수공업 관련 관청이 매우 많다. 왜전은 대일교역품의 생산을 독려하고, 교역품의 수송과 관리 등 대일교역에 따르는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왕실업무 중 수공업을 관장하는 행정 조직이 이렇게 방대했던 것은 당시의 수공업 기술이 왕실에 독점된 상태였음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공업품에 대한 왕실의 수요가 그만큼 컸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러한 수요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무엇보다도 대일본 교역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대일본 교역품의 수가 확인되는 것으로는 686년에 60여종, 688년에 80여종이며, 714년에는 신라 사신에게 교역품의 대가로 일본에서 누에솜 5,450근斤을 지불하였다. 대체로 7세기 말 이후 신라와 일본의 교역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732년 이후 신라 사절단의 규모가 크게 확대된 것도 이러한 추세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왜전이 내성 속에 설치된 것은 바로 이러한 일본과의 교역을 신라 왕실이 주도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대일교역에는 왕실만이 아니라, 진골귀족도 참여하였다. 특히 당시의 정국政局을 장악한 상재상上宰相과 같은 최고 권문들이 왕실과 밀착하여 대일교역을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이 점은 733년을 분수령으로 한 신라의 외교적 태도 변화가 그동안 대일외교에 적극적이었던 상재상 김순정이 죽고, 그를 대신하여 집정한 상대등 사공思恭으로 인해 야기된 것이라고 일본측이 이해하고 있었던 점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흔히 사공을 반일적인 인물로 이해하고 있지만, 733년 이후에도 신라에서 더욱더 확대된 사절단이 파견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사공을 포함한 신라의 집정자들에게도 대일교역의 '메리트'는 무시될 수 없었다.

신라의 왕경 우금리禺金里에 거주하였던 장춘長春이 745년에 '해고海賈(해상)'를 따라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 생환한 이야기는, 경덕왕 당시 신라의 지배층이 대외교역에 얼마나 열중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나당전쟁 이전으로 호전된 733년 이후 신라의 대외교역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일본도 신라와 외교관계가 악화되는 속에서도 신라 사절단의 큐슈에서의 교역만은 막지 않았다. 이로 인해 733년 이후 일본에 파견된 신라 사절단의 규모는 이전보다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

8세기 신라의 대일본 교역품

8세기에 신라의 대표적 수출품은 놋쇠로 만든 유기鍮器였다. '안성마춤'이라는 속담까지 만들어 낸, 후대 조선의 뛰어난 유기 기술도 실은 신라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라의 장인들은 대접이며 쟁반, 숟가락 등 놋쇠로 못 만드는 것이 없었다. 화려한 금빛의 신라 유기는 일본의 귀족층을 유혹하는 제일의 상품이었다.

신라에서는 이 유기를 삽라迊羅라고 불렀는데, 일본은 이것을 수입하면서 '삽라'라는 이름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8세기 이후 일본에서는 유기를 '사후라'라고 불렀다. 사후라는 삽라를 일본식으로 발음한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본인들은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사용했다. 재미있게도 10세기경의 일본 문헌에는 이 사후라의 원래 뜻이 유기 생산으로 유명한 '신라迊羅<雜羅<新羅'를 뜻하는 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마치 중국의 도자기에 흠뻑 빠져버렸던 영국이 도자기를 '차이나(중국)'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때의 일본도 유기를 '신라'라고 부르면서, 한반도에서 건너온 유기에 온통 마음을 빼앗겼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와 비슷한 인식이 중국에서도 확인된다는 점이다. 중국에서는 12세기경에 유기를 '시라斯羅'라고 불렀다. 그런데 당시 중국의 어떤 학자는 신라와 고려의 막대한 유기 제작에 관한 글을 읽고, 자신들이 사용하는 '시라'가 혹 유기 생산으로 유명한 신라의 별명인 '시라斯羅'에서 온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했다. 이처럼 당시 일본과 중국은 모두 '유기 하면 신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만큼 신라의 유기는 동아시아에서 '없어서 못 파는' 유명 상품이었다.

이러한 신라의 유기 외에도 당시의 교역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자료는 의외로 많이 남아 있다. 1,200년 전 일본에 수출했던 신라의 교역품들이 빛깔도 선명하게, 당시의 포장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한다면, 믿지 못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것은 바로 토다이지의 창고인 '쇼소인正倉院'의 보물이다. 놀랍게도 이 창고는 천년이 훨씬 넘은 나라시대 일본 왕실과 토다이지의 일상 용품들을 현

그림 17 일본 쇼소인 소장 좌파리가반문서

재까지도 하나 손상 없이 보존해 왔다. 9,000여 점이나 되는 이 유물들은 거짓말처럼 처음 만든 그대로의 빛깔을 간직하고 있다.

나라시대의 일본 지배층이 사용한 이 쇼소인의 보물 중에는 일본산도 있지만, 실크로드나 바닷길을 통해 들어온 아라비아나 중국, 동남아시아산의 유물들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통해 자신들을 '실크로드의 종착지'로 선전하며, 고대 일본이 세계 문화와 호흡하고 있었음을 자랑한다. 현재 일본은 이 유물들이 중국에 갔던 일본의 사절단이나 승려 등에 의해 구입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쇼소인의 유물 중에는 그러한 경로로 들어온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일본은 항해 기술이 뒤떨어져 대외 진출이 활발하지 못했고, 중국과의 교류도 미미했다. 결국 일본 측의 설명은 당시의 상황과 맞지 않는다.

1975년 경주의 안압지 발굴이 시작되면서 이러한 의문은 곧 풀렸다. 왜냐하면 신라의 지배층들이 사용했던 안압지의 유물이 쇼소인의 유물과 너무나도 유사했기 때문이다. 실례로 안압지에서 발굴된 청동 가위는 마치 한 사람의 장인이 만든 것처럼 쇼소인의 것과 형태나 문양이 거의 똑같다. 이처럼 당시 양국의 지배층들이 유사한 취향의 물품들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은, 8세기 이후 동아시아의 무역을 장악했던 신라의 교역권 내에 일본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인에게 신라의 배는 거친 파도도 헤치고 나아가는 신화적 존재였다. 쇼소인에는 신라에서 제작한 것이 확실한 물품이 의외로 많다. 우선 「신라촌락문서」가 발견되어 유명해진, 불경을 쌌던 신라의 '경질經帙'이 있다. 이외에도 신라 토기에 담겨져 일본으로 건너간 신라의 '양지羊脂'나 '인삼'과 같은 약품이 있다. 또 당시 일본에서 '신라금'으로 불렸던 가야금도 있다. 이 가야금에는 앞면 하단에 넓게 금박의 물결무늬가 입혀져 있고, 그 사이 곳곳에 수초가 금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다. 줄을 거는 기러기발雁足에도 금빛의 수초를 새겨 놓아, 화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연주하면 물결을 스치며 날아가는 한 떼의 기러기가 얼어붙은 천년의 소리를 전해 줄 것만 같다.

이러한 신라의 경질이나 약품, 가야금 등은 신라가 일왕에게 선물로 증정하여 일본으로 건너갔을 가능성이 있지만, 쇼소인에 현재 남아 있는 유물에는 신라와 일본 간의 상업적 교역을 전제하지 않고는, 그 유입의 경로를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매우 많다. 그 중의 하나가 나라시대에 토다이지 승려들이 사용했던 쇼소인의 유기 제품들이다. 쇼소인의 유기에는 현재 일본의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사하리'라는 명칭이 유독 붙어 있다. 쇼소인에는 대접 436개, 접시와 쟁반 700개, 숟가락 345개 등 매우 많은 양의 사하리 제품이 보관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하리'는 앞서 언급한 사후라처럼 신라 유기 '삽라'의 일본식 변음이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사하리 가반加盤의 대접 사이에서 8세기 초반에 작성된 신라의 고문서가 발견됐다. 가반은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대접을 여러 개 포개고, 그 위에 뚜껑을 덮은 대접 세트로 스님의 바루공양에 사용된 불교용품으로 이해된다. 이 대접 사이에서 발견된 고문서는 신라에서 유기 표면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끼워넣은 '포장용 종이'로 추정된다.

그림 18 일본 쇼소인 소장 신라금

당시 신라는 다 쓴 공문서를 폐지로 수거하여 물품의 포장에 재활용했다. 현재 쇼소인에는 일본이 신라로부터 구입한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당시 그대로 보관되어 온 사하리 숟가락세트가 있다. 이 세트는 원형과 타원형의 숟가락 2개를 한 벌로 하여 종이로 감고, 이런 것 10벌을 가지런히 겹친 다음, 전체 숟가락 20개를 노끈으로 튼튼하게 묶어 놓았다. 이러한 사하리 제품들은 그 양이나 포장 그대로 남아 있는 유물의 상태로 볼 때, 토다이지 사찰이 어떤 경로를 통해 다량으로 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쇼소인의 병풍 속에서 752년 신라와 일본의 교역 과정을 보여 주는 가장 싱싱한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752년의 신라사절단과 〈바이시라기모쯔게〉

쇼소인에는 나무와 바위를 배경으로 풍만한 미인이 서 있고, 콜라주기법으로 그녀의 옷을 실제의 새털로 장식한 6폭의 〈도리게리쯔죠鳥毛立女 병풍〉이 있다. 이 병풍을 수리할 때 일본의 고대 문서가 병풍의 배접지와 화면속지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현재까지 30여 장이 수습된 이 문서는 752년에 일본의 귀족들이 신라 사절단이 가지고 온 교역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신들이 살 물품의 이름과 수량, 가격을 기록하여, 일본의 관할 관청에 제출한 문서로 밝혀졌다. 이 문서를 신라 물품의 매입 허가를 신청한 문서라는 뜻에서 〈바이시라기모쯔게買新羅物解〉라고 불리고 있다.

이 문서에 의하면 당시의 대일 교역품에는 인삼 등의 약품, 소방蘇芳과 같은 염료, 황금 및 기타 광물, 삽라 등의 유기 식기류, 다양한 의례 용구, 모직카펫인 모전, 식용품, 피혁 제품, 책 등 신라에서 생산된 온갖 일상 용품들과 중국 시장이나 아라비아 상인에게서 구입한 실크로드와 바닷길의 희귀한 향료, 약품, 화장품, 염료 등이 총망라되어 있다. 이 물품들은 부피가 작으면서도 값이 비싼 것들로, 많은 물건을 배에 실을 수 없었던 신라가 가장 짭짤한 이윤을 생각하며 준비한 것들이다. 현재까지 발견된 문서만으로도 당시 신라는 일본에 100여 종의 물품을 200점 이상 판매했다. 그러나 이 문서는 요행히 남은 것들이고, 그것도 국가의 공식적인 허가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

신라는 752년(경덕왕 11)에 7척의 배, 총인원 700여명에 이르는 대규모의 사절단을 일본에 파견하였다. 이때의 사행使行은 그 규모면에서 전후 시기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며, 사적인 거래까지 고려한다면, 당시의 교역량은 엄청났을 것이다. 752년의 신라 사절단은 일본 큐슈의 다자이후大宰府에 도착한 후 370여 명은 큐슈에 남겨두고, 두 달 반 이상이 걸려 6월 14일 최종 목적지인 일본의 수도 나라에 도착하였다. 원래의 700명 중 절반 정도는 다자이후나 오사카의 나니와에 계속 체류하며 비공식적인 무역에 종사했다. 결국 당시 신라 사절단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라, 세계 최고의 물품들을 구비하고, 대규모의 세일즈에 나선 능란한 장사꾼이었다. 〈바이시라기모쯔게〉로 볼 때, 쇼소인에 소장된 나라시대 일본 지배층의 유물은 그 상당수가 신라의 사절단을 통해 구입됐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측은 신라와의 외교적 힘겨루기가 진행되는 와중에 견당사遣唐使나 발해사渤海使를 통해 신라를 대신하는 새로운 해외 물품의 유입로를 마련하려고 노력하였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일본은 이후 신라와 공식적인 사절 교환을 포기하고, 큐슈의 다자이후를 창구로 한 양국의 교역관계만을 인정하는 형태로 '신라물'을 다시 받아들였다. 768년에 천황이 신라교관물新羅交關物을 매입하라고 다자이후에 비치된 누에솜을 일본귀족들에게 최고 2만 둔屯에서 최하 1천둔까지 사여해준 사실은 이러한 변화된 양국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733년 이후 전개된 신라와 일본의 외교적 힘겨루기는 결국 다자이후를 매개로 한 교역관계라는 새로운 양국 관계를 만들어내었다. 이를 신라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점은 8세기 이후 신라가 추구한 대일본외교의 기

본적 자세가 교역적 이익의 추구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752년의 교역도 그 속에 위치한다.

일본 측은 신라 사신을 입경시켜 '번국'사신으로 대접하고자 하였으나, 신라는 이에 반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는 계속되었다. 신라가 738년(효성왕 2) 이후 큐슈의 다자이후에서 교역을 목적으로 하는 사절단만은 꾸준히 파견하였기 때문이다. 신라와 일본의 외교는 이후 당을 매개하여 발생한 몇 가지 일들 외에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764년 당나라 유학 후 발해를 거쳐 일본으로 간 승려 계융이 무사 귀국하였는지 그의 소식을 알아 봐달라는 당 칙사의 요청을 구실로 신라는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또 769년(혜공왕 5)과 774년에는 일본의 견당사 후지와라노 키요카와藤原淸河의 서신 전달을 위해 신라가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조차도 신라와 일본 간의 외교는 집사성과 다자이후간의 실무교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대당외교의 교통로 확보에 있어서 신라의 협조가 필요하였던 일본 조정은 779년 다자이후의 관리를 신라 조정에 파견하여 당에서 귀국 도중 탐라에 표착하여 구금된 일본 사신과 당의 사신을 일본에 돌려보내줄 것을 의뢰하였다. 신라는 일본 조정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사신을 파견하였으나, 신라·발해에 대해 일본 우위의 외교형식을 확립하려 하였던 일본 조정이 다시 신라왕의 '표문表文'를 요구하였으므로, 이후 신라는 더 이상 일본에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신라가 일본과의 공식적인 외교 교섭을 끝낸 이유는, 발해 문왕대에 정치·군사적인 면에서 발해와 당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었고 이로 인한 동북아시아의 긴장 완화로 신라가 일본과의 외교관계를 굳이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일본 역시 발해를 통해 대당 교류가 가능하였기 때문에, 신라와 일본의 교역량은 8세기 중엽을 정점으로 점차 축소되었고, 단지 신라의 민간상인이 그 일부를 담당하게 되었다. 결국 발해와 일본의 관계에 반비례해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점차 소멸되어갔다.

중대 몰락의 전야

『삼국사기』에 기록된 천재지변天災地變 기사의 세기별 통계를 보면, 전체 43종 584회의 기록 중 240회의 기록이 8~9세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다른 세기에 비해 2배나 높은 수치다. 한편 천재지변 기사가 가장 많은 왕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성덕왕 42회, 경덕왕 28회, 혜공왕 28회의 순으로 중대 후반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기존에 중대 번영의 절정기로 이해했던 성덕왕~경덕왕대가 신라 역사상 가장 불안했던 시기였음을 의미한다.

천재지변 중 농업생산 및 농민의 생존에 보다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기근과 질병, 홍수, 가뭄, 때 아닌 눈·서리·우박, 곤충의 피해 등만을 골라 세기별 추세를 다시 정리해보면, 이 역시 앞서의 천재지변 통계치 비율과 거의 비슷하다. 8세기 전반 성덕왕대부터 급한 파고를 이루면서 급증하여, 8세기 중엽에서 9세기 전반에 가장 정점에 도달했다가 9세기 중엽 이후 잦아든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신라의 천재지변 통계치는 단순히 천문의 이상현상을 관측한 수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라사회의 생산구조를 허물어트린 파괴적인 자연재해의 빈도수를 나타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결국 성덕왕대는 중대의 절정을 알리는 여명黎明이 아니라, 중대 몰락의 전야前夜였다.

이로 볼 때, 성덕왕에서 혜공왕에 이르는 중대의 마지막 70여 년은 신라인에게는 가장 가혹했던 시대였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태종무열왕의 백제 원정, 문무왕의 고구려 원정과 뒤이어 전개된 나당전쟁까지를 포함한다면, 신라인들에게 '중대'란 시기는 '일통삼한'이라는 중대왕권의 자부심과는 상관없이, 가장 참담한 '전쟁과 재이災異의 시대'로 각인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경덕왕대에 상대등 김사인이 계속되는 '재이'를 이유로 시정時政의 잘잘못을 극론極論하고, 혜공왕대에 '재이'가 자주 일어나 민심이 등을 돌려 국가가 위태로워졌다는 편년 기사들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연이어 나오는 것도 이 시기 자연재해를 바라보는 지배층의 불안감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하였음을 잘 말해주고 있다.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유행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자연재해는 기근으로 연결되고 이로 인한 영양결핍과 면역체계의 약화는 전염병의 유행으로 이어진다는 명제를 8~9세기의 신라 사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당시의 전염병은 빈번한 대외교류 속에서 국제성을 띠었다. 8~9세기는 신라와 당, 그리고 발해, 고대일본 등이 서로 간에 외교와 교역을 위해 가장 활발히 교류한 시대였고, 이로 인해 국경을 넘나드는

그림 19 경주 남산 삼릉곡 석조약사불좌상

전염병의 종류가 늘어났다. 특히 특정 병원균에 대해 내성을 갖지 않은 지역으로도 무차별적으로 질병이 전파되어, 그 파괴력이 기존의 전염병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는 데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730년대 고대일본의 최고 권문인 후지와라노 후비토藤原不比等의 네 아들이 '완두창豌豆瘡(천연두)'에 걸려 차례로 숨졌고, 785년에는 신라의 선덕왕宣德王이 '역진疫疹'에 걸려 사망하는 등 당시의 전염병은 지배층도 피해갈 수 없었다. 물론 약재 한번 제대로 쓸 수 없는 일반인들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질병은 가난한 자에게 훨씬 더 가혹한 법이다.

이러한 자연재해와 전염병을 극복하고자한 중대왕실의 대응책은 연대기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 창고를 풀어 민들을 구휼하였고, 기후 현상의 정확한 예측을 위해 누각박사나 천문박사를 두었다. 또 의학생을 양성하거나, 의박사를 증치하고, 국가 위기 때마다 의술에 뛰어난 사람을 특채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자연재해와 전염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당시에, 일반인들의 불안감과 위기감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대응은 주술적, 종교적 형태를 띨 수밖에 없었다. 병을 고쳐주는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약사불'의 조영이 8세기 말에서 9세기 전반의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특히 경덕왕대에는 중앙과 지방에 걸쳐 수 많은 불사가 이루어졌다. 황룡사의 거종, 봉덕사 성덕대왕신종(에밀레종),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분황사에는 30만근 이상의 거대한 약사불을 국가 주도로 조성하였다. 그간 이들 불사는 화려한 중대문화의 만개滿開로 이해되었지만, 백성들의 불안감을 달래기 위한 국가의 주술적, 종교적 치유책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질서의 동요와 녹읍제의 부활

'안사安史의 난(755~763)'은 당나라 내부의 정치체제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다. 이 난으로 당과 연결된 국제질서가 흔들리면서 신라의 왕권도 동요하

기 시작하였다. 특히 신라에서는 자연재해가 연이어 일어나고 전염병이 유행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국제질서마저 불안정해져, 지배층의 갈등과 위기감이 최고조로 증폭되었다. 이러한 불안감을 틈타 중대 말에는 왕권에 도전한 진골귀족의 반란이 그 이전보다 빈번하게 일어났다. 자연재해와 전염병, 그리고 정국政局의 불안이라는 순환 구조는 신라국가의 생산, 재생산구조마저도 황폐화시켰고,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결국 757년(경덕왕 16) 경덕왕은 과거 신문왕이 혁파했던 녹읍제를 다시 부활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통일 이전 신라의 진골 지배층은 녹읍제에 의해 자신들의 경제적 이권을 보장받았다. 녹읍제는 귀족의 관등과 관직에 따라 국가가 일정 지역 단위를 분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지역에 대한 귀족 관료의 조세수취와 역역力役 등의 인신적 지배를 가능하게 한 제도로 이해되며, 진골의 지역지배에 매우 유리한 제도였다. 신라 통일 이후에 신문왕은 귀족의 경제적 기반인 녹읍제를 폐지하고 녹봉제를 실시하였다. 녹봉제는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관료의 관위와 관직에 대한 복무의 댓가로 나누어준 제도이다. 이는 녹읍제와 달리 귀족-농민의 사적 지배를 통제할 수 있었다.

녹읍제는 진골에게 지역 지배를 허용하는 단점이 있지만, 진골이 조세수취를 위해 일정지역의 생산과 재생산을 책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국가재정의 고갈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다. 애초 신라가 진골의 공동지배위에 건설된 것도 고대사회의 생산 자체가 불안정해 자연재해에 크게 취약했기 때문이다. 중대왕실은 새로이 정복한 고구려·백제 영토의 세수稅收 증대에 기초해 기존의 '진골공동체'를 뛰어넘어보려고 했지만, 8세기 중반 이후 발생한 그칠 줄 모르는 자연재해 앞에, 고대사회의 본질적 한계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진골 권문의 세력 확대

통일 이후 일부 진골귀족이 도태되고 왕권이 강화되었으며, 중앙집권화가 진전되어 전국의 토지와 인민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크게 신장되었다. 그와 함께 관료조직 등 지배체제의 개방성에도 큰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진골 중심의 신분제인 골품제는 여전히 신라의 정치와 사회를 움직이는 중요한 기제였다. 통일 이후 두품 신분층이나 지방민과 중·하층민 출신이 입신하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늘어났으나, 오랜 평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대 사회에도 계층 이동은 줄어들고 왕의 근친과 측근들이 정치권력과 경제적 부를 독점하는 폐쇄성이 깊어만 갔다. 녹읍제의 부활은 진골 권문의 세력 기반이 날로 확대되어간 신호탄이었다.

『신당서新唐書』에는 "신라의 재상가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았고, 노동奴僮(노비와 하인)이 3천명이나 되는데, 무기[甲兵]도 이와 비슷한 숫자로 있다. 또 소·말·돼지도 같은 수로 있어 섬에 방목하는데, 먹고 싶을 때 활로 쏘아 잡았다. 백성들에게 곡식을 꾸어주고 갚지 못하면 노비奴婢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는 대체로 혜공왕(765~780) 초반에 신라에 왔던 당나라 사신 고음顧愔이 지은 『신라국기新羅國記』에서 인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데, 당시 신라 최고 진골 권문들의 경제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흥미로운 자료이다.

진골 권문들은 넓은 사유지와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왕의 근친이거나 공훈자였다면 식읍도 하사받았다. 경덕왕 16년 이후에는 녹읍제의 부활로 인해 더욱 막대한 경제적 기반을 보유하게 되었다. 녹이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는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한편 재상가의 '노동(노비와 하인)' 3천명은 그와 비슷한 수로 있었던 무기로 볼 때,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재상가의 사병으로 변신할 수 있는 부류들이었다.

더욱이 재상가에는 출세를 위해 무예와 지략을 갖춘 문객門客, 모사謀士 등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귀족의 휘하에서 평상시에는 귀족의 농장(田莊)을 관리하는 지장知莊으로, 또는 귀족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현사賢士로서 존재하다가, 비상시에는 사병을 조직하고 지휘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진골귀족과 문객의 결합은 골품제에 제약되는 주종관계이며, 당시의 중요한 인적 결합관계로 이해된다.

이미 중고기부터 진골귀족 휘하에는 공적인 군사조직 외에 귀족이 개인적으로 가려 뽑은 인물들이 존재하였다. 대야성주 김품석의 막객幕客인 죽죽이나, 김유신이 고구려로 간 김춘추를 구하기 위해 가려 뽑은 결사대[死士] 3000명이 그러한 경우이다. 이들은 친족이나 공동체 단위에서 징병된 것

이 아니며, 특별한 목적을 수행한 뒤에도 귀족과의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그가 맡은 직책에 따라 함께 움직이며, 그의 무력의 주요기반이 되었다.

지방의 유력가들이나 몰락한 농민의 일부도 수도로 올라와 생존과 출세를 도모하였다. 그들은 통일 전쟁으로 늘어난 병력 수요와 신속한 동원력의 필요에 의해 행해진 모병에 응하기도 하였으며, 귀족의 문하에 의탁하여 입신을 도모하였다. 관리 선발의 목적을 지녔던 화랑도의 화랑과 낭도의 관계도 이들이 성장하면서 점차 귀족과 문객의 관계로 전이될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유력한 귀족들은 정치적, 군사적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이들을 흡수하였다. 김유신이 신라의 구귀족이 아니라 혈연과 지연적 기반을 상실한 가야계의 신진귀족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라 최고의 권문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막객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하였던 것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혜공왕의 피살과 중대의 몰락

중대 말기 진골귀족의 사병 조직과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지방세력이다. 이러한 점은 혜공왕대 귀족세력의 반란을 '왕도王都 및 오도주군五道州郡의 96각간角干이 서로 싸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중고기 말 선덕여왕 16년(647)에 일어난 비담의 난을 보면, 당시 중앙귀족의 반란은 왕경王京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대 초에 일어난 김흠돌의 난에서는 신문왕의 교서에 '화禍가 내외內外에 통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중대 시기에는 중앙귀족이 지방세력을 반란에 활용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이는 중대에 들어와 중앙귀족의 기반이 종전과는 달리 수도 경주를 벗어나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중앙귀족들은 국가의 공적 군사조직에도 자신의 일파를 임명하여 장악하거나, 내외의 군지휘관들을 휘하로 초치하여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려는 시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적 조직은 운영상의 문제나 공병公兵의 자발적인 충성심을 확보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유력귀족들은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대 즉 사병조직의 양성에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반란에 동원된 공병들은 단순한 공병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기회를 노려 입신출세를 기도하려는 지방인들로서 유력귀족에게 포섭된 사병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신라의 귀족층은 대토지 소유의 확대로 꾸준하게 경제적 기반을 늘려나갔다. 귀족층의 토지 집적은 주로 사원 기진, 토지 겸병, 투탁 등에 기인하였으며, 이러한 귀족의 토지 수탈에 대해 녹읍제가 부활한 신라의 정치 상황에서는 제동을 걸 수가 없었다. 그 결과 토지에서 유리된 상당수 농민들이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소위 용작傭作 노동자로 떨어지거나, 이보다 더한 상황에 처한 백성들은 자식들은 물론 자신까지도 노비로 팔 수 밖에 없었다. 일반 농민은 생산의 주축임에도 불구하고 일면에서는 국가의 공민으로서, 다른 면에서는 귀족의 농장에 긴박된 예속민으로서 이중의 억압 하에서 빈궁화되어 갔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들이 일반농민들을 유력귀족의 문하에 사민私民으로 흘러들어가게 하였다.

경덕왕을 이어 어린 나이에 즉위한 혜공왕은 진골의 드센 요구들을 수렴하고, 이들을 조정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경덕왕이 천하가 모두 왕의 땅이라는 의미에서 자신이 직접 고쳤던 9주의 지명들도 혜공왕이 즉위하자마자 과거 귀족의 녹읍이었을 때의 옛 지명으로 다시 불려졌다. 진골들이 요구하는 대로 왕은 움직여줬지만, 즉위 후 얼마 되지 않아 대공大恭이 큰 반란을 일으켰다. 그 여파는 경향 각지로 퍼져 3년이나 넘게 진골 귀족들의 반란이 연이어 일어났다. 결국 혜공왕은 5도道의 '주군州郡'과 아울러 '96각간角干'이 서로 싸우는 대란大亂에 직면하게 된다. 이제 신라의 왕위는 96명의 각간으로 상징되는 진골 세력의 합종연횡 속에 그 향배가 결정될 수밖에 없었다.

중대의 마지막 왕인 혜공왕(765~780)은 왕권에 대한 진골들의 끝없는 도전을 제어할 수 없었고, 결국 김지정의 반란을 진압한다는 핑계로 군사를 일으킨 상대등 김양상과 이찬伊飡 김경신에 의해 피살된다. 이후 왕위는 김양상에게 넘어가니, 그가 바로 선덕왕宣德王이다. 이로써 태종무열왕 직계의 중대왕실은 끝이 나고 하대가 시작되었다.

제 2 장

하대의 개막과 전개

1 하대의 개막

하대의 의미

『삼국사기』 신라본기 끝 부분에는 신라사의 시기구분이 소개되어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나라 사람들이 시조로부터 진덕왕까지 28왕을 상대上代, 무열왕부터 혜공왕까지 8왕을 중대中代, 선덕왕부터 경순왕까지 20왕을 하대下代라고 하였다." 신라인들은 진덕여왕에서 무열왕으로, 그리고 혜공왕에서 선덕왕으로 왕위가 교체된 것을 신라사의 획기적 사건으로 생각하였던 것이다. 3대의 시기구분은 지금도 통용되고 있다.

중대의 여러 왕들은 모두 태종무열왕의 자손들이었다. 이에 대해 선덕왕과 그 뒤를 이은 원성왕은 나물마립간의 후손이었다. 이후의 김씨 왕들은 모두 원성왕의 후손이었다. 중대가 무열왕계의 시대였다면, 하대는 원성왕계의 시대였다.

통일전쟁이 끝난 후 신라는 평화와 안정의 시대를 맞았다. 반면 하대에는 정치적 혼란이 자주 일어났다. 농민들은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다. 호족이라고 부르는 지방 유력자들은 점차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태세를 강화하였다. 혼란이 심해지면서 신라는 결국 셋으로 나뉘고 말았다. 중대가 신라의

전성기였다면 하대는 쇠망기였다.

불교의 삼시설三時說에 따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법이 쇠퇴한다고 한다. 정법正法의 시대, 상법像法의 시대를 거쳐 말법末法의 시대 곧 말세末世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하대의 신라인들은 자신들이 말세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하대에 일어났던 사회 혼란은 말세에 나타난다는 사회 혼란으로 여겨졌다. 신라인들은 혜공왕과 선덕왕을 경계로 왕계가 변화하고, 또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인식한 결과 당시를 하대라고 인식하였다.

하대의 전반기에는 진골귀족들이 왕위를 놓고 다투는 경우가 잦았다. 이 틈을 타 지방에서 호족들이 대두하였다. 그 선구적인 존재가 장보고였다. 이에 대응해 진골귀족들은 상쟁하기보다는 연립의 태세를 갖추었다. 이로써 일견 신라는 안정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곧 파국이 도래하였다. 889년 즉 진성여왕 3년 전국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봉기는 한 해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후삼국시대가 시작되었다. 935년 경순왕이 고려 태조에게 항복함으로써 천년왕국 신라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선덕왕의 즉위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은 통일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왕실의 권위는 높아졌고, 신문왕은 이를 배경으로 왕권을 강화하였다. 중대 왕권은 성덕왕대에 전성기를 구가하였다. 하지만 다음 왕인 경덕왕 대에 이르러 진골귀족들이 왕권에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757년(경덕왕 16) 3월 녹읍이 부활되었다. 이 조치는 진골귀족들의 도전에 대한 경덕왕의 타협책이었다. 한편, 왕권을 강화하려는 시도도 계속되었다. 다시 녹읍을 지급하기로 한 그 해 12월 왕은 전국 주, 군, 현의 명칭을 한식漢式으로 고쳤다. 759년(경덕왕 18)에는 관부와 관직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한화정책漢化政策은 단순한 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당唐의 제도를 참고해 국왕 중심의 지배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진골귀족들의 왕권에 대한 도전은, 경덕왕의 뒤를 이어 혜공왕이 8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고, 모후母后 만월부인滿月夫人이 섭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768년(혜공왕 4) 8월에 일길찬 대공大恭이 아우인 아찬 대렴大廉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군은 33일간 왕궁을 포위했다가 평정되었다고 한다. 혹은 왕도 및 5도 주군州郡의 96각간角干이 서로 싸워 석 달을 끌었다고도 전한다. 770년(혜공왕 6)에는 대아찬 김융金融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복주伏誅되었다. 이때에는 중대 왕권 하에서 점차 위상이 낮아진 데 대해 불만을 품었던 김유신 후손들이 가담하였다.

774년(혜공왕 10) 9월 김양상金良相이 상대등이 되었다. 김양상의 할아버지 김원훈金元訓은 성덕왕 즉위 직후에 중시를 지냈다. 아버지 김효방金孝芳은 성덕왕의 딸 사소부인四炤夫人과 혼인하였다. 김양상은 성덕왕의 외손이라는 후광을 배경으로 정치적으로 출세하였다. 764년(경덕왕 23) 아찬으로서 시중에 임명되었는데, 768년(혜공왕 4)까지 재임하였다. 외조부인 성덕왕을 추모하는 종鐘을 만드는 사업에서는 상재상上相 김옹金邕과 함께 검교사檢校使로서 공사의 책임을 맡았다. 종이 완성된 771년(혜공왕 7) 당시 그는 각간으로서 숙정대肅正臺와 수성부修城府 장관을 겸하였다. 가문적 배경이나 정치적 이력을 보면 김양상은 본래 중대 왕권의 지지자였던 듯하다.

그런데 김양상이 상대등에 취임한 지 1년이 되지 않아 두 차례의 반란이 일어났다. 775년(혜공왕 11) 6월 이찬 김은거金隱居가 반란을 일으켰다. 두 달 뒤 8월에는 이찬 염상廉相과 정문正門이 모반했다. 김은거는 767년(혜공왕 3) 왕의 즉위를 알리고, 책봉을 요청하는 사신으로 당에 파견되었다.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그는 768년(혜공왕 4) 10월 시중에 임명되어 770년(혜공왕 6) 12월까지 재임하였다. 염상은 758년(경덕왕 17)부터 760년(경덕왕 19)까지 시중을 지냈다. 그의 재임 기간에 백관의 명칭을 한식으로 바꾸는 조치가 단행되었다. 정문은 염상의 후임으로 현직 시중이었다. 775년 일어난 두 차례의 반란은 국왕의 지지세력들이 일으켰다. 왕당파 내에서 모종의 이유로 정치적 분열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반란이 진압된 후 김양상과 그 일파는 곧 대담한 조치를 취하였다. 776년(혜공왕 12) 정월, 경덕왕 때에 중국식으로 개정된 백관의 칭호를 전면적으로 복고하였다. 이때 한식으로 고쳤던 주, 군, 현의 명칭도 되돌려졌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는 경덕왕이 추진했던 한화정책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었다. 나아가 하대의 개막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김양상은 777년(혜공왕 13) 상소를 통해 혜공왕의 정치 운영을 철저하게 따졌다. 이로써 그는 반왕파 지도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였다.

780년(혜공왕 16) 2월 이찬 김지정金志貞이 무리를 모아 궁궐을 포위하였다. 4월 김양상은 이찬 김경신金敬信과 함께 국왕 측근에 있는 나쁜 무리를 제거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반격하였다. 김지정 등은 피살되었고, 혼란의 와중에 혜공왕과 왕비도 죽음을 당했다. 혜공왕이 선덕왕과 김양상(김경신의 착오일 것이다)에게 시해되었다는 기록을 보면 왕과 왕비는 김양상 일파에 의해 피살되었을 것이다. 정변에서는 태종무열왕의 후손인 김주원金周元도 일정한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무열왕권은 그에 반대하는 범汎 진골귀족 연합세력에 의해 무너졌다.

혜공왕의 뒤를 이어 김양상이 왕위에 올랐다. 그가 선덕왕이었는데, 나물마립간의 10세손이었다. 선덕왕은 즉위 직후 아버지 효방을 개성대왕開聖大王으로 추봉하였다. 할아버지 등 선대 조상들을 빼고, 아버지만 대왕으로 추봉했던 것은 외할아버지인 성덕왕을 오묘五廟에서 뺄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오묘에는 시조미추왕, 태종대왕, 문무대왕, 성덕대왕, 개성대왕이 모셔졌다. 중대 왕들이 세 자리나 차지하였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선덕왕대에는 태종무열왕의 후손인 김주원이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777년(혜공왕 13) 10월에 시중에 임명되었다. 당시는 김양상이 정국을 주도하던 때였다. 김주원은 무열왕의 자손이었지만, 김양상과 정치적 노선을 같이 하였다. 그는 선덕왕 즉위 직후 시중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상재상上宰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김주원은 자식이 없었던 선덕왕의 뒤를 이을 유력한 왕위계승 후보자였다.

한편 선덕왕 즉위의 일등 공신은 김경신이었다. 그는 왕이 된 김양상의 뒤를 이어 선덕왕대 내내 상대등으로 재임하였다. 김경신은 선덕왕과 마찬가지로 나물마립간의 자손이었다(12대손). 하지만 그는 차재상二宰이었고, 왕위계승의 서열에서도 김주원에 뒤졌던 듯하다.

선덕왕은 784년(선덕왕 5) 왕위에서 물러나려다가 신하들의 만류로 그만두었다. 이듬해 정월 병석에서 내린 유조遺詔에서는 "늘 왕위를 물려주고 밖에 물러나려고 했다"고도 하였다. 선덕왕은 무열왕계 김주원을 지지하는 세력과 나물왕계 김경신을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하대가 개막되었다고는 하지만, 무열왕계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었다.

한편 선덕왕은 패강진浿江鎭을 설치하여 예성강 이북 지역에 대한 통치를 맡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735년(성덕왕 34) 당으로부터 대동강 이남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게 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개척이 본격화되었다. 748년(경덕왕 7)에는 대곡성大谷城(평산) 이하 10개 군현郡縣을 두었고, 762년(경덕왕 21)에는 이 가운데 6개 군현에 성을 수축하였다. 선덕왕은 중대 이래의 북진정책을 계승하였다. 781년(선덕왕 2) 왕은 사자를 파견하여 패강 이남의 주군을 안무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 해인 782년에는 예성강 이북 지역으로 진출하는 교통의 요지에 있던 대곡성을 승격시켜 패강진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783년(선덕왕 4) 아찬 체신體信을 대곡진 군주軍主에 임명함으로써 패강진의 설치는 일단락되었다.

이후 패강진의 관할 지역은 더욱 북쪽으로 확대되어 헌덕왕 때에는 취성군取城郡(황주)과 그 영현領縣 셋을 신설하였다. 이로써 신라의 영역은 대동강 남쪽에 이르게 되었다. 826년(헌덕왕 18)에는 한산漢山 북쪽의 백성 1만 명을 동원하여 300리에 달하는 패강장성浿江長城을 축조하였다. 이로써 예성강 이북 지역에 대한 국토 개척 사업은 일단락 되었다.

원성왕계의 성립

785년 정월, 아들이 없었던 선덕왕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고 죽었다. 이에 김주원과 김경신이 왕위를 놓고 다투었는데, 결국에는 김경신이 즉위하였다(785년 2월). 기록에는 북천北川의 범람으로 그 북쪽에 살던 김주원이 왕궁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그 틈을 타 김경신이 먼저 입궁하여 즉위하였다고 전한다. 여러 신하들이 선덕왕의 어머니인 정의태후貞懿太后의 교지教旨를 받들어 김주원

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는데, 김경신이 이들을 위협하고, 먼저 궁에 들어가서 왕이 되었다고도 한다. 요컨대 왕위계승의 서열에서 뒤졌던 김경신이 무력을 포함한 모종의 비상수단을 동원한 끝에 유력한 왕위계승 후보자 김주원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신라 말 3명의 박씨왕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성왕의 후손들이 왕위에 올랐다. 원성왕계 왕실이 출범한 것이었다.

원성왕은 즉위한 후 곧 성덕대왕聖德大王과 개성대왕開聖大王의 두 묘廟를 헐고, 시조대왕, 태종대왕, 문무대왕과 할아버지 흥평대왕興平大王, 아버지 명덕대왕明德大王을 오묘五廟에 모셨다. 원성왕으로서도 통일의 두 주역을 오묘에서 제거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오묘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던 것은 애장왕 때의 일이었다. 왕은 즉위한 이듬해인 801년 2월 태종대왕과 문무대왕의 2묘를 별도로 세운 다음, 시조대왕을 수위에 두고, 고조 명덕대왕, 증조 원성대왕, 할아버지 혜충대왕, 아버지 소성대왕의 친묘親廟 넷을 더해 새로 오묘를 구성하였다. 물론 이는 당시 섭정이었던 김언승金彦昇이 주도한 것이었다. 그것은 여하

그림 1 경주 괘릉(전 원성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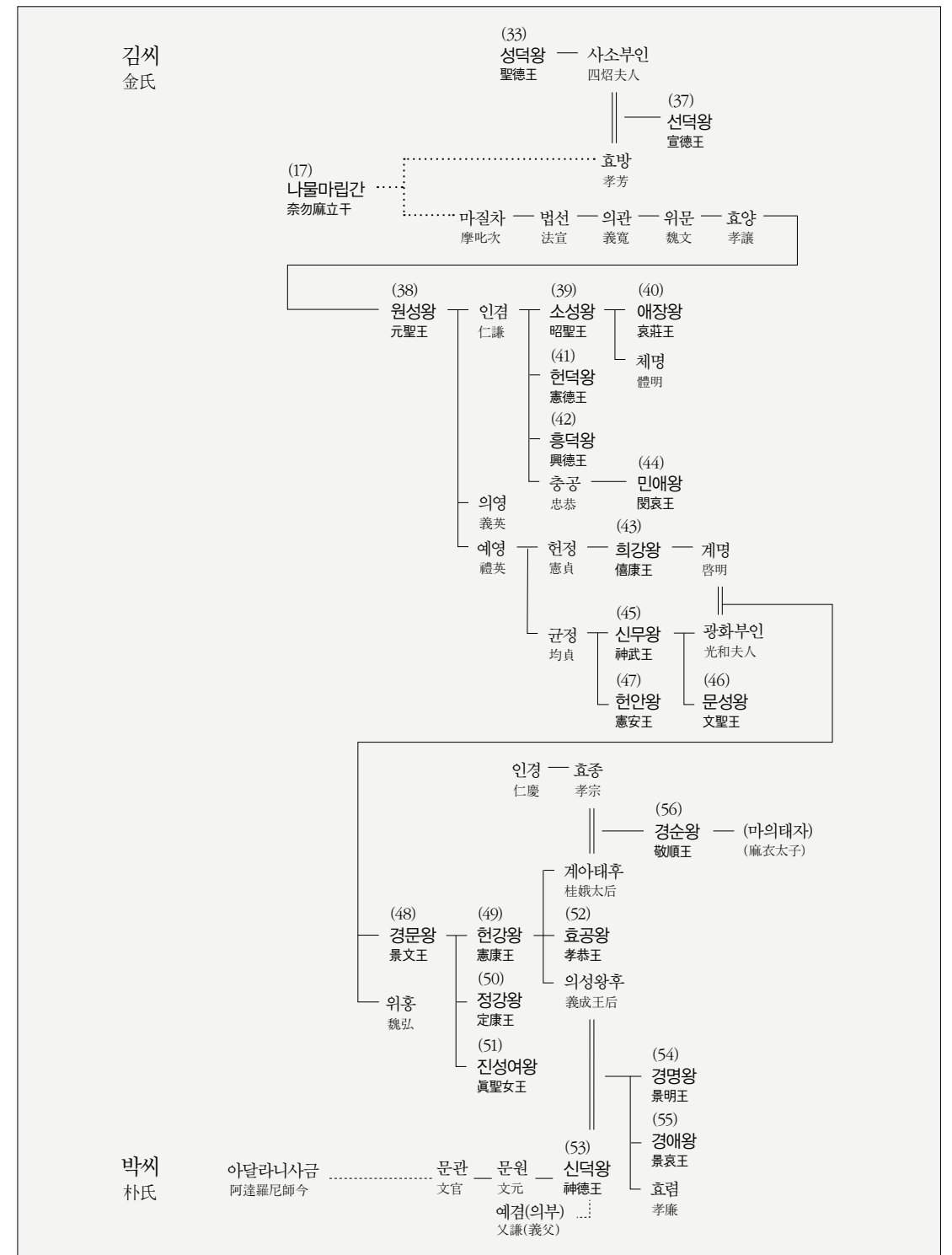
그림 2 하대 왕위계보도

튼, 이로써 왕실의 조상제사에서 중대 왕실의 잔영을 걷어 냈다. 오묘제의 개편은 원성왕계 왕실의 성립을 알리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원성왕은 즉위한 785년 2월 맏아들 김인겸을 왕태자로 삼았다. 그런데 김인겸은 791년(원성왕 7) 사망하였다. 왕은 792년 둘째 아들 김의영金義英을 태자로 봉했는데, 그도 794년(원성왕 10)에 죽었다. 이에 원성왕은 795년(원성왕 11) 정월 김인겸의 아들이자 손자인 김준옹金俊邕을 다시 태자로 삼았다. 비상한 방법을 동원하여 즉위하였던 원성왕은 태자 책봉을 통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왕위계승을 원했던 것이다.

798년 12월 원성왕이 죽고, 799년 정월 김준옹이 왕위를 이었다. 그가 소성왕이었다. 소성왕은 즉위 이듬해 즉 800년 6월에 사망하였다. 치세는 1년 반 정도였지만 왕은 죽기 얼마 전 왕자 김청명金淸明을 태자로 삼았다. 소성왕의 뒤를 이어 태자가 왕위에 올랐으니, 그가 애장왕이었다. 당시 왕은 13세였다. 이에 실권을 장악하였던 삼촌 김언승이 섭정하였다. 809년(애장왕 9) 김언승은 애장왕을 시해하고 왕위에 올랐다. 그가 헌덕왕이었다. 이로써 태자에 의한 왕위계승의 원칙은 일단 깨졌다.

그런데 헌덕왕은 822년(헌덕왕 14) 동생 김수종金秀宗(혹은 金秀昇)을 "부군副君" 혹은 "저이儲貳"으로 삼아 "월지궁月池宮"에 들어가게 하였다. '부군', '저이'는 태자를 뜻한다. '월지궁'은 동궁으로 여겨지고 있다. 헌덕왕은 동생 김수종을 태자로 삼았고, 그가 헌덕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니 곧 흥덕왕이었다. "흥덕왕이 왕위를 잇고 선강태자宣康太子가 감무監撫"하였다고 한 기록이 있다. 선강태자는 김충공金忠恭인데, 그는 흥덕왕의 동생이었다. 후사가 없었던 흥덕왕은 아우 김충공을 태자로 책봉하였던 것이다. 약간의 곡절이 있었지만 원성왕계 왕실에서는 태자에 의한 왕위계승의 원칙을 견지하려고 하였다.

한편, 원성왕은 태자 책봉과 아울러 근친왕족들을 요직에 배치함으로써 왕권의 안정을 보장하려고 하였다. 김준옹은 789년(원성왕 5) 당에 사신으로 다녀온 후 대아찬이 되었다. 이듬해에는 파진찬으로 재상에 올랐다. 791년(원성왕 7) 10월부터 792년 8월까지 시중으로 재임하였고, 792년 병부령이 되었다가 795년(원성왕 11) 태자로 책봉되었다. 그런데 신라에서는 한 명의 관리가 복수의 관직을 겸하는 겸직제가 널리 시행되었다. 그러므로 김준옹도 앞의 관직들을 차례로 돌아가며 맡았던 것이 아니라, 복수의 관직을 겸하였을 것이다. 김준옹은 한때 시중, 병부령, 재상을 겸하였고, 후에는 병부령과 재상을 겸하였을 것이다.

김준옹의 동생인 김언승도 형과 비슷한 정치적 성장 과정을 거쳤다. 그는 790년(원성왕 6) 당에 사신으로 다녀온 후 대아찬이 되었다. 이듬해에는 전 시중 제공悌恭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잡찬에 올랐다. 794년(원성왕 10) 2월 시중이 되었고, 796년(원성왕 12) 4월 병부령이 되면서 시중을 사임하였다. 그런데 김언승은 795년(원성왕 11) 재상이 되었으므로,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시중과 재상, 병부령과 재상을 겸하였을 것이다.

근친 왕족의 권력 독점 현상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김언승은 조카인 애장왕이 즉위하자 어룡성御龍省 사신私臣과 상대등을 겸하였다(801). 804년(애장왕 5)에는 김수종이 시중에 취임하였고, 819년(헌덕왕 11)에는 상대등에 임명되었다. 기록에는 보이지 않지만, 김충공도 이미 애장왕 대에 권력의 핵심에 참여하였을 것이다. 그는 817년(헌덕왕 9) 1월 시중에 임명되어 821년(헌덕왕 13) 4월까지 재임하였다. 822년(헌덕왕 14) 정월에는 부군이 된 형 김수종의 후임으로 상대등에 임명되었다. 김충공은 정사당에서 내외관內外官의 인사문제를 처리하는 등 실권을 행사하였다. 김예영의 아들 김헌정金憲貞은 807년(애장왕 8) 시중에 기용되어 810년(헌덕왕 2) 정월까지 재임하였다. 813년(헌덕왕 5) 당시 그는 이찬으로서 국상國相, 병부령 겸 수성부령의 관직을 갖고 있었다. 김헌정의 동생 김균정金均貞은 812년(헌덕왕 4) 봄부터 814년(헌덕왕 6) 8월까지 시중을 지냈다. 그는 김헌창의 난 때 이찬으로 토벌군의 지휘관으로 참전하였다.

하대가 개막되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중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애장왕대의 오묘제 개편은 혜공왕대의 오묘제 개편과 마찬가지로 왕실의 직계조상에 대한 제사를 통해 왕권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다. 원성왕 이후 여러 왕들이 태자 책봉에 집착하였는데, 이는 중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신문왕과 경덕왕은 왕자를 낳지 못한 왕비를 출궁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맞았던 일조차 있었다. 근친왕족의 요직 독점도 중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원성왕계 왕실의 왕권강화는 권력의 핵심에서 소외된 진골귀족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2 진골귀족의 분열과 상쟁

김헌창의 난

조카인 애장왕과 그 동생 김체명金體明을 죽이고 즉위한 헌덕왕은 동생 김수종과 김충공을 중용하여 왕권의 안정을 꾀하였다. 한편으로는 원로 진골귀족들을 예우하였다. 812년(헌덕왕 4) 이찬 충영忠永이 70세가 되자 궤장几杖 내려주었다. 819년(헌덕왕 11)에는 이찬 진원眞元이 70세가 되자 역시 궤장을 하사하였다. 70세가 되지 않았지만, 병으로 보행이 불편하였던 이찬 김헌정에게 특별히 지팡이를 내려주었다. 823년(헌덕왕 15) 정월에는 원순元順과 평원平原 두 각간이 70세가 되어 관직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자 궤장을 하사하였다. 헌덕왕은 궤장을 내려 주는 등 원로 진골귀족들을 예우함으로써 왕위 찬탈과 근친왕족들의 권력독점에 대한 진골귀족들의 불만을 무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미봉책임은 물론이었다. 그들의 불만은 822년(헌덕왕 14) 3월 웅천주熊川州 도독 김헌창金憲昌의 반란으로 터져 나왔다.

원성왕은 즉위 직후 태종무열왕의 후손인 김주원과 그 후손들을 포섭하려고 하였다. 원성왕은 자신과의 왕위경쟁에서 밀려나 명주로 퇴거한 김주원을 명주군왕溟州郡王으로 봉하였다. 그리고 명주에 속한 몇 개 고을을 식읍으로 주었다. 790년(원성왕 6)에는 김주원의 아들인 김종기金宗基를 시중으로 삼았다.

김주원의 또 다른 아들인 김헌창은 813년(헌덕왕 5) 정월 무진주 도독에 임명되었다. 814년(헌덕왕 6) 8월에는 시중으로 승진하여 816년(헌덕왕 8) 정월까지 재임하였다. 다시 외직으로 나가 청주 도독을 거쳐 821년(헌덕왕 13) 4월에는 웅천주 도독에 임명되었다. 그는, 도독과 시중을 역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지방으로 나가 도독으로 6년 정도를 지내야 했다. 김헌창은 헌덕왕으로부터 홀대를 당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권력으로부터 소외되었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김헌창은 국호를 장안長安이라 하고, 연호를 경운慶雲이라고 하였다. 그는 무진주武珍州, 완산주完山州, 청주菁州, 사벌주沙伐州의 4개 주 도독과 국원경國原京, 서원경西原京, 금관경金官京의 사신仕臣 및 여러 군현의 수령들을 위협하여 장악하려고 하였다. 이에 청주 도독 향영向榮은 추화군推火郡(밀양)으로 달아났다. 한산주漢山州, 우두주牛頭州, 삽량주歃良州, 패강진浿江鎭, 북원경北原京 등은 반군의 공격에 대비해 수비를 강화하였다.

급보를 접한 헌덕왕은 우선 왕도의 경계를 강화하였다. 이어 진압군을 파견하였다. 일길찬 장웅張雄이 선발대로 가고, 잡찬 위공衛恭과 파진찬 제릉悌凌이 뒤따랐다. 이찬 김균정金均貞, 잡찬 웅원雄元, 대아찬 김우징金祐徵 등은 주력 부대인 3군을 이끌고 출동하였다. 각간 김충공과 잡찬 윤응允應은 문화관문蚊火關門(경주 외동면)을 지키게 하였다. 화랑 명기明基와 안락安樂도 낭도들을 이끌고 참전하였다. 몇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한 진압군은 반군의 근거지였던 웅진성熊津城(공주)으로 집결하여 10여 일 동안 성을 포위, 공격하였다. 성이 함락되기 직전 김헌창은 자살하였다. 난에 가담한 김헌창의 종족宗族과 당여黨與 239명이 죽음을 당했다.

825년(헌덕왕 17) 정월에는 김헌창의 아들 김범문金梵文이 고달산高達山(여주)의 산적 수신壽神 등 1백여 명과 반역을 모의하였다. 그는 평양平壤(서울 부근의 양주)을 수도로 삼으려고 북한산주北漢山州를 공격하였다. 김범문의 난은 도독 총명聰明에 의해 진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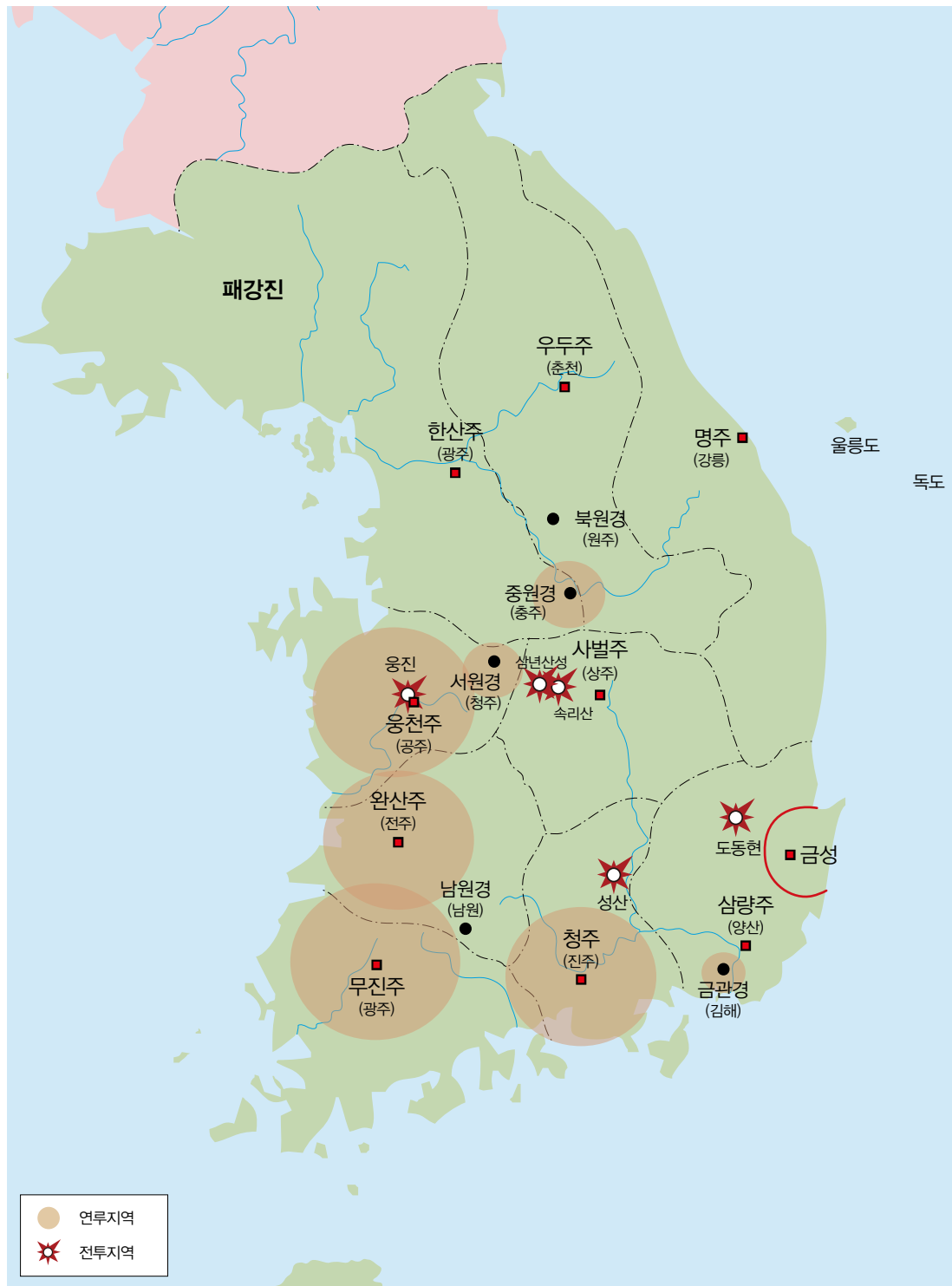
그림 3 김헌창의 난

김헌창 부자의 반란은 모두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갖는 의미는 적지 않다. 김헌창은 아버지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하였던 사실을 반란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김헌창의 난은 왕권에 대한 무열왕계의 재도전이었다는 성격을 지닌다.

이에 대해 원성왕계 왕족의 연합이 이루어졌다.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키기 직전 상대등에서 부군이 되었던 김수종이 반란의 진압을 전체적으로 지휘하였을 것이다. 상대등 김충공도 참전하였다. 김예영의 아들인 김균정과 그 아들 김우징은 주력 부대를 이끌었다. 선발대에 합류한 제릉은 김헌정의 아들 김제륭金悌隆으로 여겨진다.

반면 김주원계는 분열하였다. 김종기계는 반란에 참여하지 않고 원성왕계 왕실에 협력하였다. 반란이 실패한 후에도 김종기계는 정치적으로 건재하였다. 하지만 이후 무열왕계는 더 이상 왕권에 도전할 수 없게 되었다. 원성왕계 왕실의 독주체제가 갖추어졌다.

헌덕왕대에 지방 농민들의 사정은 전에 비해 악화되었다. 당이나 일본에까지 먹을 것을 구하러 가는 경우도 잦았다. 김헌창이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표방하였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다. 신라를 부정한 반란은 유례가 없었다. 그런 만큼 왕실과 중앙정부의 권위는 크게 손상되었다. 조정의 지방통제력은 약화되었고, 지방의 세력가들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훗날 견훤은 후백제를 세웠고, 궁예는 후고구려를 세웠다. 김헌창의 난은 그 선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집권체제의 정비

헌덕왕의 뒤를 이어 즉위한 흥덕왕은 김헌창 난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진골귀족사회의 분열 현상을 극복하고자 화합책을 모색했다. 흥덕왕은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김종기의 후손들을 중용하였다. 김종기의 손자인 김흔金昕은 822년(헌덕왕 14) 당에 사신 겸 숙위학생으로 다녀온 뒤 남원태수, 강주도독을 거쳐 재상이 되었다. 또 다른 손자인 김양金陽은 828년(흥덕왕 3) 고성군固城郡

(고성) 태수로 출발하여 중원소경中原小京의 대윤大尹, 무주도독이 되었다. 김유신을 흥무대왕興武大王으로 추봉한 시기에 대해서는 경명왕 때라는 설도 있으나 흥덕왕 때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그렇다면 이 조치는 김유신의 후손들을 포섭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흥덕왕은 김헌창의 난으로 실추된 왕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앞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근친 왕족들에게 요직을 맡겼다. 흥덕왕은 동생인 김충공을 중용하였다. 사촌동생인 김균정은 835년(흥덕왕 10) 2월 상대등에 임명되었다. 그의 아들 김우징은 828년(흥덕왕 3) 정월 시중이 되어 831년(흥덕왕 6) 정월까지 재임하였다. 834년(흥덕왕 9) 정월 다시 시중이 되었는데, 부친이 상대등에 취임하자 물러났다. 흥덕왕은 그 후임으로 김충공의 아들인 김명金明을 임명했다. 왕은 사촌동생인 김균정을 상대등에 기용함과 동시에 조카 김명을 시중에 임명하였다. 흥덕왕은 김예영과 김인겸의 후손들을 적절히 안배하여 등용함으로써 일종의 세력균형을 꾀하였다.

원성왕계 왕실도 중대 왕실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정치이념에 입각한 통치를 지향했다. 이를 위해 원성왕은 788년(원성왕 4)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뽑기 위해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소성왕은 즉위한 그 해 곧 799년에 청주 거로현居老縣을 학생녹읍으로 삼았다. 이는 유학교육기관인 국학을 내실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애장왕은 805년(애장왕 6) 8월 "공식公式" 20여 조를 반포하였다. 같은 해에 관리의 인사를 담당하는 위화부位和府와 사천왕사성전四天王寺成典 등의 장관과 차관 직명이 중국 식으로 바뀌었다. 즉 금하신衿荷臣, 상당上堂과 같은 신라 고유의 이름을 중국식의 영令, 경卿으로 개칭하였다. 이와 동시에 예작부例作府 등 여러 관청의 대사大舍 이하 사史 등 하급 관직의 정원을 줄였다. 이상의 조치들은 '공식' 20여 조와 관련이 있었을 것이다.

애장왕은 806년(애장왕 7) 불사佛事를 규제하는 교서를 내렸다. 새로 절을 창건하는 것을 금하고 오직 수리하는 것만 허락하였다. 또한 불교행사에서 사치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왕실과 진골귀족들 사이에서 성행하였던 원찰의 건립이나 화려한 불사의 시행을 막고, 그로 인해 유발되는 각종 폐단을

근절하려는 조치였다. 또 808년(애장왕 9)에는 사자를 12방면에 보내 여러 군읍郡邑의 경계를 나누어 정하였다. 이는 전국적인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지방 행정구역을 재정비함으로써 지방 지배를 원활히 하려는 시도였다고 풀이된다. 다만, 그 내용은 잘 알 수가 없다.

흥덕왕도 율령의 개정을 통해 집권체제를 정비하려고 하였다. 흥덕왕릉비의 비편碑片 명문에 새겨진 "격식시개格式是皆"라는 구절은 흥덕왕 때 격식格式의 편찬 내지 수정 작업이 진행되었을 것임을 알려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지만, 이와 관련하여 829년(흥덕왕 4) 집사부가 집사성으로 개칭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하대에 들어오면서 집사부의 정치권력이 강화된 결과 이를 집사성으로 고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의 3성제를 모방하여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풀이된다. 759년(경덕왕 18) 관부와 관직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고친 것이 왕권 강화를 위한 조치의 하나였다는 점을 고려할 일이다.

흥덕왕은 신분제를 정비하려고 하였다. 이는 834년(흥덕왕 9) 반포된 교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람은 상하가 있고, 지위는 존비가 있으며 명칭과 법식法式은 같지 않고 의복도 다르다. 그런데 지금 풍속이 점점 각박해지고 백성들은 다투어 사치·호화를 일삼고 다만 외래품의 진기한 것만을 숭상하고 도리어 토산품의 야비한 것을 싫어하니, 예절이 참람해지는 데 빠지고 풍속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골품제에 따른 사회적 규범이 해이해지고 특히 귀족층의 사치풍조가 만연했다. 이 교서는 지배층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었다. 진골 이하 6두품, 5두품, 4두품, 평인平人, 백성百姓에 이르기까지 신분의 등급에 따른 규제 사항을 정하였다. 그 내용은 『삼국사기』 잡지의 색복色服, 거기車騎, 기용器用, 옥사屋舍 조에 전한다.

흥덕왕이 이와 같은 교서를 내린 정치적 배경에 대해서 풍속의 정치적 규제, 골품제의 사회적 기초를 구성하고 있는 동족집단에 대한 정치적 재평가, 지방에 거주하는 여러 집단에 대한 정치적 재편성 등이 거론된다. 이와 아울러 중국 황제의 지위에 대응하는 왕권의 창출에 있었다는 해석도 있다. 즉 국왕과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본다

그림 4 경주 흥덕왕릉

면 교서의 반포는 집사부를 집사성으로 고쳐 왕권의 강화를 도모하려 했던 흥덕왕의 의도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

왕위쟁탈전

후사가 없었던 헌덕왕은 동생인 김수종을 태자로 삼았다. 역시 마찬가지 처지였던 흥덕왕도 아우인 김충공을 태자로 봉했다. 그런데 김충공은 835년(흥덕왕 10) 2월 경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흥덕왕은 사촌동생인 김균정을 상대등에 임명했다. 왕의 후사가 없었음을 고려하면 이는 곧 후계자 지명이나 다를 바 없었다. 물론 김충공의 아들인 대아찬 김명도 고려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다만 김명

은 19세였고, 자연 김균정에 비해 정치적 관록이 부족하였다. 김균정은 헌덕왕 때 이미 시중을 지냈고, 김헌창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운 바도 있었던 것이다. 흥덕왕으로서는 근친 왕족 중 김균정에 버금가는 왕위계승 후보자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다. 단 김명을 시중에 임명함으로써 김균정에 대한 견제를 꾀했다.

흥덕왕은 재위 11년 곧 836년 12월에 60세로 죽었다. 왕은 먼저 죽은 왕비와 합장할 것을 유언으로 남겼을 뿐 후계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남기지 않았다. 이제 상대등인 김균정이 즉위하는 것이 순리로 보였다. 왕으로 추대된 김균정은 아들 김우징을 비롯하여 예징禮徵, 김주원계의 김양 등 지지자들과 함께 적판궁積板宮에 들어가 "족병族兵"의 호위를 받았다. 그런데 시중 김명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김균정의 조카이며, 동시에 자신의 매부이기도 한 김제륭을 왕으로 추대했다. 그리고 아찬 이홍利弘과 배훤백裴萱伯 등을 자파로 끌어들였다. 김명, 이홍 등이 군대를 끌고 와서 궁을 포위했고, 무력 충돌이 벌어졌다. 김균정은 피살되었고, 김양은 화살을 맞은 채 김우징 등과 함께 피신했다. 왕위쟁탈전은 김명 일파의 승리로 돌아갔고, 김제륭이 즉위하였다(827년 정월). 그가 희강왕이었다.

희강왕은 즉위와 동시에 시중 김명을 상대등에, 아찬 이홍을 시중에 각각 임명했다. 하지만 정치적 실권은 김명이 장악했던 듯하다. 한편 왕위쟁탈전에서 패배한 김우징은 김명 일파를 원망하는 말을 퍼뜨렸다. 김명 등이 이를 못마땅해 하자 김우징은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해 837년(희강왕 2) 5월에 청해진淸海鎭으로 달아났다. 828년(흥덕왕 3) 4월 청해진의 설치를 허가할 당시 김우징이 시중이었으므로, 그는 장보고와 특별한 인연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곧이어 예징이 아찬 양순良順과 함께 청해진으로 가서 김우징과 합류하였다.

838년(희강왕 3) 정월 김명은 시중 이홍과 더불어 난을 일으켜 희강왕을 스스로 죽게 하고, 자신이 왕이 되었다. 그가 곧 민애왕이었다. 그 해 2월 김양은 군사를 모집하여 청해진으로 들어가 민애왕을 칠 계획을 의논하였다. 민애왕의 찬탈 소식은 김우징 일파에게 명분을 제공했다. 김우징은 장보고에게 민애왕과 그 일파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일 뿐만 아니라 임금을 시해한 역적임을 들어 군사를 내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장보고는 군사 5천 명을 오랜 친

구인 정년鄭年에게 주어 김우징 일파를 돕도록 했다.

김양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김우징, 장보고 연합군은 두 차례의 전투에서 왕군을 격파하였다. 왕경으로 진격한 연합군에 의해 민애왕은 피살되었고(839년 윤정월), 김우징이 즉위하였다(839년 4월). 그가 신무왕이었다. 신무왕은 일찍이 김헌창의 반란 때 지휘관으로 참전하여 공을 세웠다. 그 뒤 두 차례나 시중을 역임하는 등 정치적인 경험도 풍부한 편이었다. 그러나 신무왕은 자신의 경륜을 펴보지 못하고, 재위 반년도 되지 않아 죽었다(839년 7월).

흥덕왕 사후 치열하게 벌어졌던 왕위쟁탈전은 원성왕계 내 여러 가계의 연립과 대결 속에서 전개되었다. 즉 원성왕의 두 아들인 김인겸계(김명=민애왕)와 김예영계(김균정), 김예영의 두 아들인 김헌정계(김제륭=희강왕)와 김균정계(김우징=신무왕)가 서로 얽혀 싸웠던 것이다. 여기에 김주원의 후손인 김양이 김균정과 신무왕을 지지하였고, 김흔金昕은 민애왕의 편이 되어 가세하였다.

골품제의 원리에 따르면 진골귀족의 후손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 자연 도태되거나 정쟁으로 인해 몰락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진골귀족의 수는 계속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골 혹은 무열왕계나 원성왕계라고 하는 큰 범위의 연대의식은 점차 약화되었다. 그보다는 보다 좁은 범위의 가계 구성원들이 결집하게 되었다. 5묘제가 확립되고, 직계상속이 중시되면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촉진되었다. 왕족을 포함한 유력 진골귀족 가문의 여러 가계들이 분지分枝하여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 단위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한편, 왕위쟁탈전에 진골귀족들의 사병私兵이 동원되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처음 김균정을 옹위하였던 '족병'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맞서 김제륭과 김명이 동원한 병력도 그들의 사병이었을 것이다. 김헌창의 난 때 화랑 명기와 안락이 낭도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였는데, 그 낭도들 역시 사병적 집단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난이 진압된 후 김헌창의 종족, 당여 239명을 처형하였는데, 이들 중 일부는 사병의 일원이었을 것이다.

통일신라의 유력한 진골귀족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였다. 그 사정이 중국 측 기록에 다음과 같이 전한다. "재상의 집에는 녹祿이 끊이지 않고, 노동奴僮이 3천 명이다. 갑병甲兵(갑옷과 무기)과 소, 말, 돼지도 노동의 숫자와 맞먹는다. 가축은 바다 가운데 섬의 산에서 방목放牧하다가 필요할 때에 화살을 쏘아 잡는다." 이중 갑옷과 무기를 3천개 정도 소유하였다는 데에서 그들이 많은 수의 사병을 거느렸음을 알 수 있다. 노동 즉 노비를 무장시켜 사병으로 부리거나 유민들을 모아 사병을 삼기도 하였을 것이다. 유력한 진골귀족들은 녹읍이나 농장, 목장 등을 경제적 기반으로 하여 상당한 수의 사병을 양성하였다. 이들이 왕위쟁탈전에 동원되었던 것이다.

3 진골귀족의 연립

장보고의 대두

장보고는 9세기 초반 무렵 당唐으로 건너가 서주徐州 무령군武寧軍의 군중소장軍中小將이 되었다. 무령군은 서주절도사의 주력부대로서 평로치청절도사平盧淄靑節度使 이사도李師道를 토벌하는 선봉을 맡았다. 군중소장은 병사 1천 명을 지휘하는 고급 장교였다. 장보고는 이사도 군대와의 전투에서 군공을 세워 출세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819년 2월 이사도를 끝으로 당에 반기를 들었던 지방의 절도사들은 모두 평정되었다. 이후 당에서는 군비 절감을 위해 각 절도사 휘하의 병력을 줄였다. 이런 와중에 장보고는 무령군을 떠났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824년 무렵 장보고가 일본의 하카다博多 지역과 관계를 맺고 무역활동을 전개하였던 흔적이 보인다. 무령군을 떠난 이후 장보고는 해상무역에 종사하였던 것이다.

안사安史의 난 이후 이사도의 할아버지 이정기李正己와 그 후손들은 55년 동안 산동성山東省 일대를 통치하였다. 이씨 일가는 평로치청절도사라는 본직 외에 해운압신라발해양번사海運押新羅渤海兩藩使의 직책을 겸하고서 황해의 해상

그림 5 완도 청해진 유적

권을 장악하고 무역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819년 이사도를 끝으로 이정기 가문이 몰락하자, 사무역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무령군에 근무하였던 장보고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무역활동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산동반도는 중국 대륙과 한반도 및 일본 열도를 연결하는 중요 교통로에 속하였다. 이 지역에는 각국 사신의 왕래는 물론 민간인들의 왕래도 잦았다. 특히 신라인

들은 산동반도 일대에 신라방新羅坊이라는 자신들의 사회를 이룩하고 있었다. 장보고는 이곳을 교역활동의 근거지로 삼았다.

당나라에서 활동하던 장보고는 828년(흥덕왕 3) 귀국하여 흥덕왕에게 청해진 설치를 건의하였다. 그는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잡아다 노비로 파는 행위를 막겠다고 약속하였다. 흥덕왕은 장보고에게 대사大使의 직함과 함께 군사 1만 명을 주어 완도의 청해진을 지키도록 하였다. 청해진이 설치된 이후, 한반도 서남해안에 출몰하던 해적은 자취를 감추었다. 중국 측 기록에 따르면 흥덕왕의 재위 기간에 해당하는 당 문종文宗의 태화太和 연간(827~835) 이후부터 해상에서 신라인을 잡아가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조정에서 장보고에게 1만 명의 군사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그에게 완도 일대의 주민 1만 명을 규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완도는 장보고의 고향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가 완도에 세력기반을 구축한 후 자신의 세력을 흥덕왕으로부터 추인을 받았을 수도 있다. 여하튼 청해진의 군대는 국가의 공적 군대라기보다는 장보고의 사병집단이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사라는 관직이 신라의 관직체계에서 찾을 수 없는 예외적인 것이었다는 점도 주목된다. 신라에서는 국경지대와 해안에 군진을 두었는데, 그 장관은 두상대감頭上大監(都護라고도 함) 혹은 진두鎭頭였다. 대사라는 관직은 장보고와 청해진의 독자성을 말해 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보고는 해상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였다. 대당매물사大唐賣物使와 교관선交關船을 보내어 당과 교역하였다. 교관선은 등주登州 문등현文登縣 청녕향淸寧鄕의 적산포赤山浦(山東省 榮城市 石島鎭)로부터 남쪽으로는 강소성江蘇省 양주揚州 지역 등을 왕래하였다. 당시 양주는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 등지의 상인들이 찾는 국제무역 도시였다. 장보고는 이들의 물품을 신라나 일본에 파는 중계무역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 장보고는 일본에 무역선과 함께 회역사廻易使를 보냈다. 그는 하카다에 무역 근거를 마련하고, 일본 관원들과 직접 교역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장보고의 무역선이 가져온 물건들을 "당국화물唐國貨物"이라고 불렀는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

장보고는 김우징이 즉위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웠다. 신무왕은 장보고를 감의군사感義軍使로 삼고, 식읍 2천 호를 주는 등 우대하였다. 신무왕의 뒤를 이은 문성왕도 즉위하자마자 선왕의 즉위를 도운 장보고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는 교서를 내렸다. 그리고 그를 진해장군鎭海將軍으로 삼고, 장복章服을 하사하였다. 그런데 김우징은 장보고에게, 자신이 왕이 되도록 돕는다면 그의 딸을 왕비로 맞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 약속에 따라 845년(문성왕 7) 3월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은 "지금 궁복은 섬사람인데, 그의 딸을 어찌 왕실의 배필로 정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대하였다. 문성왕도 신하들의 주장에 동조하였다. 장보고는 납비納妃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846년(문성왕 8) 봄 반란을 꾀하였는데, 조정에서 보낸 자객 염장閻長에 의해 피살되고 말았다. 851년(문성왕 13) 2월에 청해진은 폐쇄되었고, 그곳 백성들은 벽골군碧骨郡(김제)으로 집단 이주되었다. 이로써 청해진은 해체되고 말았다.

그런데 장보고의 사망연대에 대해서는 이설이 있다. 국내 기록과는 달리 일본 측 기록에는 그가 841년 11월 중에 죽었다고 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들이는 것에 대한 반대 논의나 장보고의 모반은 841년(문성왕 3) 11월 이전의 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842년(문성왕 4) 3월 김양이 그의 딸을 문성왕의 왕비로 들였다는 기록이 주목을 받았다. 즉 장보고와 더불어 신문왕 즉위의 일등공신이었던 김양이 장보고 딸의 납비를 반대하는 논의를 주도하여 이를 무산시키고, 자신의 딸을 왕비로 들였을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다.

장보고의 딸이 왕비가 되면 장보고의 중앙 정계 진출이 가시화되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것임은 분명하였다. 그런데 장보고는 섬사람으로서 지방인이었다. 왕경의 진골귀족들로서는 지방인의 중앙 정계 진출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신라의 골품제는 왕경인의 특권을 위해 고안된 것이었다. 이 점에서 장보고는, 해상왕으로서뿐만 아니라, 골품제의 모순에 저항해 왕경의 진골귀족들에게 도전하였던 지방인으로서도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830년대 말 왕위쟁탈전에서는 불과 3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에 유력한 왕위계승자 김균정과 희강왕, 민애왕이 죽음을 맞았다. 왕궁과 왕경은 전쟁터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방 군벌軍閥 장보고에 의해 왕위의 향방이 결정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지배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비록 장보고는 실패하였지만, 이후 지방세력가들이 전국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는 진골귀족들의 공동 이익을 위협하는 것이었다. 이에 진골귀족들은 일종의 연립의 태세를 갖추지 않을 수 없었다.

김균정계와 김헌정계의 연합

신무왕이 재위 4개월 만에 죽자, 태자 김경응金慶膺이 즉위하였다(839년 8월). 그가 문성왕이었다. 문성왕은 즉위 직후 왕위쟁탈전에서 아버지 김우징과 생사를 같이 한 김양을 소판 겸 창부령으로 삼았다. 그리고 840년(문성왕 2) 정월 예징을 상대등으로 삼고, 의종義琮을 시중으로 삼았으며, 양순을 이찬으로 삼았다. 문성왕은 신무왕의 즉위를 도운 공신들을 중심으로 정계를 개편하였다.

그런데 왕위쟁탈전의 후유증이랄까 여진이 계속되었다. 장보고의 모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밖에도 841년(문성왕 3) 일길찬 홍필弘弼이 모반하다가 발각되어 해도海島로 도망하였다. 847년(문성왕 9)에는 신무왕 옹립에 공이 컸던 전 시중 이찬 양순이 파진찬 흥종과 함께 반란을 꾀하다 죽음을 당했다. 849년(문성왕 11)에는 이찬 김식金式이 이찬 대흔大昕 등과 반란을 꾀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대흔은 민애왕 측의 군대를 이끌고 김우징, 장보고 연합군에 맞섰던 인물이었다.

문성왕은 원성왕계 내 계파 간 타협을 통해 왕위쟁탈전 이후의 혼란을 수습하려고 하였다. 우선 희강왕의 아들 김계명金啓明과 문성왕의 누이 광화부인光和夫人이 혼인하였다. 혼인이 성사된 시기는 840년 전후, 즉 문성왕의 즉위 무렵으로 추측된다. 이로써 보면 둘의 결혼은 신무왕이 추진한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것은 여하튼 이는 종래 대립, 상쟁하였던 김균정계와 김헌정계, 범 김예영계의 화합과 타협을 보여준다.

문성왕은 847년(문성왕 9) 8월 아들을 태자로 삼았다. 이 때 김양을 시중 겸 병부령으로 삼았다. 김양은 848년(문성왕 10) 여름 시중 직을 사임하였고, 김계명이 시중에 취임하였다. 849년(문성왕 11)에는 의정義正을 상대등에 임명하였다. 의정은 문성왕의 숙부로, 왕의 뒤를 이어 헌안왕이 되었던 김의정金誼靖과 같은 인물이다. 문성왕 후반기에는 왕과 태자를 정점으로 공신이자 외척인 병부령 김양, 김균정계의 상대등 김의정과 김헌정계의 시중 김계명이 나름대로 세력균형을 이루면서 정국을 주도하였다.

852년(문성왕 14) 11월 태자가 사망하였다. 857년(문성왕 19) 8월에는 김양이 사망하였다. 그는 신무왕 옹립의 일등공신이자, 왕의 장인으로서 문성왕을 지지하는 버팀목이었다. 왕은 매우 애통해 하며 김유신의 예에 따라 김양의 장례를 치르도록 하였다. 김양의 죽음은 문성왕에겐 큰 충격이었던 모양으로, 같은 해 9월 문성왕도 사망하였다.

문성왕은 숙부인 김의정을 왕으로 삼으라는 유조를 내렸다. 이에 따라 김의정이 즉위하니 그가 헌안왕이었다(857년). 유조에 따르면 김의정은 오랫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으면서 국정을 도왔다고 한다. 김의정은 당시 상대등이었다. 그가 문성왕 때에 김양과 더불어 "남북상南北相"으로 활약하였다고 한 기록을 보면 840년(문성왕 2) 시중에 임명되었던 의종義琮도 김의정일 가능성이 있다. 주목되는 것은 헌안왕이 원성왕계의 두 후손인 김인겸계와 김예영계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즉 왕의 부계는 김균정, 김예영으로 연결되고, 모계는 김충공, 김인겸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헌안왕은 즉위 직후 김안을 자신의 후임 상대등으로 임명하였다. 시중 임명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김계명이 시중에 유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헌안왕은 김계명의 아들 김응렴金膺廉을 사위로 맞았다. 김응렴은 화랑이었다. 그는 860년(헌안왕 4) 9월 궁중에서 열리는 잔치에 참석하였는데, 헌안왕은 그에게 사방을 유람하면서 착한 행실이 있는 자들을 발견하였는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김응렴은 윗자리에 있으면서 겸손한 사람, 재산이 많으면서 검소한 사람, 세력이 있으면서 그것을 내세우지 않는 사람 등 세 유형의 사람들을 거론하였다. 이 말을 들은 헌안왕이 김응렴의 자질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사위로 삼았다. 이로써 김균정계와 김헌정계의 연합구도는 보다 공고해졌다.

헌안왕은 861년(헌안왕 5) 정월 사망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김응렴이 즉위하

였다. 헌안왕은 유조에서 "과인은 불행하게도 아들이 없고 딸만 두었다. 우리나라 옛 일에 선덕과 진덕 두 여왕이 있었지만, 이는 암탉이 새벽을 알리는 것과 가까운 일이라 본받을 수 없다. 사위 응렴은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노련한 덕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사위 응렴을 왕으로 받들라고 하였다. 앞서 문성왕은 유조를 통하여 숙부 헌안왕에게 왕위를 넘겼다. 이후 부자상속이 아닌 왕위계승에서는 전왕의 유조가 그 정당성을 담보하였다. 즉 헌안왕이 그랬고, 정강왕이 진성여왕으로 왕위를 넘길 때 역시 그러하였다. 진성여왕은 조카인 김요金堯를 태자로 삼은 뒤에 다시 유조 성격의 선위교서를 내려 왕위를 물려주었다.

경문왕이 즉위함으로써 왕통은 김균정계에서 김헌정계로 넘어갔다. 왕은 불사佛事를 통해 원성왕계 후손의 화합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경문왕은 862년(경문왕 2) 원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인 곡사鵠寺를 중창하려고 계획하였다. 곡사의 중창은 그로부터 3년 후 시작되었지만, 이것이 원성왕계 여러 후손들의 단합을 위한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경문왕은 863년(경문왕 3) 9월 10일에 팔공산 동화사桐華寺의 원당願堂 앞에 석탑을 조성하고, 민애왕의 복업을 추숭하였다. 870년(경문왕 10년) 5월 경문왕은 보림사寶林寺에 남북 2기의 석탑을 세웠다. 이 석탑은 헌안왕의 왕생을 기원해 건립되었다. 경문왕은 석탑 건립을 통해 김인겸계는 물론 김균정계 세력을 포섭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경문왕은 재위 11년 즉 871년 정월에 황룡사 9층 목탑을 보수하기 시작해 872년 11월 25일에 공사를 마쳤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황룡사는 신라를 대표하는 사원이었다. 신라를 지켜준다는 세 가지 보물 가운데 두 가지가 이 절에 있었는데, 장육존상과 9층 목탑이 그것이다. 경문왕이 9층 목탑에 대한 중수 불사를 일으켰던 것은 왕실의 위상 높이고, 여러 정치 세력을 왕실 중심으로 묶으려는 의도에서였다.

한편, 이상과 같은 경문왕의 정책에 대한 반발도 있었다. 866년(경문왕 6) 10월에 이찬 윤흥允興이 동생 숙흥叔興, 계흥季興과 함께 반란을 꾀했다. 2년 뒤인 868년(경문왕 8) 정월에는 이찬 김예金銳와 김현金鉉이, 874년(경문왕 14) 5월에는 이찬 근종近宗이 반란을 일으켰다. 경문왕은 866년 정월 아버지를 의공대왕懿恭大王으로 추봉하고, 왕자 김정金晸을 왕태자로 삼았다. 윤흥의 난은

그림 6 대구 동화사 민애왕석탑사리합

그림 7 경주 황룡사지 9층목탑 찰주본기

이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김예는 문성왕의 사촌 동생이었다. 그는 855년(문성왕 17)에 웅주 기량현祈梁縣(아산 신창면) 현령이었는데, 왕의 종숙從叔 김계종金繼宗, 김훈영金勛榮 등과 함께 경주 남산 창림사昌林寺 무구정탑無垢淨塔 건립의 책임을 맡았다. 위에 든 세 차례의 반란은 왕통이 김헌정계로 넘어간 것에

대한 김균정계의 반발과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경문왕은 반란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였다. 즉 윤흥 등이 대산군岱山郡(성주 혹은 정읍시 칠보면?)으로 달아났는데, 그들을 잡아 죽이고, 삼족을 멸하였다. 근종이 대궐을 공격하자 왕실을 호위하는 금군을 내어 이를 평정하였다. 근종은 무리를 이끌고 달아났는데, 그를 붙잡아 수레에 매어 찢어 죽였다. 경문왕은 원성왕계 내 각 계파 간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왕권에 도전하는 왕족 내지는 진골귀족들에게 강경하게 대처하였다. 한편으로는 관제개편을 통한 왕권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의 확대

경문왕은 즉위 전 화랑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흥륜사興輪寺 승려이며, 자신이 이끌던 화랑도의 교사인 범교사範教師의 충고에 따라 헌안왕의 장녀와 혼인하였다. 즉위한 후에는 국선 요원랑邀元郎, 예흔랑譽昕郎, 계원桂元, 숙종랑叔宗郎 등이 그를 지지하였다. 경문왕의 즉위와 정국 운영에서 화랑세력의 역할이 적지 않았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경문왕대를 전후하여 한화정책을 통해 집권체제를 강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는 9세기 후반에 작성된 금석문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즉 759년(경덕왕 18)부터 776년(혜공왕 12) 초까지 사용되었던 중국식의 관부와 관직 명칭이 대체로 9세기 후반에 이르러 다시 사용되었던 것이다. 관부의 경우 예궁전穢宮典이 진각성珍閣省으로, 영객부領客府가 사빈부司賓府로, 내성內省이 전중성殿中省으로, 사정부司正府가 숙정대肅正臺로 이름이 바뀌어 등장한다. 관직명의 경우 병부의 차관인 대감大監이 시랑侍郎으로, 그 밑의 대사大舍가 낭중郎中으로, 노사지弩舍知가 사병司兵으로, 창부倉部의 차관인 경卿이 시랑으로, 그 아래의 대사가 낭중으로, 조사지租舍知가 원외랑員外郎으로 개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패강진의 장관은 두상대감이었는데, 9세기 말 경의 여러 금석문에는 중국식 명칭인 도호都護로 나온다.

경덕왕의 한화정책은 왕권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에 비추어 생각하면, 9세기 후반 추진되었던 한화정책은 앞서의 심각한 왕위쟁탈전으로 실추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관부가 중사성中事省이다. 중사성은 본래 세택洗宅이었는데, 경덕왕 때 중사성으로 개명되었다가 혜공왕 때 복고되었다. 872년(경문왕 12) 이전 다시 중사성으로 개명된 뒤 신라 멸망 때까지 그 이름을 유지하였다.

중사성은 국왕 직속의 그것과 동궁 직속의 그것이 각각 따로 존재했다. 국왕이나 태자에 대한 시종이 그 본래의 임무였던 듯하다. 그런데 9세기 후반에는 소속 관원들이 문한기관인 숭문대崇文臺의 학사직學士職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령 경문왕 때 명필로 유명하였던 요극일姚克一은 숭문대와 동궁 중사성의 관직을 겸했다. 중사성이, 시종의 임무를 넘어, 조서를 작성한다거나 혹은 태자에게 유학을 강의하는 등 문한기구의 역할도 겸하였던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근시기구의 기능 확대라는 측면에서 선교성宣教省도 주목된다. 선교성은 9세기 후반의 금석문에서만 찾을 수 있는데, 860년(헌안왕 4) 이전에 설립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선교성은 국왕의 명령을 받드는 국왕 직속의 관부였다. 그런데 그 명칭이 발해의 선조성宣詔省과 유사하다. 이 점에서 선교성은 국왕의 교서를 작성 선포하는 관부였을 가능성도 있다.

왕권 회복기에 해당하는 9세기 중엽에 있어서 왕명을 받드는 기관의 필요성은 커졌다. 그 결과 종래 국왕의 단순한 시종기관에 불과했던 세택을 다시금 중사성으로 개명하고, 그 기능을 강화하여 일종의 내조內朝를 형성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맡도록 했다고 짐작된다. 경문왕은 중사성이나 선교성 등을 통해 측근의 세력집단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왕권강화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75년 7월 8일에 경문왕은 재위 15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이어 태자 김정金晸이 왕위를 이으니, 그가 헌강왕이었다. 왕은 즉위한 후 곧 이찬 김위홍金魏弘을 상대등으로 삼고, 대아찬 예겸乂謙(혹은 銳謙)을 시중으로 삼았다. 김위홍은 헌강왕의 숙부로, 경문왕 때부터 이미 정국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865년(경문왕 5)에는 계종, 훈영 등과 함께 곡사를 중창하는 불사를 진행하였다. 당의 책봉을 받은 경문왕을 대신해 종묘에 나아가 이를 고하기도 하였다. 871

년(경문왕 11)부터는 상재상上宰相과 병부령으로서 황룡사 9층 목탑의 중수 불사를 총괄하였다. 헌강왕이 즉위 때 15세 정도였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김위홍은 섭정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수도 있다.

헌강왕 때에는 문한기구들이 승격 내지 확장되었음이 주목된다. 9세기 후반의 금석문 자료를 검토해 보면 880년(헌강왕 6) 무렵에 한림대翰林臺가 서서원瑞書院으로 개명되고, 한림랑翰林郞 대신 학사 및 직학사直學士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치원崔致遠, 박인범朴仁範 등 대표적인 도당유학생 출신자들이 학사직에 기용되었다. 서서원이 당시 문한기구의 중심적 존재였던 것이다. 경문왕 때와 마찬가지로 이 시기 문한기구도 근시기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었다. 최치원은 시독侍讀 겸 한림학사에 지서서감사知瑞書監事를 겸직하였다. 마치 문한기구와 근시기구가 일체화되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는 역시 내조의 강화라는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헌강왕은 880년(헌강왕 6) 9월 9일 좌우의 신하들과 월상루月上樓에 올라가 사방을 바라보았다. 왕경에는 민가가 즐비하고 노랫소리가 연이어 들렸다. 임금이 시중 민공敏恭에게 "지금 민간에서는 짚이 아닌 기와로 지붕을 덮고, 나무가 아닌 숯으로 밥을 짓는다 하니 과연 그러한가?"고 물었다. 민공은 자신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면서 왕의 덕분임을 칭송하였고, 왕은 신하들에게 공을 돌렸다. 이듬해 3월, 왕은 임해전臨海殿에서 여러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왕은 거문고를 타고, 신하들은 각각 노래 가사를 지어 올리면서 마음껏 즐기다가 헤어졌다. 마치 태평성대인 듯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헌강왕이 금강령金剛嶺에 행차했을 때 북악北岳의 신이 나타나 춤을 추었고, 동례전同禮殿에서 연회를 베풀 때에는 지신地神이 나타나 춤을 추었다고 한다. 산신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리다도파도파智理多都波都波"라고 하였는데,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많이 도망갔으므로, 도읍이 장차 파괴될 것이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지신과 산신이 나라가 망할 줄 알고 미리 경고하였지만, 헌강왕을 비롯한 누구도 이를 깨닫지 못하였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4 사상계의 새로운 동향

6두품 출신 유학자들의 동향

골품제도에서 진골 바로 다음가는 신분이 6두품이었다. 6두품은 진골에 비해 정치적 출세를 비롯하여 여러모로 제약을 받았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에는 일찍부터 학문적 능력에 의해서 출세의 길을 개척하려는 자들이 있었다. 가령 강수强首와 설총薛聰은 문장 혹은 유학 실력으로 출세했다. 이들을 비롯해서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은 학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왕권과 결탁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원성왕은 788년(원성왕 4) 봄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시행하였다. 독서삼품과는 유교 경전과 역사서의 독해 수준에 따라 상품上品·중품中品·하품下品의 3등급으로 나누어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게 한 제도였다. 상품 위에 특품特品이 별도로 있었다. 그러므로 실제로는 사품四品으로 나누었던 셈이다.

독서삼품과

등급	시험 과목
특품	오경五經 · 삼사三史 · 제자백가서諸子百家書
상품	『예기禮記』 · 『효경孝經』 · 『논어論語』 ·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 『문선文選』
중품	『곡례曲禮』 · 『효경』 · 『논어』
하품	『곡례』 · 『효경』

이 제도의 시행을 전하면서 "전에는 단지 활과 화살로써 인물을 뽑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고쳤다"고 하였다. 독서삼품과의 시행으로 유학을 공부하지 않고서는 원칙적으로 관리가 될 수 없었다.

독서삼품과 시행 이듬해인 789년(원성왕 5)에 자옥子玉을 양근현楊根縣 소수小守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하였다. 집사부의 말단 관리였던 모초毛肖가 "자옥은 문적文籍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지방관을 맡길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그렇지만 시중은, 자옥이 도당유학생이므로 기용해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고, 왕의 재가를 얻어 그를 임명했다. '문적'은 국학 혹은 독서삼품과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도당유학생을 포함하여, 유학의 지식을 갖춘 자들이 관리가 되는 원칙이 세워졌던 것이다.

한편, 9세기부터 도당유학이 크게 유행하였다. 837년(희강왕 2) 3월 당시 당의 국학에서 수학 중이던 신라 유학생은 모두 216명에 달했다. 840년(문성왕 2)에는 수학연한 10년이 지난 숙위학생宿衛學生 등 105명이 집단으로 귀국 조치되었다. 이때는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벌어졌고, 그 여진이 아직 가시지 않았던 때였다. 따라서 위의 숫자에는 귀국을 미루고 국내 정세를 관망하였던 자들까지 포함되었을 것이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도당유학생들이 상당수에 이르렀을 것임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821년(헌덕왕 13) 김운경金雲卿이 당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하여 시행한 빈공과賓貢科에 급제하였다. 빈공과가 별도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당의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한 외국인들을 빈공진사라고 불렀다는 견해도 있다. 그것은 여하튼, 김운경을 시작으로 당의 과거에 급제한 자는 58명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저명한 자들로는 874년(경문왕 14)에 합격한 최치원을 비롯하여, 박인범(876, 헌강왕 2),

최승우崔承祐(893, 진성여왕 7), 최언위崔彦撝(906, 효공왕 10) 등을 꼽을 수 있다.

독서삼품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자들은 주로 국학생 내지는 국학 졸업생이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6두품 출신자들이 적지 않았다. 독서삼품과를 통해 6두품 출신 유학자들은 관계 진출을 보장받았다. 자옥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도당유학생들은 우대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 빈공과 급제자들은 당에서 관리를 지내기도 하였다. 신라에 돌아와서는 "국사國士"로서 상당한 대접을 받았다. 도당유학생들, 빈공과 합격자들 가운데에는 6두품 출신자들이 적지 않았다. 국학-독서삼품과와 더불어 도당유학-빈공과는 6두품 출신 유학자들이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데 디딤돌이 되었다.

하대의 6두품 출신 유학자들은, 선배 유학자들이 그러하였듯이, 국정을 보좌하였던 경우가 많았다. 가령 녹진祿眞은 818년(헌덕왕 10) 집사시랑이었고, 관등은 아찬에 머물렀다. 이점에서 그는 6두품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녹진은 헌덕왕 때 상대등으로서 내외관의 인사문제를 처리하였던 김충공에게 "큰 인재는 높은 직위에 두고, 작은 인재는 가벼운 소임을 주라"고 조언하였다. 능력에 따른 인재 등용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경문왕은 863년(경문왕 3) 2월 국학에 행차하였다. 박사 이하의 교수관들으로 하여금 경의經義를 강론하게 하고, 그들에게 물품을 하사하였다. 헌강왕도 879년(헌강왕 5) 2월 국학에 순행하였다. 두 왕은 유교 교육과 유교적 정치이념의 본산으로서 국학을 중시하였다. 이 때 국학을 국자감, 태학으로 개편하였으리라는 견해도 있다. 한편 이 무렵에는 근시기구와 문한기구의 확장을 통한 왕권 강화가 추진되었다.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6두품 출신 유학자들이 중용되어 서서원과 같은 문한기구에서 학사로 활동하였다.

6두품 출신 유학자들은 왕권에 기대어 그 정치적, 사회적 역량을 길러나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신분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는 없었다. 이에 과거와 같이 학문 실력에 기준을 두고 인재를 등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바라는 자들이 생겼다. 아예 골품제 자체를 부정하는 자들도 나타났다.

진성여왕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김위홍이 갑작스럽게 죽자 여왕은 소수의 측근 총신들에게 권력을 맡겼다. 그런데 이들로 인해 정치의 기강이 문란하

게 되었다는 비난이 비등하였다. 이 무렵 여왕과 측근의 실정을 비난하는 글이 나돌았다. 조정에서는 왕거인王巨人의 짓으로 보고, 그를 잡아다 옥에 가두었다. 왕거인이 분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을 담은 글을 감옥의 벽에 썼더니 그날 저녁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덮이고, 번개가 치며 우박이 떨어졌고, 결국 왕은 그를 풀어주었다고 한다. 왕거인은 유학자인데, 6두품 출신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뜻을 펴지 못하고 대야주에 낙향하여 은거하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헌강왕 때 지혜로운 자들이 모두 도망치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고 한다. 6두품 출신 유학자들 중에는 왕실의 실정을 비판하거나 아예 왕경을 떠나 낙향한 인물들이 있었다.

894년(진성여왕 8) 최치원은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를 올렸다. 그 내용은 전하는 것이 없다. 하지만 거기에 신라 말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안이 담겨 있었을 것임은 물론이다. 최치원은 도당유학생으로 과거에 합격하여 당에서 벼슬을 살았다. 이 점에서, 시무책에서 능력에 따른 인재를 등용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치원은 여러 곳의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그런 만큼 그는 당시 지방사회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시무책에는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에 대한 대책이 포함되었을 것이다.

진성여왕은 최치원의 시무책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에게 아찬의 관등을 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최치원의 건의는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던 듯하다. 그는 시무책을 올린 후 몇 년 되지 않아 정계를 떠났다. 그리고 해인사에 은거하여 생을 마쳤다. 최치원과 더불어 "나말삼최羅末三崔"라고 하여 이름을 떨쳤던 이들이 있었다. 최승우는 과거에 급제한 후 당에 남아 절도사 휘하에서 벼슬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돌아와서는 후백제 견훤왕을 섬겼다. 최언위는 귀국해서 한동안 신라의 문한을 책임 맡았다. 그러나 그도 결국은 고려에 귀부하고 말았다.

신라 말에는 지방 출신 지식인들이 나타났다. 황주 토산黃州 土山(토산군) 출신의 최응崔凝은 경전을 통달하고 문장에 능통하였다. 궁예왕 밑에서 한림랑翰林郎을 지냈고, 고려에서는 원봉성元鳳省의 장관을 지내는 등 문한을 맡았다. 박유朴儒는 광해주光海州(춘천) 출신으로 경전과 역사서에 두루 밝았다. 태봉 때 동궁기실東宮記室을 지냈고, 궁예왕의 폭정을 피해 숨어 살았다. 태조 왕건은 그

를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박유를 얻은 것을 주周 문왕文王이 강태공姜太公을 얻은 것에 비유할 정도였다. 영암靈巖 출신으로 경사經史에 널리 통달하고 천문天文과 복서卜筮에 정통하였던 최지몽崔知夢도 고려에서 벼슬하였다. 고려 초 청주에는 학교가 설치되어 있었다. 신라 말 5소경이나 9주의 치소治所와 같은 지방의 중요 도시에는 학교와 같은 교육 기관이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낙향한 지식인들도 유학자들을 양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지방의 유학자들은 각지의 호족들이나 새로운 국가를 위해 봉사하였다.

선종과 풍수지리설

신라 화엄의 개창자로 일컬어지는 의상의 화엄사상은 일심一心에 의해 우주의 만상萬象을 통섭하려는 원융사상圓融思想이라고 한다. 이는 왕권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통치체제를 뒷받침하기에 적합하였다. 중대 왕실은 화엄종을 크게 환영하였다. 하대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해인사는 "화엄십찰華嚴十刹" 혹은 화엄 교학이 융성했던 10곳(十山) 중의 하나로 꼽힐 정도로 화엄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해인사는 802년(애장왕 3) 왕실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 창건되었다. 이후에도 왕실의 후원은 계속되었다. 법보전法寶殿의 비로자나불毘盧遮那佛에서 883년(헌강왕 9)에 대각간과 왕비를 위해 불상에 금金을 칠해 이루었다는 묵서명墨書銘이 발견되었다. 또 해인사는 "북궁해인수北宮海印藪"라고 불렸다고 한다. 진성여왕은 즉위 전 북궁에 거주하면서 북궁장공주北宮長公主라고 하였으므로 해인사가 일찍부터 진성여왕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음을 알 수 있다. 888년(진성여왕 2) 김위홍이 죽자 진성여왕은 그를 혜성대왕으로 추봉하였는데 해인사는 김위홍의 명복을 비는 원당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해인사는 헌강왕과 진성여왕의 후원을 받았다.

신라 말 해인사에는 관혜觀惠와 희랑希郎이라는 화엄종의 두 종장宗匠이 있었다. 관혜는 후백제의 견훤왕을 지지하였고, 희랑은 고려의 태조 왕건을 지지하였다. 이들은 정치적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서로 달랐다. 그리

하여 그 제자들은 물과 불처럼 대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관혜의 문파는 남악南岳, 희랑의 문파는 북악北岳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를 남북악南北岳의 대립이라고 부른다. 왕실의 각별한 후원을 받았던 해인사의 두 고승이 각각 견훤왕과 태조 왕건을 지지하였다는 것은 신라의 몰락을 상징적으로 알려준다.

한편, 하대에는 선종이 유행하였다. 도의道義는 821년(헌덕왕 13)에 남종선南宗禪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크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고, 그는 설악산에 은거하였다. 이후 홍척洪陟과 혜소慧昭가 도의의 뒤를 이었다. 845년(문성왕 7)부터 시작된 소위 회창폐불會昌廢佛 사건을 전후하여 여러 선사들이 당으로부터 돌아왔다. 왕실에서는 선사들을 왕실로 초빙하고, 국사國師로 삼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선사들도 선종의 홍포를 위해 이에 호응하였다.

830년 무렵 실상산문實相山門의 홍척은 흥덕왕과 선강태자의 부름을 받아 왕실을 방문하였다. 이후 여러 선사들이 국왕과 만났다. 홍척의 제자인 수철秀澈은 경문왕에게 "선교동이禪教同異"에 대하여 말하였고, 후에 헌강왕을 만나기도 하였다. 경문왕과 헌강왕은 선종과 선사들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였다. 그리고 이에 호응하여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었던 선사로는 성주산문聖住山門의 낭혜朗慧를 꼽을 수 있다.

문성왕은 낭혜가 주지하던 사찰의 이름을 성주聖住로 바꾸고, 대흥륜사大興輪寺에 편입하도록 하였다. 헌안왕은 즉위하기 전 낭혜에게 제자의 예를 갖추었다. 즉위한 후에는 정치적 조언을 구하였다. 낭혜는 국왕이 예의, 충신, 성실을 구비하여야 백성이 믿고 따른다고 한 노魯나라 주풍周豊의 말을 명심하라고 답하였다. 871년(경문왕 11)에는 경문왕의 초청을 받고, 왕과 불교에 관해 문답을 나누었다. 헌강왕은 즉위한 후 낭혜에게 정치적 조언을 구하였다. 이에 대해 그는 "관리를 잘 등용하라能官人"고 답하였다. 후에 헌강왕이 국정에 도움이 될 만한 계책을 두루 구한 적이 있었다. 이때 낭혜는 남조南朝 송宋나라의 재상 하상지何尙之가 문제文帝에게 간쟁한 내용에 빗대어 왕에게 불법에 귀의하여 계율을 지킬 것을 권하였다. 낭혜는 선사로서는 처음 국사國師에 임명되었다.

선사들은 당대 지식인들이었다. 국왕들은 선승들에게 정치의 요체를 묻거나 혹은 시무와 관련된 방책을 구하였다. 한편, 선사들은 국왕의 고문 역할을

그림 8 보령 성주사지 낭혜화상탑비

맡아 시무를 해결하는 데에 일조하려고 하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선풍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이에 이후의 국왕들도 선사들을 포섭하는 데에 공을 들였다.

효공왕은 906년(효공왕 10) 굴산문崛山門의 행적行寂을 국사로 삼았다. 행적은 915년(신덕왕 4) 신덕왕의 부름을 받고 다시 왕경에 왔다. 왕은 그에게 남산의 실제사實際寺에 머물게 하였다. 이 절은 신덕왕이 임금으로 즉위하기 전에 거처하던 집이었다. 신덕왕도 행적을 국사로 삼고, 크게 우대하였다. 경명왕은 918년(경명왕 2)에 봉림산문鳳林山門의 심희審希를 초청하였다. 이 때 심희는 왕에게

국사를 다스리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방책을 제시하였다. 경명왕은 심희가 입적하자, 직접 그의 비문을 찬술하고 비를 세우도록 하였다.

그런데 진성여왕 때부터 선사들은 왕실보다는 호족들과 결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경명왕이 우대하였던 심희는 김해의 호족인 김율희金律熙(蘇律熙라고도 함)와 김인광金仁匡의 후원을 받았다. 경명왕이 그를 왕경으로 초대하여 스승으로 모시기도 하였지만, 결국 봉림사로 돌아갔다. 굴산문의 개청開淸은 명주의 호족 김순식金順式 등의 후원을 받았다. 경애왕이 사신을 보내어 국사의 예禮를 표하였지만, 왕의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선종의 개인주의적 경향은 각지에서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태세를 갖춘 호족들과 어울리는 측면이 있었다. 또, 지방에 근거를 둔 선사들의 입장에서도 이제 지방의 실력자로 대두한 호족들의 후원을 받아야 했다.

나아가 후백제 견훤왕이나 고려 태조 왕건과 깊이 연고를 맺는 승려들이 늘어났다. 실상산문의 편운片雲은 개산조인 홍척의 제자로서 안봉사安峯寺(성주)를 창건하였다. 그의 승탑僧塔은 남원 실상사 조계암曹溪庵 옛 터에 남아 있다. 그 명문에 따르면 승탑은 "정개正開 10년 경오"에 건립되었다고 한다. '정개'는 후백제의 연호이고, 그 10년 '경오'는 910년이다. 이를 보면 실상산문이 견훤왕과 관련을 맺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동리산문桐裏山門 도선道詵의 제자인 경보慶甫는 중국 유학 후 921년(경명왕 5) 귀국하였는데, 견훤왕의 도움을 받았다. 그는 견훤왕이 제공한 전주 남복선원南福禪院에 머물다가, 왕의 배려로 도선이 주지하였던 옥룡사玉龍寺(광양)로 옮겨 지냈다. 견훤왕은 도선의 풍수지리사상을 이용하여 후백제의 존재를 합리화하려는 생각에서 경보를 중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태조 왕건이 여러 선문의 선사들을 적극적으로 포섭하였던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엄利嚴, 여엄麗嚴, 경유慶猷, 형미迥微는 "사무외사四無畏士"로 일컬어졌다. 태조 왕건은 경유에게 백성들을 다스릴 만한 가르침을 구하고, 왕사로 대우하였다. 923년(경명왕 7)에는 이엄을 개경에 머물게 하고, 그의 설법을 들었다. 이엄은 왕에게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무고한 자들을 죽이지 말며, 죄 있는 자들을 벌주어야 함을 일깨웠다. 그는 932년(경순왕 6)태조 왕건의 명을 받들어 해주의 광조사廣照寺에 거주하면서 수미산문須彌山門을 개창하였다. 여엄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 길로써 요堯 임금의 인仁과 순舜 임금의 덕德을 제시하였다. 사무외사의 정치적 건의는 유교적 정치이념을 포용한 것이었다. 한편 이들의 선사상은 화엄사상을 포섭하려는 선교禪敎융합적인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는 태조 왕건의 연립적 통일사상을 뒷받침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현휘玄暉가 924년(경애왕 원년)에 귀국하자 태조 왕건은 그를 국사로 삼고 충주 정토사淨土寺에 머물게 하였다. 현휘도 선교융합적인 성향을 가졌는데, 선종의 입장에서, 화엄사상과 법상종 사상을 융섭한 성상융회性相融會사상을 아우르고자 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여러 선승들이 태조 왕건과 연고를 맺었다.

하대에는 풍수지리설도 유행하였다. 원성왕(785~799) 때에 이미 풍수지리설의 경전이 수입되어 유통되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이고 널리 퍼뜨린 인물은 동리산문의 도선이었다. 그는 불교의 선근공덕사상善根功德思想과 음양오행설 등을 합쳐 나름대로의 이론을 개발하였다. 또 실제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세地勢의 길흉을 점쳤다고 한다.

906년(효공왕 10) 무렵 궁예왕은 상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로써 그는 왕경을 압박할 수 있는 거점을 마련하였다. 궁예왕은 강성함을 바탕으로 신라를 병탄할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그는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신라를 "멸도滅都"라고 부르게 하였다. '멸도'는 신라의 서울 금성을 가리킨다. 궁예왕은 풍수지리설을 이용해 금성과 그 곳에 거주하는 국왕을 비롯한 신라의 지배층이 곧 몰락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이다. 금성 중심의 국토관은 설 자리를 잃었다.

태조 왕건은, 도선이 송악을 후삼국이 통일할 인물이 나올 명당明堂이라고 하였다고 선전하였다. 반면에 「십훈요十訓要」에서는 차령車嶺 이남, 공주 강 밖 지역의 산 모양과 땅 형세가 "배역背逆"에 해당하므로 사람들의 마음 역시 그럴 것이라고 하고, 그 곳 출신자들을 관리로 쓰지 말라고 경계하였다. 이는 후백제 출신자들을 경계하라는 뜻이었다. 각지의 호족들과 건국자들은 풍수지리설에 기대어 자신들의 근거지를 명당으로 내세우면서 그 존재를 정당화하려고 하였다. 반면에 경쟁자 혹은 적의 근거지는 배역처로 규정하였다.

말세의식과 미륵신앙

중대 말 미륵신앙의 전도자로 유명하였던 진표는 당시를 말세로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미륵불이 하생할 때까지 말세의 중생을 구원한다는 지장보살과 말세의 중생을 참회시키기 위한 점찰법회를 중시하였다. 진표의 말세의식과 미륵신앙은 그의 제자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퍼졌다.

선종에서도 하대를 말세로 여겼다. 가지산문의 제2조였던 염거廉居는 844년(문성왕 6)에 입적하였다. 그의 탑지에서는 "석가모니불이 열반한 때로부터 1804년이 지났다"고 하였다. 석가가 열반한 후 정법 500년, 상법 1,000년을 지나면 말법의 시대 곧 말세가 도래한다고 믿어졌다. 석가의 열반으로부터 몇 해가 지났는지를 따지는 불멸기원佛滅紀元은 자신들이 말세에 살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예는 가지산문의 중심 사찰이었던 보림사寶林寺의 철조 비로자나불상毘盧舍那佛像 명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선종 사원은 아니지만, 철원 도피안사到彼岸寺의 철조 비로자나불상에 새겨진 명문에서도 불멸기원을 찾을 수 있다. 불상이 조성된 때가 865년(경문왕 5)인데, 이를 불멸 후 1,806년이라고 하여 말세의식을 드러냈다.

하대에는, 교종과 선종의 대립에 더하여 왕위 다툼, 흉년에 따른 유민과 도적 발생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다. 신라인들은 당시를 불법이 쇠퇴하고, 굶주림, 질병, 전쟁 등으로 세상이 매우 어지러워진다고 하는 말세로 여겼다. 그런데 자신이 말세에 살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비로자나불을 만들었던 자들은 그에 대한 신앙을 통해 말세를 벗어나길 원했을 것이다. 반면에 진표의 미륵신앙에서는 말세를 구원할 미륵의 하생을 바랐을 것이다.

경전에 따르면 미륵은 아주 먼 훗날 이 세상에 나타나 용화수龍華樹 아래에서 성불하며, 중생들을 구제하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미륵불은 앞으로 올 유일한 부처이다. 이 점에서 미륵의 하생만이 말세에서 고통을 받는 중생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지기도 하였다. 진표의 미륵신앙은 주로 지방의 농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그들 가운데에는 말세의 중생을 구원해줄 미륵의 하생을 간절히 바라는 자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궁예왕이 미륵불을 자칭하였던 사실은

그림 9 원주 흥법사지 염거화상탑지

당시 미륵하생신앙이 상당히 유행하였음을 알려준다.

미륵이 하생하면 이 지상에 정토가 실현된다고 한다. 이 점에서 미륵하생신앙은 현실개혁적인 성격을 지닌다. 농민들을 봉기로 이끈 종교적 혹은 사상적 배경으로서 미륵신앙을 주목하게 된다.

제 3 장

신라의 멸망

1 파행적인 왕위계승

여왕의 즉위

886년(헌강왕 12) 7월 5일 헌강왕이 죽었다. 헌강왕과 왕비인 의명부인懿明夫人과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이 있었다. 헌강왕이 사냥을 하다가 만난 여인과 관계하여 얻은 아들 김요金嶢가 있었지만 그의 존재는 한동안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뒤를 이어 동생인 김황金晃이 즉위하였는데, 그가 정강왕이었다. 정강왕은 형이 죽은 지 1년 되는 887년 7월 5일 죽었다. 그리고 형이 묻힌 보리사菩提寺 동남쪽에 묻혔다. 정강왕은 죽기 전 시중 준흥俊興에게 "불행하게도 뒤를 이을 아들이 없으나, 누이동생 만曼은 천성이 명민하고 골법骨法이 장부와 같으니, 그대들이 선덕, 진덕의 고사를 본받아 그녀를 왕위에 세우는 것이 좋겠다"는 유조를 남겼다. 이에 따라 김만이 즉위하니 그녀가 진성여왕이었다.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의 예와 같이 3형제가 왕위를 이었던 일은 신라사에서 유례가 없다. 선덕여왕, 진덕여왕을 이어 태종무열왕이 왕이 된 후에는 진골 남성이 왕위에 올랐다. 따라서 여왕의 즉위는 파격적인 것이었다. 헌안왕은 861년(헌안왕 5) 사위 김응렴을 왕으로 세울 것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선덕과

진덕 두 여왕이 있었지만, 여왕을 세우는 것은 본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보면 진성여왕의 등장은 경문왕의 후손들이 왕권을 독점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의 형제상속 특히 여왕의 즉위 배경에는 김위홍이 있었다. 그는 경문왕의 동생으로서 왕의 정치적 조력자였다. 헌강왕, 정강왕, 진성여왕의 삼촌으로서 조카 왕들의 정치적 후견인이었다. 특히 진성여왕과 가까이 지냈는데, 두 사람이 부부였다는 설도 전할 정도이다.

김위홍은 진성여왕이 즉위한 지 8개월만인 888년 2월 죽었다. 여왕은 그를 혜성대왕惠成大王에 봉하고, 해인사를 그의 원당으로 삼고, 삼년상을 지내는 등 극진히 대우하였다. 정치적 후견인을 잃은 여왕은 젊은 미남 두세 명에게 요직을 주어 나라의 정사를 맡겼다. 이들은 김위홍을 도와 여왕의 즉위와 즉위 초 정국 운영에 관여하였던 자들로서 화랑이거나 화랑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실정으로 정치적 기강이 문란해졌다는 비난이 일었다. 진성여왕의 무리한 왕위계승, 파행적인 정국 운영에 대해 누군가가 비판하는 글을 지어 관청거리에 방을 붙였다. 다른 기록에는 다라니陀羅尼의 은어를 만들어서 글로 써 길 위에 던져놓았다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여왕과 김위홍 등 일부 총신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한편, 이 무렵 지방에서 파국적인 사태가 발생하였다. 889년(진성여왕 3) 중앙정부의 세금 납부 독촉에 저항하여 전국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뿐만 아니라 봉기는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세금을 주로 부담하였던 농민들이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봉기함으로써 신라의 경제적 토대는 무너졌다. 한편, 호족들은 봉기한 농민들의 습격에 대비하여 성을 굳게 하고, 사병을 늘렸다. 농민봉기는 중앙정부에 대한 호족들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진성여왕은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김효종金孝宗을 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효종은 46대 문성왕의 후손으로 할아버지는 헌강왕 때 시중을 지낸 김민공이었다. 아버지는 진성여왕 때 제 3재상이었던 김인경金仁慶이었다. 김효종은 화랑이었는데, 그를 따르는 낭도의 수가 수천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당시 한기부韓岐部 백성 지은知恩은 가난을 견디다 못해 몸을 팔아 홀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이들의 딱한 사정이 김효종에게 알려졌다. 그는 적지 않은 물품을 내어 그녀를 구호하였고, 낭도들도 단합하여 효녀 지은을 도왔다고 한다. 김효종과 그의 낭도들이 보여준 결속력은 화랑 김효종의 실력을 과시한 것이었다.

진성여왕은 김효종이 지은을 도운 이야기를 듣고,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노성老成함을 볼 수 있다”고 하며 그와 헌강왕의 딸을 혼인시켰다. 이는 헌안왕이 화랑 김응렴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유조에서, 비록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노성한 덕을 갖추고 있다고 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김효종은 헌강왕의 딸과 혼인하게 되었고, 왕위계승권자로 부상하게 되었다. 진성여왕은 김효종 가문의 정치적 역량과 그를 따르는 낭도들을 이용하여 위기 국면을 돌파하려고 하였다.

예겸도 중용하였다. 그는 헌강왕 즉위 시 시중에 임명되어 881년(헌강왕 6) 2월까지 재직하였다. 상대등에 임명된 김위홍과 함께 헌강왕 전반기의 국정을 이끌었던 인물이다. 진성여왕 때 예겸의 의자義子인 박경휘朴景暉(혹은 朴景徽, 신덕왕)와 헌강왕의 또다른 딸이 결혼하였다. 박경휘도 김효종에 이어 왕위계승권을 갖게 되었다. 예겸의 정치적 영향력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진성여왕 전반기에는 김효종이 정국 운영을 주도했고, 후반기에는 예겸이 그러했을 것이다. 진성여왕이 김효종과 예겸의 대립 구도를 만들어 이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김효종의 선대와 예겸은 모두 헌강왕과 인연이 깊었다. 진성여왕은 헌강왕 때의 구신세력을 이용하여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는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894년(진성여왕 8) 2월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진성여왕에게 올렸다. 여왕은 이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최치원에게 아찬의 관등을 주었다. 이 시무 10여조는 지금 전하지 않지만, 그것이 현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개혁안이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다. 그런데 최치원은 시무책을 올린 후 몇 년 되지 않아 정계를 떠났다. 진성여왕이 시무책을 받아들였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혹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하더라도 여왕과 그 뒤를 이은 효공왕의 무리한 왕위계승,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무책은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려웠을 것이다. 신라는 파국을 맞고 있었다.

비진골왕의 출현

진성여왕은 재위 10년만인 897년 6월 헌강왕의 서자인 조카 김요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정치에서 물러났다. 여왕은 총신들의 실정과 지방사회의 이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퇴위하는 형식을 취했다.

김요는 민간에서 생장했으며, 진성여왕은 895년(진성여왕 9) 무렵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여왕은 그를 불러들여 등을 어루만지면서 "나의 형제자매의 골법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이 아이는 등에 두 개의 뼈가 솟아 있으니 참으로 헌강왕의 아들이다"라고 하며, 그를 헌강왕의 아들로 인정하였다. 이어 10월에 그를 태자로 봉하였다. 그리고 897년(진성여왕 11) 6월 선위의 형식을 통해 왕위를 물려주었다.

김요는 헌강왕의 서자로서 신분은 진골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진성여왕이 '골법' 운운 하였던 것은 이러한 약점을 덮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다. 선위의 방식을 빌려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도 마찬가지였다고 여겨진다. 김효종이나 박경휘와 같은 왕위계승의 적격자가 있었음에도 굳이 김요를 택하였던 것은 경문왕계 왕실에서 왕위를 독점하려는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효공왕은 898년(효공왕 2) 정월 준흥俊興을 상대등으로, 계강繼康을 시중으로 삼았다. 준흥은 906년(효공왕 10) 정월까지 그 자리를 지켰다. 그는 정강왕 때 시중이었고, 정강왕의 유조를 받아 진성여왕이 즉위하는데 기여하였던 인물이다. 진성여왕 때에도 시중을 역임하였다. 그가 시중과 상대등으로 있었던 기간은 886년부터 906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20년이었다. 그는 경문왕계 왕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효공왕은 899년(효공왕 3) 3월 이찬 예겸의 딸을 왕비로 맞았다. 예겸은 헌강왕 때 시중을 지냈고, 진성여왕 때에도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이제는 왕의 장인으로서 정국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을 것이다.

902년(효공왕 6) 효공왕은 김효종을 시중으로 임명하였다. 그는 헌강왕의 사위로 왕의 매부였다. 후백제는 901년(효공왕 5) 8월 대야성大耶城(합천)을 공격하였다. 대야성은 왕경으로 향하는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다. 대야성을 수비하였던 신라의 장수는 김억렴金億廉이었는데,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는 김효종의 형이며 경순왕의 백부로 훗날 고려 태조 왕건의 장인이 되었던 인물이다. 이 전투의 승리도 김효종이 시중이 되는데 일조하였을 것이다. 효공왕도 선대왕들 이래로 경문왕계 왕실을 지지하던 구신세력을 중용하여 정국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한편 효공왕 때에 지방통치체제가 지주제군사知州諸軍事-성주城主 중심으로 전환하였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따르면 개편안은 894년(진성여왕 8) 최치원의 시무 10여조에서 제시되었고, 효공왕대에 시행되었다고 한다. 도독을 대신해 주치州治를 장악한 지방세력가들에게 그들의 독립성과 지역민에 대한 지배권을 일부 인정해 지주제군사의 관직을 부여하고, 대신 왕실에 대한 충성과 왕실의 보호를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또 신라 말의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에 대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태수와 현령 등 지방관의 명칭을 군정적인 성격이 강한 성주라고 고쳤다고 한다.

그런데 지주제군사를 칭하였던 자들 가운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이를 자칭하였던 경우가 있다. 가령 견훤은 세력을 모아 무진주를 점령한 다음 "전무공등주군사全武公等州軍事"를 자칭하였다. 이로 보건대 호족들이 자칭하였던 지주제군사의 칭호를 중앙정부에서 묵인하였거나 뒤에 가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또 889년(진성여왕 3) 농민봉기가 일어났을 무렵에는 이미 성주, 장군을 칭하는 호족들이 대두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지주제군사-성주제의 시행에 대해서는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설혹 그것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큰 효과를 보았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900년(효공왕 4) 견훤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901년에는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웠다. 이로써 후삼국시대가 개막되었던 것이다.

905년(효공왕 9) 8월 궁예왕의 군대가 신라의 변경 고을을 약탈하고 죽령의 동북에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왕은 막아낼 힘이 없었다. 그리하여 여러 성주들에게 출전하지 말고 성벽을 굳게 하고 지킬 것을 당부하였을 뿐이다. 906년(효공왕 10) 무렵에는 궁예왕의 군대와 견훤왕의 군대가 상주에서 충돌한 후 궁예왕이 상주 일대를 장악하였다. 907년(효공왕 11)에는 견훤왕이 일선군一善

郡(선산) 이남 10여성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신라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효공왕 말년, 그동안 왕을 지지하고, 정국을 이끌었던 준흥, 예겸, 김효종 등은 죽거나 은퇴하였던 듯하다. 왕의 옆에는 정치적으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인물이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효공왕은 후백제와 마진摩震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할 수도 없었다. 신라의 영역은 경상도 일원으로 축소되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효공왕은 현실로부터 도피를 꾀하였던 듯하다. 왕은 말년에 천첩에게 빠져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911년(효공왕 15) 대신大臣 은영殷影이 이 문제를 간언하였는데, 효공왕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은영은 천첩을 죽였다.

박씨왕실의 등장

효공왕이 후사가 없이 죽자 귀족들은 박경휘를 왕으로 추대하였다(912년 4월). 그가 신덕왕이다. 그는 상대上代 박씨 왕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달라이사금(154~184)의 먼 후손이었다고 한다. 17대 나물마립간 이후 왕위는 줄곧 김씨들에 의하여 계승되었다. 그런데 신라 말에 이르러 박씨가 다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중대 이후 박씨 진골귀족들에 대한 기록은 찾기가 어렵다. 박씨왕의 돌발적인 출현과 관련하여 그 실재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었다. 신덕왕이 본래는 김씨였는데, 당唐의 동성불혼제도를 의식하고, 새로운 출발을 선언한다는 의미에서 성을 박씨로 바꾸었다고 풀이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고려의 우왕과 창왕을 왕씨의 자손이 아닌 신돈辛旽의 자손이라고 하였듯이, 고려 때에 신왕조 개창의 정당성을 내세우기 위하여 김씨를 박씨로 변조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하지만 기록상 명백한 박씨왕의 출현을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효공왕이 죽은 후 왕위계승권을 갖고 있었던 자들은 김효종과 박경휘였다.

두 사람 모두 헌강왕의 딸과 결혼하였다. 김효종은 진성여왕 때에 화랑으로 이름을 날렸고, 정국 운영에도 깊이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효공왕 때에는 시중을 지냈다. 반면 박경휘의 경력은 알려져 있지 않다. 할아버지는 문관文官 해간海干이고, 아버지는 문원文元 이간이었으며, 외할아버지는 순홍順弘 각간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의부義父인 예겸은 효공왕의 장인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을 것이다. 즉 그의 후원에 힘입어 박경휘가 즉위하였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아울러 하필 박씨인 경휘가 왕으로 추대되었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한다. 정강왕, 진성여왕, 효공왕으로 이어지는 경문왕 자손들의 무리한 왕위계승은 지배층의 반발을 불렀을 것이다. 농민봉기, 호족의 대두 및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건국 등 신라의 존망을 가르는 중대 사안에 대해 진성여왕과 효공왕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박씨 왕실의 성립 배경에는 경문왕계 김씨 왕실에 대한 지배층의 불만과 불신이 자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박경휘가 유력한 왕위계승권자인 김효종을 제치고 즉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신덕왕은 912년 5월 즉위와 동시에 아버지를 대왕으로 추봉하고, 심지어 의부인 예겸과 외조부까지 대왕으로 추봉하였다. 이는 취약한 지지기반을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또 아들 박승영朴昇英을 태자로 삼았다. 앞으로 박씨가 왕위를 계승할 것이라는 사실을 천명하였다. 하지만 신덕왕은 현실적으로 김씨 진골귀족들과 타협 하에 정국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917년 7월 선덕왕이 죽은 후 태자 박승영이 즉위하니 그가 경명왕이었다. 그는 친동생 박위응朴魏膺을 상대등에 임명하였다. 근친왕족을 요직에 임명하여 왕권의 안정을 꾀하였던 것이다. 시중에는 김유렴金裕廉을 임명하였다. 김유렴은 김효종의 조카이다. 당시 김효종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생각된다. 그의 세력은 아들인 김부金傅(후일 경순왕)에게 계승되었으리라고 여겨진다. 경명왕은 김유렴을 시중에 임명함으로써 김부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의 일부를 포섭하는 효과를 노렸을 것이다.

2 농민의 봉기와 호족의 대두

농민봉기의 배경과 경과

배 경

삼국 통일 후 진골귀족을 중심으로 하는 신라의 지배층은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백성들을 기반으로 풍요를 누렸다. 이들이 모여 살았던 왕경, 곧 금성金城(경주)은 9세기 후반에 전성기를 맞았다. 헌강왕 때 왕경은 수십만이 모여 사는 거대도시였다. 금과 은 혹은 도금으로 장식한 호화로운 대저택을 지칭하는 금입택들이 여기 저기 있었다.

반면 왕경의 번영을 뒷받침하였던 지방의 농민들의 처지는 열악했다. 흉년이 들면 곳곳에서 도적이 일어나고, 유민이 생겼다. 815년(헌덕왕 7) 8월 서쪽 변경 주군에 큰 흉년이 들어 도적들이 봉기하였는데, 군대를 동원하여 토벌해야 할 정도였다. 819년(헌덕왕 11) 3월에는 초적草賊이 곳곳에서 일어나서 조정은 지방관들에게 진압을 명령하였다. 820년(헌덕왕 12) 봄과 여름의 가뭄으로 인해 겨울에 기근이 발생하였다. 그 이듬해 봄에는 기근을 견디지 못해 자식을 팔아 연명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였다. 816년(헌덕왕 8) 기근이 들자 당의 절동浙東지

방에 건너가 먹을 것을 구했던 자가 170명이나 되었다. 811년(헌덕왕 3) 8월부터 824년(헌덕왕 16) 5월까지 전후 13회에 걸쳐 모두 826명의 신라인이 일본열도에 표착하였는데, 상당수는 유민이었을 것이다.

영월 세달사世達寺 소속 농장의 책임자知莊였던 조신調信의 꿈 이야기에는 하대 지방 농민들의 비참한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조신은 사모하던 김흔의 딸과 결혼하여 40여년을 살며 자식 다섯을 두었는데, 집은 다만 네 벽뿐이요, 나물죽으로도 끼니를 잇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10년 동안 아이들을 데리고 사방을 떠돌아다녔는데, 옷은 찢어져 몸을 가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큰 아이는 굶어 죽고, 어쩔 수 없이 부부가 아이 둘씩을 나누어 헤어지려 할 때 꿈에서 깨어났다는 것이다. 왕경의 번영 뒤에 가난과 굶주림에 신음하던 지방 농민들이 적지 않았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828년(흥덕왕 3)에는 한산주 표천현瓢川縣(파주?)에서 요사스러운 인물妖人이 자칭 빨리 부자가 되는 술법 즉 "속부지술速富之術"이 있다고 선전하니, 이에 현혹되는 사람들이 많았다. 왕은 "사도邪道로써 군중을 현혹하는 자를 형벌에 처하는 것은 선왕先王의 법이다"라고 하며, 그를 먼 섬에 유배하였다. '속부지술'은 농민들의 빈곤을 배경으로 출현하였다. 한편, 흉년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농민들은 당시를 말세라고 여겼다. 그들 가운데에서는 말세에 사는 자신들을 구원해줄 미륵의 하생을 염원하는 자들도 나타났던 것으로 보인다. 미륵불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상세계를 실현한다는 부처이다. 그러므로 미륵하생신앙은 현실에 대한 개혁과 연관될 소지가 크다. 지방 농민들 사이에 불온한 기운이 퍼지고 있었던 것이다.

889년(진성여왕 3) 농민들이 전국에서 봉기하였다. 사정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나라 안의 여러 주군州郡에서 세금을 보내지 않아 서울의 창고는 텅텅 비고, 나라의 쓰임이 몹시 모자라게 되었다. 이에 왕이 사신을 보내 세금 낼 것을 독촉하자 곳곳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농민들은 국왕의 세금 독촉에 저항해 일어났다. 농민들 중에서도 세금을 주로 냈던 자들은 자신의 농토를 경작하면서 그런대로 생계를 꾸릴 수 있는 자영농들이었다. 신라의 경제적 토대였던 자영농들이 반란의 대열에 동참하였다는 점에서 889년 농민봉기는 심각한 사태였다.

진골귀족들은 농장의 확보에 노력하였다. 사원도 농토를 기증받거나 사들였고, 때로는 겸병하기도 하였다. 이것들 중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혹은 불법적으로 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그 부담이 농민들에게 전가되었을 것이다. 유민이 되어 농토를 떠나 버린 농민들의 세금도, 남아 있는 농민들의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요컨대 무거운 세금이 889년 농민봉기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하여 녹읍제祿邑制나 촌락 공동체를 기본 단위로 운용된 연수유전답제烟受有田畓制의 구조적 문제점이 주목되었다.

757년(경덕왕 16) 녹읍이 부활된 후 촌락사회는 녹읍을 매개로 한 귀족 관리들의 사적 지배와 지방관의 공적 지배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중앙집권력이 약화되면서 사적인 지배가 강화됨으로써 자의적이고 과중한 수취가 이루어졌다. 이에 녹읍민의 경제적 처지가 열악해지면서 유민이 증가하게 되고, 녹읍민은 감소하였다. 그 결과 남아 있는 녹읍민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게 되었다. 한편 일반 농민이 부담하였던 전조田租 즉 토지에 대한 세금은 각 촌에서 실제 경작한 연수유전답의 면적과 관계없이 촌락문서에 파악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되었다. 그 납부는 촌락 내 농민들의 공동 책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민층의 계급분화 현상이 심화되고, 촌락을 떠나는 농민들이 늘게 되면서 촌에 남은 농민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였다. 그리하여 이들 중 일부가 유민이 되는 악순환이 거듭되었으며, 결국 남아 있는 농민들이 과중한 세금을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 과

889년 즉 진성여왕 3년 원종元宗, 애노哀奴 등은 사벌주沙伐州(상주)에서 봉기하였다. 여왕은 나마 영기令奇에게 명령해 봉기를 진압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영기는 적의 보루堡壘를 바라보고 두려워 진격하지 못했다. 반면 촌주村主 우련祐連이 공격에 앞장섰다. 진성여왕은 영기의 목을 베고, 전사한 우련을 대신해 10여세에 불과한 그의 아들을 촌주로 삼았다. 우여곡절 끝에 원종과 애노가 이끈 농민봉기는 진압되었다. 하지만, 관군이 힘을 쓰지 못했던 반면 토착세력가인 촌주가 사병을 이끌고 선봉에 섰다. 이제 곳곳에서 일어난 농민봉기군

그림 1 합천 해인사 길상탑

을 무찌르는 데에 관군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중앙정부의 무능함은 만천하에 드러났고, 조정의 권위는 크게 떨어졌다.

해인사의 한 승려는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오대산사 길상탑사). "기유년에서 을묘년까지 7년 동안 세상은 난리로 어지러워 들판이 전쟁터가 되었다. 사람들은 방향을 잊어 행동이 사나운 짐승과 같았고, 나라가 기울어질 듯하고 재앙이 절에까지 이르렀다." 기유년은 889년(진성여왕 3)이고, 을묘년은 895년(진성여왕 9)이다. 889년 시작된 농민봉기는 895년까지도 계속되었다. 해인사도 봉기한 농민들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었고, 여러 승려들이 목숨을 잃었다. 해인사에는 이들에 맞서 사원을 지킬 승군이 조직되어 있었고, 그들 중 일부가 전사하였다. 최치원의 말대로 "나쁜 것들 중에 더욱 나쁜 것이 없는 곳이 없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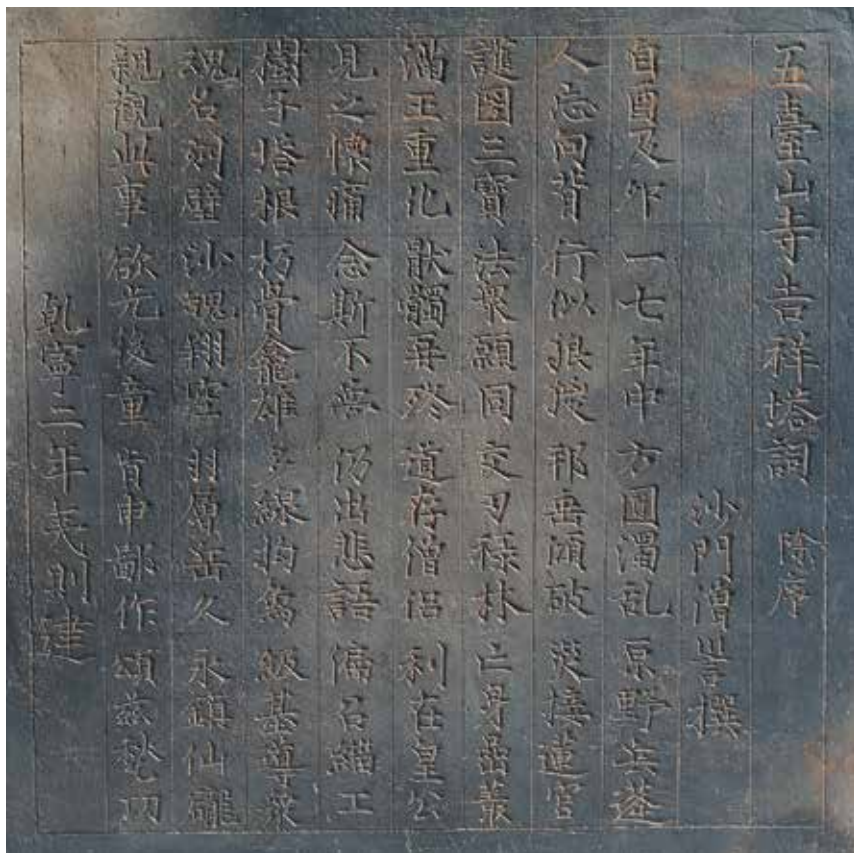
그림 2 합천 오대산사 길상탑사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판에 별처럼 널렸다(해인사 묘길상탑기)."

896년(진성왕 10)에는 적고적赤袴賊이라는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쪽 지방에서 일어났다. 이들은 붉은 바지袴를 입어 스스로를 남들과 구분하였기 때문에 적고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적고적은 여러 주현을 약탈하면서 동쪽으로 진격해 왕경의 모량리牟梁里(경주시 건천읍)에 나타나 재물을 빼앗고 사라졌다. 흥덕왕 때 모량리 사람 손순孫順이 자신이 살던 집을 희사하여 홍효사弘孝寺라는 절로 삼고, 땅 속에서 발견한 석종石鐘을 거기에 두었는데, 이 때 종은 없어지고, 절은 남았다고 한다. 적고적은 먼 거리를 이동하면서 노략질을 일삼았고, 또 왕경의 인근 마을까지 습격하였다. 그 위세가 만만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적고적을 "백제의 횡포한 도적"이라고 표현한 기록도 있다. 신라의 서남쪽 지방은 옛 백제 지역이다. 그러므로 이는 옛 백제 지역에서 일어난 횡포한 도적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적고적이 백제의 후예를 자처하였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은 정치적 색채를 상당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견훤에 앞서 백제의 계승을 내걸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897년(진성여왕 11) 6월 진성여왕은 조카 김요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하고, 이를 당 나라에 알리는 외교 문서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도적綠林이 무리를 이루어 다투어 광기狂氣를 풍겨, 다스리는 모든 곳九州百郡이 다 도적의 불난리를 만나서 큰 불의 잿더미를 보는 것 같고, 더욱이 사람 죽이기를 풀麻 베는 것처럼 하여 내던진 백골白骨은 숲처럼 쌓여 (중략) 어진 나라가 변해서 병든 나라가 되었습니다"라고 절망적으로 묘사하였다. 또 효공왕이 왕위를 계승하였음을 당에 알리는 외교문서에서는 "(상략) 지금 온 고을이 모두 도적의 소굴이 되었고 산천이 모두 전쟁터이니, 어찌 하늘의 재앙이 우리나라海東에만 흘러드는 것인가"라고 한탄하였다.

889년, 곧 진성여왕 3년 전국 곳곳에서 시작된 농민봉기는 이후 진정되기는커녕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여왕의 퇴위를 이끌어냈다. 신라는 경순왕이 935년 고려에 귀부함으로써 막을 내리지만, 그 실질적 종말은 889년의 농민봉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호족의 출신과 독립성

출 신

신라는 통일 후 지방 통치를 위해 9주와 5소경을 두었다. 그리고 전국의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이로써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지방 곳곳에 두루 미칠 수 있었다. 하지만, 중대 말부터 진골귀족들의 정권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또 왕위를 둘러싼 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써 중앙정부의 지방 지배력은 약화되었다. 이 틈을 타 지방세력가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들을 호족이라고 한다.

청해진의 장보고는 해상왕으로 유명하지만, 한편으로는 호족의 선구적인 존재였다. 장보고 이후 곳곳에서 호족들이 나타났다. 견훤왕甄萱王의 아버지 아자개阿慈介는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광계光啓 연간(885~887)에 사불성沙弗城, 지금의 상주尙州에 웅거해 스스로 장군이라고 일컬었다." 신라 말 호족들은 스스로 성주, 장군 등을 칭하였다. 887년, 진성여왕 원년 무렵 아자개는 상주 사불성의 호족으로 행세하였던 것이다.

수창군壽昌郡(대구) 호국의영도장護國義營都將 중알찬重閼粲 이재異才는 나라를 위해 908년(효공왕 12)에 팔각등루八角登樓를 세웠다. 그는 높은 곳에 성을 쌓고, 10년 동안 지역을 다스렸다. 이재는 수창군을 지배하는 호족이었다. 889년(진성여왕 3) 전국에 걸쳐 농민들이 봉기하였을 때 성주로서 영역 내의 농민들을 보호하면서 세력을 키웠을 것이다. 벽진군碧珍郡(성주)의 이총언李悤言은 도적들이 사방에 가득 차자 성벽을 튼튼히 하고, 백성들을 지켰다. 이총언은 벽진군의 성주로서 봉기한 농민들의 습격을 막았던 것이다.

889년부터 전국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였지만, 중앙정부는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호족들은 성을 쌓고, 사병을 동원해 자신들 영역 내의 농민들을 보호하였다. 호족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독립성은 보다 강해졌다.

호족들 중에는 낙향한 중앙귀족 출신들이 있었다. 수창군의 호족 이재는 중알찬 곧 중아찬이었다. 중아찬은 대아찬으로 승진할 수 없었던 6두품들이 받았던 중위重位 관등이다. 이재는 본래 6두품 출신으로, 신분의 한계를 느껴

낙향하였음 직하다. 명주장군 김순식金順式(후에 태조 왕건으로부터 왕씨 성을 받아 王順式이라고 함)의 뒤를 이어 명주의 지배자로 등장하였던 김예金乂(왕씨 성을 받아 王乂라고 함)는 김경신(원성왕)과 왕위 경쟁에서 밀려 명주로 퇴거한 김주원의 후손이었다.

신라는 소경 등 지방의 주요 지역에 왕경의 귀족들을 옮겨 살게 하였다. 이들 중 일부도 신라 말에 호족이 되었다. 10세기 중반 청주에서는 "고을의 큰 가문(州里豪家)이요 지방의 손꼽히는 집안(鄕閭冠族)" 출신인 당대등堂大等 김예종金芮宗이라는 자가 당간幢竿 건립을 발원하였다. 그가 죽자 사촌형 당대등 김희일金希一과 대등 김수△金守△, 김석희金釋希, 김관겸金寬謙 등이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감독하였다. 청주는 통일신라 때 서원경西原京이었다. 983년(성종 2) 당대등, 대등은 각각 호장戶長, 부호장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당간 건립을 주도하였던 김씨들은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서원경에 옮겨 살게 하였던 徙民 진골귀족의 후예들로서 청주의 대호족이었다.

중앙정부는 변경과 해안 지역의 방비를 위해 군진을 설치하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그런데 군진의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호족들이 나타났다. 예성강 이북 대동강 이남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 782년(선덕왕 3) 황해도 평산에 패강진浿江鎭이 설치되었다. 평산 박씨의 시조 박직윤朴直胤은 박혁거세의 후예였지만, 평산의 지방관으로 나갔다가 그곳에 정착하였다. 그는 대모달大毛達을 칭했다. 대모달은 고구려의 대모달大模達로서, 이는 중국의 장군에 비견되는 무관직이었다. 박직윤은 패강진의 지휘관에서 평산의 호족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신라의 장군이 아닌 고구려의 대모달을 칭하였던 것은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하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지배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패강진 외에도 육군이 주둔하였던 삼척의 북진北鎭, 해군이 주둔하였던 강화의 혈구진穴口鎭, 화성의 당성진唐城鎭 등이 있었다. 또 서해안과 남해안에 걸쳐 이름이 전하지 않는 군진들이 더 있었다. 이러한 군진의 지휘관들 중에서도 호족이 된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청해진은 해체되었지만, 이후 서해안과 남해안의 여러 곳에서 해상세력가들이 등장하였다. 태조 왕건의 조부 작제건作帝建은 상선을 타고 서해를 항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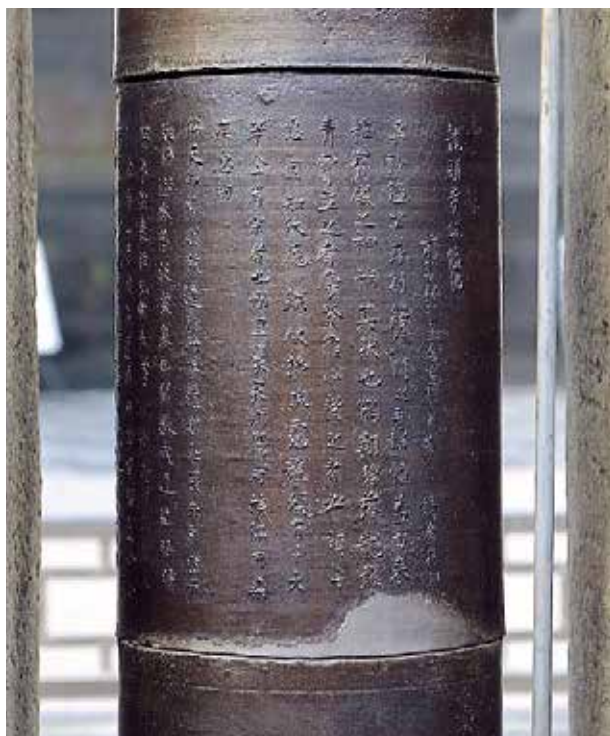
그림 3 청주 용두사지 철당간(좌)와 철당간 명문

하던 중 서해 용왕의 딸과 결혼하고 7가지 보물을 얻어 돌아 왔다고 한다. 이에 예성강과 한강 하구 일대 4개주 3개현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영안성永安城을 쌓고 궁실을 지었다고 한다. 이 설화는 작제건이 해상무역에 종사하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고, 이를 바탕으로 송악松嶽(개성) 일대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갔음을 시사한다. 작제건의 아들 왕륭王隆은 896년(진성여왕 10) 송악군의 사찬沙粲으로서 "군郡을 들어 궁예에게 귀부"하였다. 왕륭은 송악의 호족 내지는 그에 버금가는 존재였다.

왕봉규王逢規는 924년(경명왕 8)에 천주절도사泉州節度使로서 후당後唐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927년(경애왕 4) 3월에는 후당의 명종明宗이 권지강주사權知康州事 왕봉규를 회화대장군懷化大將軍으로 삼았다. 같은 해 4월에는 지강주사知康州事 왕봉규가 임언林彦을 보내 조공했는데, 명종이 그를 중흥전中興殿에서 불러 보고, 물건을 하사하였다. 천주는 경남 의령이고, 절도사는 지방의 군사행정을 맡던 당의 관직이다. 강주는 지금의 진주이고, 지사는 당의 지주제군사知州諸軍事의 줄임말인 듯하다. 왕봉규는 절도사나 지사를 자칭하던 호족이었다. 그는 후당과 무역을 통해 얻은 경제적 이득을 바탕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을 것이다.

봉기한 농민들을 이끌던 자들이 호족이 된 경우도 있었다. 905년(효공왕 9) 평양平壤(평양)의 성주·장군 검용黔用과 평양 인근 증성甑城(증산군)의 적의·황의적赤衣·黃衣賊 명귀明貴 등이 궁예왕에게 귀부하였다. 검용이 성주·장군이었던 반면 명귀 등은 도적이라고 나온다. 명귀 등이 붉은 옷과 누런 옷을 표지로 하였다는 점에서 붉은 바지를 표지로 하였던 적고적과 통한다. 적고적이나 적의·황의적은 모두 봉기한 농민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다. 단 전자는 일정한 근거지를 갖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약탈하다가 소멸하였다. 이에 비해 후자는 증성에 정착해 호족화하였던 것으로 본다.

압해현壓海縣(신안 압해도)의 도적 우두머리賊帥 능창能昌은 도망자들亡命을 불러 모아 세력을 형성하였다. 909년(효공왕 13) 그는 인근 섬의 다른 도적들小賊과 연합해 왕건과 그의 군대를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붙잡혀 궁예왕에게 압송되었다. 왕은 "해적海賊들이 너를 우두머리로 추대하였는데 이제 포로가 되

었다"고 그를 비웃었다고 한다. 이를 보면 능창은 신안 일대의 섬들을 중심으로 상당한 세력을 형성하고 명성을 떨쳤던 듯하다. 능창은 도적이 되거나 떠돌이가 된 농민들, 어민들을 규합하여 압해현을 지배하는 호족으로 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촌주는 지방의 토착세력가로서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을 보좌해 촌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지방 관부에서 말단 행정을 맡았던 이吏도 촌주와 같은 토착세력가들이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 그 정치적, 사회적 지위를 높여 갔을 것이다. 촌주 우련은 원종과 애노 등이 이끈 상주의 농민봉기군에 맞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다. 우련은 농민봉기군으로부터 자신의 토착 기반을 보호하려고 선봉에 섰을 것이다. 국왕은 우련의 어린 아들로 하여금 촌주의 지위를 잇도록 하였다. 889년의 농민봉기는 촌주와 이吏와 같은 토착세력가들이 호족이 되거나 혹은 호족으로서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독립성

호족들은 중앙정부를 모방하여 나름대로의 관부와 관직을 두었다. 925년(경애왕 2) 고울부高鬱府(영천) 장군 능문能文이 사졸들을 거느리고 고려에 귀부하였다. 이 때 시랑侍郎과 대감大監의 관직자들이 그를 수행하였다. 시랑은 집사성執事省의 차관, 대감은 병부兵部, 시위부侍衛府 등의 차관에 해당하는 관직이었다. 명주의 김예는 940년(태조 23) 명주의 도령都令으로서 좌승佐丞의 관계를 갖고 있었다. 그는 집사낭중執事郎中, 원외랑員外郎, 색집사色執事 등의 관직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다. 청주의 대호족들이 칭하였던 당대등과 대등은 화백의 상대등과 대등에서 비롯된 관직이다. 그들은 일종의 회의체를 구성해 청주 지방의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것이다. 이들 아래로는 병부兵部, 학원學院 등의 관부가 있었고, 시랑, 병부경, 학원경, 학원낭중, 사창司倉 등의 관직이 설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호족의 지위 내지는 지배권은 세습되었다. 그렇지는 않았더라도 같은 혈연집단 안에서 그 지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혹 다른 족단族團에서 그 지위

를 차지하였다면 그것은 서로 간의 타협의 산물이거나 실력 대결의 결과였을 것이다. 이와 달리, 지방관은 중앙정부에서 임명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교체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는 특정 지역에 오래 재임하면서 그 지역 토착세력과 결탁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 중앙정부에서 외사정外司正을 파견하여 지방관을 감시하였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점, 호족과 지방관의 큰 차이로 지적할 수 있다.

호족들은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거나 노동력을 징발하였는데, 이는 호족들의 세력 기반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사용되었다. 호족들은 노비를 무장시키거나 유민을 불러 모아 사병을 양성하였다. 유사시에는 농민들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지방관은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중앙정부에 올리거나 중앙정부의 명에 따라 그들을 역역에 동원하였다. 지방에 배치되어 있는 군단이나 지방군을 동원해 그 지방에 대한 치안의 책임을 졌다. 이 점 호족과 지방관의 또 다른 차이였다. 호족들은 정치적으로는 물론이고, 경제적, 군사적으로도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이었던 것이다.

호족들 중에는 신라에 충성하는 호족들도 있었다. 가령 수창군의 '호국의영도장' 이재가 그러하였다. 하지만 더 많은 호족들이 신라에 등을 돌렸거나 독립적인 태세를 취하였다. 후백제나 고려에 귀부한 호족들도 적지 않았다. 매곡현昧谷縣(보은군 회북면)의 장군 공직龔直은 후백제를 섬겨 견훤왕의 심복이 되었다. 그 후 그는 고려의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호족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신라, 후백제, 고려 중 나라를 선택하였다. 이제 신라의 운명은 호족들의 향배에 달리게 되었다.

3 후삼국의 정립과 신라의 멸망

후백제와 후고구려의 건국

견훤은 867년(경문왕 7) 사불성의 장군 아자개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20세 무렵 종군從軍하여 왕경에 들어갔다. 이후 서남 해안을 지키는 부대에 배치되어 비장裨將으로 출세하였다. 889년(진성여왕 3)에 전국적으로 농민들이 봉기하자 이 틈을 타 신라에 반기를 들었다. 견훤은 892년(진성여왕 6) 무주武州(광주)를 점령하고 왕 노릇을 하였다. 그러나 공공연히 왕을 칭하지는 않고, "신라서면도통新羅西面都統" 등의 관직을 자칭하였다. 형식적으로 신라의 서부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임을 자처하였던 것이다. 명분상 아직 신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900년(효공왕 4) 견훤은 백제의 복수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건국하였다. 완산주完山州(전주)에 행차한 견훤은 "신라의 김유신金庾信이 흙먼지를 날리며 황산黃山을 거쳐 사비泗沘에 이르러 당 나라 군사와 합세하여 백제를 멸망시켰다. 지금 내가 감히 완산에 도읍하여 의자왕의 오래된 울분을 씻지 않겠는가!"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이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었던 옛 백제에 대한 기억을 이용해 백제를 세웠던 것이다. 이를 삼국시대의 백제와 구별하여 후백제라고 부르고 있다.

견훤왕은 건국하자 곧 오월吳越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이에 대해 오월왕은 답례의 사신을 보내고, 검교태보檢校太保의 관직을 더하여 주었으며, 나머지는 전과 같이 하였다고 한다. 사신의 교환 시기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여하튼 견훤왕은 오월로부터 국제적 인정을 받아 국내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높이려고 하였다. 후백제왕 견훤은 지방 호족의 아들이었고, 또 방수군의 지휘관 출신이었다. 그런 만큼 신라의 권위에 맞서기 위해서는 중국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절실하였을 것이다.

901년(효공왕 5) 8월 견훤왕은 대야성大耶城(합천)을 공격하였다. 대야성은 삼국시대에도 백제와 신라가 쟁패하던 요지였다. 김춘추金春秋의 사위 김품석金品釋이 이곳을 지키다가 백제군의 공격을 받아 전사하였던 일도 있었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후백제의 침공을 막는 최일선 기지가 바로 대야성이었다. 신라는 대야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후백제군의 동진을 일단 저지하였다.

영월 세달사의 승려였던 궁예는 891년(진성여왕 5) 죽주竹州(안성 죽산면)의 세력가 기훤箕萱의 부하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북원北原(원주)의 양길梁吉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894년(진성여왕 8)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였고, 896년(진성여왕 10) 무렵 철원鐵圓(철원)을 중심으로 중북부 지방을 차지하였다. 899년(효공왕 3)에는 옛 주군主君이었던 양길의 군대를 격파하였고, 901년(효공왕 5) 건국하였다. 궁예는 "지난날 신라가 당 나라에 군사를 청하여 고구려를 깨뜨렸다. 그런 까닭에 평양 옛 도읍은 무성한 잡초로 꽉 차 있다. 내가 반드시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고구려의 복수를 내걸고 고려(후고구려라고 함)를 세웠다. 이후 904년(효공왕 8) 나라 이름을 마진摩震으로 바꾸었고, 911년(효공왕 15)에는 다시 태봉泰封으로 바꾸었다.

궁예왕은 906년(효공왕 10) 무렵 상주 일대를 차지하였다. 이 때 풍수지리설을 이용해 금성이 곧 몰락할 것이라는 예언을 널리 퍼뜨리도록 했다. 또 신라로부터 와서 항복한 자들을 모두 죽였다고 한다. 아마도 신라의 왕족 등 지배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였던 것이 이렇게 전해지게 되었을 것이다. 궁예왕은 순행 중 부석사浮石寺에 들렀다. 그때 벽에 그려진 신라왕의 초

상화를 칼로 내리쳤다. 그 칼자국이 고려 때에도 남아 있었다고 한다. 부석사 사건은 금성의 지배층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던 것과 서로 통한다. 상주에 진출한 후 궁예왕은 신라에 대해 적대적인 입장과 정책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였다.

궁예는 본래 왕자 출신으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왕으로부터 죽음을 당할 위기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다고 전한다. 하지만, 『삼국사기』 편찬 때까지도 그의 부왕이 누구인지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왕자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궁예가 유력한 진골 귀족 가문의 후예로서 정권 다툼에 희생되어 어린 나이에 지방으로 몰려났으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것은 여하튼, 궁예왕의 반신라적 언행은 신라의 왕실과 지배층에 대한 깊은 원한에서 비롯된 측면이 컸다고 여겨진다.

궁예왕이 신라를 병합할 뜻을 공공연히 드러냈지만, 이후 신라를 공격하였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그는 904년(효공왕 8) 국호를 마진으로 하고, 연호를 무태武泰로 하면서 국가의 면모를 일신하려고 하였다. 즉 광평성廣評省을 비롯한 여러 관부와 관직을 정비하였으며, 관등체계도 마련하였다. 905년(효공왕 9)에는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겼다. 궁예왕은 대내적으로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던 것같다. 또 909년(효공왕 13)부터는 나주 일대를 두고 후백제와 여러 차례 전투를 벌였다. 이러한 사정으로 궁예왕은 더 이상 신라를 공격하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후백제도 나주 일대의 전투 때문에 신라 침공을 본격화할 형편은 아니었다. 신라로서는 일단 다행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궁예왕은 자신이 하생한 미륵불임을 자칭하였다. 그는 국왕으로서 정치적인 권위는 물론 종교적인 권위도 오로지 하였다. 미륵관심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내세우면서 모반의 혐의를 걸어 자신을 반대하는 정치세력을 숙청하였다. 그는 신정적神政的 전제주의를 추구하였거니와, 이는 광범위한 반발을 초래하였다. 918년 6월 왕건을 앞세운 정변으로 태봉은 멸망하고, 고려가 섰다. 왕건이 즉위하니 그가 고려 태조였다.

친고려정책과 후백제의 금성 침공

신라는 920년(경명왕 4) 정월 고려와 사신을 교환하고 우호 관계를 맺었다. 같은 해 10월 견훤왕이 보병과 기병 1만을 이끌고 대야성을 함락한 다음 진례進禮(김해) 방면으로 진군하였다. 신라로서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었다. 이에 경명왕은 아찬 김율金律을 보내 고려 태조 왕건에게 구원을 요청하였다. 태조 왕건이 구원군을 파견하자 견훤왕은 회군하였다. 경명왕과 태조 왕건은 군사동맹을 포함한 외교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921년(경명왕 5) 2월에 말갈靺鞨의 별부別部 달고達姑 사람 171인이 신라의 북쪽 변경 등주登州(안변)를 침범하였다. 이 때 삭주朔州(춘천)를 지키던 고려의 장군 견권堅權이 기병을 이끌고 공격해 크게 격파하였다. 이에 대해 경명왕은 사신과 편지를 보내 태조 왕건에게 사례하였다. 신라와 고려가 군사적 동맹국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태조 왕건은 920년(경명왕 4) 10월 구원군을 요청하러 고려에 갔던 김율에게 신라의 이른바 호국삼보, 즉 황룡사皇龍寺 장육존상丈六尊像과 9층탑九層塔 그리고 진평왕에게 하늘이 내려주었다는 옥대天賜玉帶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이 삼보가 신라의 권위를 종교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이라는 점에서 신라의 권위에 대한 태조 왕건의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태조 왕건은 안으로는 궁예왕의 잔존 세력 내지는 자신의 즉위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반발을 수습해야 했다. 밖으로는 각지의 호족들에게 사신을 보내 선물을 넉넉하게 주고 겸손한 말로써 그들의 이탈을 막아야 했다. 이런 노력 끝에 최대의 적국이라고 할 수 있는 후백제와도 일시적이나마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송악의 호족 출신으로, 궁예왕 밑에서 장군, 재상 노릇을 한 태조 왕건은 무엇보다 국왕으로서의 권위를 필요로 했을 것이다. 이것이 고려가 신라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나섰던 배경이었을 것이다.

한편, 경명왕도 신생 고려의 태조 왕건과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신라로서는 최대의 위협이 되었던 궁예왕의 몰락은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한편, 신라의 권위를 필요로 하였던 태조 왕건은 신라 왕실의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를 취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신라는 고려와 후백제

의 우호 관계를 막아야 했다. 견훤왕은 918년 8월 일길찬一吉粲 민합閔郃을 보내 태조 왕건의 즉위를 축하하였다. 태조 왕건은 민합을 후한 예로 대접하고 돌려보냈다. 즉위 초 태조 왕건으로서는 견훤왕의 사신 파견을 환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다. 이에 신라로서는 두 나라의 친선 관계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신라가 고려와의 통교를 추진하였던 배경은 이상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신라가 고려와 우호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려는 더 이상 반란세력이 세운 국가가 아니라 신라로부터 인정받은 정식 국가가 되었다. 신라의 위상은 추락한 반면 고려의 위상은 크게 올라갔다. 두 나라가 우호 관계를 맺은 직후인 920년(경명왕 4) 2월 강주康州(진주) 장군 윤웅閏雄이 고려에 귀부한 이래 경상도 일대 호족들의 고려 귀부가 줄을 이었다. 즉 922년(경명왕 6) 정월에 하지성下枝城(안동 풍산) 장군 원봉元逢과 명주溟州(강릉) 장군 순식順式이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였다(원봉의 귀순이 6월이었다는 설도 있음). 진보성眞寶城(의성) 장군 홍술洪述(혹은 洪術)도 이 때 귀부하였다. 그는 922년 11월에 고려에 사신을 보내어 항복을 청하였고, 이듬해 11월에는 아들 왕립王立을 보내 갑옷 30벌을 고려에 바쳤다고도 전한다. 923년(경명왕 7) 7월(혹은 8월)에는 경산부京山府(성주) 장군 양문良文 등이 고려에 귀부하였다. 이제 신라는 더욱 고려에 기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경명왕은 924년(경명왕 8) 8월에 죽었다. 이에 태조 왕건은 사신을 보내 조문하였다. 경명왕을 이어 즉위한 경애왕은 곧 태조 왕건에게 사신을 파견하였다. 조문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앞으로의 우의를 다짐하였을 것이다. 925년(경애왕 2) 10월에 고울부高鬱府(영천) 장군 능문能文이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였다. 태조 왕건은 그 휘하의 시랑 배근盃近과 대감 명재明才, 상술相述, 궁식弓式 등은 머물게 하고, 능문은 타일러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 이유는 고울부가 신라의 왕도에 가깝기 때문이라고 해서 신라 왕실을 배려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보다는 고려가 신라 왕경을 감시하면서 그 사정을 알 수 있는 전진 기지를 확보하였다는 점에 더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이다.

925년(경애왕 2) 10월 고려와 후백제는 인질을 교환하고 휴전하였다. 그 해 11월 경애왕은 태조 왕건에게 사신을 보내 화친의 불가함을 전했다. 그런데 이때의 휴전은 고려가 군사적 열세를 모면하기 위해 먼저 제의하였던 것이다. 따

라서 휴전은 당분간 유지되었다. 926년(경애왕 3) 4월에 후백제의 인질이 갑자기 죽었다. 견훤왕은 고려가 고의적으로 인질을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군대를 웅진熊津(공주)까지 보냈다. 태조 왕건은 여러 성에 명령하기를 성벽을 견고히 하고 나가 싸우지 말라고 하였다. 이때에도 경애왕은 사신을 파견하여 태조 왕건에게 후백제를 공격할 것을 종용하였다. 이에 대해 태조 왕건은 때를 기다릴 뿐이라고 유보적인 답변만 하였다. 아직 후백제군의 공격을 당해내기 힘들다는 판단에서였을 것이다. 경애왕은 고려를 충동해 후백제를 칠 것을 계획하였지만, 고려의 군사적 열세로 인해 그대로 실행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927년(경애왕 4) 정월 태조 왕건은 군대를 이끌고 후백제가 차지하였던 용주龍州(예천 용궁)를 쳤다. 이때 경애왕은 군대를 보내 그를 도왔다. 신라에서 과연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였는지 모르지만, 고려-신라군의 연합 작전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로써 경애왕의 후백제에 대한 일련의 적대 정책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는 견훤왕에게 큰 압박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견훤왕이 금성을 침공하였던 배경의 하나는 이에서 찾을 수 있다.

927년(경애왕 4) 9월에 견훤왕이 고울부를 습격하고 금성 근처까지 이르렀다. 경애왕은 연식連式을 태조 왕건에게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태조 왕건은 시중侍中 공훤公萱 등으로 하여금 정예 병사 1만을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견훤왕은 구원병이 아직 이르지 못한 틈을 타 11월 갑자기 왕경을 공격해 점령하였다. 왕비와 후궁들, 종척들과 함께 포석정에 행차했던 경애왕은 황급히 몸을 숨겼지만, 결국 후백제군에게 붙잡혔다. 견훤왕은 경애왕으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뒤 김부金傅를 경순왕으로 삼았다. 그리고 고위 귀족들을 인질로 잡고 각종 보물을 약탈해 돌아갔다. 태조 왕건은 사절을 파견해 경애왕의 죽음을 조문하였다. 또 직접 정예 기병 5천을 이끌고 팔공산 동화사桐華寺 인근에서 후백제군과 싸웠으나 크게 패하였다. 태조 왕건은 심복 장군들을 잃은 채 구사일생하였다. 이로써 신라는 왕경조차 수호할 힘을 갖지 못하였음을 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견훤왕은 금성을 습격하고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은 12월에 태조 왕건에게 편지를 보내 자신이 "존왕尊王"의 의리를 중시하였으며 종묘와 사직을 구하

그림 4 경주 포석정

려 왕경에 들어갔지만, "간신은 도망하고, 왕이 돌아가시는 변"을 당하였다고 금성 침공에 대해 강변하였다. 이에 대해 태조 왕건도 자신이 "조정을 구원하고 국가의 위태로움을 붙들어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여 역시 신라에 대한 "존왕"의 의리를 내세웠다. 비록 이것이 외교문서에 나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문투라고 하더라도 신라에 대한 궁예왕의 적대적 태도와는 매우 다르다. 당시 신라의 군사적 지위는 보잘 것이 없었지만 상징적 지위는 높아서 견훤왕과 태조 왕건이 종주국으로 대접하였던 것이다.

한편, 견훤왕의 금성 습격과 관련하여 박씨 왕실에 대해 불만을 품은 김씨 왕족들이, 고려와 동맹하여 후백제를 적대시하였던 박씨 왕실에 불만을 가진 견훤왕을 끌어들여 경애왕을 제거하였으리라는 추론도 있다. 즉 견훤왕은 김씨 진골세력의 묵인 내지는 내응에 힘입어 금성을 습격할 수 있었고, 김부를 왕으로 옹립한 것은 이들의 희망 내지는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경순왕의 고려 귀부

경순왕은 927년(경순왕 원년) 11월 경애왕의 장례를 치렀고, 태조 왕건은 사신을 보내 조문하였다. 이후에도 후백제와 고려의 격돌은 계속되었는데, 후백제가 먼저 기선을 잡았다.

927년 12월에 견훤왕은 대목군大木郡(칠곡군 약목면)에 침입하여 쌓아놓은 곡식을 불태웠다. 928년(경순왕 2) 정월에는 고려의 장수 김상金相이 초팔성草八城(합천군 초계면)에서 후백제 장수 흥종興宗과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5월에는 강주장군康州將軍 유문有文이 견훤왕에게 귀부하였다. 8월에는 견훤왕이 장군 관흔官昕에게 명하여 양산陽山(충북 영동)에 성을 쌓았는데, 태조 왕건의 명을 받은 명지성命旨城(포천) 장군 왕충王忠의 공격으로 퇴각하였다. 그러자 견훤왕은 대야성으로 물러나 주둔하면서 군사를 보내 대목군의 곡식을 빼앗아갔다. 10월에는 후백제군이 무곡성武谷城(위치 미상)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11월에는 견훤왕이 정병을 선발하여 오어곡성烏於谷城(위치 미상)을 공격하여 함락하였다. 929년(경순왕 3)에도 후백제의 공세는 계속되었다. 7월에 견훤왕이 의성부성義城府城(의성군)을 치니 장군 홍술洪述이 나가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어 순주順州(안동시 풍산면)의 장군 원봉元逢이 견훤왕에게 항복하였다. 10월에는 견훤왕이 가은현加恩縣(문경시 가은면)을 공격했으나 함락시키지는 못하였다.

수세에 몰리던 고려는 930년(경순왕 4) 정월 태조 왕건이 고창군古昌郡(안동) 병산甁山에서 견훤왕을 크게 무찌르면서 승기를 잡았다. 2월 태조 왕건이 승리를 알려오자 경순왕은 사신을 보내 서로 만나기를 청하였다. 이미 안동과 청송 일대의 수십 군현이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는 등 형세가 고려에 크게 유리하게 전개되었던 것이다. 명주에서 흥례부興禮府(울산)에 이르기까지 110여 성이 태조 왕건에게 귀부하였던 것도 이 해의 일이었다.

931년(경순왕 5) 2월에 태조 왕건은 50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경기京畿에 와서 경순왕을 만나기를 청하였다. 수행한 병력을 최소화하고 입경의 허락을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었지만, 양자의 우열은 분명한 것이었다. 경순왕은 백관百官을 이끌고 교외에서 태조 왕건을 맞이하였다. 태조 왕건은 왕경에서 2개월

이상 머물렀다. 이때 경순왕과 태조 왕건은 신라의 운명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을 협상하였을 것이다. 개경으로 돌아온 태조 왕건은 931년(경순왕 5) 8월 경순왕에게 채색 비단과 안장 얹은 말을 보내고, 여러 신료와 장사將士에게 베와 비단을 하사하였다. 또 백성들에게는 차와 복두幞頭, 승니僧尼에게는 차와 향을 나누어 주었다. 태조 왕건은 왕경의 민심이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한편으로 태조 왕건은 왕경의 동태에 대한 군사적 감시 내지는 압박도 늦추지 않았다. 그는 일어진昵於鎭을 왕경에서 가까운 포항 신광면에 설치하고, 이미 930년 2월 그 곳에 행차하였다. 왕경을 방문한 후에도 대광大匡 능장能丈 등으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경주 인근에 주둔하도록 하였다. 한편, 933년(경순왕 7) 후백제 군대가 혜산성槥山城(경주 부근)과 아불진阿弗鎭(경주 부근) 등에서 활동하자 대광 유금필庾黔弼을 보내 그들이 왕경을 침공하는 것을 사전에 막도록 하였다. 유금필은 사탄槎灘(경산 하양)에서 후백제의 통군統軍 신검神劍이 이끄는 군대를 물리치고 입경하였다. 이 때 금성의 주민들이 성 밖에 나와 "대광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어육魚肉과 같이 무참히 죽었을 것입니다"고 하면서 울었다고 한다. 후백제가 다시 왕경을 침공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상당하였던 모양이다. 유금필은 7일 동안 금성에 머물렀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신검의 군대를 크게 무찔렀고, 이에 위급한 상황은 일단락되었다.

934년(경순왕 8) 9월에 고려는 운주運州(홍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후백제에 대해 확실한 우위를 차지하였다. 견훤왕이 갑사甲士 5천을 이끌고 직접 출전하였는데, 유금필이 선봉이 되어 3천명 넘는 후백제 장병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웅진 이북의 30여 성은 이 소문을 듣고 고려에 귀부하였다.

한편 후백제 내부에는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큰 변동이 발생했다. 견훤왕은 아내를 많이 얻어 아들이 10여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넷째 아들 금강金剛을 특히 아껴서 그에게 왕위를 전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큰 아들 신검神劍과 그의 동생 양검良劍, 용검龍劍 등이 반발하였다. 935년(경순왕 9) 3월 신검 등은 정변을 일으켜 견훤왕을 금산사金山寺(김제)에 유폐했다. 그러나 견훤왕은 그 해 6월 일행을 이끌고 나주를 거쳐 고려에 망명하였다. 형세는 완연히 고려로 기울었고, 견훤왕마저 고려에 의탁한 상황이었다.

그림 5 연천 경순왕릉

경순왕은 9년(935) 10월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고려에 항복할 것을 논의하였다. 신하들의 의논은 찬성과 반대로 갈렸지만 왕은 시랑侍郎 김봉휴金封休로 하여금 항복의 뜻을 밝힌 편지를 태조 왕건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항복을 반대하였던 왕자는 왕에게 하직하고 바로 개골산皆骨山(금강산)에 들어가 바위에 기대어 집으로 삼고, 삼베옷을 입고 풀을 먹으며 일생을 마쳤다고 한다. 그가 유명한 마의태자麻衣太子이다. 11월 경순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왕경을 출발하였는데, 그 행차는 30여 리에 걸쳐 이어졌다. 태조 왕건은 교외에서 경순왕을 맞이하여 위로하고 좋은 집을 주었으며, 장녀 낙랑공주樂浪公主를 시집보냈다. 12월에는 김부를 정승공正承公(혹은 政丞公)으로 봉하고, 봉록俸祿 1천 석을 주었다. 금성을 경주慶州라고 김부의 식읍食邑으로 삼았다. 이로써 천년 신라는 막을 내리고 말았다.

4

신라에서 고려로

쇠망의 여러 원인

신라의 멸망과 고려의 성립을 고대에서 중세로의 전환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이 점 로마제국의 멸망과 중세의 개시라는 서양사의 전개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에 착목하여, 로마제국의 쇠망 원인에 대한 제 견해를 참조하면서 천년왕국 신라의 쇠망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들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기도 하였다. 이제 신라의 쇠망 원인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사상적, 국제적 측면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던 화백회의는 통일 이후에도 존속하였다. 그런데 중대의 화백은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잃었다. 이에 비해 국왕의 직속기관으로 출발해 국왕과 제관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던 집사부가 중시되었다. 그 장관인 중시(시중)는 왕권의 안전판 역할을 하였다. 왕권은 강화되었고, 권력은 무열왕계 근친왕족들에 의해 독점되어 갔다. 여기에서 소외된 진골귀족들의 반발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하대가 개막되었지만, 이번에는 원성왕계 근친왕족들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에 진골귀족들의 분열과 상쟁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헌덕왕 때에는 무열왕계인 김헌창이 원성왕계의 독주에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켰다. 그는 신라를 부정하고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표방하였는데, 난은 전국을 강타하였다. 흥덕왕이 죽은 후에는 2년 남짓한 동안 치열한 왕위쟁탈전이 벌어졌다. 이 때 유력한 왕위계승자 김균정과 희강왕, 민애왕이 희생되었다. 이들은 모두 원성왕의 자손들이었다. 분지分枝된 왕실 각 가계의 장長들이 왕권을 놓고 다투었던 것이다.

이렇게 진골귀족들이 왕위를 놓고 다투는 동안 중앙정부의 지방지배력은 약화되었다.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가 잦았고, 이로 인해 자주 흉년이 들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을 잃어갔다. 기근이 들면 대규모 유민이 발생하였다. 농민들은 때로 도적이 되어 질서를 어지럽혔다. 한편으로는 호족이라고 불리는 지방세력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통일기 신라는 지방을 9주 5소경으로 편제하고, 군현을 두어 지방 지배를 강화하였다. 신라 촌락문서에 알 수 있듯이 중앙정부는 각 촌의 상황을 상당히 자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점차 지방에 대한 지배권은 호족들에게로 넘어갔다. 멸망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는 진골귀족들의 분열과 상쟁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경덕왕 때 부활한 녹읍은 진골귀족들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그들은 이에 더하여 조상 전래의 사유지를 갖고 있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장을 소유하기도 하였다. 진골귀족들은 이를 기반으로 매매, 겸병 등의 방법으로 대토지소유자가 되었다. 한편 사원도 왕실과 진골귀족들로부터 토지를 기증받거나 매입, 겸병을 통해 소유 토지를 늘려갔다. 이들의 농장은 합법적으로 혹은 비합법적으로 면세의 혜택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몰락하게 되었다. 진골귀족들이나 사원이 부담해야 할 세금이나 유망해버린 농민들의 세금은 남아 있는 농민들에게 전가되었을 것이다.

신라의 농민들은 삼국 간의 전쟁 등을 통해 적지 않은 희생을 감수했다. 또 흉년과 기근도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였다. 통일기 지방 농민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촌락문서와 관련하여, 그것이 작성된 시기, 해당 촌락의 성격 등 연구자 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들이 적지 않다. 다만 이들 촌락이 영락零落해 갔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촌락의 가

호家戶는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에 이르기까지 9등급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최고 등급의 가호는 중하연仲下烟이었고, 그 수도 적다. 반면에 최하인 하하연이 가장 많다. 또 도망하거나 유리한 가호들이 있으며, 인구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정丁의 수가 정녀丁女의 수보다 훨씬 적은데, 이는 역役을 피해 유망하려는 경향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이 결국 889년 즉 진성여왕 3년 농민들이 전국적으로 봉기하게 된 근본적인 배경으로 파악할 수 있다.

834년(흥덕왕 9) 흥덕왕은 귀족들 사이에서 만연하고 있던 사치풍조를 규제하기 위해서 교서를 반포하였다. 이를 보면 타슈켄트와 아랄해 지방에서 나오는 보석인 슬슬瑟瑟, 양모를 주성분으로 한 페르시아산 고급 모직물, 캄보디아산인 비취모翡翠毛, 보르네오, 자바산 대모玳瑁, 자바, 수마트라산의 향내 나는 자단紫檀 등 외래 사치품의 이름이 다수 열거되어 있다. 하대 진골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은 소위 금입택이다. 가령 일본사의 경우 놀랄 만한 사치 때문에 망했다고 이야기 되는 무로마치室町 막부 시대의 건물은 고작 작은 누각에 금박金箔 혹은 은박銀箔을 입힌 데 불과했다. 이에 비해 금입택은 창경궁昌慶宮 내 연경당演慶堂 정도의 큰 건물에 금박으로 장식한 것이었다. 이러한 금입택이 왕경 안에 39개 이상이나 존재했다.

9세기 왕경 귀족들의 사치 풍조, 퇴폐적 풍조에 대해, 이를 '병든 도시문화'로 규정하면서, 이것이 '건강한 농촌'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멸망될 것이라고 본 견해가 주목된다. 왕경의 번영이라는 것은 곧 지방 농민들의 희생을 기초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889년 농민봉기는 이에 대한 지방농민들의 분노가 표출된 것이며, 이를 타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골품제는 기본적으로 왕경인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였다. 중앙 정부에서 주州와 소경小京에 진골귀족을 비롯하여 왕경의 지배층을 정책적으로 옮겨 살게 하였다. 하지만 그들은 점차 정치적 출세의 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감수하게 되었을 것이다. 통일신라의 5소경 중 금관소경을 제외하고는, 마치 왕경을 옹위하는 것처럼, 원신라 지역의 외곽에 위치하였다는 점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의 유력자들에게는 왕경의 귀족에게 주는 경위京位와는 별개로 외위外位를 주었다. 통일전쟁을 거치면서는 그들에게도 경위를 주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골품귀족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중앙정부의 관리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었다. 촌주들은 4, 5두품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을 뿐이다.

신라 말 전국 각지에서는 지방세력가들이 대두하였다. 호족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태세를 취하였다. 900년 견훤은 백제의 복수를 내세우면서 건국하였다. 901년 궁예는 고구려의 원수를 갚겠다고 하면서 건국하였다. 왕건이 918년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후에 태봉의 국호를 고려로 바꾼 것도 고구려의 계승을 표방한 것이었다. 이들은 백제, 고구려 유민들의 호응을 예상하고 건국하였다. 호족들 중에는 신라에 등을 돌리고, 후백제나 고려에 귀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방 할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였던 것은 왕경 중심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중대에 하층민들 사이에는 염세적이고, 현실도피적인 성향이 강한 아미타정토신앙이 크게 유행하였다. 현실도피는 현실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는 것이지만, 현실을 개혁하려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아미타정토신앙은 오히려 중대 신라의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데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신라 하대에는 당시를 말세로 여기는 생각이 퍼져 있었고, 농민들은 미륵의 하생을 대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궁예왕이 미륵불을 자칭하였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미륵불은 이 세상에 나타나서 이상세계를 실현하는 부처이다. 따라서 미륵하생신앙은 현실에 대한 개혁과 연관될 소지가 크다. 말세의식의 심화와 미륵하생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신라 말 농민들을 봉기로 이끈 배경 중 하나였다고 본다.

한편 중대 이래 왕실과 진골귀족들은 화엄종을 크게 존숭하였다. 하대에 들어서는 선종이 수용되어 점차 영향력을 강화하였다. 선사들은 처음에는 왕실의 후원을 받는 등 왕실과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점차 왕실보다는 지방의 호족들과 결합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종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은 중앙정부에 대해 독립적인 태세를 취하며, 할거하였던 호족들의 구미에 맞는 것이었다. 반란 국가인 후백제나 고려 왕실의 후원을 받는 예도 늘어났다. 선사들에 의해 크게 유행하였던 풍수지리설도 호족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호족들

은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존재를 합리화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왕경 중심의 국토관은 깨어질 수 밖에 없었다.

신라의 흥망은 동아시아 세계의 변동과 무관하지 않았다. 중국을 통일한 수당隋唐은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추구하였다. 그것이 삼국 간의 상쟁과 맞물려 결국 통일신라와 발해의 성립으로 귀결되었다. 이 무렵 일본에서는 다이카大化 개신과 다이호大寶 율령으로 상징되는 고대 천황제 국가가 성립하였다.

신라의 멸망은 당과 발해의 멸망, 일본에 있어서 천황 친정親政의 종언과 후지와라藤原 가문에 의한 소위 셋칸攝關 정치의 대두 등 동아시아 왕조의 변동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 한국 역대 왕조 존속의 한 요인으로서 중국에 대한 조공제도를 들고 있는 견해가 유력하다. 당의 쇠망은 필연적으로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던 신라 국왕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작용을 했다.

755년부터 안사安史의 난이 일어나 약 9년 동안 당을 뒤흔들었다. 변경에만 설치되었던 절도사제가 전국에 확산되고, 이들이 점차 자립하여 중앙권력에 도전하게 되었다. 875년에는 황소黃巢의 난이 일어나 884년까지 계속되었다. 황소의 난은 당 멸망의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선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현상은 신라 말의 농민봉기와 호족의 대두와 맞물리는 점이 있다. 신라가 당의 정세 변화에 동조同調 혹은 연동하는 듯한 현상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신라 말 고려 초는 중국의 당말唐末, 오대五代의 혼란과 송의 통일과 대응한다. 조금 시간적으로 뒤지지만 일본에서는 카마쿠라鎌倉 막부가 등장하여 중세가 시작되었다.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한, 중, 일 삼국의 사정을 비교해 본다면 신라의 쇠망과 고려의 성립이 갖는 동아시아사적 의의에 대해 어떤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변동의 의의

1960년대 이래 나온 대부분의 개설서들은 신라 말까지를 고대, 고려시대를 중세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구분이 어떤 이론적 배경을 갖는 것은 아니었다. 이

는 시간의 원근과 왕조의 교체를 고려한 편의적인 구분이었다. 그런데 삼국통일 이후 왕조 교체는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단 두 차례 밖에 없었다. 또 왕조의 수명이 길었기 때문에 일단 왕조가 바뀌면, 그에 따라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거의 전 분야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이 점에서는 위의 시대구분도 나름대로의 의미를 지닌다는 지적이 있다.

신라 말 고려 초의 총체적 사회변동을 중시하여 이 시기를 고대와 중세의 분기로 보기도 하였다. 이 견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 시기를 거치면서 친족집단의 규모가 크게 축소되어 지배세력 편성의 중추적 구실을 하였던 혈연관계망이 무너졌다. 하대 진골귀족들의 상쟁을 틈타 호족들이 성장하였으며, 이들의 기반이 되었던 농민은 고대 예민적隷民的 성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 6두품을 비롯한 중간세력이 유교정치이념을 내세우고, 교종에 대한 중세적 지성으로서의 선종을 창시하였다. 골품제도를 주축으로 하는 지배체제와는 그 조직 원리상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과거제가 실시되었고, 당송唐宋의 제도를 모방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사회경제사적인 관점에서 신라 말 고려 초를 고대와 중세의 분기로 보는 견해들도 있다. 우선 농민에 대한 수취 기준의 변화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르면 통일신라의 수취는 인정人丁과 가호家戶를 중심으로 한 인신지배적인 수취 방식이었다고 한다. 이에 비해 고려 때에는 전결田結을 단위로 한 수조권적 지배가 행해졌으며, 이로써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수취 방식으로 전환하였다는 것이다. 친족집단의 변화에 착목하기도 하였다. 신라 말 고려 초를 거치면서 조상을 기준으로 하는 집단적인 친족관계가 해체되면서 약화 소멸되었다고 한다. 반면 개인(자기) 기준의 친족관계가 확대 발달되고, 비혈연적 요소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을 통합 유지하는 공동체적 질서를 중세사회의 보편적 특성으로 간주하고, 호족들과 그 후신인 향리들이 주도한 향도공동체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신라 말 고려 초를 고대, 중세의 분기로 보기도 하였다. 이는 고도로 조직화된 정치체제가 몰락 혹은 약화된 뒤 그것을 회생시키려는 정치현상이 봉건제도라는 이론을 전제로 한다. 고려가 전국에 산재했던

호족세력을 망라하여 신라 말기 이래 혼란해진 사회질서를 바로 잡은 사실은 대제국 붕괴 후 그 주변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회복운동이 봉건제의 발생이라는 쿨본(Rushton Coulbon)의 가설과 일치하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달리 사회적 지배세력(혹은 주도세력)의 변화를 기준으로 신라 말 고려 초의 시대적 성격을 규정하는 견해도 있다. 즉 이 시대를 호족의 시대라고 파악하고, 앞선 신라 중대의 전제왕권의 시대, 뒤이은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사회와 구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구분된 각 시대의 계기성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구분은 사회세력으로서의 인간집단을 중심으로 하면서, 특정 시대의 사회 구성이라든가 정치기구나 경제조직의 운영의 실제, 사상적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신라사회를 규정하는 원리는 골품제였다. 골품에 따라 정치적, 사회적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에 차등이 있었다. 정치적 출세와 관련하여 본다면 신분에 따라 차지할 수 있는 관등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관등에 따라 맡을 수 있는 관직이 결정되기 마련이므로 결국 정부의 중요 관부의 장관令이나 장군과 같은 군대의 고위 지휘관은 진골 출신만이 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하대에 들어 이를 비판하거나, 개혁안을 제시하였던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이 있었다. 하지만 망할 때까지 골품제를 고수하였던 신라에서 이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런데, 골품제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이 왕경인王京人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는 데에 있었다. 지방 유력자들은 골품을 지니지 못하였고, 따라서 정치적 출세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이다.

하대에 들어 호족이라고 불리는 지방 유력자들이 대두하였다. 호족들은 형세에 따라 신라에 충성하기도 하고, 후백제나 고려에 속하기도 하였다. 그들 중 일부는 새로운 통일 왕조 고려의 지배세력으로서 개경에 거주하는 왕경인이 되었다. 고려 전기의 지배세력은 흔히 문벌귀족이라고 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호족 출신이었다. 비록 신라의 왕족, 귀족 가문 출신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들도 지방인이었다. 문벌귀족들은 원출신지를 본관으로 칭하면서 자신의 가문을 드러내는 한편 다른 가문과 구별하였다. 그들은 여러 지방 출신의, 서로 다른

성을 칭하는 이른바 이성귀족異姓貴族들로 이루어졌다. 이 점 왕경 출신의 왕족을 중심으로 한 진골귀족만이 지배권을 오로지하였던 신라와는 크게 달랐다.

고려 정부는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면서 호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였다. 983년(성종 2) 12목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향직鄕職을 개편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그 후 호족들은 지방관을 보좌하여 지방행정의 말단을 담당하는 향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의 위상은 신라 촌주의 그것과는 달랐다. 고려시대에 모든 행정 단위에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아니었다. 『고려사』 지리지를 보면 지방관이 파견된 곳이 146곳인 반면 그렇지 않은 곳이 무려 374곳에 달한다. 신라와 비교해보면 고려시대 중앙집권화의 정도가 현저히 약하였다.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현屬郡縣에서는 향리들이 사실상 수령의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호족의 후신으로서 지방의 지배자로서의 면모를 상당 부분 유지하였던 것이다.

고려 사회도 신라 사회와 마찬가지로 신분제 사회였다. 그러므로 신분과 그에 따른 직역도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런데 향리들은 지방에서의 지위를 토대로 과거를 통해서 중앙의 귀족이 될 수 있었다. 중앙 정부에서 이를 적극 유도하기도 하였다. 또 선군選軍을 통해 군인이 되었다가 무신으로 출세하는 경우도 있었고, 군사적 공로를 세워 출세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방의 유력자가 중앙의 귀족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었던 것은 양자가 모두 호족 출신이라는 공통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 점도 신라와는 크게 달랐다.

신라 하대에 지방에서 대두한 호족세력은 골품제와 그 정점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향유하고 있던 왕경의 진골귀족세력을 무너뜨렸다. 그들 중 일부는 새 왕조 고려의 새로운 지배세력이 되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호족의 후신이었던 향리들은 지방 지배자로서의 면모를 유지하였으며,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지배세력에 합류하였다. 특히 고려 후기에 등장한 향리 출신 사대부들은 조선 왕조 개창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지배세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신라 말 호족의 대두가 갖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집필진 (집필분담)
주보돈 경북대 들어가면서 제1편
윤선태 동국대 제2편 제1장
조인성 경희대 제2편 제2,3장

감수
노중국 계명대
이희준 경북대

편저자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 편찬위원회

발행인 **경상북도지사**
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T. 054-880-3176 F. 054-880-4229

발행처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38874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2길 38
T. 070-7113-9011 F. 054-336-8323

디자인 김새얼, 임소라, 김다영, 최샛별

사 진 오세윤

제 작 **디자인공방**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엘크루메트로시티 616호
T. 02-2285-4132 F. 02-2266-9821
http://www.designgb.co.kr

인 쇄 **㈜태웅씨앤피**

인쇄일 2016년 12월 1일

발행일 2016년 12월 30일

ISBN 978-89-6176-246-5 98910
978-89-6176-245-8 98910(세트)